민속의 부활로 본
현대 유라시아 문화 정체성

김상현

1990년대에 들어 그간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의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주제들-마약, 성, 알콜중독, 포르노, 각종 범죄 등-이 노골적으로 다루어지는가 하면, 조국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을 요구하는 다소 무게있는 메시지가 작품화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문화적으로 읽어 내려는 국내 연구의 움직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

정신적 공황 내지는 러시아적인 영혼의 부재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최근의 포스트모던의 담론들은 심심치 않게 각종 저널과 신문지상에서 비중있는 코너를 장식하고 있다. 공산 이데올로기란 일차원적 랑그의 기능만이 존재하던 소비에트 공간은 다문화의 목소리가 혼재하는 기의 (시니피에, signified)들이 여러 신호 (sign)를 창조해 내고 있는 시대로 대체된 것이다. 공산주의의 언어는 이제 죽은 지 오래이다. "혁명의 언어" (revolutionary language), "대중의 언어" (popular language), "국가의 언어" (national language), "당체제의 언어" (party-state language)로 세분한다 하더라도, 혁명의 모델을 좇아 생성된 소비에트식 언어는 한 가지의 메시지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2)] 그러나 이 죽은 빈자리의 공명을 오늘날 예술이 담당해 내고 있다. “예술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동시에 예술은 이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실험하며 이와 대항하여 승리를 벌이는 등 가설의 세계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3)]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은 독자 앞에 영원한 무한의 세계를 펼쳐보이며, 논리와 경험의 더 먼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며 예측 불가능한 것에로 향한 하나의 창인 것이다."[4)] 이 같은 맥락에서 "공산주의는 계시 종교가 보여주는 것의 정반대이다."[5)] 한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며 내부로 들어 갈수록 내면의 본질과 정수에 다다르는 '양배추 패러다임'과 달리, '속이 텅 빈 양파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논의된다.[6)] 양배추 패러다임에서 혼란이 표면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질서가 내면의 고요한 본질과 동일하게 간주된다면, 반대로 양파 패러다임에서는 원심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

---

1)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를 체르누하 (чернуха)영화를 통해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박성현,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영화 속에 나타난 정체성의 위기와 문화다양성,” 「한국러시아문학회논문집」, 2007. no. , p. 279-307.

2) Michael S. Gorham, *Speaking in Soviet Tongues. Language Culture and the Politics of Voice in Revolutionary Russia*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3), p. 19.

3) Юрий Лотман, *Культура и взрыв* (Москва: Гнозис, 1992), с. 189.

4) там же,

5) Alexander Genis, "Onions and Cabbages. Paradigms of Contemporary Culture," in *Russian Postmodernism. New Perspectives on Post-Soviet Culture*, ed. by Mikhail Epstein, Alexander Genis, and Slobodanka Vladiv-Glover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1999), p. 409. "Communism is the inverse of the religion of revelation."

6) 이때, 양배추 패러다임의 본질은 내면으로 들어 갈수록 삶의 핵심에 닿는 것으로, 예술가의 주된 일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밝히는 것이란 명제를 상기시킨다.

아갈 수록 혼란과 혼돈의 영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대 러시아의 문화 정체성을 점검하는 본 논문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민속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서 첫 째, 공연 문화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 소비에트식 민속 연구의 부산물인 '허위민속' (fakelore)과 '민속의 산업적 이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민속주의' (folklorism) 현상을 깊이있게 다루고자 한다. 둘째, 러시아적 정신의 유대감을 실현시키고, 현대적 시-공간의 좌표에서 왜 까자크 신화가 새로운 러시아 신화 쓰기의 기본적인 동력이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 째, 러시아 내의 시각이 아닌 서방 특히 미국의 연구 시각에서 다루어진 현대 러시아의 민속 부활을 마지막 장에서 약술하고자 한다.

위의 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 목격되는 민속 공연과 민속 놀이, 한마디로 '민속의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을 마주할 때, "전통의 부활을 민중의 승리라든가 혹은 비합리성에 의한 과거로의 회귀라고 하는 단순화" 과정의 결론을 피하자는 것이다.[7] ppt화일로 이루어질 본 발표를 위해 중요한 그림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소비에트 문화 정체성 담론의 주 현안

- 공식 문화와 비공식 문화의 전통적 이분화 현상의 와해
- 비판적 저항정신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문화의 다양한 실험정신과 생산적 에너지 분출이 크게 위축되고 방향성 상실
- 소비에트 체제에서 공식문화에 대한 잠재적 저항세력이나 대립구도로 존재하던 지식인들이 이전의 타성을 극복하는 데 실패가 원인
- 서방 세계의 물질문명과 상업 문화가 러시아인들의 전통 문화를 빠른 속도로 잠식

- 체르누하 (чернух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혼란기에 빠진 러시아 사회의 암울한 양상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묘사한 소설이나 영화작품들을 통칭하는 예술 용어) 풍 예술의 만연
- 상업성에 바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달
- 상업 오락 문화 (영화, TV, 라디오, 음악)
- Sex industry
- New age / 사이비 종교 집단 융성





Храм Христа Спасителя의 복원

스탈린 시대의 교회 파괴 현장과 복원 사진[8]

7) 현대 중국에서도 "1978년, 11기 중국 공산당 제 3차 중집위회의에서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틀 안에서나마 허용되면서 인민공사가 폐지되기 시작" (209)했고 민속의 부흥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일차적으로 이 현상은 관혼상제의 철저한 간소화 집행이었으며,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건강한 중국사회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속개혁운동을 유도" (210)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대중국의 민속부활과 사회주의 정신문명화 운동," 「비교문화연구」(1993, 창간호), p.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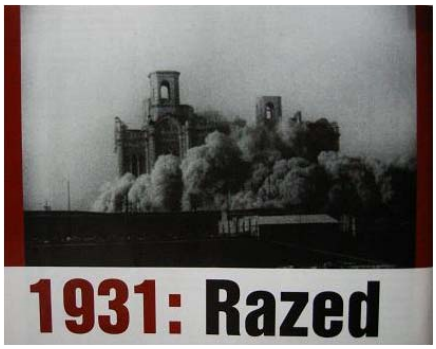
Парк Победы (1995)





성 게오르기 동상

러시아 정교에서 현재까지 악을 물리치는 선의 수호자로 종교적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과거 한때 러시아 국가 문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음.





I. 민속 공연의 부활

- 각종 민속 공연회 부활
- 도시민에 의한 농촌 민속 문화 재현
- 사립 초등학교에서의 민속 수업 / 여름 캠프

II. Folklorism 의 번창과 그 유형

- Folklorism 정의와 전이 양상:

1. it is the conscious use of folklore in popular, elite, or officially sponsored culture: 의식적인 민속 사용
2. when the folklore of rural people is performed on state in venues organized by cultural producers, it has become folklorism: 도시민의 민속 문화 무대 재현
3. folklore becomes folklorism as soon as it is consciously manipulated, scripted, organized, institutionalized, published or marketed: 의식적인 민속 활용 및 조직, 재교육, 출판, 상업적 행사

8) *Russian Life* (July / August, 2000), pp. 18-19.



전문 앙상블의 민요 모음집



전문 앙상블의 민요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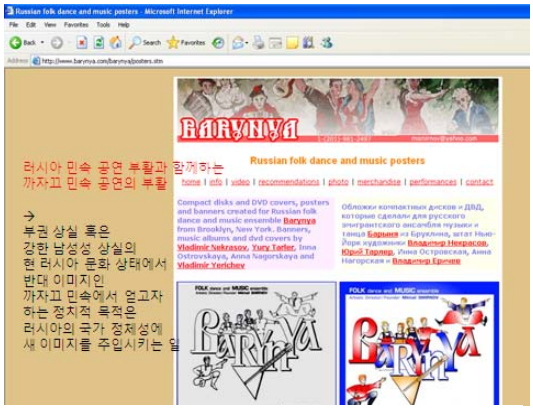
붉은 군대 합창대



붉은 군대 합창대

□ 내용:

- 자유와 독립, 투사의 전통적 이미지를 바탕
- 소비에트 내전기 까자끼의 운명에 대한 고찰 (친짜르, 반소비에트 경향, 이후 박해)
- 특히 "воля," " люди вольные" 의 이미지로서 소비에트 시기 까자끄 신화는 국경지대의 이교도 적들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 자리매김
- 이제 더 이상 박해 받던 소수민족과 같이 영원한 '타자'가 아니며, 러시아의 애국심과 관련



소비에트 시기의 민속 연구 형태

□ **Fakelore** ? or Folklore ?
□ 국가와 당차원의 구전 문학 자료 수집
□ 집단 농장 방문
□ 문화의 반영이 아닌 문화의 창조 및 형성
□ **Folklorism**으로의 급속한 전환
1. 당이데올로기 고취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 소비에트 인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3. 소수민족 통치와 소비에트화 일환으로

III. 까자끄 신화의 이용과 재창조

□ 기원:

- 1960-70년대, 스탈린 시대의 프로퍼갠더식 fakelore에 대항한 움직임으로 시작.
- 러시아 민속 복원주의자 앙상블의 레파토리에 까자크 민속 음악과 춤이 자주 이용되면서 시작 (Pokrovsky 앙상블이 까자끄 전통의 칼과 복장을 이용)

까자끄 민속 신화가 오늘날 주목을 끄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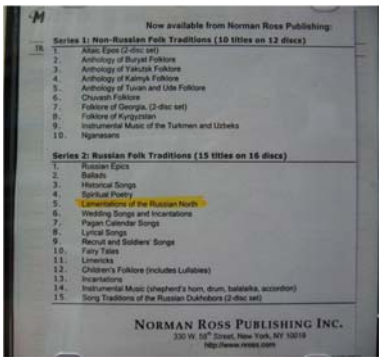
- 민요의 선창자가 여자인 러시아 민속에 비해, 까자끄의 민요는 대다수가 남성주도적이며 여성창가는 단 한 명으로 구성됨.
- 소비에트의 중앙집권화와 서열 구조 사회 속에서 개인의 힘은 소수 상층 집단에 의해 상실되고 수동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반면, 용맹과 자주 독립의 이미지인 까자끄 신화는 부성 상실의 소비에트 문화에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문화적 충격을 안겨줌.
- 까자끄의 군사 훈련과 병법을 민속 춤에 결부시키는 등, 남성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여름 캠프와 각종 프로그램이 유년기의 소년들 사이에서 특히 유행.











현대 러시아 민속 부활 움직임의 기원-1

- 스딸린 시대 종식과 흐루시쵸프 시대 개막: Оттепель
- 스딸린 시대의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와 프로퍼갠더식 fakelore에 대항한 움직임으로 시작
- 일부 청년들 서구의 재즈, 락뮤직, 외국 영화, 외국풍의 옷차림에 경도
- 인쩰리겐찌야들은 러시아 문화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농민 문화 연구
- 진정한 민속 자료 수집을 위해 모스크바의 일부 음악 연구가들이 시골 벽지를 돌며 농촌 음악가들로부터 자료 직접 수집.

현대 러시아 민속 부활 움직임의 기원-2

- 농촌문학 (дереве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과 괘를 같이 한 민중 문화와 민속에의 관심 증대
  -발렌찐 라스뿌찐의 소설 *Прощение с Матёрой* (1976)을 토대로 만든 영화에 Покровский 앙상블이 출현

현대 러시아 민속 부활 운동의 기원-4

- 1990년대: 이반 꾸빨라 (ИванКупала) 그룹의 활동
  - 상뜨-베제르부르그 라디오실에서 활동
  - 1999년 이들의 첫 앨범 *Кострома* 발매
  - "은둔자 외에 모든 이들이 이 음악을 들었다" (음악평)
  - 2002년 첫 앨범을 리믹스하고 민속 리듬을 현대적으로 가미해 새 CD 2 개 발매:
    Здорово Кострома: Коллекция ремиксов и римейков (Союз, 2000)
    Звездная Серия (Star Records, 2002)
- 1999년 4월: 모스크바 준계 민속 축제
- 1999년 5월: 베름 민속 앙상블 공연

현대 러시아의 소비에트 노스텔지어와 민속

- 1992년 스타니슬라프 고보루힌 (1936 출생)의 다큐 "우리가 잃어버린 러시아" (Россия, которую мы потеряли, 1992 г.
- 1996년 1월: TV 방송 "중요한 것에 대한 옛 노래들"
- 2002년 라디오 방송 "러시아 라디오-2": "우리의 조국은 소련이다"
- 러시아의 문화 르네상스 + 강한 러시아 건립의 새 신화





IV. Archival Materials: -1
Фонограммархив 녹취본 DG 작업

- Інститут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ушкинский Дом)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
  Фонограммархив


WINTER FESTIVAL






RUSSIAN

참고문헌

Anagnostou, Yiorgos. "Metaethnography in the Age of "Popular Folklor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19. No. 474 (2006): 381-412.

Bassin, Mark.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 the "Amur Epoch," and the Great Siberian Expedition 1855-1863." *Annals of the American Geographers* 73. No. 2 (1983): 240-256.

Brown, Deming. *Soviet Russian Literature since Stal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 1978.

Clark, Katerina. "Changing Historical Paradigms in Soviet Culture." In *Late Soviet Culture from Perestroika to Novostroik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3.

Eklof, Ben. "Recent Anglo-American Studies of the Russian Peasant (1861-1914)."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oas* 36 (1988): 57-79.

Evdokimova, Svetlana. "Sculptured History: Images of Imperial Power in the Literature and Culture of St. Petersburg (From Falconet to Shemiakin)." *The Russian Review* 65 (2006): 208-229.

Foster, George. "What is Folk Culture?."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5, No. 2 (1953): 159-173.

Genis, Alexander. "Onions and Cabbages. Paradigms of Contemporary Culture." In *Russian Postmodernism*. *New Perspectives on Post-Soviet Culture*. Ed. Mikhail Epstein, Alexander Genis, and Slobodanka Vladiv-Glover. New York and Oxford: Bergbabn Books, 1999.

Gibian, George. "The Quest for Russian National Identity in Soviet Culture Today." In *The Search for Self-Definition in Russian Literature*. Ed. Ewa M. Thompson. Houston: Rice University Press, 1991.

Gill, Graeme. "Changing Symbols: The Renovation of Moscow Place Names." The Russian Review 64 (2005): 480-503.

Gorham, Michael S. *Speaking in Soviet Tongues*. *Language Culture and the Politics of Voice in Revolutionary Russia*.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3.

Graham, Seth. "The Wages of Syncretism: Folkloric New Russians and Post-Soviet Popular Culture." The Russian Review 62 (2003): 37-53.

Greenfield, Liah. "The Formation of the Russian National Identity: The Role of Status Insecurity and Ressentiment."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2. No. 3 (1990): 549-591.

Hilton, Alison. "Humanizing Utopia: Paradoxes of Soviet Folk Art."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3. No. 3 (2002): 459-471.

Kirshenblatt-Gimblett, Barbara. "Folklore's Crisi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11. No. 441 (1998): 281-327.

Kononenko, Natalie. *Slavic Folklore: A Handbook*. London: Greenwood Press, 2007.

Kujundzic, Dragan. ""After": Russian Post-Colonial Identity." *Modern Language Notes* 115 (2000): 892-908.

Likhachev, D. S. "We Cannot Walk Away from Ourselves...: Russia's Historical Self-Awareness and Culture." *Russian Studies in Literature* 32. No. 2 (1996): 15-28.

Likhachev, D. S. "Russian Culture in the Modern World." *Russian Social Science Review* 34. No. 1 (1993): 70-81.

Linke, Uli. "Folklore, Anthropology, and the Government of Social Lif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2. No. 1 (1990): 117-148.

Lipovetsky, Mark. "New Russians as a Cultural Myth." *The Russian Review* 62 (2003): 54-71.

Lord, Albert Bates. "Folklore, Folklorism," and National Identity." In *Balkanistica. Occasional Papers in Southeast European Studies. III 1976*. Ed. Kenneth E. Naylor (Slavica, 1976).

Melton, Edgar. "The Russian Peasantries, 1450-1860." In *The Peasantries of Europe from the Fourteenth to the Eighteenth Centuries*. Ed. Tom Scott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8).

Olson, Laura. *Performing Russia. Folk Revival and Russian Ident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Curzon, 2004.

Oring, Elliott. "Three Functions of Folklore. Traditional Functionalism as Explanation in Folkloristics."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89, No. 351 (1976): 67-80.

Oushakine, Serguei Alex. ""We're nostalgic but we're not crazy": Retrofitting the Past in Russia." *The Russian Review* 66 (July 2007): 451-482.

Partan, Olga. "Alla: The Jester-Queen of Russian Pop Culture." *The Russian Review* 66 (2007): 483-500.

Pesmen, Dale. *Russia and Soul: An Exploratio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Rowlands, Michael. "The Role of Memory in the Transmission of Culture." *World Archeology* 25. No. 2 (1993): 141-151.

Smith, Susannah Lockwood. "From Peasants to Professionals: The Socialist-Realist Transformation of a Russian Folk Choir."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3. No. 3 (2002): 393-425.

Tolz, Vera. *Russia*. UK: Arnold, 2001.

Voigt, Vilmos. "Confines of Literature, Folklore, and Folklorism." *Neohelicon* 7. No. 2 (1979): 123-140.

Voigt, Vilmos. "Folklore, Folklorism, Symbol, Symbolism." *Neohelicon* 10. No. 2 (1983): 305-320.

Vucinich, Alexander. "Soviet Ethnographic Studies of Cultural Change." *American Anthropologist* 62. No. 5 (1960): 867-877.

Wachtel, Andrew Baruch. Ed. *Intersections and Transpositions. Russian Music, Literature, and Society*.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8.

Williams, Robert C. "The Russian Soul: A Study in European Thought and Non-European Nation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1. No. 4 (1970): 573-588.

Zorin, Andrey. "Ideology, Semiotics, and Clifford Geertz: Some Russian Reflections." *History and Theory* 40 (2001): 57-7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정교의 이념적 패러다임

정세진

I. 서론

본 논고의 핵심적 문제 제기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국민의 정신적 가치의 핵심인 러시아정교의 이념적 다양성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러시아정교는 러시아민중의 삶이며 역사,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정교는 정부의 무신론 정책에 의해 국민들의 정신적, 신앙적 가치의 기능을 상실했다.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 이후 민주화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기의 러시아 사회의 정신적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한 이념적 패러다임의 요소를 담보할 것이라는 추론을 제기해본다. 즉, 러시아의 정체성이 동양인가 혹은 서양인가 하는 전통적인 러시아 정체성의 담론, 19세기의 서구주의자와 슬라브주의자의 사상적, 이념적 분화, 그리고 1920년대의 고전적 유라시아주의 논쟁, 베르자예프 등 소련 공산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20세기 전반기의 종교적 이념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및 소비에트 체제에 있어서의 러시아정교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있어서도 '사상(思想)의 러시아'로서 이념의 분화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련의 해체 이후 과거 소연방의 법통을 이어받은 러시아연방의 지정학적 담론이 러시아 사회 내에서 신앙적, 정신적 체계로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은 러시아 사회의 정신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로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는 러시아정교의 핵심 사상을 범슬라브주의와 연결하여 고찰한 측면이 대부분이었다. 러시아 인텔리겐챠는 러시아정교를 러시아의 국가성과 민족성의 대표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이를 세계적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지적, 정치적 의도로써 러시아정교를 범슬라브주의 등을 통해 러시아사회를 개조하는 역할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정교회의 내적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적 요소를 분석하고, 러시아정교에 대한 러시아 사회 내의 다양한 시선은 무엇이며, 러시아 정교성의 본질을 다양한 러시아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통해 규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정교회의 철학적, 역사적 본질인 정교성과 그 내부자적 본질, 러시아정교의 국민통합성의 요소인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의 역사적 변천과 이를 통한 정교 사상의 분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러시아정교와 지정학적 관련성과 그 이념적 분화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II. 러시아정교회의 역사적 이념과 역할 분화 - 국가, 교회, 사회, 그리고 정교성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정교의 상황을 국가, 교회, 사회, 그리고 그 철학적 본질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일은 매우 적절한 연구 방식이 된다. 이는 과거의 공산주의 이념이 종말을 고하고 이데올로기의 진공 상태가 발생, 새로운 국가 러시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정신적 세계의 방향성을 제시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영적 이데올로기(Spiritual Ideology)의 동향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대중의 전체적이고 통합적 인식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이

다.

러시아 사회 내에서 러시아정교는 소위 전통적 종교에 속한다. 1997년 러시아정부가 제정한 종교법에 의거하면, 러시아에서 러시아정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는 전통적 종교로 분류되었다. 이 법은 러시아의 종교적 기능이 사회에서 평화와 화해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며 종교 간 공동의 가치와 선을 최우선 덕목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러시아사회에서 종교 간에 일정한 타협과 공동적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 상황이다.[1)]

오늘날 러시아인의 생활과 정치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고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은 러시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이다. 사실상 이 둘의 관계는 페레스트로이카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이슈는 아니었다.[2)] 이는 소비에트 시기에도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논의의 결과는 공산당의 이익에 따라 러시아정교회의 위상이 정해졌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서는 러시아 사회내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 등이 교회-국가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 러시아정교는 국가적 중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권력과 종교 단체와의 관계, 특별히 러시아인들의 중심 신앙인 러시아정교와 국가와의 관계 등이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체첸 사태를 전후하여 이슬람을 포함한 러시아 내의 다양한 종파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총체적 종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있어왔다. 19세기말과 20세기에도 베르자예프, 레온티예프, 로자노프, 그리고 포베도노스체프는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의 교회와 국가와의 정책을 비판한 적이 많았다.[3)] 과거 제국주의 시기와 소비에트 시대의 몇몇 측면의 패턴을 따르면서 오늘날 러시아정교회와 러시아 정부가 상호 밀접하면서도 배타적 관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서구 교회의 형태처럼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더욱 더 분리되는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매우 관심 있는 주제가 된다.

그렇다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한 논쟁점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러시아정교의 전통주의, 근본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사회의 논쟁점은 국가가 전통적 종교들, 특히 러시아정교회와의 공식적인 유대를 어느 선까지 유지하느냐에 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정교 이념의 주된 경향은 2000년에 러시아정교회 주교협의체에 의해 공표된 '러시아정교회의 사회개념 근거'(Foundations for a Social Concept; FSC) 이다.[4)] 이 문서에서 'social'의 의미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즉 국가와 법률 시스템을 통한 문화, 윤리학, 세속주의 등의 총체적 범위가 언급되어 있다. 과거에 동방정교권 에서 대교구 등 실질적 권력과 권위가 집중된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문서는 공표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

1) Walters, Philip, "The Orthodox Church seeks to place itself in Russian society," In Burden or Blessing? Russian Orthodoxy and the construction of civil society and democracy, cited by Christopher Marsh. Boston: Institute on Culture, Religion and World Affairs, University of Boston, 2004. 참조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정교회와 러시아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John D. Basil, "Church-State Relations in Russia: Orthodox and Federation Law, 1990-2004,"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3, No. 2, June 2005, pp. 151-163; 신범식, "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기독교," 『제 5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집,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 -국제비교연구』 2007, pp. 99-118; 신동혁,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국가-교회 관계의 변화와 형성," 『 슬라브학보 』 22-1호, 2006, pp. 99-131 참조.

3) John D. Basil, Church-State relations in Russia: Orthodoxy and Federation Law, 1990-2004,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3, No. 2,* June 2005, p. 151.

4) 이에 대해서는 Alexander Agadjanian, "Breakthrough to Modernity, Apologia for Traditionalism: the Russian Orthodox View of Society and Culture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1. No. 4, 2003*. pp. 327-338; 신동혁, op. cit. pp. 106-110.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FSC는 사회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담론과 러시아정교회가 바라보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정교회에 의한 첫 번째 공식 발표 문서인데, 정교회의 독립적인 신학적 모더니즘에 관한 기술로 이루어져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는 서방의 문화와 모더니티, 혹은 포스트 모더니티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러시아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FSC에는 사회적 비전의 신학적 기초는 1장에 언급되어있다.[5)]

이 문서를 통하여 러시아정교회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비전을 알 수 있는데, 핵심적 신학 모티브는 전 세계를 향한 정교회의 특별한 활동의 합법적 정당화를 강조하는 내용이다.[6)] 이를 위해 이 문서는 기독교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핵심 교리를 재차 강조하였다. '신성과 인성'의 전통적 교회의 논제는 교회 사상의 첫 출발선상이다. 즉, 교회와 세계, 문화, 사회의 상호 행동을 위한 이론적 설명이다.[7)]

> 교회는 신성-인성의 조직체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성을 통해 세계와 관련짓고 자연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인성을 단순히 세계의 조직체의 일부로 상호 관련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신비함이 가득한 요소로 해석한다. 은혜의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과 회원, 성도들의 '시너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세계의 신성함도 교회의 신성과 인성의 특성으로 가능한 것이다.

러시아정교의 이념 뿐 만 아니라 러시아 가톨릭도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동일한 대 사회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8)]

러시아정교회의 신학적 개념은 소련 해체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러시아정교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러시아정교회는 어떤 의미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서 개인의 구원적 성향을 벗어나 대 사회적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신학의 개념에 있어서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에 관한 러시아정교 교리에 관한 다양한 재해석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교성으로서 러시아정교회의 역할은 러시아 사회의 내적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인지, 즉 러시아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특성 등 내부적 요소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국가와 사회를 넘어 외부의 세계까지 원심력적 팽창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교회의 역할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있어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동향과 미래적 전망이 러시아사회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핵심적 논의 대상으로 부각될

---

5) 이 문서는 몇 개의 장에서 신학적 논중을 피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장은 신학적 프롤로그이다.

6) Alexander Agadjanian, op. cit. p. 328.

7) Alexander Agadjanian, op. cit. p. 328.

8) FSC 문서가 신학적 모더니즘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1997년에 러시아 가톨릭교회에 의해 공표된 문서인 '가톨릭교회 교리문답'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CC) 내용도 모더니티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주요 신학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가톨릭교회의 세계관과 사회 비전은 CCC에 언급된 것처럼, 러시아 사회의 통합적인 도그마의 구조 속에 표현되면서, 대 사회적 메시지를 사회적 기초에 근거하여 표명하고 있다. 이 문서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패러다임에서 사회를 실제적인 유기체로, 생명체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나 십계명, 그리스도의 기도는 개인적이면서 이제는 사회적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과거에 실제로 사회적 가르침은 가톨릭의 교리문답 주위로 흩어져있고 극단적인 논리에 종속돼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with Modifications from the Ediitio Typica (New York, Doubleday) 참고하기 바람.

수 있다. 즉 러시아정교회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다양한 이념적 패러다임에 의해 그 조타수를 규정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서방에서 제기되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해보면,[9] 첫째, 영국, 핀란드, 그리스 등의 "국교(state religion) 모델"이 있다. 둘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다원주의적 종교 모델"이다. 이중 독일은 교회와 국가의 합의에 의거하여 종교가 공적인 법인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미국이나 프랑스의 "엄격한 분리형 모델"이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종교는 세속국가의 일에 어떠한 간섭도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러시아정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사실상 국가-교회의 관계 문제가 현대 러시아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10] 베르켄은 1997년 새로 제정된 러시아 종교법을 근거로 러시아정교회는 교회-국가의 철저한 분리와 국가교회 사이의 중간 형태의 모델을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1] 1997년 7월에 러시아의회에서 채택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신법률'은 그해 9월에 옐친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률에서는 법적으로 그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2] 이 범주에 포함되는 종교는 러시아정교,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불교이다. 이 종교들은 스스로 사회적 안정성과 특별히 종교적 극단주의가 러시아사회에 끼치는 위험한 요소를 극복하는 데 있어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종교들은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사회 내부에서는 다른 종교와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또 상호간에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소유하고 있다.[13] 새로운 종교법은 개신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러시아의 종교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14]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러시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지 1천년 동안 다양한 관계가 이루어져왔지만,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의 형태로 국가와 교회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다양한 정파와 이념 등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내부에서는 국가교회적 형태의 일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사회 내에서 러시아정교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정신적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이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정교도의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소연방의 해체 직후보다는 증가하였다. 다음의 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연방의 종교적 성향을 나타낸 수치이다[15] (전인구당 퍼센트 비율)

---

9) 서방의 국가-교회 관계의 모델에 대해서는 신범식,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기독교," 『제 5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집,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 -국제비교연구』 2007, pp. 103-104 참조.

10) 신동혁, op. cit. p. 100.

11) Will van den Bercken, "A social Doctrine for Russian Orthodox Church," *Exchange*, Vol. 31:4 (October, 2002). p. 377. 신동혁, op. cit. p. 109에서 재인용.

12) 신범식, op. cit. p. 106.

13) Philip Walters, "The orthodox Church seeks to place itself in Russian Society," in Burden or Blessing? *Russian Orthodoxy and the Construction of Civil Society and Democracy, edited by Christopher Marsh. Boston : Institute on Culture, Religion and World Affairs,* University of Boston, 2004. p. 86.

14) 신범식, op. cit. p. 106.

15) Dmitry Furman and Kummo Kaariainen, "Religioznaya Stabilizatsia: Otnosheniye K religii b sovremmenoi Rossii," Svobodnaya Mysl' # 7: 1533 (2003), p. 25.

	1991	1993	1996	1999	2002
신 자	22	32	34	40	44
신앙의 비확신자	28	28	30	30	29
불신자	7	30	24	22	20
무신론자	35	5	6	5	5
모른다	7	4	6	2	2

이 표를 통해서 해석해본다면, 거의 10년 사이에 신자의 숫자는 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신자 숫자도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무신론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의 이념의 종말로 인한 영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신론자는 크게 줄어들고 신자의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사실이다. 특이한 것은 불신자의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마 이 숫자는 무신론자에서 넘어간 비율로 추측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의 신자는 러시아정교도를 의미한다.

다음의 표는 러시아인들이 정교회에 출석하는 횟수에 대하여 인구당 비율로 조사한 부분이다.[16]

	1991	1993	1996	1999	2002
1달에 한번이상	6	7	6	7	7
1년에 몇 번	8	10	20	19	19
1년에 한번 전후	27	21	25	29	31
전혀 출석안함	59	62	48	45	42

이 표를 통해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정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혀 출석을 하지 않는 비율이 소련 붕괴 직전보다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즉,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는 점진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정교회 출석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은 무신론자에서 정교도로 된 비율보다는 그 변화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교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활동이나 예배 참여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정교도들의 교회 활동이나 행동 양식은 소련 붕괴 직전과 크게 다름이 없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정교도가 대폭 감소하고 러시아인들의 60% 정도는 1년에 한번 이상은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약간의 종교적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서구 교회와 신앙인들에 비교해 사실상 러시아 사회 내부에서의 근본적인 신앙적, 정신적 변화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의 역사성과 현대적 함의, 그리고 내부적 통일성

러시아 역사를 통해 나타난 러시아정교의 시선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러시아정교의 이데올로기적 역사성은 내부적 통일성을 향해 전개된 측면이 매우 강

16) Dmitry Furman and Kummo Kaariainen, op. cit. p. 27.

하다. 이는 러시아정교의 '내부자적 시선' 으로 해석된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러시아정교의 세계사적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러시아정교는 러시아 국가의 통치 구조와 엘리트들의 종교적 성향 등을 고려해볼 때에 국가의 내부적 이념에 그 역할이 강조되었다. 첫째, 988년 블라디미르의 비잔틴정교의 수용은 러시아제국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러시아 국가인 '키예프 루시'의 국가 형성과 존속에 러시아정교 이념은 국민들의 단일한 영적, 정신적 체계 형성에 공헌하였다. 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노마드 민족인 몽골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키예프 루시의 법통을 이어받은 무스코비(모스크바 공국)가 러시아를 통합하고 유라시아 평원의 지배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무스코비 시기에 왕이나 '차르'는 공국의 내부적 정치 질서의 공고화에 러시정교를 활용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이었다. 이 이론에 의해 러시아정교가 국가의 내부적 이념에 공헌한 요소는 결정적이었다. 러시아정교의 국가주의적 요소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종교와 사상의 틀은 이 이론에 의해 무스코비 시기에 정립되었고, 이념의 기본적 특성은 무스코비의 국가 체제의 견고함, 내부적 질서의 정착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 은 러시아 사회의 통합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이 이론은 첫째는 무스코비의 내적 질서의 강화와 무스코비 국민의 통합성으로 연결되고, 그 이후에야 대외팽창의 이념, 혹은 타민족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립되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역사적 기능이 제국주의 문화사로 해석된다면, 무스코비 시기의 러시아정교는 문화 제국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붕괴되었다. 동방정교의 수호자요, 어머니 국가의 역할을 한 비잔틴 제국은 사라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세 국가인 무스코비는 그 직후 1480년, 당시 유라시아 평원의 패권자인 몽골 세력을 격퇴했다. 몽골의 군사적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무스코비는 정교 세계 수호자의 역할을 떠맡았다. 당시는 그루지야 이외에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정교 국가였다.[17]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으로 무스코비는 유라시아 평원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의 역사적 함의는 무엇일까? 무스코비의 러시아정교가 러시아 제국주의 팽창 이념의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있다. 무스코비는 몽골을 격퇴하고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 즉 중앙집권적 국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있었다. 16세기에 이반 4세 (이반뇌제)는 카잔공국과 아스트라한 공국이라는 '타타르의 나라'에 진군했고, 비로소 러시아국가의 국경은 확대되었다. 15세기 후반기와 16세기 전반기, 무스코비의 국가성 강화를 위한 정교 사상이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이었다. 일반적으로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은 '범슬라브주의'의 이론적 기초로 간주되어왔다.[18] 이 이론은 무스코비에 있어서 유일한 종교적 이데올로기였고, 러시아가 로마와 비잔틴의 정신적 계승자이며, 정교의 중심국가가 되었다는 이데올로기로 발전되었다. '프스코프'의 엘라자로프 수도원의 사제인 '필로페이'는 1511년 이반대제인 바실리 3세에게 이 이론을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다면, 이 이론은 무스코비 당시에는 국가의 총

17) P. Duncan Russian Messianism: Third Rome, Revolution, Communism and Aft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pp. 10-12.

18) 정희석, "러시아적 범슬라브주의의 유형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p. 257.

체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상이 러시아 역사 시기 동안 강조된 시점은 무스코비 시기보다 훨씬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이 이론이 출현하였는가?

크게 분류해보면, 첫째, 상기에 언급하듯 16세기 중세 무스코비 시기이다. 둘째, 19세기 제국러시아 시기이고, 셋째, 러시아 종교사상가인 '니콜라이 베르자예프'에 의해 이 이론이 서유럽사회에 전해진 20세기 전반부였다.[19] 역사의 청중은 각각 달랐으며, 시대별로 이 이론에 대한 역사 담론의 해석이 동일하지 않았다.

이 이론의 일반적 합의 사항은 무스코비 시기에 이 이론은 단지 교회 영역 내에서 한정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이론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고 활용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나탈리아 시니챠'가 있다.[20] 그녀는 '제3로마' (Third Rome) 라는 저서에서 '모스크바 제3로마이론'은 몽골의 세력을 격퇴한 이후 새롭게 등장한 무스코비에 대한 영광의 송시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 이론은 일부 제국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팽창의 정신적 이념이라기보다는 러시아 군주에게 바치는 일종의 아첨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관점에 따르면, 이 이론은 제국주의 '메시안'의 송시는 결코 될 수 없고, 러시아의 영적, 정신적 팽창 이념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국가의 영토 확장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이론이 재출현한 시기는 3세기가 지난 1861-1863년이다.[21] 이때는 1860년대 러시아 지성사에 있어 체르느이셰프스키를 중심으로 학술과 출판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러시아 이념'(русская идея)이 논의되던 시절이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러시아공산주의의 기원으로 간주하였다. 이때에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에 대한 종교철학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러시아지성사에 있어 이러한 정교의 담론은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민족적으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22]

러시아 사회사상가와 혁명가들에 의해 제기된 이 이론을 러시아의 메이저 철학자들, 예를 들면 솔로비요프가 재조명하였다. 솔로비요프는 이 이론을 정교적 의미로 러시아의 전통적 종말론 사상으로 해석한다. 그는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이 19세기에 구교도(Old Belivers) 들에게 수용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솔로비요프는 이 이론을 '범-정교론'으로 해석하였다. 솔로비요프는 이 이론을 러시아적 정교 지정학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과거 비잔틴 제국의 영광의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회복해야 한다는 슬라브적 이상으로 발전되었다. '유럽 정교의 세계'에 있어 종교적 리더십과 '범-슬라브' 사상을 의미하는 공간이 콘스탄티노플이다. 이 지역은 지중해로 나가는 요충지이다. 마르크스 혁명 사상에 반대적 입장에 서있던 솔로비요프는 모스크바 제3로마이론은 러시아 지성인에게는 특별한 사상적 이념을 가진 이론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극단적 마르크시즘 운동을 하던 러시아 마르크시스트의 이념과 대칭각을 세운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넷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은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 시기는 이 이론의 연구가들에게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었다.[23] 이 시기에 이 이론에 대한 관심

---

19) Dmitri Sidirov, "Post-Imperial Third Romes: Resurrection of a Russian-Orthodox Geopolitical Metaphor" *Geopolitics,* 11(2006), pp. 320-326.

20) Наталья Синица, "Третии Рим Истоки и эволюция русской средневской концепции (XV-XVI в в.) (Москва : Индрик 1998) 참조.

21) Наталья Синица, op. cit. p. 13.

22) Dmitri Sidirov, op. cit. p. 323.

23)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술은 M. Zernov, *Moscow the third Rome* (London: Soc. for Promoting Christian

은 러시아가 아니라 서유럽에서 나타났다.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로, 이 이론은 제국주의적 메시아사상으로 해석되어졌다. 새로운 국가, 즉 볼셰비키 국가는 이와 유사한 제국주의 팽창 국가로 재해석되었다. 주지하듯, 니콜라이 베르자예프(1874-1948)는 이러한 관점의 주요 대변자였다. 러시아 메시아주의는 러시아 종교 심리학적 주요 요소로서 볼셰비즘의 지지 이론이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동력기였다.[24] 비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성장하면서, 필로페이 이론은 레닌의 제 3의 인터내셔널로 대치되었다.[25] 베르자예프의 국제 공산주의 해석은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재현으로 서방에서 널리 인식되어졌다. 서방에서는 그를 러시아 철학사의 거두로 간주했다. 베르자예프의 해석은 보수주의자, 반공산주의자, 그리고 러시아혐오주의자 그룹에서 인기가 높았다. 소비에트가 동유럽을 점령한 사건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소비에트 팽창' 이라 언급한다. 볼셰비즘에 대한 베르자예프의 평가는 현대판 '러시아 메시아주의'였다. 서방은 20세기에 러시아정교를 러시아 제국주의 메시아이즘의 정당화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의 변천 과정을 통해 러시아인들은 이 이론을 내부적 국가의 단결 요소로 바라보았다. 비록 이 이론이 '범-정교론'으로 발전하면서 19세기에는 그 이상화로 제 2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개념으로 응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은 무스코비이든, 러시아제국이든 간에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내부적, 민족적 이념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이론을 통해 발전된 러시아정교 사상과 철학은 근원적인 기원을 따진다면, 정교 제국을 수호하는 선언이었다.

IV.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정교의 이념적 패러다임

1. 러시아 정교의 정체성과 지정학적 메타포

그러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동안 러시아정교의 이념적 정향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정교의 현대적 특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 러시아정교는 단지 러시아사회 내에서의 선험적이고 형이상학적 관념이나 도덕적 세계로 인식될 것인지, 아니면 이념적 패러다임을 가지면서 원심력적 방향으로 외부 세계로 방향을 돌릴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념적 분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계와의 거대한 연결 고리를 모색하면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세계사적 이념을 러시아정교가 담보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 세계의 사회와 문화에 연계되어 전세계적인 총체적 분야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지가 러시아정교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모스크바 제3로마이론이 '범-정교성'으로 강조되던 19세기 러시아 제국주의 시대처럼, 세계라는 비전의 중심에서 러시아정교가 그 이념적 메타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필립 왈터스'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정교회의 이념적 상황을 3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외부적 시선 혹은 대외적 이념의 분화를 강조하기보다는 러시아 사회의 내적 구조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즉 1) "러시아정교회의 내부 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2) 국가와 세속적 권력과의 연대와 참여 3) 극단주의나 폭력이 아닌 근본주의적

Knowledge; New York: Macmillan, 1937)이다.

24) N. Berdiaev, *The origin of Russian Communism*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1/1960) p. 144

25) N. Berdiaev, *The Russian Revolution*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1/1971) p. 41.

이념과 '정신의 성채'(城砦) (fortress mentality)로서의 러시아정교회의 역할을 현재 러시아 정교의 내부적 상황으로 규정한다.[26] 그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정교의 역할은 외부적 요소보다는 내부적 요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스베틀라나 리조바는 러시아 정교의 내적 요소는 현재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 사회 내에서 부정적 의미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27]

정교 정체성은 문화 정체성의 기념표이다. 즉 이는 포스트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 진공에 주어진 특별한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정체성의 정치화는 심각한 복잡성이 내포되어있다. 러시아 사회 내에서 외국인 혐오증이나 반 유대주의자 등의 이념적 경향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자기정체성과 종교성이 성장함에 따라 표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있어서 러시아정교 사상이 서방의 기독교 사상, 그리고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에서 상기하듯, 다양한 종교적 이념화, 즉 '범-정교론', '범-슬라브주의' 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러시아정교와 관련된 핵심 이념은 러시아민족주의이다. 베르크노프스키가 지적하듯,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 민족주의는 공격적 형태로 러시아 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민족주의는 러시아정교회와 연계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28] 러시아정교의 이념이 어떠한 다양한 경로로 이념적 정향을 보일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과 이념, 그리고 이와 연관된 러시아정교의 지정학적 모티브의 연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29]

먼저, 포스트 소비에트의 지정학적 사상에 관한 부분인데, 학자들은 러시아의 2가지 부류의 지정학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서구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둘째, 이는 러시아 민족주의와도 연관성이 있는 이념으로 '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이데올로기의 유일성 강조)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의 서구주의와 유라시아주의에 관해 찌간코프는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즉 그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5개 정도의 이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의적인 의미에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서유럽의 자유주의적 전통[30] 이며, 다른 하나는 유라시아주의이다.

'오로우흘린' (O'Loughlin)의 관점도 크게 2가지 흐름의 사이에서 형성된다. 극단적 유라시아주의의 개념으로부터 러시아와 서방의 견고한 연결고리로 서구적 개혁주의자들의 목표이념까지 설정되어있다.[31]

---

26) Philip Walters, "Turning outwards or turning inwards? The Russian Orthodox Church challenged by Fundamentalism," *Nationalities papers*, Vol. 35, No. 5, November 2007

27) Ryzhova, Svetlana. "Tolerance and Extremism: Russian Ethnicity in the Orthodox Discourse of the 1990s." In *Religion and Identity in Modern Russia: The Revival of Orthodoxy and Islam,* edited by Juliet Johnson, Marietta Stepaniants and Benjamin Forest. Aldershot: Ashgate, 2005. p. 68.

28) 이와 같은 내용은 Aleksander Verknovsky, "The Role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n Nationalist, Xenophobic and Antiwestern Tendencies in Russia Today: Not Nationalism, but Fundamentalism," *Religion, State & Society,* vol. No. 4, 2002, pp. 333-343 참조.

29)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정교와의 연관 관계는 Dmitri Sidirov, "Post-Imperial Third Romes: Resurrection of a Russian-Orthodox Geopolitical Metaphor" *Geopolitics, 11(2006)*, 참조.

30) 이에는 유라시아에서의 서양의 우월성과 , 지경학적 도전과 지정학적 연합, 정치적 안정 등의 주제가 중심

31) J. O'Loughlin, "Geopolitical Fantasies and ordinary Russians: Perception and Reality in the Post-Yeltsin Era," *Geopolitics* 6 (2001) pp. 17-48; J. O'Loughlin and P. Talbot, "Where in the World

러시아 민족주의자의 입장으로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콜로소프'와 '미로넨코'는 신유라시아주의 입장이며, 이에 관련된 '민족 볼셰비즘'을 주장하고 있다.[32] 러시아 내에서 유라시아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알렉산드르 두긴' 이다. 그는 신유라시아주의자 중에서도 팽창주의적 이념의 대표적 주창자이다. 그는 "러시아에는 항상 '제 3의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3] 유라시아주의와 서구주의는 러시아의 가장 오래되고 아직도 뜨거운 지정학적 담론에 속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념에 나타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정교의 정체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시기의 특징은 러시아 정교 사상을 기반으로 '정교 지정학'이 도출된다는 사실이다. 지정학 사상 중에서 정교와 관련된(Orthodoxy-related) 이념은 현대 러시아의 내부적 사상이다. 3장에서 언급하듯,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이해는 15세기의 무스코비 역사로부터 계승되어온 러시아정교성의 특성이 분석되어야 한다. 마치 이는 러시아 공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 사상보다는 러시아의 역사와 전통성의 근원이 밝혀져야 한다는 논리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정교성에 관련된 지정학'은 포괄적이고 전체적 특성의 담론이다. 이는 순수한 의미의 러시아정교 담론은 아니다. 그보다는 동방정교의 틀과 러시아정교의 역사적 현현을 통해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콘텍스트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어떠한 세속적, 지적, 정치적 경향의 구조로 출현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일이며, 이는 세속적인 국가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 사회 그룹과 지식 엘리트의 국가관, 사회관, 세계관의 총체적 모습의 담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 러시아정교의 이념적 패러다임

3장에서 분석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해석된 러시아정교의 핵심 이론인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의 경향을 통해 4장 2절에서는 러시아정교의 이념적 패러다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 사회 내에서 출현하고 있는 이념적 경향은 '근본주의 민족주의', '정교 근본주의', '포스트모던 종말론', '신-범슬라브주의', '국가주의/유럽통합주의', '신유라시아주의', '신 연대기', 그리고 '신-정교 공산주의' 등으로 대변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

주요 사상가	이 데 올 로 기	지정학적 주제	러시아 제 3로마 이론의 연계성
미하일 나자로프	근본주의 민족주의자	국경 수정론자	1917년 2월혁명의 러시아제국 부활
이고르 콜모고로프	정교 근본주의자	정치적 정교론자	구원의 토대 개념

is Russia? Geopolitical Perceptions and Preference of Ordinary Russian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6(1) (2005) pp. 23-50. 참조.

32) V. Kolossov and N. Mironenko, Geopolitica I Politicbeskatia Geografia (Moscow: Aspekt Press 2001) pp. 162-172 참조.

33) Dmitri Sidirov, op. cit. p. 318.

34) Dmitri Sidirov, "Post-Imperial Third Romes: Resurrection of a Russian-Orthodox Geopolitical Metaphor" *Geopolitics, 11(2006)*, p. 319 저자의 표를 재구성.

바딤 트심부르스키	연대기적 종말론	내부 팽창주의자	러시아의 섬
알렉산드르 네클레사	지경학적 종말론	제 4로마론, 열광적 현대주의자	소(小) 과학-기술 도시 개념
나탈리아 나로츠니스카야	신-범슬라브주의/ 서구주의자	러시아와 유럽 : 상호 존중론	후기 비잔틴제국 공간 ; 동방적 개념
알렉세이 미트로파노프	국가주의/서구주의자	EU 통합론자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알렉산드르 두긴	전통주의/유라시아주의	반 서구주의적 제국주의론	무스코비, 소비에트제국, 유라시아
티모페이 포멘코	신 연대기주의	세계제국주의론	모스크바, 세계제국의 심장
겐나디 주가노프	신-정교 공산주의	소비에트제국의 부활	역사적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상기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 현재 러시아내의 정교 지정학자들은 다양한 이념적 패러다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 정교 근본주의 민족주의자

1990년대 러시아 민족주의는 러시아의 시장개혁주의가 부진하던 1990년대 중반에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개혁의 실패와 민족성, 인종성, 그리고 민족 건설이라는 핵심 당면 과제를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적 정치주의자들이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 그 심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민족주의는 1995년, 당시 옐친 대통령에 의해 공산당 등 야당이 아니라 정부 지도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되고 강조된 측면이 있는데, 옐친은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 때 민족주의적 관점을 역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35] 옐친의 이러한 행동은 1996년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등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선거전략 이었다. 당시에 공산당 당수인 주가노프는 대통령선거에서 “민족주의자-공산주의자 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무려 40%의 득표율을 보였다.

러시아에서 민족주의의 부활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공식화한 1991년의 벨로베즈(Belovezh) 협약을 1995년에 두마의 의결을 통해 폐지된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근외 지역 에서 소수민족이 되어버린 러시아인들에 대한 보호 권리,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의 전쟁 기간에 러시아의 정교도 형제인 ‘세르비아’인들을 수호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민족적 의식 개념, 그리고 NATO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의 적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민족주의 부활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36] 1990 년대 말에 ‘힐러리 필킹톤’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에트 시대에도 서방 문화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러시아의 청년 세대도 서방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서양의 문화 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금단의 열매’처럼 유혹적인 매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서방의 문화가 점진적으로

35) Davies, R.W. *Soviet History in the Yeltin Era.* (London: Macmillan, 1997) pp. 73-75.
36) Rosalind Marsh, "The Nature of Russia's Identity: The Theme of "Russia and the West" in Post-Soviet Culture,” *Nationalities Papers*, Vol. 35, No. 3, July 2007. p. 560.

혐오감으로 받아들인다는 자각이 젊은 세대에 출현하였기 때문이다.[37] 이러한 청년 세대는 과거의 러시아의 전통적 양식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은 서방을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로, 러시아를 영적 가치의 유산을 보존하는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38] 이러한 측면에서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의 역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체제를 거쳐 러시아는 전형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토대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도 러시아사회 내에 점진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21세기 들어 러시아정교회는 일반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과 유대 관계를 이루어왔고, 푸틴의 "권력의 수직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러시아 정교회와 대교구는 정부와의 정치적인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는다. 민족주의자/근본주의자들은 교회 내부와 교회 밖에서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상기의 표에서 적시하듯이 미하일 나자로프는 민족주의/근본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있다. 그는 러시아 국가두마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특히 러시아내 유대인 조직은 종교적 불관용성을 표방하므로 비합법적인 단체라고 주장하였다.[39] 나자로프의 관점은 필로페이의 '모스크바 제3로마이론' 의 역사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정교 근본주의자-민족주의자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행정부가 러시아정교회와 동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정교의 근본주의적 성격, 즉 정교의 극단성의 한 부분이다. 러시아권력 엘리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안정과 러시아 사회에 직면한 국가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정교회 내의 많은 비공식적인 운동은 "극단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로 불리어진다.[40] 이러한 사실은 극단주의가 정교에는 낯설다는 러시아 대교구의 기존의 관점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러시아 대교구는 러시아정교회 내에 극단주의 특성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이고 적절한 러시아정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교의 극단주의는 정교도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극단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일부 그룹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도리어 러시아정교회에 전체적으로 극단주의 특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41]

몇몇 이론가들은 근본주의는 어떠한 종교에도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슬람에서 근본주의는 매우 특징적으로 세기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42] 어느 정도의 수위 선에서 각각의 종교에서 근본주의와의 관계를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서방에서는 근본주의를 극단적 이념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정교의 근본주의를 위험한 사상으로 판단하는 예가 러시아정교회 내에서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정교 근본주의자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교 사상의 근본과 궁극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도리어 비판을

---

37) Pilkington, Hilary et al. Looking West? Cultural Globalization and Russian Youth Culture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 206-211.

38) Pilkington, Hilary. op. cit. p. 226.

39) Dmitri Sidirov, "Post-Imperial Third Romes: Resurrection of a Russian-Orthodox Geopolitical Metaphor" *Geopolitics, 11(2006)*, p. 327.

40) Verkhovsky, Alexander. "The Religious Factor in the Presidental Campaign and in the Formation of Ideology of the New Rule." In nationalities papers, Church and Putin: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Campaign 1999-2000, by Alexnder Verkhovsky et al. Moscow: "panorama" Center, 2001.

41) Philip Walters, op. cit. p. 855.

42)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는 정세진, "이슬람 원리주의 연구 - 중앙아시아와 중동아랍의 역사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1, 2008, pp. 255-276 참조.

가하기도 한다.[43]

● 정교 신-범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의 주창자는 다닐레프스키 (1822-1885) 이다. 다닐레프스키는 주지하듯, 동방문제의 제 3 단계를 예언했는데, 이는 모든 러시아의 슬라브인 연합, 체코 공화국,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포함),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헝가리, 그리고 터키의 일부분 지역을 포함하는 동방정교 - 슬라브 제국의 창설을 꿈꾸었다. 다닐레프스키는 비러시아성, 즉 제국의 국제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새 제국의 수도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나 모스크바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트로바노바가 주장하는 신-범슬라브주의자 (neo-Panslavists)는 과거의 선조들과는 그 맥을 달리한다. 신 범-슬라브주의자는 유럽 문명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를 중시하는 그룹이다. 나탈리아 나로츠니스카야의 저서인 '세계역사에서의 러시아, 러시아인들'은 현대 범슬라브주의자의 대표적인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책이다.[44] 그녀는 범슬라브주의자들을 서구주의자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류라고 강조한다. 혹은 포스트-범슬라브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정교-신 유라시아주의자

1920년대에 고전적 유라시아주의가 형성되었다. 이는 언어학자인 니콜라이 트루베츠코이, 경제학자인 '사비츠키', 역사학자인 '베르나드스키' 등 망명 지식인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개념은 "대륙 유라시아" 개념이었다. 망명 지성인들의 정서가 러시아문화의 새로운 규명과 보존이라는 '유라시아주의' 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45]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는 기본적으로 계급적 이상주의와 인종적 분리주의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는 '보수적 범민족주의' 로 평가되는데[46], 유라시아주의는 정교 이데올로기의 핵심으로 인식되었다. 사비츠키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정교 신봉자"들이라고 언급한다.[47] 그런데, 독특한 것은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정교를 교회의 교리보다도 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한다. 즉 이교 신앙(paganism) 조차도 '정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사비츠키는 불교와 이슬람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불교와 이슬람은 정교성의 다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는 대부분의 급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종교 · 문화 세계의 핵심으로 다양한 범주의 내용이 일괄적으로 '가능한 정교' (potential Orthodoxy)로 받아들여졌다. 불교와 이슬람은 사실상 정교 교회에는 속하지 않는 신앙적 체계이므로 이 주장은 매우 급진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적 정교 교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정치가 종교적 목표를 현실화 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48]

---

43) Philip Walters, op. cit. 855.
44) Dmitri Sidirov, op. cit. o. 333.
45) 김우승, "러시아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 - 세계화인가 유라시아주의인가 -" 『담론 201 』 9-3, 2006, p. 262.
46) 오원교, "신 유라시아주의 - 세계화 시대의 러시아적 대안 문화론," 『 슬라브학보 』 20-1, 2005, p. 171.
47) Petr Savitski, "Kontinent Eurasia" (Moscow: Agraf 1997), p. 92.
48) Анастася Митрофанова, 『Политизация Православного мира』 (Москва:Наука, 2003), pp. 112-113.

이러한 인식은 바로 유라시아주의가 정교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신 유라시아주의와 정교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신 유라시아주의는 근대화주의자와 팽창주의자로 일반적으로 구분된다. 찌간코프는 유라시아주의를 근대화주의자와 팽창주의자로 분류했는데,[49] 이후에 팽창주의자 대신에 문명화론자-안정화론자-지리경제학자로 구분하는 형식을 다루고 있다.[50] 찌간코프의 이러한 분류는 신 유라시아주의가 지정학적 개념의 다양한 범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핵심은 대부분의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은 알렉산드르 두긴의 개념과 연관되어있는데, 두긴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주창한 생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야심적인 개념을 표명하고 있다. 두긴에게 정교는 주요한 이데올로기 전통이며, 유라시아 제국은 지정학적으로 구체화된 현실적 구체성으로 다가온다. 두긴은 정교의 제 3로마제국의 화신은 소련으로 인식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소수이다.[51] 신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팽창주의자이다. 이들에게 '정교의 세계'는 범슬라브주의의 '슬라브 세계' 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며, 이는 지역적 팽창의 의미로 수용되었다. 정치분석가들에게 유라시아주의는 거의 대부분의 비서구적 종교가 포함되며, 정교 사상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주의와 정교는 가장 연관성이 깊은 이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라시아주의는 지방적이지 않고, 세계적이다. 즉 신-유라시아주의는 세계적인 이데올로기로 해석되기도 한다.[52]

● 신-정교 공산주의자

정교 지정학자인 '미트로파노바'는 러시아공산당 당수인 주가노프를 극좌 유라시아주의자로 규정한다.[53] 정교는 주가노프의 새로운 절충적 이데올로기였다. 주가노프는 그의 지정학적 입장을 밝힌 하나의 논설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지정학은 16세기에 러시아가 최초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가진 국가를 출범시킨 무스코비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 이때에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이라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독트린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영적, 도덕적, 종교적 요소의 역할은 단일한 러시아 국가의 탄생에 있으며, 러시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국가적 상황과 비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가노프는 현대 세계를 '대륙의 로마'와 '대양의 카르타고' 사이에 벌어지는 영원한 투쟁으로 묘사하였다.[54] 그는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을 러시아정교의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호하는 이념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노프는 한 인터뷰에서 정교는 사회 정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과 동등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55] 주가노프의 정교

---

49) A.P. Tsygankov, "Hard-Line Eurasianism and Russia's Contending Geopolitical Perspectives," East-European Quarterly 32(3), pp. 315-334. 김우승, op. cit. p.267에서 재인용

50) A.P. Tsygankov, "Mastering Space in Eurasia: Russia's Geopolitical Thinking after the Soviet Break-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6, pp. 101-127. 김우승, op. cit. p.268에서 재인용

51) Dmitri Sidirov, "Post-Imperial Third Romes: Resurrection of a Russian-Orthodox Geopolitical Metaphor" *Geopolitics, 11(2006)*, p. 335.

52) Анастася Митрофанова, op. cit. p. 139.

53) Dmitri Sidirov, op. cit. p. 338.

54) Gennady Zyuganov, Geografiia Pobedy (Moscow : Zyuganov 1997); http://www.democracy.ru/library/misk/geopolitics_zuganov/).

공산주의는 '신성한 러시아'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교 민족주의와 근본주의의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56]

V. 결론

아주 특이하게도 정교 이념이 분화되면서, 일부 지정학자들에 의해 '모스크바 제 4로마 이론'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된 적도 있었다. 스탈린 시대는 일국사회주의 이념의 토대로 제4로마 이론의 특성이 출현할 수는 없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정교지정학'에 관련된 이외의 학자들에게 있어 제3로마이론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있어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57] 그러나 러시아정교는 이념적 패러다임의 형태를 지정학적 관점이나, 러시아의 정신적 가치 체계로서도 수용된다. 특히 3장에서 '모스크바 제 3로마이론'의 역사적 변천, 그리고 역사적 함의를 본 논고의 담론에 덧붙인 것은 과거 19세기에 새롭게 조명된 이 이론이 러시아 제국주의 문화사시기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는 것인지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와 연관되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의 국가 형성의 정신사와 문화사를 제국주의 국가이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관계없이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메타포 해석에 있어 국민종교가 제국의 틀 속에서, 혹은 피지배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러시아정교의 역사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통해 그 근거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러시아에서 정교성은 다른 주요 종교보다 더 특별하다. 러시아 역사의 초기부터 정교성은 최상의 정치적, 지정학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유라시아 정교성의 원칙이나 이념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 무스코비 시대의 제3로마이론의 원천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부적 관점이며, 내부적 시선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 정교 제국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19세기에 이 개념은 범-정교적 의미를 가지고 제 2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을 획득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응용되었다. 20세기에 서방에서 이 개념은 러시아 제국주의 메시아이즘의 정당화로 이해되었다.

본 논고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정교지정학적 관점을 통해 러시아정교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했다. 러시아사회에서의 정교의 역할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콘텍스트 뿐 만 아니라, 러시아정교의 내부자적 관점을 통하여 더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체제와 민주화를 통해 역사상에서 새로운 유럽화의 길을 모색하는 러시아에 있어 이념의 다양한 스펙트럼, 민족주의적 개념, 과거의 범슬라브적 특성, 정교지정학, 러시아정교 공동체가 어떠한 분화와 발전을 지속할 것인가에 따라 러시아사회는 민족적, 정치적, 사회적 분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

55) Dmitri Sidirov, op. cit. p. 339.

56) Анастася Митрофанова, op. cit. p. 147.

57) 사실상 지정학 학자들은 제 3로마 이론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저술에 이 이론은 거의 무시되거나 오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자유 서구주의자인 트레닌은 이 개념에 대한 어떤 소개도 없다. 바실렌코의 저술에는 제 3로마이론에 관한 소개도 없이 러시아 메시아니즘에 대한 간단한 논의만 있었다. 그는 단지 제 2로마, 즉 비잔틴 제국에 대한 참조문만 약간 있을 뿐이다. 나르토프는 유라시아주의자에 대한 언급에서 제3로마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없다. 데르가체프의 책에도 이 이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콜로소프와 미로넨코의 책에도 제 3로마 이론을 범슬라브나 범-정교의 메시아이즘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지정학적으로 19세기말에 발칸반도 정교도들을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 형성 초기의 코무날카와 일상생활

기계형

1. 문제제기

1917년 10월혁명 이후, 내전, 신경제정책에 뒤이어 스탈린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는 시기에,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유토피아로서 '위대한' 사회주의의 기획이 '평범하고' '자질구레한' 현실과 마주하는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하일 조셴코(Михаил Зощенко), 미하일 불가코프(Михаил Булгаков)의 작품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었던 것은 바로 코무날카의 현실이었다.[1]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 속에서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부조리하고 그로테스크한 현실이 코무날카라는 공간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는 단지 작가들의 관심으로만 머물지 않았으며, 최근 일상생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최대의 이슈이다.

코무날카(коммуналка: **коммунал**ьная **к**омнат**а**)는 공동주택으로서 격동기 소비에트 러시아의 한 복판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주요한 일상생활의 공간이며,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라시아의 주요 도시들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유산 중 하나이다. 민족이나 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이 다른 전혀 상관없는 다수의 가족들이 각각 일정한 면적의 방을 배분받고 화장실, 욕조, 현관, 통로, 부엌 등을 함께 나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주택 양식은 몇 세대 동안 소련시민의 가정생활을 좌우했으며 소련의 역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공간이다. 코무날카는 결코 충족될 수 없었던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의 기억이 스며들어있는 장소이며,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많은 밀고자들을 낳고 키웠던 장이었다. 코무날카는 일상생활의 재건을 위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공간으로서, 유토피아적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개인과 집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분명 코무날카는 소비에트 정체성의 메타포였다.[2]

코무날카는 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과도한 사회주의 정책의 결과물이다. 기실, 진보와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의 이상은 국가기구를 통한 모든 자원의 평등한 배분에 있었고, 모든 공간은 이러한 원칙 위에서 분배되었다. 소련체제 수립 직후부터, 모든 공간에 대한 통제 및 소유권은 토지든, 기관이든, 주택이든, 공공의 기념물이든 간에 사회화되었다. 사회주의 체제를 표명하는 도시의 도처에 지어진 대규모 공공 기념물, 인민들의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공공의 광장, 공

---

* 이 발표문은 노어노문학회, 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였음.

1) 미하일 조셴코(Михаил Зощенко)의 단편소설『신경질적인 사람들(Нервные люди)』,『위기(Кризис)』,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Михаил Булгаков)의『개의 심장(Собачье сердце)』,『조야의 아파트(Зой кина квартира)』참조.

2) А. Беззубцев-Кондаков. "Наш человек в коммуналке", *Урал.* 2005. № 10, 예컨대 작가 베주브쩨프는 소비에트의 일상생활 중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중요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바로 코무날카라고 쓰고 있다. http://magazines.russ.ru/ural/2005/10/be15.html

공의 예술품, 그리고 인민의 궁전과 같은 다양한 사회주의적, 공적 공간에 관한 공식담론은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였다. 특히 소련체제 수립 직후 만들어진 코무날카와 주택정책은 공공의 장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침투시키려는 볼셰비키 정부의 노력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3)]

하지만, 코무날카가 평범한 소비에트 시민들이 살아냈던 일상생활 - 여가, 학습, 소비, 가정성(domesticity) - 의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코무날카가 국가와 당의 이데올로기가 개입하는 중대한 장소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레토릭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코무날카 공간을 둘러싼 관계, 공간의 이용방식, 공간에 대한 담론 등을 세세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한 현재에서 보면, 사회주의적 공간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약간이라도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성과만큼이나 실패에 책임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10여년간 소비에트 시대의 일상생활(быт)에 관심을 기울여온 역사가들의 작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소비에트시대의 역사와 문화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이 중심적인 화두가 되는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 그 개념에 대한 정의나 접근 방법에 있어 아직 명확히 합의된 것은 없다.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캘리(Catriona Kelly)가 언급했듯이 "줄줄 새는(oozy in terms of its methodology)"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4)] 아울러 역사가들을 포함해 인류학, 사회학, 문학, 언어학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사회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던 주제가 지금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함의하게 되었다.

특히 역사학 분야에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은 1994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러시아의 일상성(Русская Повседневность)'에 관한 국제회의로서, 그 후, 일단의 연구자들이 소비에트시대의 일상생활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보임(Svetlana Boym), 코트킨(Stephen Kotkin), 피츠패트릭(Sheila Fitzpatrick) 등은 '범상치 않은 시대'의 '평범한 공간(common places)'의 일상적 삶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임을 제기하였다.[5)] 최근에는 나탈리

---

3) David Crowley and Susan E. Reid (eds.) *Socialist Spaces: Sites of Everyday Life in the Eastern Bloc*, (Oxford: Berg, 2002), pp. 5-23.

4) Catriona Kelly,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s: Chronicles of the Quotidian in Russia and Soviet Union,"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3:4(Fall 2002), p. 638.

5) Svetlana Boym, *Common Places: Mythologies of Everyday Life in Russi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 Stalinism as a civiliz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Тимо Вихавайнен (ed), *Нормы и ценности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 Становлени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 России 1920-1930е годы* (СПб.,: Журнал 'Нева', 2000); Sheila Fitzpatrick,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s: Soviet Russia in the 1930s*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그리고 Sheila Fitzpatrick, ed., *Stalinism: New Direc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0).

아 레비나(Н. Лебина), 티모 비하바이넨(Тимо Вихавай нен), 예카테리나 게라시모바(Е. Герасимова), 치스티코프(А. Н. Чистиков), 우테힌(И. Утехин) 등 러시아 자체에서 배출된 신진역사가들이 참여하면서 일상사 연구가 보다 구체성을 얻기 시작했다.[6] 과거의 소비에트 사회주의라는 특정 체제의 규정력과 개인 및 집단의 일상생활과 일상적 행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재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서 코무날카 연구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7]

본 논문에서는 권력자와 행위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련체제 형성 초기 10년 동안에 코무날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10년은 혁명, 내전, 신경제정책, 스탈린체제의 등장이라는 압축적인 변화의 시기였으며, 시대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출현한 코무날카는 형성되고 있었던 소비에트체제의 정체성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들 가운데 코무날카가 가장 우세했던 상트 페테르부르그(레닌그라드)를 중심으로 그 구체성을 확보할 것이다. 코무날카 연구는 당대의 주택정책, 인구상황, 당대인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주로 볼셰비키 정부의 주택정책, 당대인들의 단편적인 기억, 그리고 최근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발표문은 향후 보다 발전된 논문을 위한 시론이자 문제제기의 차원임을 밝힌다.

2.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 일상(быт)의 의미

일상성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의하면,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오며, 진부한 것이 되는 생존과 존속의 메커니즘'이다.[8] 이러한 언명을 전제로 하면, 1917년 혁명의 시기 이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냈던 일상생활과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일

---

6) Н. Б. Лебина,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советского города: нормы и аномалии, 1920-1930 годы* (СПб. :нева и летний сад, 1999); Katerina Gerasimova,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Socialist Spaces: Sites of Everyday Life in the Eastern Bloc,* ed. David Crowley and Susan E. Reid (Oxford: Berg, 2002), 207-30; Илья Утехин, *Очерки коммунального быта* (М, 2001). М Меерович,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гжилищ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ССР и её реализации в архитект урном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1917-1941 гг.),* (Иркуцк: Издательсто Иркуц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хни ческого универитета, 2003).

7) 본 논문에서는 주로 코무날카의 기원과 초기의 역사에 한정한다.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 Stalinism as a civiliz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Svetlana Boym, *Common Places: Mythologies of Everyday Life in Russi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pp. 121-67; Boym, "Everyday Culture," *Russian Culture at the Crossroads: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ed. Dmitri N. Shalin (Boulder, CO: Westview, 1996), pp. 157-83; Katerina Gerasimova,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Socialist Spaces: Sites of Everyday Life in the Eastern Bloc*, ed. David Crowley and Susan E. Reid (Oxford: Berg, 2002), pp. 207-30; Н. Б. Лебина,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советского города: нормы и аномалии, 1920-1930 годы* (СПб. : нева и летний сад, 1999), сс. 178-204; Юлия Обертрай с, "'бывшее' и 'излишнее'—изменение со циальных норм в жилищной сфере в 1920-1930-е годы," Тимо Вихавай нен (ed), *Нормы и цен ности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Становлени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 России 1920-1930е годы* (СПб.,: Журнал 'Нева', 2000), сс. 75-98.

8)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주류, 1990).

상생활의 변화들에 대해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은 지역 - 도시인지 농촌인지 - 에 따라 더더욱 소련시대의 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존속 혹은 변화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중요성이 드러나는 지점인 것이다. 소련시대 유산의 일부가 존속하고 있다면,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사회주의로부터의 탈출인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로부터의 급출발했으나 여전히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환기적 상황에서 무엇이 변했는가를 보는 것은 무엇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은 역사 속에서 인간 주체, 행위자로서 인간의 경험과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지나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규정하고 준비하는 공적인 정책과 실행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규정력과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랫동안 일상생활 그 자체는 문화연구의 대상으로서만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일상(der Alltag) 그 자체의 개념은 독일에서 시작되어 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앙리 르페브르에 의해 이론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문화연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상은 루카치와 하이데거의 초기작품에서 기원하며, 앙리 르페브르를 거치면서 문화적, 사회적 변형의 요구와 같은 것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고 한다. 앙리 르페브르에게 있어 전후의 일상성은 상품의 세계, 심지어 인간도 상품인 세계, 그 세계에서 광고가 지상명령인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일상성은 이중성을 지닌다. 즉, 변화되어야 하지만 바꾸기 힘든 것이며, 반복되고 진부하고 사소하면서도 심오한, 다시 말하자면 보수성과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이중성이다. 이처럼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현대사회에서 상품과 소비의 효과에 대한 앙리 르페브르의 글과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 속에서 일상의 개념이 확고히 문화이론으로 자리잡았던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에트시대에 일상이라는 개념과 용례의 역사에서 보면 앞서의 일반적 설명은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로버츠(John Roberts)는 1970년대에 문화영역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 전까지 일상의 개념에 관한 전사(pre-history)를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가 보기에 일상 개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조되었다. 즉, 일상의 개념은 1910-1939년까지 루카치 등의 서구 맑스주의자들이 러시아혁명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변형을 겪었는데, 다시 말해 러시아혁명 이후 루카치가 '일상생활'과 '진정하지 않은' 경험을 결합한 것은 소련에서의 문화적, 정치적 출혈때문이었다. 루카치는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초기저작에 문제를 삼고 '일상생활'에 비판적 내재론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루카치에 의해 한번 걸러진 '일상생활' 개념이 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문화연구에 귀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9]

그렇다면 원래 일상(быт)의 개념이 지녔던 소비에트적 맥락은 무엇인가? 혁명 러시아에서 '일상'은 유토피아적 내용을 포함했으며, 소비에트문화에서 '일상'은 이

9) John Roberts, "Philosophizing the Everyday: The philosophy of praxis and the fate of cultural studies", *Radical philosophy*, November/December 1999, Issue 98.

론적 정교함의 대상이었다. 그것의 가장 적합한 예는 1923년 초부터 트로츠키가 『프라브다』지에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해 기고한 일련의 기사이다.[10] 트로츠키는 사회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국가가 위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새롭고 사회적으로 계몽된 사고방법을 단지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 행위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소비에트적 주체가 되는 것, 소비에트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새로운 생활'을 포함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28년에 망명을 가기 직전까지 트로츠키는 계속해서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그에게 일상은 혁명을 성취하는 지점이자 혁명이 옹호되어야 하며, 심화되어야 하는 그 지점이었다. 노동계급의 문화적, 정신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일상'은 혁명이 만들어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조건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는 그 지점이다.[11]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세대가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공산주의를 배웠다면, 신세대는 건설의 요소 안에서, 즉 일상생활의 건설이라는 요소 안에서 공산주의를 배우기 마련이었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권력장악 이후 정치사업에서 문화사업으로 당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라는 레닌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 당시의 이러한 변화상황은 일상, 문화, 민족문제에서부터 젠더에 이르기까지 분석과 이론화를 하는데 있어 대단히 다양하고 확장된 영역을 제공했다. 가족, 성관계, 우정, 개인의 외모, 여가활동, 소비형태를 비롯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논쟁이 일어났으며, 적어도 1920년대에 섹슈얼리티, 결혼, 일상생활에 대한 콜론타이의 글은 이러한 변화상황을 매우 예리하게 관찰하고 실천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르투니안(Harry Harootunian) 역시 20세기 초 루카치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가들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근대적, 도시적 일상성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상품의 이면에 놓여있는 본질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재생산되었던 환경은 바로 소련에 세워진 새로운 사회주의체제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12] 1917년 혁명 이후 예술분야에서의 흥미진진한 실험과 신경제정책 초기의 '카니발적' 흥분으로 가득했던 1920년대를 거쳐 마침내 스탈린주의가 도래하기 전까지, 상품화의 문제는 기술적이면서도 인간적이며, 합리적이면서도 사물화되지 않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생활과 곧바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소비에트공간에서 일상이라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혁명의 실험이라는 상황 안에서 만들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일상생활 연구는 단지 일상의 측면을 자세히 열거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진다. 요컨대, 일상생활 연구는 국가

---

10) 1973년 판에서는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로 출간되었다.

11) 하르투니안은 트로츠키 이외에 특히 프롤레쿨트의 멤버이기도 했던 보리스 아르바토프의 입장을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arry Harootunian, *Modernity, Cultural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Everyday Lif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chap. 2,『역사의 요동』, 윤영실, 서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2006),

12) 해리 하르투니안, 『역사의 요동』. 168-179쪽.

와 같은 권력집단의 지배의 그물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흥밋거리로서 일상생활 주제들을 소비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 일상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거처로서 사적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3. 주택정책과 코무날카의 출현

러시아어로 집(дом)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집은 인간이 머무는 건물이지만 개인에게 가장 안락함을 주는 정신적 장소이자, 잘 조직된 가족제도의 구현물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집이라는 의미 속에는 물질문화의 일정한 기표와 멘탈리티의 요소가 코드화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브로델에 따르면, "'집'은 그것이 어디에 서있던 간에 집요하게 자기를 보존하고 지탱하고 반복하려는 문명과 문화의 완만함을 끊임없이 증명해주는 것이다."[13] 아울러 인간이 거주하는 집은 물질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공간을 대표하며, 특히 그 고유한 완만성과 타성을 지닌 그 공간에서 인간의 사생활이 전개된다.

그런데, 코무날카를 역사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재구성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그 개념에 있다. 코무날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장 널리 알려진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① 코뮨[14] ② 몇몇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이다.[15] 만약에, 몇몇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오제고프식 정의를 따르자면, 그러한 유형의 집은 제정 러시아 시기에도 오랫동안 존재했다. 1880년대의 국가주도의 산업화는 이농현상을 불러일으켰고, 도시문제를 심화시켰다. 도시에서는 인구의 다수가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아야하는 조건 속에 있었다. 고용주들이 그런 방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집주인들은 그런 방들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 아울러, 현존하는 주거형태 중에서 예컨대, 몇몇 가족이나 독신자들이 함께 큰 방을 임대하는 독일의 Wohngemeinschaft와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16]

그러나 그러한 동거형태는 소비에트 사회의 특징은 아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코무날카는 국가소유의 주택으로서, 입주자의 가정상태나 집의 배치에 상관없이 1인당 정해진 주택면적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입주자가 생기는 주택이다. 그것의 잠재적 결과는 전혀 가족적 관계가 없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가피한 동거였다. 제정 러시아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집은 강제적 거주의 표시이기는 했으나, 한 주인에게 속하고,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적어도 그 공간 안에서는 자유로웠다. 서구의 경우에는 공동의 주택이라도 자발성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며 부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지닌다. 따라서 코무날카의 개념적 정의에서는 첫째, 지방의 권력기관에 의해 발행된 명령서에 따른 입주, 둘째, 권력기관이 자신의 대표를 통한

---

13) Fernand Braudel, *Civiliz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xviii siècle. Tome 1, Les structures du quotidien: Le possible et l'Impossible*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일상생활의 구조』, 까치, 1996. 378쪽.

14) 몇몇 연구자들은 코무날카가 코뮨에서 파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곤 한다. 새로운 생활의 사회화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코무날카에서 표현되고, 그 다음에는 돔-코문이 코무날카와 상호 연관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15) С. И. Ожегов,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1978), с. 264.

16) http://de.wikipedia.org/wiki/Wohngemeinschaft

주택 유지 및 내부질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해야만 한다.

소련에서는 국가(당) 이데올로기가 주택경제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 당에 의해 채택된 주택문제 해결책, 건축가들의 제안에 대한 국가의 입장 등 여러 맥락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련에서의 주택정책은 그 방향이 미래에 실현할 공산주의 사회의 시민을 위한 미래적, 이상적 주택건설에 놓여있었으므로, 그것은 실제 상황과 유리되었고 선포된 정책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주택의 역사는 두 가지 차원, 한편으로 계획, 선언, 공포,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택 전략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반응과 주택상황을 보아야 한다.

1917년 10월 혁명이후 형성된 러시아의 도시공간에서 살았던 도시민의 정체성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국가의 주택규정 도입과 연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월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심각한 사회문제, 즉 도시의 노동자에게 주택을 보장할 필요성에 부딪혔다. 이 문제를 해결할 확고한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였던 레닌(В.И. Ленин)은 계급원칙 위에서 일종의 주택규범을 만들었으며, '집의 분배'라는 방법에 의해 무산자층의 일상적 삶의 조건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레닌은 '가난한 사람들의 결핍 완화를 위해 부자의 주택 몰수(О реквизиции квартир богатых для облегчения нужд бедных)'라는 계획안을 개략적으로 만들었다. 레닌은「볼셰비키는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글에서 그 실현의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어떤 집이든지 간에, 방의 숫자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한 거주자의 머리수와 같거나 초과하면 부자의 집이라 여겨졌다."[17] 이것은 엥겔스(Ф. Энгельс)의 유명한 테제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즉, "주택부족은 유한계급에게 속하는 호화 주택의 일부를 즉시 수취하여, 남은 부분을 강제입주라는 방법에 의해 완화할 수" 있었다.[18]

레닌의 공식은,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에 의해 비준을 받은 결정으로서,[19]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방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순간에 소비에트권력이 향후의 정책을 규정한 것이었다. '주택 분배'는 1918년 봄 페트로그라드에서 시작되었다. '주택 분배'는 국가가 시민의 사적 공간과 사적인 삶에 개입하는 방법이었다. 1918년 3월 1일자 페트로소비에트의 결정과 함께 집주인의 거주권에 대한 공세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권력은 산업가, 공장주, 은행가 등 뿐만 아니라, 학자, 엔지니어, 의사, 작가를 '부르주아'로 남겨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前)시대의 특징을 지니는 사람으로서, '예전의 사람들(Бывшие)'이라 불리웠고, 이처럼 혁명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잃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흥미롭게도 '예전의 관리', '예전의 순경', '예전의 집주인' 등 이름이 붙

17) В. И. Ленин, *Пол. собр соч.* Т. 54. с 380. А.И. Черных, "Жилишный передел ; Политика 20-х годов в сфере жилья", *Соц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1995, 71. 재인용.

18) *Энгельс Ф.* К жилищному вопросу // *Маркс К. , Энгельс Ф.* Сочинения. М., 1961. Т. 18. с. 239.

19) *Известия ВЦИК.* 1918. 2 марта, с. 56.

여졌다. 이 단어는 부르주아와 동의어였다.[20]

이와 같은 도시의 비 프롤레타리아계층을 희생하여 노동자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은 1918년 가을에 착수되었다. 도시영역 안에 위치하는 그리고 누군가의 소유물인 모든 지면은(건축물의 유무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부동산 개인소유권을 폐지하는 법령에 의해, 인간의 사생활의 공간으로서 집이 국가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만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모든 도시에서 새로운 주택의 건설권은 개인, 기업가, 관청, 기관 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지방의 소비에트에게 속하게 되었고, 주택면적의 배분도 지방소비에트의 소관이었다.[21] 모든 주택은 국가소유(시소유)가 되었다. 도시의 당대인의 증언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또한 주의 도시들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편리한 집의 거주자는 특별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졌고, 아울러 부르주아적 기생적 요소들은 추방당했다. 노동자들이 오두막과 지하실로부터 나와 그 곳으로 이주하였다."[22]

1917년 10월부터 1921년까지는 계급적 표시에 따라 주택을 분배한 시대로 특징지워진다. 혁명이후 모든 주택이 국유화 되면서 집주인들은 자신의 저택에서 쫓겨났고, 다른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대도시의 중심가는 보통 제정러시아 시대의 귀족이나 부르주아지들 소유의 대규모저택으로 구성되었는데, 볼셰비키 당국은 부자들 집의 밀도를 높임(уплотнение)으로써 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기에 주택조건의 기본 성격은 사람당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서, 각 가족은 하나의 방을 배분받았다. 배분받은 공간에서 생물학적 요구사항-공기의 양, 청결함, 건조함-이 주택분배의 규범이 되었고, 전문가들이 사회적 위생과 위생학에 기초해 규범을 정했다. 그리하여 1명의 성인에게 적합한 '최소의 공기의 양'은 20㎥이며, 인구과잉(перенаселенность)은 "발병의 고조와 사망"을 이끈다는 '위생학'이 정해졌다. 사회구조의 요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평준화되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새로운 사회구조의 형태를 반영하는 주택의 분배에서 새로운 특권과 이익의 시스템 건설이 시작되었다. 1919년, 인민보건부(Наркомздраво)에 의해 주택면적 위생기준(санитарные нормы жилой площади)으로서 1인당 18평방 아르쉰(9평방미터)이 정해졌다.[23]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정부는 도시의 계급구조를 깨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에서 변두리의 노동자들을 중심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예전의 사람들'도 노동자도 각기 대응이

---

20) Юлия Обертрайс, "'бывшее' и 'излишнее'—измен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норм в жилищной сфере в 1920-1930-е годы," Тимо Вихавайнен (ed), *Нормы и ценности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Становлени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 России 1920-1930е годы,* сс. 75-76.

21) А. И. Черных, "Жилишный передел ; Политика 20-х годов в сфере жилья", 71.

22) *Октябрьский переворот и диктатура пролетариата.* Пг., 1919. с. 95.

23)인구증가가 커지자 1931년에 레닌그라드에서 평균생활공간은 6.7㎡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식적인 위생규칙에 의해 3㎡가 더 늘어났고, 1990년대에는 1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칙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넓은 공간에 사는 가족은 국가의 주택대기자명단에 등록이 금지되었다. Е. Герасимова. История коммунальной квартиры в Ленинграде. http://www.kommunalka.spb.ru/history/history4.htm,

달랐다. 주택 분배 초기에 '예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택을 노동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며, 여분의 공간을 거주하지도 않는 친척과 지인의 이름으로 채워 넣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인텔리겐찌야의 개별 회상록들은 스스로 '밀도 높이기'를 하면서 주택관리소 앞에 서있을 때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을 자주 회고하였다.[24] 노동자들 역시 이주를 서두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 고려(귀족들의 집으로 이주는 난방을 위해 많은 땔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사비용이 드는 것이었다), 심리적 불편함(전혀 보지도 못했던 물건들에 둘러싸인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가 존재하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다른 사회계의 사람들과 동거한다는 불편함), 안정성의 부족(일터와 작업장 간의 장거리, 중심지에서는 텃밭을 가꿀 수 없다는 상황 등)으로 이주를 원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이주 및 수리 보조금, 집세면제 등 상당한 이점이 제공되었으나 노동자들이 바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다.[25] 더구나 이주에 나섰던 노동자들도 1919년-1920년 연료위기의 시기에는 장작을 아끼기 위해 중앙난방의 귀족집에서 다른 집을 찾아다녀야 했다. 페트로그라드 중심지의 대저택은 난방에 비용이 많이 들어 점차 비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추운 빈집은 집의 위생상태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공동이용의 장소-욕실, 화장실, 부엌 등은 집단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커다란 집들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듯이, 1920년대 초만 하더라도 코무날카는 향후 극복될 것으로 추측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다.

코무날카의 역사에서 보면, 네프시기는 그동안의 '주택 분배' 원칙을 변형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주택이 모자랐지만, 지방의 소비에트는 주택을 새로 지을 기금이 없었다. 국가내전과 전시공산주의 시기가 끝나고 시장적 자극이 자유로웠던 네프시기에는 혹독한 계급정책에서 주택분배의 원칙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1922년 건축법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1924년에 다시 건설된 주택의 72%가 개인적 방법에 의한 것이었고, 1926년에는 새로 지어진 전체 주택 중 81.8%가 개인적 건설에 속했다.[26] 물론, 이러한 개인적 건설에서도 이데올로기적 기초, 즉 "한편으로는 주인의 감정을 육성하고 자율의 경험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쪽으로는 독립채산(자급) 원칙" 위에서 주택을 지어야 했다.[27] 특히, 1924년 8월 19, '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이 공표되어 주택-임대 협동조합((ЖАКТы), 시유지 주택소유 수취를 위해 구성된 노동자주택 건설 협동조합(РЖСКТ), 그리고 붕괴주택 재건을 위한 전시민의 주택건설협동조합(ЖСКТ)의 통일된 법적 원칙들이 만들어졌다. 법으로 인정된 주택조합의 모습으로 공동소유권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정착되기는 쉽지 않았다. 어떤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은 방의 권리를 부르주아에게 팔아넘겼고, 어떤 집주인들은 전체 방세를 먼저 주택

24) 위의 글.
25) *Кузнецова Т.* О революционном жилищном переделе в Москве // История СССР. 1963. № 5, с. 43.
26) БСЭ. М, 1932. Т. 25. с. 449.
27) *Бессонова О.Э.* Жилье: рынок и раздача. Новосибирск, 1993. с. 73.

관리소에 지불하고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방세 사이의 차익을 챙겼다. 1927년 즈음에 소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주택법의 체계가 만들어졌다; 1) 노동자의 주택면적권리의 확고부동성을 보장하고,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 신중하여 노동자의 관심을 고무시킬 것. 2) 주택면적의 분배를 확고히 할 것. 3)주택조건의 균등화를 계획대로 지속하며, 이 계획에서 낙오된 사회적 범주를 1인당 평균기준으로 끌어올릴 것이었다.[28]

국가는 그 이후에도 내내 주택위기를 경험했다. 1923년에 페트로그라드의 인구는 2천 1백 30만명에 이르렀고, 1927-1928년에는 5백 6십만명이 넘는 인구증가를 겪었으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가운데 개인당 면적은 점점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1932년에는 9백만명이 더 늘었다.[29]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무날카는 확산되게 되었고 결국 대도시 주택의 전형적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인데, 첫째는 이데올로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집단적 돔-코뮨(дом-коммуна) 건설의 실패, 둘째, 새로운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의 부진, 셋째,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 넷째, 코무날카 주민들의 빠른 적응을 들 수 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코무날카는 운영규칙, 재조정, 위계적 권력시스템을 지닌 사회제도로서 거듭났다. 예컨대, 코무날카 총책임직(ответственный квартуполномоченный)이 설치되었는데, 그는 코무날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생규칙, 등록규칙에 대해 책임을 총괄했다. 내무인민위원부(НКВД)는 코무날카에서의 제관계들을 규정하는 '주택 및 코무날카의 내부질서 규칙'을 승인했다. 집지기들(дворники) 역시 코무날카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거주민과 안전업무 담당자 간의 분쟁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주민에 의한 잘못된 행동은 인민법정에 기소될 수도 있고, 주택당국에 의해 조정되었기 때문이었다.[30]

4. 일상생활의 공간 코무날카의 성격

국가와 공산당은 시민의 가정생활 속으로 침입했다. 그것은 정부가 규칙을 부과하는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코무날카 대표와 한 공간에서 동거하는 이웃인 코무날카 주민들의 끊임없이 감시와 조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런 방식으로 코무날카는 사회적, 정치적 통제 시스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외적인 모습에서도, 이런 종류의 주택은 집단주의 사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였고, 사적 재산권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공간과 설비시설의 집단적 사용은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도록 해주었던 반면에, 그러한 커뮤니티는 공동의 선이나 사회적 배경에 기여하는 사상, 목적, 의식의 공유에 의해 결합되었던 것은 아니다. 코무날카 공간조직의 이러한 특정 형식은 코무날카가 일정부분 당-국가에 종속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였다.[31]

---

28) БСЭ. М, 1932. Т. 25. с. 451.

29) А. И. Черных, "Жилишный передел ; Политика 20-х годов в сфере жилья", 77.

30) Е. Ю. Герасимова, "Советсая коммунальная квартир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журнал, no. 1-2 (1998): сс 224-43.

코무날카 공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의 그것(예컨대 병원이나 막사 등)과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렇지만, 계획된 공간으로서, 이러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적 패턴에 따라야했다. '집같은 장소'에서, 모든 가족 성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또는 거의 모든 방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 그 집의 내부운영은 거주민 자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무날카 안에서 한 가족에게 배당된 방(комната)은 코무날카 점유자 가족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사적 공간으로서 공적 통제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적 공간마저도 복도의 긴 통로와 연결되어 부분적으로는 '기관 같은 장소'의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사생활이 칸막이 하나로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칸막이는 통제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되는 공간에서는 '가정'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없었다. 집은 개인적 소유의 감정,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정감 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코무날카는 혁명전에 중간계급과 귀족 가문의 주택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이러한 주택을 사용하곤 하였다. 전형적으로, 3~4개의 방은 가족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2~3개의 방은 살롱이나 만찬용으로, 그리고 2~3개의 방은 하인용이었다. 그리고 넓은 부엌, 적어도 2개의 화장실, 목욕실, 두 개의 입구(하나는 '정중한 사회', 다른 하나는 하인과 상인을 위한 문)가 있었다. 방들은 저택건물의 전체 모습에 맞게 만들어졌다. 각각의 방은 모두 현관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하인용 방은 뒤쪽 입구에 있었고, 집에서 하인으로서 봉사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방 구조의 형식은 주로 기능에 따른 것이었고, 주택의 설계는 당시에 공유되는 문화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보다 낮은 계층은 특별한 기능을 하는 방의 숫자가 좀 적었지만 가정집과 같은 공간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32]

1917년 이후, 소비에트 당국의 전략은 사적 공간을 공적인 국가개입에 개방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분배, 그리고 삶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과 연관되었다. 1920년대에는 위생규칙에 따른 주택배분 관행, 압축관행, 구식생활에 반대하는 투쟁의 이데올로기(가족생활, 편안함과 안락함, 소비 등)는 편협한 사회화와 함께 모든 부르주아적 특징을 지닌 방을 없애버렸다. 그러한 공간은 사치와 과도한 행위로 간주되고 금지되었다. 집 주인들은 큰 집을 작게 나누도록 강요받았다. 주택이 압축되자, 방사이의 문은 철거되거나 폐쇄되었다. 새로운 훈련공간(그 속에서 각 세포는 공동의 현관으로 개방되어 있는)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집은 '기관 같은' 공간으로 변했던 것이다.[33]

공간구조의 기관화(제도화)는 수평적 통제체제를 만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어떤 한 순간 우연히 현관쪽 통로에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모든 사람은 그 즉시 옵저

31) Katerina Gerasimova,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pp. 211-215.
32) Svetlana Boym, *Common Places: Mythologies of Everyday Life in Russia,* p. 174
33) Katerina Gerasimova,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p. 208.

버와 통제자가 되는 것이었다. 소비에트 사회에서 집단과 개인의 창조에서 이러한 감시 메카니즘의 중요성은 하르호르딘(Олег Хархордин)에 의해 충분히 연구되었다. 그는 소련에서 '개별화'의 과정은 규율적 권력 아래서 개인이 출현했던 서구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였다. 규율적 권력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는 위계적 통제인데,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적 문명에서 개별과 집단은 동시에 형성되었고, 인민법정, 숙청시스템, 고발이라는 집단적 관행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수평적 통제는 소비에트의 일상적 삶의 요체가 되었다.[34]

코무날카는 한편으로는 공적(общественная) 영역에 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영역(частная)에 속한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정의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코무날카에서의 삶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며 일상생활은 밖으로부터 규제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묘사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다.

그렇다면, 대체 코무날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개의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는 사적 공간, 다시 말해 사생활의 공간인가? 아니면 그것은 국가와 당의 이데올로기에 언제라도 열려있는 공적 공간인가? 과연 러시아에서 공/사 공간이라는 이분법 적용이 가능한가? 러시아어에는 서양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가? 올레그 하르호르딘은 소비에트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공/사 라는 이분법 사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념은 소비에트사회와 문화의 특징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태도는 게라시모바와 같은 연구자들이 분석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서구식 공/사 영역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최근 게라시모바가 페테르부르그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코무날카의 거주민은 그들에게 사생활이 없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확실히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러시아 소비에트문화의 특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용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하르호르딘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게라시모바는 코무날카 주민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그들도 서방세계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때 느끼는 비슷한 모멸감, 불편함, 긴장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게라시모바가 강조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35] 그는 공/사영역의 경계는 은유적이면서 육체적 감각 속에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코무날카 현상은 소비에트 식 버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험, 유산, 이념을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공적, 사적 용어가 모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분석에서 그것이 적합성이 있는지는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그 용어들은 종종 개인 대 사회, 그리고 개인 대 국가 간의 중대한 관계를 표시

34) O. Kharkhordin, "Reveal and Dissimulate: A Geneology of Private Life in Soviet Russia", J. Weintraub & Krishan Kumar, 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333-363.

35) Katerina Gerasimova,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p. 209.

하는데 사용해왔으며, 러시아어로 공/사영역이라는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한 재고뿐만 아니라, 대안적 용어를 위한 탐색을 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하고 있다.[36]

5. 결론에 대신하여

코무날카는 과거처럼 근대적 가정생활 및 사생활의 보편적 개념과 거리가 먼 일탈적 삶의 방식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과거의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적,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소련과 서방사회를 극명하게 비교하도록 해주는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공동주택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코무날카는 전형적인 소비에트시민의 일상생활, 사회관계, 가치의 중심적인 기초였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을 변형시킬 목적을 가진 이데올로기적 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코무날카는 전쟁, 혁명, 산업화에 의해 일어난 대규모 주택부족의 결과라는 주장과 함께, 시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경제적 통제를 하기 위한 국가의 만능적 도구라는 주장, 그리고 몇 명의 거주자가 예기치 않게 들러붙어 살고는 결국, 소련붕괴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사실 스탈린시대에도 코무날카를 통해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자 했던 통치체제의 기본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스탈린시대에도 모든 노동인민을 위한 주택보급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고 계속 미루어졌다. 상황의 개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했으나, 국가가 산업화 정책 노선을 택하면서 주택이 아니라 공업건설에 맞추어졌다. 주택건설의 총규모에서 주택협동조합의 몫은 두배 감소가 일어났다. 사람들의 주택조건은 더 열악해졌으며, 이번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열악해졌다. 공장주변에 임시피난처같은 거처가 건설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 꼭 필요한 위생조사도 없이, 임시가건물(бараки)이 수백만명의 노동자가족의 영구적 거주지가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시기에 개별주택이 매우 선택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에는 모든 사적, 개인적 표현은 “낡은 생활‘ ’소시민성, ‘쁘띠부르주아성’이라는 반혁명적 잔재였으나, 1930년대에는 사적(비밀스러운 것으로서частное(скрытое)인 것은 전처럼 인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 삶(личная жизнь-가족, 개별적 요구)은 적극적으로 선전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은 주택이데올로기에도, 주택건설의 관행에도 반영되었다. 1930년대에 개별적인 집은 국가 앞에 특별한 공훈이 인민영웅과 같은 사람들에게 포상으로 정해졌다.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한 집의 건설이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1920년대의 ‘집단적 일상생활’ 시대의 건축물과는 대조적이었다. 20년대에 이상적인 집은-노동자들을 위한 집, 통로 시스템이 있는 집이었다면, 이제는 개별적인 부엌과 욕실, 공동세탁장, 탁아,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집으로 바뀌었다. 개별적인 주택에 대한 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구조의 강화

36)Е. Ю. Герасимова, "Советсая коммунальная квартир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журнал,* no. 1-2 (1998): сс. 230.

및 사회층 형성원칙에 변화(20년대에는 특권집단으로서의 노동자, 30년대에는 국가 앞에 공로가 있는 엘리트 전문가)가 나타나고, 개인적 삶의 역할(20년대에 집단성의 강조와 선언, 30년대에는 국가와 사회성의 통제 아래서 가족의 목가적 생활 선언)이 전제되며, 삶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요구(20년대에는 규범에 따르는 경제성, 합리성, 30년대에는 안락함과 문화성)가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게라시모바가 이른바 '공적 프라이버시'라고 명명했던 현상으로서, 여전히 통제의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공간이었다.

스탈린 사후 후르쇼프는 개별주택의 건설을 지향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57년 7월 3일, 정부는 '소련의 주택건설의 발전 정책'에 따라 새로운 개별주택을 건설했다. 정부는 코무날카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경제적으로 불리한 주택양식이며 현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코무날카는 소비에트권력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고, 산업화시대의 경제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의해 주택건설콤비나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해빙의 시기에 공/사영역의 배치는 다시 변하였다. 독립적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 개인 여권, 소유권의 증가, 개인적 서클 증가, 우정의 탄생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배치는 국가에 의해 덜 통제되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났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집단적이었다.

1980년대 말 이래로, 국가의 통제는 감소되었지만, 공적 영역은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비교적 약하게 남아있다. 동시에, 사적 영역은 점차 강화되었다. 사유재산권의 지원을 받아서 개인주의화, 집을 사회적 신분과 정체성의 표현으로 보려는 욕망 등에 의해 사회적 차이가 수반되었다. 러시아의 현재의 발전은 가정성으로 되돌아가려는 많은 표시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서구식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코무날카 - 소비에트시대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가정생활의 패턴 - 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무날카는 소비에트 체제의 메타포로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남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관한 일고찰
- 독자 대중의 문제를 중심으로-

오 원 교

I. 서론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비에뜨 문예의 주요한 창작 방법 혹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 소비에뜨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비에뜨 러시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멀리는 20세기에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동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과, 가깝게는 북한과도 적지 않은 관련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비록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0세기의 인류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그렇듯이, (탈)근대를 위한 또 하나의 미완의 문화적 기획으로서 적극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엄연한 하나의 미학 체계로서 출현과 존재의 합법칙성을 지닌 일련의 복잡한 문화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그 개념은 새로운 미적 경험을 단일한 미적 개념으로 파악해야할 이론적 필요와 실천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비에뜨 사회의 발전 국면들과 예술 체계의 내적 과정의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전개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의 고유한 역사, 즉 형성, 진화, 동요, 해체가 이뤄졌다.[1)]

하지만 오늘날까지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러시아에서는 회피, 망각, 청산의 대상으로, 그에 비해 서구에서는 경멸, 의혹,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것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었던 러시아인들에게는 정신적 트라우마의 근원으로, 반면에 그것을 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멀리했던 서구인들에게는 문화적 퇴락과 지적 자유에 대한 억압의 표본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소비에뜨 체제 붕괴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진지한 학문적 성찰의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재차 주목해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대 러시아 문학은 여전히 과도적 혼란에 빠져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지나간 역사에 대한 유희적 망각이나 비난이 아니라 쓰라린 기억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소비에뜨 문학에 대한 단순한 긍정이나 부정이 아닌 엄중한 역사주의적 입장에 기초해

---

1)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를 시기별로 개괄해보면, 형성기(1917-1934)는 20년대의 준비기와 30년대 초의 성립기를 아우르는 시기로, 당의 정책보다는 문학 집단 간의 다원적인 논쟁이 활성화된 시기인데, 이를테면,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헤게모니, 문화유산, 동반자문학, 계급환원주의 내지 속류사회학주의 등에 관련된 논의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확립에 기초가 된다. 진화기(1934-1953)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공식화, 교조화(규범화) 시기로서, 문학의 양식과 방법 개념, 세계관과 창작방법 등과 관련된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뤄졌으나, 결국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혁명적 낭만주의, 무갈등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규범문학(쥐다노비즘)으로 변질된다. 동요기(1953-1985)는 스딸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흐루쇼프의 해빙기와 그 후의 브레즈네프의 결빙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문학적 스딸린주의에 대한 비판, 가치론의 등장, 문학 방법 개념의 재정립 시도 등이 특징적인데, 문예정책상의 이데올로기적 통제 속에서 교조적 사고가 여전히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공식들은 문학적 실천에 뒤처지기 시작하고, 점차 규정성을 상실한다. 해체기(1985-1991)는 개혁 · 개방으로 상징되는 시기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존재 근거와 위상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본격화된다. 이념적 성격을 띠었던 논쟁은 소비에뜨 체제의 붕괴이후 보수파의 몰락, 중도파의 침체, 개혁파의 득세를 거쳐 점차 청산주의적 파고는 잦아들었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정당한 평가는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야 하는 과제로서, 새로운 문학적 과제나 전망의 모색에 필요불가결하다.

더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롯한 소비에뜨 문화에 대한 논쟁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기조차 하는데, 주요한 쟁점들, 특히 그것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대답들 – 국가 권력(당)의 압력, 정치적 통제, 지독한 검열 등 – 은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고, 역사적 현실은 친숙한 이념적 흑백 논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확고한 진실로 여겨지던 전통적인 가정들에 대한 교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재분석과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테면 창작 활동에서 작가에 대한 압력은 위로부터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나왔다. 물론, 권력의 중심이자 전위인 당의 지시와 대다수가 노동자 · 농민 출신인 독자 대중의 기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이었는지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에서 물론 정치적 통제와 지독한 검열의 존재와 영향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통제와 검열이 필요 없는 새로운 유형의 작가도 문제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학 활동의 보편적 주체인 작가와 독자 보다는, 오히려 국가 권력이라는 또 다른 제3의 주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권력이라는 능동적인 주체가 작가와 독자라는 수동적인 객체에게 명령하고 통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러시아 역사의 끝없는 부침 속에서도 창조적 인쩰리겐찌야로서 고유의 개성과 위상을 결코 잃지 않았던 작가들과는 달리, 독자들은 아무런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한 이름 없는 개체들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소비에뜨학의 성과들[2]에서 드러나듯이, 소비에뜨 체제에서 권력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억압과 복종'이라는 단순한 이원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강제-동의-저항'이라는 복잡한 다원적 시각에서 양자의 상호작용의 역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는 소비에뜨 문화에서 권력과 대중의 상호 역학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주체에 대한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거나 부당하게 배제되어온 독자 대중의 요구와 취향, 그것에 대한 권력 집단의 대응과 반향, 그리고 양자 사이의 만남과 결별의 맥락에서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역사 속에서 권력과 대중의 상호 관계는 대단히 역동적으로 진화하였는바, 본고에서 그것이 가장 뚜렷한 형태를 띠는 스딸린 시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II.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대중성

1. 소비에뜨 문학과 독자 대중

러시아의 역사에서 1917년 혁명은 중요한 정치적 · 경제적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서 기록된다. 혁명은 새로운 규범과 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인간의 창조와 새로운 사회의 구축의 계기로서 선언되고 실행되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인간의 창조라는 목표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몫이자 과제였고, 그것의

2) 이러한 성과의 대표적 예는, 러시아사 연구에서 '제3의 거대한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는 포스트-수정주의론에 기반한 스딸린 시대에 대한 '새로운 문화사'적 접근이다. 이를 포함한 스딸린 시대에 관한 연구 시각의 역사적 개괄은, 황동하, 「소련 역사 속의 '스딸린 시대': 이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들」, 『서양사학연구』, 제7집 (2002), 89-122쪽 참조.

수행은 이른바 소비에뜨적 '문화 혁명'에 다름 아니었다. 산업화와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소위 '스딸린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역사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인 문화 혁명은 전체 근로 계급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소비에뜨 인쩰리겐찌야를 육성하는 매개체였다.[3)]

전통적으로 러시아 사회에서 일종의 '삶의 교과서'로서 절대적이고 특별한 지위를 차지해왔던 문학은 문화 혁명의 과정에서도 다른 문화 매체들이 겨룰 수 없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수행했다. 문학은 소비에뜨 사회의 모든 요구들을 반영해야 했고, 때문에 사회의 지향, 가치, 정신 그리고 문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원칙들의 토대로서 간주되었다. 말하자면, 문학은 혁명적 과정이 정치적 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바로 중심이었다. '소비에뜨 인간의 창조'라는 단일한 정치적 미학적 기획에 복무해야 했던 문학에서는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도 핵심적인 구성요소였다. 특히 혁명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던 독자 대중은 문학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할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인간적 질료의 궁극적 재구성에 초점을 두었던 소비에뜨 문학은 중심 대상인 독자 대중의 요구와 취향에 일차적 관심을 두었다.

혁명과 내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던 1920-1930년대 중반에는 특히 독자 대중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 원천, 즉 20세기 전환기 러시아 역사와 1920년대 이후의 당대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역사적으로 독자에 대한 관심은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까지 젬스뜨보, 교육사업, 도서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혁명 후에도 활동적이고 영향력을 지녔던 20세기 전환기의 인민주의적 인쩰리겐찌야로부터 시작되었다. 젬스뜨보 자유주의자들은 농민들을 미래의 동맹군으로 보고 학교, 도서관, 공개 독서 등을 통해 그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소비에뜨 도서관학을 창시하고, 1920-1930년대 전반기에 도서관 사업을 수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1세대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함께 작업하는 방식들을 개발하여, 문화 혁명의 역사적 토대를 쌓았다. 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독자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새로운 독자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고, 특히 그들의 독자에 대한 개념 — '교육의 대상' — 은 후에 논란거리가 되었을지라도 소비에뜨 권력의 이해에 상응했다.

관심의 또 다른 원천은 광범위하게 등장한 새로운 대중이 책과 독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당대적 상황이다. 시대의 낯설음과 새로움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정보 공급원으로서 책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갑작스럽게 닥친 역사적 격변 — 혁명과 전쟁 그리고 소비에뜨 권력의 새로운 정책들의 결과 — 은 사회적 파편화를 낳았고, 대중의 는 도시로의 대대적 이동과 주변화, 그리고 도시 문화에의 동화를 초래했다. 1920년대의 강렬한 문화적 삶의 현상은 새로운 독자, 관객, 청중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구시대의 도시 인쩰리겐찌야들은 새로운 문학을 멀리했고, 새로운 예술을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마지못해 문화적 삶의 새로운 방식들에 적응해야 했다. 당시에 독서 클럽과 도서관을 가득 메우고, 저녁의 시 낭송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와 개조된 문화를 열정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지식에 굶주린 젊은 새로운 독자 대중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920년대에 독자 대중의 문제는 당대의 거의 모든 문학 단체들의 중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독자에 관한 논쟁은 『출판과 혁명(Печать и Революция)』과 『신세계(Новый мир)』의 편집장이었던 뽈론스끼(В. Полонский)와 라쁘(РАПП)의 참여로

3) Sheila Pitzpatrick, *The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y Rus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92), P. 118.

정점에 이르렀다. 부르주아 예술과 같은 낯선 계급 작가의 작품도 출판해야 한다는 '독자의 계급에 따른 수용'이라는 뽈론스끼의 주장에 대해 라쁘주의자들 — 루쥔(М. Луждин), 아베르바흐(Л. Авервах), 예르밀로프(В. Ермилов) 등 — 은 그의 이론을 '면역 이론'이라 칭하면서, 그것이 근로계급 독자들에 대한 계급 문학의 영향을 무시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낯선 이데올로기에 감염될 수 있으며, 뽈론스끼는 사실 출판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라쁘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재교육을, 뽈론스끼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다.[4)]

이처럼 1920-1930년대 중반까지 소비에뜨 문학에서 독자에 대한 견해들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대적 상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소비에뜨 권력의 입장은 '독자 따르기'와 '독자 이끌기'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복잡한 길항을 보여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의 단일한 패러다임이 공식화되는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전환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제반 논쟁들에 대한 종합의 성격을 띠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공리 속에서는 당대인들의 문화적 수준, 취향 그리고 경험 등이 예술이 직면하는 객관적인 필연성이며, 인민의 사회적 예술적 경험을 포함하는 예술적 이해의 문화적 수준이 창조의 자유의 경계를 결정한다고 선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가와 독자, 자유와 필연성을 하나의 매듭으로 묶는 지배 권력의 사고는 소비에뜨 문학 일반의 철학적 토대였다.

2. 독자 대중의 요구와 취향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창조한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권력 혹은 대중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몇몇 이념적인 예술가들, 혹은 종종 스딸린과 그의 측근들의 개인적인 취향의 위로부터의 강요로서 설명하고, 후자의 경우는 권력자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취향의 이용으로서 해석한다. 이러한 시각들은, 비록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만족스럽지는 못하다.[5)]

위에서 언급한 독자 대중에 대한 대조적 인식에서 이미 짐작되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대중으로부터도 아닌, 창조의 단일한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 권력과 대중의 결합의 산물이었다.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힘과 아래로부터의 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창조적 파고가 새로운 성격의 예술을 낳았던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은 대중의 미적 기대와 요구에 의해, 혁명 문화에 고유한 내재성의 논리에 의해, 그리고 대중의 취향을 유지하고, 새로운 예술을 공식화하며, 그것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강화 · 유지하려는 국가의 이해에 의해 동시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동기 지워졌다. '대중의 살아있는 창조성'이라는 레닌의 문구는 소비에뜨 문화에서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이었다. 대중과 권력은 단일한 창조 과정에서 완전한 권리를 누렸다. 대중은 권력 때문에 대중이 되었고, 권력에 대중이 필요했듯이 대중도 권력을 필요로 했다.

새로운 소비에뜨의 독자 대중은 이른바 취향의 비속성과 야만성으로 특징져지기보다는, 오히려 독특한 미적 요구들의 체계를 간직하고 있었고, 일련의 요구들의 외적 표현은 다양

4) Evgeny Dovrenko, *The Making of the State Reader*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7a), p. 30.

5) 실상 후자의 견해는 전자의 견해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는데, 양자 모두 권력-대중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선차성 혹은 주도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두 견해 모두에서 대중은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지위에 궁극적으로 머물게 된다.

한 방식으로 국가에 의해 고무되기도 하였다.[6]

1920-1930년대 중반의 독자 대중은 당대의 문학에서 무엇을 원했는가? 그들의 미적 기대 지평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떠한 미적 지평과 예술적 선호를 가지고 있었는가? 등에 관한 대답은 아래와 같은 여러 매체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독자 대중 자신의 다양한 견해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7]

첫째, 문학은 삶에 유용하고, 교훈적이어야 한다.

-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것은 과거 시대에 농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22세, 남성, 알따예프(А. Алтаев)의 『스쩬까의 도적대(Стенькина Вольница)』에 대해)
- "쓸모 있다. 그것은 여성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하는지를 가르쳐 준다."(18세, 여성, 고리끼(М. Горький)의 『어머니(Мать)』에 대해)
- "이 책은 흥미롭다. 이것은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나는 이 책을 농민에게 추천한다. 위기의 순간에 백군과 부농의 온갖 기만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에게 걸려들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노동자, 리베진스끼(Ю. Либединский)의 『한주일(Неделя)』에 대해)

둘째, 문학은 독자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내가 싫어하는 책들은 반복해서 읽어도 여전히 요점을 잡을 수 없는 것들이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는 순수하지 않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말한다. 내 생각으론 책을 쓸 때, 속임수와 교묘함을 버리고 써야하고, 모든 것을 마지막 세부까지 설명해야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최상인데, 쓸데없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8세, 집단농장의 여성노동자)
- "우리는 『시멘트(Семент)』와 같은 소설을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글라드꼬프(Ф. Гладков)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긍정적 인물들을 제시해야 한다."
- "작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근로 계급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고를 분명한 이데올로기로 향하게 해주는 안내자이다."

셋째, 문학은 진실하고 낙관적이며 영웅적이어야 한다.

- "나는 집단 농장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읽고 싶다.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집단농장 노동자)
- "우리에게 너무나 지루하고 우울했던 과거는 필요 없다.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도덕적인 삶을 지시해주는 문학이 필요하다.(23세, 여성노동자, 글라드꼬프(Ф. Гладков)의

6) "자신이 읽은 책의 서평을 쓰는 것은 모든 꼼소몰(Комсомол) 독자의 의무이다....꼼소몰 독자는 이런 저런 책에 무관심할 수 없다. 꼼소몰 독자는 꼼소몰 작가와 꼼소몰 출판가에게 자신의 견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의무를 갖는다." Evgeny Dobrenko, "The Disaster of Middlebrow Taste, or, Who "Invented" Socialist Realism?," Thomas Lahusen and Evgeny Dobrenko (eds.) *Socialist realism without shor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 Press, 1997b), p. 143.

7) 이하의 독자 대중의 취향과 요구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당대의 각종 신문, 잡지, 도서관보 등에 실린 것으로서, Ibid., pp. 144-154에서 발췌 재인용.

『시멘트(Семент)』에 대해)
- “나는 이 책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혁명의 영웅들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 싶었다.”(노동자, 알렉세예프(Алексеев)의『볼셰비끼(Большевики)』에 대해)

넷째, 문학은 당과 조직들의 근로 계급에 대한 지도적 역할과 영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이 책뿐만 아니라 근로계급의 삶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에 전형적인 하나의 결점을 지적하고 싶다. 공장위원회와 당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직들은 물론 공장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그들의 영향이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 “혁명의 토대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것의 핵심은 대중의 집단적 에너지, 투쟁태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 승리에 대한 열정과 의지이다.”(노동자, 니끼포로프(Г. Никифоров)의 『가로등 옆에서(У Фонаря)』에 대해)
- “당신은 반드시 지방, 지역, 마을 그리고 심지어 거리 이름까지 묘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소설은 진실하고 발전된 플롯을 지닌 두꺼운 책이어야 한다.

- “우리 시대의 책들에는 체계가 없다: 그것들은 인간의 삶의 작은 조각만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책은 빠짐없이 인간의 본질적 삶의 전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이 책은 그 자체로는 훌륭하다. 그러나 단점은 어떤 이야기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거의 모든 장들이 뒤섞여 있다. 이 때문에 독자는 책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방직공, 바벨(И. Бабел)의『기병대(Конармия)』에 대해)
-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인간의 삶을 묘사하는 두꺼운 책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여섯째, 소설의 플롯은 예술적으로 간결하게 서술되는 모험들로 충만해야 한다.

- “그것은 너무 단조롭게 진행된다. 어떤 두드러진 장면들이 없다.”(21세, 여성노동자, 글라드꼬프(Ф. Гладков)의『시멘트(Семент)』에 대해)
- “이 책은 많은 고향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슬픔만을 전해주기에 인상적이지 않다. 책 전체가 그런 식이다. 모든 것은 단조롭고,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노동자, 프랑끄(Л. Франк)의『인간은 선하다(Человек добр』에 대해)
- “거대하고 예술적으로 생생한 장면이다....오직 고리끼만이 이처럼 쓸 수 있다. 간결하고 동시에 풍부한 형상의 살아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써.”(48세, 노동자)

일곱째, 시는 난해한 형식 실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 “그들은 완전히, 너무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쓴다. 가끔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읽는 것에 익숙하지만, 몇몇 시인들은 마야꼽스끼(В. Маяковский)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 “나는 명확한 주제와 심오한 구성 그리고 너무 난해하지 않는 문체를 지닌 거대하고, 강력하며, 고전적인 시를 읽고 싶다....시를 공식처럼 분석해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성을 잃고 말 것이다.”(노동자)
- “단어들이 파리처럼 윙윙거리며 귀 주위를 날고 있지만, 하나의 단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이 시로 인해 책을 망쳤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노동자, 빠스쩨르나끄(Б. Пастернак)의 「스뻭또르스끼(Спекторский)」에 대해)

여덟째, 문학은 외설적이어서는 안 된다.

- “소설, 『철의 흐름(Железный поток)』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몰염치하고 너무나 무절제한 가장 난폭한 형식의 상스러운 언어가 넘쳐난다. 이것은 소설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이 소설을 읽는 젊은이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 소설에 나타난 언어를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개척되는 처녀지(Поднятая целина)』에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그러나 곳곳에 매우 나쁜 표현들이 있다.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사가 행복하고, 음탕하지 않도록?”
-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러시아 고전 작가들의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고멀었다는 점이다. 주된 단점은 고전 문학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없고, 심지어 도색성마저 발견된다는 것이다.”

아홉째, 사랑 이야기는 고양되어야 하고, 과학 소설은 엉터리이며, 프롤레타리아 유머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보이니치(Э. Войнич)의 『등에(Овод)』이다....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상하고 영웅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오직 그런 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그것은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랑이다.”
- “이것은 유토피아 소설이다. 어떤 미친 인간이 화성에서 필사본을 보내고, 작품은 화성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이 전부이다. 완전한 엉터리이다.”(노동자, 보그다노프(А. Богданов)의 『엔지니어 메니(Инженер Менни)』에 대해)
- “너무나 열중했고 재미있었다. 나는 그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줬는데, 우리 모두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19세, 남성, 뽀댜체프(Подячев)의 『뽀르찌안까찌에서 생긴 일(Случай с портианкати)』

위와 같은 당대 문학에 대한 독자 대중의 다채로운 요구와 취향 — 유용성, 교훈성, 명료성, 간결성, 진실성, 총체성, 낙관성, 영웅성, 지도성, 도덕성, 흥미 등 — 은 대부분이 비평가의 전문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독자의 즉자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이기 보다는 모순적이고 파편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독자 대중의 삶에 대한 고유한 인식과 평가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기에 대체로 하나의 독특한 미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일차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새로운 미학 체계는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자 대중의 이른바 ‘사회적 요망(социальный заказ)’과의 긴밀한 상호 연관 속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3. 권력 집단의 대응과 반향

그렇다면 이러한 독자 대중의 사회적 요망에 대한 권력 집단의 대응과 반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우선 이에 대한 소비에뜨 작가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서로 다른 문학적 경향을 지닌 작가들은 공식적 전문 비평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지만,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비공식적 독자 대중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을 표명했다. 이바노프(В. Иванов), 차쁴긴(А. Чапыгин), 비숄리이(А. Веселый) 등의 몇몇 작가들은 독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비록 듣지만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글라드꼬프(Ф. Гладков)와 자먀찐(Е. Замятин)은 독자들에게서 '실제적인 삶의 질료'를 발견한다고 말했으며, 쉬쉬꼬프(В. Шишков)와 레오노프(Л. Леонов)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한 목소리로 독자들과의 접촉 없이는 창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이헨바움(В. Эйхенбаум)은 1920년대 후반 작가의 상황에 대해 "우리 시대의 작가는 일반적으로 그로테스크한 인물이다. 그는 읽히기 보다는 토론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대체로 올바른 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도 작가보다는 거대하다, 왜냐하면 독자는 시민으로서 일관되고 안정되며 정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다소 아이러니하게 표현했다. 이렇듯 전문적 비평에서 탈출한 작가들은 기꺼이 독자의 법정에서 굴복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종의 '독자-숭배'를 나타냈다. 까르뽀프(М. Карпов)는 "작가는 독자 대중의 공적인 통제 아래 있게 된다. 그것은 작가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세라피모비치(А. Серафимович)도 "작가는 자신의 계급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근로 계급은 대중 가운데서 독자-비평가를 만들어낸다....그는 자신의 문학을 창조하고, 살찌우며, 지시하고, 수정할 권능을 지니고 있다....나는 독자를 느끼고, 이러한 관련을 감지했다....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자의 요구와 정정을 인식한다"라고 말했다.[8)]

대중 독자의 압력은 작가들에게 문체를 변형하고, 작품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며, 심지어 선전과 선동의 관한 창작을 하게 만들었다. 이를 테면, 혁신적 탐구의 시인이자 구성주의 시인이었던 셀빈스끼(И. Сельвинский)가 위기의 순간을 겪은 후 자신의 문학을 혁신하기 위해 공장으로 향한 것은 그와 같은 예 중의 하나이다.[9)]

대체적으로 1920년대에는 독자 대중에 대한 과도한 숭배가 주로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에서 두드러졌지만, 1930년대 이후에 독자 대중에 대한 일반적 찬양은 거의 대부분 작가들에게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당대에 예술의 인민성과 보편성에 대한 작가적 인식을 의미했다.

독자 대중의 문학적 요구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는 소비에뜨 권력의 하부 기관의 공식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1927년, 정치계몽본부(Главополитпросвет)의 도서국에서 발간한 소책자, 『농민에게는 어떤 책이 필요한가?(Какая книга нужна крестианину?)』는 농민들을 위해 책을 쓰는 방법과 다뤄야 하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문학과 관련하여, 농민들은 책 속에서 뭔가 유용한 것을 끄집어내고, 어떤 가르침을 발견하며, 농민에 관련된 주제를 원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고, 따라서 일상적 관점에서 그럴법하지 않은 플롯은 피해야 하며, 일탈은 주된 이야기를 혼란스럽게 하여, 때로는 이해를 방해한다고 설명한다.[10)]

---

8) Evgeny Dovrenko(1997a), *op. cit.,* pp. 300-301.

9)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Regine Robin, *Socialist Realism: An Impossible Aesthetic*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2), pp. 188-189 참조.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가장 강력한 근원 중의 하나인 독자 대중의 사회적 요망은 1934년 제1차 소비에뜨 작가 동맹 대회에서 채택된 '소비에뜨 작가동맹 정관'에 공식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11]

> 소비에뜨의 예술 문학 및 문학 비평의 주요 방법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가들에게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을 진실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체적이게 묘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예술적 묘사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은 사회주의적 정신 아래 ***근로대중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조시키고 교육하는 과제***와 결합되어야한다. 사회주의리얼리즘은 예술창작에 있어 창조적 발의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형식들과 양식들 그리고 장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비상한 가능성을 보장한다.[12](강조는 필자)

또한 독자 대중에 요구에 대한 소비에뜨 권력의 입장은 소비에뜨 문학에서 새로운 미적 범주를 요구했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인민성(народность)'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인민성은 문학예술이 인민의 감정 · 사상 · 의지를 결합 · 촉진 ·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 인민성은 작품 속에서 작가와 예술가가 해당 시기의 인민생활에서 의미심장하고, 인민의 이해관계에 맞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작품에 반영하는 데서 일차적으로 표현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인민의 선진적인 이상에 비추어 진실하게 묘사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따라서 작가와 예술가들은 인민성의 원칙에 따라 인민을 형상화하고 인민에게 쉽게 이해되고 인민의 이익과 요구에 복무하며, 궁극적으로 문학예술을 인민의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13] 인민성이라는 공리는 1930년대 중반기 소비에뜨 문화가 유토피아-혁명적 단계에서 전체주의적 단계로 이행 과정에서, 즉 일국사회주의건설로의 소비에뜨 연방의 방향전환의 배경 위에서 계급성의 대체물로서 더욱 강조되었고, 특히 당파성과 결합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진정한 미학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독자 대중의 요망에 대한 권력 집단의 대응은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소비에뜨 비평의 공식적인 요구로 점차 규범화된다. 더구나 그것은 많은 경우 독자 대중의 이름으로 표현된다.

> - 문학 작품에서 진리에 대한 요구는 우리 시대의 소비에뜨 독자를 구별 짓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그것은 소비에뜨 시민의 도덕, 세계관 그리고 세계 인식과 관련된다. 이러한 요구는 소비에뜨 인간에게 고유하고,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역사적 낙관주의라는 건전한 감정과 조화를 구성한다....문학과 삶의 병치, 보다 정확하게, 독자 자

---

10) Evgeny Dovrenko(1997b), *op. cit.,* p. 155.

11)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1932년 5월 17일, 『문학 신문』에서 И. 그론스끼에 의해 최초로 언급("대중은 예술가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형상화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정직성과 진리성을 고대한다")되었고, 1932년 10월 M. 고리끼의 거처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스딸린이 사회주의 문학 · 예술의 주된 경향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지칭했으며, 1933년 10월 29일 M. 고리끼를 명예위원장으로 하여 결성된 소비에뜨작가동맹 조직위원회에서 인준되었다. 새로운 문학적 방법의 규정을 위해서 수많은 논의에서 다양한 제안들 — 예컨대, 사회적 리얼리즘(А. 루나차르스끼),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Ф. 글라드꼬프), 경향적 리얼리즘(В. 마야꼽스끼), 기념비적 리얼리즘(А. 똘스또이) 등 — 이 있었던 바, 용어 선택과 관련된 스딸린의 개입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자체를 '위로부터의 강제'로 단순히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걸맞지 않는다.

12) 슈미트 · 슈람 편, 문학예술연구회 미학분과 옮김, 『사회주의 현실주의 구상』 (서울: 태백, 1989), 427쪽

13) Л. Тимофеев и С. Тураев (ред.), *Словарь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их терминов*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1974), с. 233-234.

신들의 삶의 반영과 해석으로서 문학은 작가들에 대한 독자들의 견해를 관통하는 공통의 이해이다.
- 독자들은 추상적인 논의 보다는 형상적이고 생생한 재현의 문학을 요구한다. 그들은 삶을 살아있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어떠한 수사학도, 환상적 상투성도, 형식주의적 개입도 우리 독자들의 미적 취향에 어긋나며, 그들을 병들게 한다.
- 독자들은, 아주 올바르게, 인물들의 성격 발전의 일관성, 인물들의 행위와 의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성, 엄격한 정당화를 요구한다. 최소한 몇몇 에피소드에서 그러한 논리와 신뢰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은 항의하기 시작한다.
- 독자들은 두껍고 견고한 작품을 원한다....최고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독자들이 그들의 운명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독자는 책의 말미에서 새로운 과업과 승리의 문턱에 서 있는, 힘과 에너지가 충만한 주인공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 불만족을 느낀다.
- 독자들은 작품 속에서 충만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물들과 그들의 운명의 재현에서 명확함과 완전함에 대한 바람이다. 우리의 독자들은 아주 분명한 예술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술에서 리얼리즘을 원한다. 신체적 세부에 대한 자연주의적 파헤치기도, 아방가르드적 난해한 실험도, 형식주의적 신비한 속임수도 없는, 행동하고 사고하는 살아있는 인간의 형상화를 원한다.[14]

이처럼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많은 측면에서 독자 대중의 사회적 요망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대중의 정서적 에네르기의 동원을 지향했고, 현실의 목적론적 질서화를 위해 상응하는 방향 속에서 대중들의 의식과 행위를 조직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단순히 위로부터의 강요된 명령의 체계가 아니라, 대중의 경험과 권력의 담론이 만나는 문학적 공간을 통해 '대중의 유연한 바람을 코드화하는 기계'[15]였던 것이다.

4. 권력과 대중의 만남과 결별

독자 대중과 국가 권력의 상호 작용은 요구와 대응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에만 머물지 않았다. 자기실현 혹은 자기완성이라는 대중적 차원의 욕구와 사회개조 혹은 신질서구축이라는 권력적 차원의 기획은 단일한 역사적 당면 과제의 양 측면으로서 동시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혁명 이후 소비에뜨 권력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소비에뜨 대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직접적인 방식들을 또한 제도화 하였다.

특히 문화 혁명의 핵심 과제인 대중 교육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문학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단위 – 꼬무날까, 직장, 학교, 클럽, 기관, 단체 등 – 에서 다양한 제도들 – 독서감상회, 독후감발표회, 독서토론회, 공개독서, 작가와의 대화 등 – 이 조직화되었다.

그러한 제도들은 무엇보다도 독자 대중의 요구와 국가 권력의 대응이 마주치는 공간으로서,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장치였다. 그것을 통해서 독자 대중은 국가 권력의 '소비에뜨적 인간'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 와중에 독자 대중의 '자연발생성'은 국가 권력의 '의식성'의 세례를 받는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독자 개인'은 '독자 대중'을 넘어 바야흐로 '독자 인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

14) Г. Ленобль, "Советский читатель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Новый мир*, No.6(1950), с. 209-224
15) Е. Надточий, "Друг, товарищ и Барт," *Даугава*, No. 8. (Рига, 1989), с. 115.

문학 속에서 권력과 대중의 만남은 당대 러시아 독자들의 기호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추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 당국의 지휘 하에 1948년 모스끄바 지역의 직업학교와 공장훈련소의 청년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가장 좋아하는 소비에뜨 문학 작품'에 관한 조사(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자수)에 따르면, 780명의 응답자들은 파제예프(А. Фадеев)의 『젊은 근위대(Молодая гвардия)』(390), 오스뜨롭스끼(Н. Островский)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Как закалялась сталь)』(170), 뽈레보이(Б. Полевой)의 『참된 인간의 이야기(Повесть о настоящем человеке)』(108), 까베린(В. Каверин)의 『두 명의 대위(Два капитана)』(77), 베르쉬고라(П. Вершигора)의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Люди с чистой совестью)』(38), 고르바또프(В. Горбатов)의 『불굴의 사람들(Непокоренные)』(34), 스쩨빠노프(А. Степанов)의 『아르뚜르 항(Порт-Артур)』(23), 푸르마노프(Д. Фурманов)의 『차빠예프(Чапаев)』(18), 알리게르(М. Алигер)의 『조야(Зоя)』(15), 똘스또이(А. Толстой)의 『뾰뜨르 1세(Петр Первый)』(13), 빠노바(В. Панова)의 『동반자들(Спутники)』(12), 뜨바르돕스끼(А. Твардовский)의 『바실리 쪼르낀(Василий Теркин)』(12), 똘스또이(А. Толстой)의 『고뇌 속을 가다(Хождение по мукам)』(12) 등을 각각 꼽았다. 또한 이 작품들의 대부분은 조사 대상자들에 의해 '가장 읽고 싶은 소비에뜨 문학 작품'으로도 뽑혔다.[16]

독서가 도시 지역에서 보다 훨씬 커다란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농촌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목도할 수 있다. 비록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도시에 비해 턱없이 열악했지만, '이동도서관' 같은 제도의 도움으로, 농촌 지역의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수의 책을 읽었다. 1946년 볼로그다(Вологда) 지역의 쁘리쉑스닌스끄(Пришекснинск) 구역에 위치한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농촌 지역의 독자들은 오스뜨롭스끼(Н. Островский)의 『폭풍의 자식들(Рожденные Бурей)』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Как закалялась сталь)』, 파제예프(А. Фадеев)의 『젊은 근위대(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고르바또프(В. Горбатов)의 『불굴의 사람들(Непокоренные)』, 숄로호프(М. Шолохов)의 『개척되는 처녀지(Поднятая целина)』, 바실옙스까야(В. Василевская)의 『무지개(Радуга)』, 그로스만(В. Гроссман)의 『불멸의 인민(Народ бессмертен)』, 스쩨빠노프(А. Степанов)의 『아르뚜르 항(Порт-Артур)』, 까따예프(В. Катаев)의 『연대의 아들(Сын полка)』, 비류꼬프(Н. Бирюков)의 『갈매기(Чайка)』, 벡(А. Бек)의 『최전방의 빤필로프들(Панфиловцы на первом рубеже)』, 이그나또프(П. Игнатов)의 『빨치산의 기록들(Записки партизана)』 등을 즐겨 읽었다.[17]

이와 같이 독자 대중이 선호하고 즐겨 읽은 작품들은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취향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되기에 시대마다 고유한 차이성을 지니지만, 위의 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중의 독서 경향에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보편성 또한 존재한다. 1940년대 중후반에 소비에뜨의 도시와 농촌의 독자 대중이 선택한 작품들은 당시의 중고등학교 교과 편람과 도서 안내 책자에서 소개되는 도서들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소비에뜨 고전 문학의 공식적 판테온이다.[18]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독자 대중 사이에서의 심화 혹은 그 속으로의 폭넓은 침투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의 절정은 바로 독자 인민의 실제적 전형인 '이상적인 독자'와 '소비에뜨적인 인간'의 문학적 전형인 '긍정적 주인공'의 합일이다. 긍정

16) Evgeny Dovrenko(1997a), *op. cit.,* pp. 284-285.
17) Ibid., p. 286.
18) 물론 당대에는 소비에뜨 고전 문학뿐만 아니라, 러시아 고전 문학, 외국의 번역 문학 등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단연 대중적인 선호의 대상은 소비에뜨 고전 문학이었다.

적 주인공의 대표적 형상의 하나는 오스뜨롭스끼(Н. Островский)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Как закалялась сталь)』의 주인공, 빠벨 꼬르차긴(Павел Корчагин)이다. 독자 대중 사이에서 꼬르차긴의 인기는 '2차 대전 이전에도, 와중에도 그리고 이후 몇 년 동안에도 개인숭배'[19]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소비에뜨 문학의 영웅 신화의 일부가 된 꼬르차긴의 신화는 너무나 강력하고 지속적이어서 독자들 사이에서는 '꼬르차긴의 기적'으로 불리며, 꼬르차긴은 모방할 모델이자 삶의 본보기로 간주되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꼬르차긴의 행복(счастье Корчагина)'으로 칭해지기도 했는데, 독자들은 이 작품을 삶의 부적으로, 혹은 삶의 교과서로 간주했다. 심지어 병사들은 자신들의 편지나 일기에서, 그들 자신을 꼬르차긴과 비교하면서, 그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아주 개인적 감상을 쓰고 그에게 직접적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다.[20] 이와 같이 독자 대중, 특히 그 가운데 젊은 세대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긍정적 주인공의 형상 속에서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보탬이 되는 품성과 덕목을 발견하곤 했다. 바로 이러한 이상적 독자들은 문화 혁명을 거치면서 독자 대중 속에서 길러져 소비에뜨의 새로운 인쩰리겐찌야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주선된 '이상적인 독자'와 '소비에뜨적인 인간'의 극적인 만남의 이면에서는 양자의 결별의 징후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소위 '쥐다노비즘(Ждановизм)'에서 절정에 이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스딸린주의적 왜곡과 변질이다.

실상, 1930년대 중반의 방법 개념으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이론적 규정은 문학과 예술을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1920년대의 속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특수한 매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삶에서 배우라"라는 당대의 독자 대중의 요구에 대한 기계적 대응의 하나인, 현실에 대한 객관적 반영의 일의적 강조는 궁극적으로 소위 '인식론주의'로 경도되고 만다. 인식론주의에서 예술은 단지 사회적 현실의 재현이라는 의미에서의 인식적 계기만 강조되고, 대상에 대한 인간의 관계라는 가치평가적 계기는 경시된다. 즉 현실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실재의 변형이라는, 과학적 인식과 변별되는 예술적 인식의 창조적 고유성이 해명되지 못했던 것이다.[21]

문학 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능동적 실천의 계기라든가 다양한 형상화 가능성의 배제는 문학 외적인 정치적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라는 부정적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이는 스딸린 개인숭배 시대에 사회주의적 당파성과 혁명적 낭만주의 그리고 긍정적 주인공 등에 대한 속악한 해석의 결과물인 이른바 '무갈등이론(현실윤색이론)'으로 대표되는 쥐다노비즘을 낳았다. 쥐다노비즘은 '사회주의의 완성'이라는 현실에 대한 주관주의적 해석과 그것의 무비판적인 문학적 수용의 결합체로서, 현실의 예술적 전유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도식적 재현으로서 규범문학, 즉 문학적 스딸린주의의 본격화를 의미했다.[22]

---

19) Marc Slonim, *Soviet Russian Literature: Writers and Problems 1917-196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187.

20) С. Трегуб, И. Бачелис, "Счастье Корчагина," *Знамя*, № 4(1944), с. 122. См. подробнее: Е. Добренко. *Метафора власти: Литература сталинской эпох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освещении* (Munchen: Otto Sagner. 1993), с. 294-297.

21) 30년대 초반에 진행된 '세계관과 창작 방법 논쟁'의 이론적 귀결의 한 측면으로서 인식론주의는 '삶을 그 자체의 형식으로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바, 이러한 편향은 예술사에 대한 인식에서 리얼리즘과 비(非)리얼리즘이라는 이원론적 시각을 낳았고, 전통적 기법에 대한 고집과 전위예술의 대한 거부라는 편협한 태도로 표현되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홀거 지이겔 지음, 정재경 옮김, 『소비에뜨 문학이론(1917-1940)』(서울: 연구사, 1988), 183-228쪽 참조.

22) 문학적 스딸린주의의 자연주의적 경향을 '사회주의적 자연주의'로 비판했던 G. 루카치는 혁명적 낭만주의를

문학적 스딸린주의는 예술의 교육적 기능을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봉사와 동일시했고, 그것이 낳은 분위기는 현실적 갈등에 대한 탐구를 가로막았으며, 낙관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접근법은 갈등 자체의 해결이라는 환상을 낳았다. 올바른 관점에 대한 요구는 사물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였고, 긍정적 주인공에 대한 요구는 인간 성격에 대한 단순화로 나아갔다. 총체성에 대한 요구를 외연적 총체성에 대한 요구에 국한시켰고, 전형성이란 범주를 강요된 낙관주의에 대한 이론적 변명 혹은 산술적인 평균과 혼동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미는 삶이다(Прекрасное есть жизнь)"라는 체르늬쉡스끼(Н. Чернышевский)의 이념은 스딸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미는 우리의 삶이다(Прекрасное — это наша жизнь)"[23]라는 주관주의적 신화로 간단히 대체되었다.

여기에서 작가는 더 이상 현실을 고유한 방식으로 연구하여 형상화하는 현실의 탐구자가 아니라 당의 규약이나 결정, 스딸린의 테제와 조치들을 문학적으로 예증하는 도해가로 전락했다. 이제 행정적 · 명령적 통제의 도구로서 문학의 주된 임무는 선전과 선동이 되었고, 이로부터 문학이 정치에 복속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스딸린 시대의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상화, 낭만화는 불가피하게 실제적 삶으로부터 문학의 괴리를 낳았고, 이는 '삶의 구체적이고 진실한 묘사'라는 문학에 대한 독자 대중의 기본적인 요구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자 개인으로부터 독자 대중을 나아가 독자 인민을, 특히 이상적인 독자를 육성하고, 긍정적인 주인공을 통해 소비에뜨적인 인간 형상을 창조하여, 궁극적으로 양자 사이의 완전한 만남을 성사시키려는 국가 권력의 '문학적' 시도는 바로 삶 그 자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이로부터 결별의 역사가 시작된다.[24]

1953년 3월 스딸린의 사망과 1956년 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쇼프의 스딸린 개인숭배와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시작되어, 해빙과 결빙의 반복적 교차 속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쇄신과 지평의 확대를 위한 시도들 — 예컨대, 문학적 스딸린주의의 거부, 당파성의 재평가, 인식론주의의 극복과 가치론의 등장, 문학적 방법 개념의 재정립, 양식과 예술적 기법의 다양성 등 — 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동요를 의미하였다. 1950년대의 문학적 스딸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개념과 원칙을 휴머니즘적인 의미로 채우려는 노력들은 여전히 규범미학의 편협성과 도그마를 보여주었으며, 1960년대의 비판들은 문학의 과제를 '진실을 쓰는 것'으로 환원함으로써 한계를 보였는데, 편협하게 이해된 삶의 진실과 예술의 진실 사이에는 커다란 심연이 존재하게 되었다. 1970년대-1980년대 초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열린 미학 체계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방법에 대한 개념 그 자체를 확대하려 노력했으나, 소위 '폭과 다양성'이라는

마찬가지로 스딸린의 '경제적 주관주의의 미학적 등가물'로 간주하면서, '국가 공인적 낙관주의'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경식, 『게오르그 루카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0), 146-177쪽 참조.

23) В. Ермилов, "За боевую теорию литературы,"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1947. 25. января). 예르밀로프는 "작금의 시대는 이미 유토피아 이후의 시대, 즉 유토피아가 실현된 시대, 유토피아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닌 시대이고, 우리의 삶은 고양되거나 시화될 필요 없이 그자체로 이미 시적이고 아름답다"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24) "스스로를 지배자이자 1920년대 러시아 민족사 현실의 주인이라고 느꼈던 대중의 위치는 1930년대 중반 무렵에 바뀌게 된다. 대중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마치 가지고 있기라도 한 가상의 권력은 당시 당에 집중되었고, 그 후엔 당의 지도자인 스탈린의 수중에 집중되었다. 스탈린은 소비에뜨 시대의 중요한 '예술가'가 되고 '문화2'의 범위 안에서 창조되는 '기념비적 문체'의 유일한 저자가 된다." M. 골룹꼬프 저, 이규환 · 서상범 역, 『러시아현대문학: 분열 이후 새로운 모색』 (서울: 역락, 2006), 198쪽.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렀고 다소 절충적이었으며 문학의 실질적인 법칙이나 합법칙성을 해명해내지는 못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경계의 확장이라는 문제제기는 단지 그것을 보장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규범성에 대한 재인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적 본질 혹은 변별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결국 뻬레스뜨로이까로 촉발된 소연방의 해체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최종적인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미 1950년대 중반 이후 예술적 다원주의 경향의 도래와 함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작가와 독자의 의식 속에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문학을 지각하는 배경이기를 그쳤다. 문학적 스딸린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새로운 공식들은 문학적 실천을 앞서갈 수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일체의 규정성을 점차 상실했다. 따라서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동요와 해체의 과정은 독자 대중과 국가 권력의 새로운 만남의 역사가 아니라 양자의 궁극적 결별의 역사였던 것이다.

III.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에뜨 문예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출현과 존재의 합법칙성을 지닌 엄연한 미학 체계로서, 복잡한 소비에뜨 역사 과정의 문화적 산물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는 작가, 독자 그리고 권력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특히 국가 권력과 독자 대중이라는 문제틀 속에서 독자 대중의 위상과 역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적 현상의 존립을 위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건이었다.

특히 1920-193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형성기에 있어서 독자 대중의 사회적 요망은 국가 권력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었고, '독자 따르기'라는 그것의 대응과 반향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즉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정의, '인민성' 범주, 소비에뜨 공식 비평의 요구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렴되었다. 이와 함께 독자 대중에서 독자 인민의 양육, 이상적 독자와 소비에뜨적 인간의 만남이라는 '독자 이끌기'가 제도적으로 본격화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이른바 '꼬르차긴의 행복'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문학적 스딸린주의, 특히 1940년대 중반 이후 도식적 규범 문학의 절정인 소위 '쥐다노비즘'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실현된 유토피아'이라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주관적 낭만화는 문학과 삶의 괴리를 낳았고, 그것은 권력과 대중의 결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국가 권력과 독자 대중의 상호 관계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는, 상호적 만남의 시기(1917-1934), 일방적 위기의 시기(1934-53), 완전한 결별의 시기(1954-1991)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전대미문의 미학적 기획은 새로운 삶을 건설하려는 강력하고 활기찬 혁명적 열정에서 자라났다. 그것은 삶 속으로 진격하는 문학적 규범이었다. 하지만 문학 속의 삶의 창조에 대립하는 유일한 것은 현실 속의 창조적 삶 자체였다.

참고 문헌

김경식.『게오르그 루카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0.

슈미트 · 슈람 편, 문학예술연구회 미학분과 옮김.『사회주의 현실주의 구상』. 서울: 태백. 1989.

홀거 지이겔 지음, 정재경 옮김.『소비에뜨 문학이론(1917-1940)』. 서울: 연구사. 1988.

황동하.「소련 역사속의 '스딸린 시대': 이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들」.『서양사학연구』, 제7집. 2002.

M. 골룹꼬프 저, 이규환 · 서상범 역.『러시아현대문학: 분열 이후 새로운 모색』. 서울: 역락. 2006.

Dobrenko, Evgeny. "The Disaster of Middlebrow Taste, or, Who "Invented" Socialist Realism?," Thomas Lahusen and Evgeny Dobrenko (eds.). *Socialist realism without shor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 Press. 1997b.

Dobrenko, Evgeny. *The Making of the State Reader*.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7a.

Pitzpatrick, Sheila. *The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y Rus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92.

Robin, Regine. *Socialist Realism: An Impossible Aesthetic*.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2.

Slonim, Marc. *Soviet Russian Literature: Writers and Problems 19I7-196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Добренко, Е. *Метафора власти: Литература сталинской эпох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освещен ии*. Munchen: Otto Sagner. 1993.

Добренко, Е. и Гюнтер Х. (ред.).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канон*.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2000.

Ленобль, Г. "Советский читатель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Новый мир*, No. 6. 1950.

Надточи, Е. "Друг, товарищ и Барт," *Даугава*, No. 8. (Рига, 1989)

Тимофеев, Л. и Тураев, С. (ред.). *Словарь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их терминов*. Москва: Прос вещение. 1974.

소비에트 언어정책과 범러시아주의

유 승만 (한양대)

0. 연구의 목적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은 언어상황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서, 또는 현재 구소련 연방 국가들의 언어상황을 낳게 한 원인으로서, 또는 언어와 국가/민족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서, 또는 언어정책의 결과 파생된 다양한 어휘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1] 국내의 연구(전 명선 1984, 허 승철 1992, 1994, 1998, 등)에서도 소련의 언어정책과 구소련 연방국가에서의 언어 민족주의, 구소련의 언어동화 정책 및 구소련연방에서의 이중/다중 언어 상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언어정책에 대한 거대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기존의 소련 언어정책 연구는 주로 75년이라는 시간적 틀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는 19세기 말에서 21세기의 현대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소련 언어정책의 내용과 양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이 오늘날 러시아와 유라시아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찾아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언어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을 혁명 이전의 언어상황과의 연속선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을 소비에트 시기만의 단절된 역사로서가 아니라 이전 시대 역사의 반영으로서 재구성해 봄으로써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이 가진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소비에트 초기에서 스탈린 시기까지의 소비에트 언어정책을 문맹퇴치운동과 문자개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문맹퇴치 운동과 문자개혁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두 문제가 소비에트 정권의 당면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닌과 스탈린의 정책은 일견 상반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모든 민족어의 평등권을 주창한 반면 스탈린은 강력한 러시아어 동화정책을 펼친다. 따라서 문맹퇴치운동과 문자개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레닌과 스탈린의 정책은 실제로 상반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본질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비에트의 언어 분포

1.1. 데이터의 문제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는 제정 러시아 말기와 소비에트 시기의 언어 데이터가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 시기의 언어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제정

1)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제 언어들에 자료로는 Comrie(1981), Вахтин(2001), Поликов (1992)등이 있으며, 언어와 문화, 언어와 권력 및 언어와 민족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ewis (1972), Smith (1998), Gorham (2003), Grenoble (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소비에트 시기의 신조어나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는 Selishchev (1928), Jakobson (1920-21), Comrie & Stone (1978), Weiss (2000), Sarnov (2005) 등을 들 수 있다.

말기 및 소비에트의 언어 센서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2] 소비에트 시기의 언어 센서스는 총 일곱 차례(1926, 1937, 1939, 1959, 1970, 1979, 1989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언어 센서스 결과에 대한 해석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

첫째, 전체 인구수의 측면에서 소비에트 시기의 인구/언어 센서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상당 부분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39년 스탈린 시기의 인구센서스는 스탈린 정권에서 세워놓은 목표에 맞추어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의 첫 번째 인구센서스가 1926년에 실시된 이후 두 번째 언어 센서스는 1937년에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앞서 스탈린은 삶의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인구가 1937년에는 1억 8천만, 1939년에는 1억 8천 3백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1937년 인구 센서스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1억 6천 2백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오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소련 공산당은 1939년에 인구센서스를 재실시하였고, 결국 인구수가 1억 7천만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둘째,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데이터가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문자해독률에 관련된 데이터는 소련 정권에서 설정한 목표에 맞추기 위해 상당부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사실과 통계의 유포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어느 시기에는 아예 공식적인 정보를 발표하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보통 10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인구센서스가 스탈린 말엽에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939년 이후의 센서스는 1959년에야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시대별 정확한 경향을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넷째, 각 시기별로 언어센서스의 정보 항목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929년 센서스에서는 총 194개의 민족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1979년의 센서스에서는 101개의 민족들을 열거하고 있고 1989년 센서스에서는 130개의 민족을 보여주고 있다. 70여 년 사이에 무려 50%에 이르는 민족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이상한 현상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러시아 동화정책과 이주정책 그리고 민족정책에 기인하였다.

다섯째, 각 언어 센서스의 질문 항목에 들어있는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59년 이후에 실시된 모든 언어 센서스에서는 모국어(родной язык)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모국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답변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소비에트 시절의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 상황을 고려할 때, 모국어가 어린시절에 부모에게서 배운 언어인지,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이 모국어가 무엇인지를 답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또한 구 소련 연방이나 러시아 연방 내에서 제 2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능력에 대한 질문 또한 객관적인 시험이나 기준이 없이 답변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에 데이터의 왜곡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5년 간 실시된 언어 센서스를 통해 적어도 큰 흐름과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의 왜곡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서 소비에트 언어정책, 좀 더 크게는 소비에트 정책의 진의와 실상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현대러시아 및 구소련 연방의 언어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Grimes(2000)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
3) 소비에트 시기 인구센서스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Вахтин (2001: 31-87)을 참조하시오.

1.2. 소련의 민족과 언어

소련의 언어정책이 21세기 구소련 연방 국가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겨 놓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소련 해체기의 민족과 언어 분포를 개략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989년 센서스에 의하면 소련을 구성하는 민족은 총 130개였고 소련의 총인구는 282,742,511명이었다.[4] 이중 러시아인은 과반이 약간 넘는 145,155,489명이었고, 이들 중 99.8%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5] 비러시아계 민족들 중 러시아어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인구는 비러시아계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었다. 따라서 소련내 거주 인구의 75%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 민족의 언어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수	민족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	러시아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	기타언어
Russian	145,155,489	99.8	--	0.2
Ukrainian	44,186,006	81.1	18.8	0.1
Uzbek	16,697,825	98.3	0.7	0.9
Belarusian	10,036,251	70.9	28.5	0.6
Kazakh	8,135,818	97.0	2.2	0.7
Azerbaijanii	6,770,403	97.7	1.7	0.7
Tatar	6,648,760	83.2	16.1	0.7
Armenian	4,623,232	91.7	7.6	0.7
Tajiki	4,215,372	97.7	0.8	1.5
Georgian	3,981,045	98.2	1.7	0.2
Moldovan	3,352,352	91.6	7.4	0.9
Lithuanian	3,067,390	97.7	1.8	0.5
Turkmen	2,728,965	98.5	1.0	0.5
Kirghiz	2,528,946	97.8	0.6	1.6
German	2,038,603	48.7	50.8	0.5
Chuvash	1,842,346	76.4	23.3	0.3
Latvian	1,458,986	94.8	5.0	0.3
Bashkir	1,449,157	72.3	11.2	16.5
Mordvinian	1,153,987	67.1	32.7	0.3
Jew	1,378,344	11.1	86.6	2.3
Pole	1,126,334	30.5	28.6	40.8
Estonian	1,026,649	95.5	4.4	0.1
Chechen	956,878	98.1	1.7	0.2
Udmurt	746,793	69.6	30.0	0.3
Mari	670,868	80.8	18.8	0.4
Avar	600,989	97.2	1.9	0.9
Osetian	597,998	87.0	7.0	6.1
Lezgi	466,006	91.6	4.8	3.6
Korean	438,650	49.4	50.1	0.5

표1: 소련의 민족과 언어분포 (1989년 센서스)

소련 내의 어족 분포는 더욱 복잡하다. 크게 인도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우랄어족, 코

4) 본 통계는 1989 센서스 결과를 Grenoble(2003)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소련 해체후 러시아는 1994년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7백 3십 5만여명을 대상으로 간이 인구센서스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통계적 연구는 허승철(1998)을 참고하시오.

5)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인은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의 국민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혈통적으로는 비러시아계이나 국적이 러시아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카서스어족 및 기타 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인도유럽어족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우랄어족	코카서스어족
발틱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라브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폴란드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마케도니아어 슬로베니아어 **인도이란어** 타직어 기타.	**터키어** 우즈벡어 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투르크멘어 **몽골어** 부랴트어 칼믹어 **퉁구스어** 에벤키어 에벤어 네기달어 기타.	**피노우그릭** 헝가리어 한티어 만시어 에스토니아어 카렐리아어	**남코카서스** 그루지아어 민그렐리아어 라즈어 **북코카서스** 체첸어 인구쉬어 아바르어 아브하즈어

표 2: 소련내 언어의 어족분류

이상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만으로도 소련의 민족 및 언어 분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정 러시아를 몰락시키고 등장한 소비에트의 언어정책과 이주정책, 그리고 러시아어 동화정책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서의 소련의 구조는 이미 제정 러시아 시기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2. 혁명 이전의 언어 상황

19세기 말 짜르가 지배하는 러시아 제국은 이미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시베리아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으로서 다민족 다언어의 제국이었다는 상황은 소비에트와 다를 바가 없었다. 소비에트와 다른 점이라면, 제국의 러시아에게는 비러시아 민족이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었던 반면,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게는 이들이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동지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제국의 큰 문제는 소수의 귀족과 엘리트 그룹만이 푸슈킨의 간결하면서도 정선된 문체를 향유할 수 있는 심각한 문맹률이었다.[6]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러시아는 이미 유라시아 대륙을 거머쥔 대 제국이었으나 언어적으로는 소수의 식자층만이 문자 권력을 독점하여 소수의 식자층과 다수의 문맹층이 엄청난 사회적 괴리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1897년 9세에서 49세 사이의 인구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28.4%에 불과하였다.[7]

문맹률 문제는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간의 문맹률 차이를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하

6) 푸슈킨은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여주인공 타티아나가 오네긴에게 쓰는 편지를 프랑스어로 쓸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Выражалась с трудом на языке своём родном”. (Vinokur 1971: 114).

7) 이 통계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의 통계이며, 글을 쓸 수 있는 인구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였다. 즉, 당시 러시아 제국의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3.4%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페테르부르그와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문자해독률을 보이고 있었던 반면 농촌의 인구는 거의 대다수가 문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8] 또한 남성과 여성간의 문맹률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의 경우 남성은 43%가 글을 읽을 수 있었던 반면, 여성은 18%만이 문맹을 벗어나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러시아계 민족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남성의 10%, 여성의 3%만이 문맹을 벗어난 상태였다.[9] 문제는 문맹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러시아제국은 비러시아 민족 내부에서의 민족어와 자결권을 위한 저항에도 대처해야 했다.

1921년 내전이 끝난 후 볼셰비키 정권은 자신이 소통해야 하는 대다수 인민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고유한 지역성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적, 언어적 배경을 가지면서 민족 자존과 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혁명 초기 소비에트의 다수는 농민과 노동자였으면, 이들 대부분은 문맹이거나 거의 글을 읽을 수 없었으며, 그 중 반수 이상은 비러시아계였다.[10] 문맹률과 더불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부재였다. 1987년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전체 인구의 0.07%에 불과했으며,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도 1.03%에 불과했다 (Comrie and Stone 1978: 5).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볼셰비키의 이상은 그들이 지배하지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민족들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볼셰비키가 혁명에 성공한 후에 직면한 것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이상으로 뭉친 소비에트쿠스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는 다민족 다언어 집단이었고, 이들은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타자(chuzhoj)였다.[11]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볼셰비키에게 있어 타자는 타민족 뿐만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대부분의 러시아인들도 포함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인민을 위해 러시아어 교재를 집필한 Danilov (1931: 3)는 교과서 집필의 목적이 러시아어를 잘 모르는 우즈벡인 뿐 아니라 러시아어를 잘 모르는 러시아인을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발틱 국가들과 폴란드의 독립,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소비에트 공화국 성립 등은 소비에트 러시아에게 무슬림의 코카서스, 볼가우랄 지역,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러시아의 타자로 명백히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다 (Smith 1998: 2).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어와 비러시아계 민족의 언어에 대한 스탈린의 인식에서 잘 드러나는데, 스탈린은 1913년 “막시즘과 민족문제”에 대한 기고문에서 “코카서스의 후진적인 국가와 민족들은 우월한 문화(러시아 문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단결하라”고 적고 있다 (Smith 1998: 44).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해야 하는 소비에트 정권은 공산주의나 부

---

8) 페테르부르그의 경우 남성은 76%, 여성 51%, 평균 62%, 모스크바의 경우 남성 66%, 여성 31%, 평균 49%의 문자해독률을 보여주고 있다 (Comrie & Stone 1978: 4).

9) 러시아 제국에 복속된 국가 중에 예외적으로 높은 문자해독률을 보여주는 국가는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로서, 에스토니아의 경우 남성의 문자해독률은 95%, 여성은 97%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에서의 수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대부분의 비러시아계 민족들은 심각한 문맹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10) 구체적인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Kaiser (1994: 44-45, 67-71)와 Lewis (1972: 55-57)를 참고하시오.

11)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문화사에서 어휘에 담긴 러시아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은 흥미롭다. 자기와 다른 타자를 부르는 그리이스어는 ‘barbaros'였고, 이 어휘는 유럽 제국의 팽창과 더불어 서유럽인들이 동방이나 북구의 미개인을 부르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인들에게 'babaros'는 역사의 초기에는 이교도들이었고, 몽골인 (варварин злой)이었으며, 18세기에는 러시아어를 모르는 서유럽인(немец)이었다. 예를 들면, "*приезжие немцы розных государств*", "*отец был шкоцких намец держал веру немецкую*", 등 (Cross 2004:75).

르조와,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기본 개념을 소비에트 국민에게 교육시켜야 했으나, 국민들에게 이 개념들은 단순한 외래어였을 뿐 아니라 이해 불가능한 개념들이었다. 따라서 레닌과 스탈린의 언어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었다.

레닌의 민족어에 대한 평등정책은 소비에트 각 지역의 민족어에 대한 표준화 및 언어보급정책을 통해 교육받은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으로 실행된다. 그러나 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높은 문맹률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정책 실행이 쉽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민족어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교육자료 또한 부재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열의가 없었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Grenoble 2003: 44).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실행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정책의 일관성을 찾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과 스탈린의 언어정책은 문맹퇴치 운동과 교육의 보급, 그리고 문자 개혁과 철자법의 정착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3. 문맹퇴치 운동과 교육의 보급

문맹퇴치(ликбез:ликвидация безграмтности) 운동은 민족어정착(*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의 대표적인 조치로서 레닌에서 시작되어 스탈린까지 계승되었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족언어의 표준화에 기초한 표준 문법의 기술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혁명이 일어난 시점에서 13개 언어만이 문학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 19개 언어만이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Grenoble 2003: 45).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와 30년대 헌법, 법률 및 당의 결정 사항들의 핵심은 새로운 국가의 모든 민족과 언어는 평등하다는 원칙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표준화를 통한 언어기술과 교육, 그리고 이를 통한 문맹퇴치를 위해 1920년대 중반에 인구 수, 문자와 철자법의 존재 유무, 인구의 지역적 통합성 여부를 근거로 각 민족 언어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언어정책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에트 통제하의 모든 민족은 다음과 같은 ABCD의 네 부류로 나뉘어진다 (Smith 1998: 51).

A: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으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민족에 둘러싸여 좁은 지역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 이들은 “연방의 언어”로 교육받아야 한다.

B: 문자가 없는 중소규모의 단일 언어 민족들로서 이들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역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초등교육은 자신의 민족어로 교육을 받으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연방의 언어”로 받는다.

C: 전통적인 문자를 소유한 중규모 및 대규모의 단일 언어민족으로, 이들은 지역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프롤레타리아, 인텔리겐차, 부르주아를 두고 있다. 이들은 모든 교육을 자신의 민족어로 받으며, “연방의 언어”는 3학년 이후에 소개된다.

D: 전통적인 문자를 소유하였으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한 민족들로서 지역적으

로 통합되어 있는 민족이다. 이들은 모든 교육을 자신의 민족어로 받으며, “연방의 언어”는 3학년 이후에 소개된다.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문맹퇴치 운동과 교육 보급운동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수치에서 보듯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다.

표 3: 9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

	남성	여성	합계
총 인구			
1897년	35.8%	12.4%	24%
1926년	66.5%	37.1%	51.1%
1939년	90.8%	72.5%	81.2%
1959년	98.5%	97.8%	97.9%
1970년	99.7%	99.7%	99.7%
도시 인구			
1897년	63.3%	39.3%	52.3%
1926년	85.3%	67.6%	76.3%
1939년	95.7%	83.9%	89.5%
농촌인구			
1926년	31.1%	8.6%	19.6%
1926년	61.9%	30.0%	42.5%
1939년	88.1%	66.5%	76.7%

출처: Поликов (1992: 39), Comrie&Stone (1978: 4).

표 4: 교육 수혜율[12)]

	고등교육	중등교육
1897	0.07%	1.03%
1970	4.2%	44%
1979	6.8%	57%

그러나 비러시아계 민족의 언어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던 레닌의 정책은 ABCD위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탈린에 와서 이미 범러시아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다. 각 민족어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언어정책을 시행한 것은 모든 민족의 평등성을 보장한다는 레닌의 주장이나 20년대의 헌법 또는 당의 강령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는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이 표면상으로는 평등주의의 입각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소비에트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언어의 위계설정은 막스주의 이론을 언어에 적용하여 지배하거나 지배당해야 하는 민족을 구분하고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혁명의 이상과 달리 소비에트의 민족 정책이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범러시아주의의 기초 위에 중심부 러시아와 주변부를 철저하게 구분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레닌과 스탈린의 언어정책은 혁명의 이상에 따른 제 민족

12) 1970년의 인구조사는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10세 이상의 남성은 52.2%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았던 반면 여성은 45.2%만이 중등교육 이상을 받았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도시민의 59.2%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반면 농촌에서는 그 수치가 33.2%에 머물렀다 (Comrie & Stone 1978: 5). .

들의 동등권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를 통한 파워엘리트와 대중 간의 빠른 소통의 통로를 마련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13]

문명퇴치 운동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평등주의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전략이었음은 소비에트 정권의 선전 전략에도 잘 드러나 있다. 레닌과 스탈린은 문맹의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선전전략을 구사하는데, 예를 들면, 혁명의 이념을 고취시키는 선전 포스터, 무성영화, 각종 동상과 기념비 등이 그것이다.[14]

4. 문자와 정자법

문맹퇴치 운동과 더불어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소련 내의 문자체계와 정자법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혁명 이전에 이미 구 소련 연방 지역의 언어들은 알파벳과 정자법의 측면에서 크게 여섯 가지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1) 알파벳과 정자법 체계가 없는 언어; (2) 시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3)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몰도바); (4) 아랍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중앙아시아의 터키어 계열과 타직어, 아바르어, 체첸어 등); (5) 몽골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6)기타 중국어를 사용하는 일부 지역과 이미 문어의 전통을 확립하고 있었던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

정책적으로는 오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일부 중국어 사용지역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에 이미 거의 모든 언어들이 시릴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기존의 전통적인 문자와 정자법은 소비에트의 언어정책 입안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었다. 아랍문자를 사용하던 중앙아시아 제국들은 이 문자를 통해 소비에트 영향권 밖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몽골문자의 사용은 부리아트와 칼믹족을 결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정권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릴문자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했다. 우선 중앙아시아의 터키어 계통 국가들이 기존의 아랍문자를 라틴문자로 변경하는 논의를 진행시켰고, 결국 1926년에 모든 터키어 계통 국가들은 문자를 라틴 문자로 변경하기로 선언하였고, 1929년까지 라틴문자로의 변경작업은 완성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시베리아의 소규모 언어 군에도 확산되어 20년대까지 시릴문자를 사용하던 언어들이 라틴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추세도 30년대 들어서며 급속히 시릴문자로의 재전환을 맞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년 대에 시릴문자가 아닌 라틴문자로의 변경이 이루어진 원인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비에트 정권은 짜르의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하였고, 러시아어는 제국의 언어였기 때문에 시릴문자보다는 라틴문자가 볼셰비키에게는 좀 더 중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

13) 레닌과 스탈린의 언어정책은 일견 상반되고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레인의 언어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수민족의 구어를 문어로 정착시키고 표기수단으로 라틴 알파벳을 차용한다. 둘째, 민족 지역에서의 교육은 민족어로 수행한다. 셋째, 모든 민족어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각 민족 지역 안에서 완전한 권리는 누린다. (허승철 1992: 146). 이러한 레닌의 언어정책은 корензация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반면 30년대 중반 이후 스탈린의 언어정책은 강력한 러시아어 동화정책이었다.

14)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는 데는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правда지는 당의 일군들을, известия지는 엘리트 독자를, рабочая газета는 일반 노동자를, беднота는 농촌의 엘리트 농부들을, крестянская газета는 다수 농민들을 주 독자로 설정하였다. (Smith 1998: 39).

라틴문자는 이 문자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서구의 인쇄 기계 및 출판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시릴문자에 비해 현실적인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셋째, 30년대와 40년대의 관제 언어학을 주도했던 마르(Marr: 1864-1934)이론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마르는 막스주의 이론을 언어학에 적용하여, 언어를 상부구조로 파악하면서, 하부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러시아어도 이를 반영하는 변화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자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주의의 발전과 함께 라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게 된다.[15]

그러나 라틴문자의 사용은 오래가지 못하고 1935년부터 대부분의 소련연방 지역 언어들은 다시 시릴문자로 교체되기 시작한다. 소수민족어들로부터 시작된 시릴문자로의 변경은 1939년 소비에트 공화국 중 아제르바이잔이 시릴문자로 문자를 변경하면서 절정을 이루었고, 1940년에는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 발틱 국가들, 카렐리아 및 이디시 어를 제외한 모든 소연방의 언어들이 시릴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라틴문자로 쓰려고 했던 소비에트 당국이 1930년대 중반부터 왜 시릴문자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시도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비슬라브어에 시릴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학적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언어에는 있으나 러시아어에는 없는 음소를 표시하기 위해 민족어의 음운구조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비슷한 시릴 문자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어 이름을 시릴문자로 표기할 경우 완전한 한국어 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광주]가 Кванджу, [평양]이 Пхеньян으로 표기되는 것은 한국어의 음운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16]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라틴문자에서 시릴문자로의 문자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라틴문자로의 변화 때와는 달리 시릴문자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논의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경제적 또는 사회정치적 원인에 기인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시릴문자와 라틴문자 두 가지로 인쇄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며, 또한 시릴 문자만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어로의 동화과정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맹퇴치 운동과 더불어 문자 및 철자법 개혁 운동도 민족 평등주의라는 혁명초기의 이데올로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와 범러시아주의에 의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은 소비에트 시대만의 단절된 역사가 아니었으며, 소비에트 정권은 내전의 승리 이후 소비에트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언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둘째, 제정러시아의 언어상황이 소비에트 75년간의 역사 속에 복잡한 다언어 다민족 국

15) 언어는 상부구조이고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부구조가 변화한다는 마르의 언어 이론은 1950년 스탈린에 의해 비판받는다. 스탈린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언어변화는 주로 어휘의미의 변화이고 언어자체의 구조와 문법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거의 한 세대를 풍미했던 마르 이론에 마침표를 찍는다. 당시 소련에서의 언어학적 논쟁에 대한 연구는 Rubenstein (1951)을 참고하시오.

16) 소연방의 소수언어 중 하나인 예벤키어의 경우, 연구개 무성 마찰음 [x]를 표시하는 시릴문자 x를 영어의 [h]소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양순 마찰음을 표시하기 위해 러시아어의 순치음을 나타내는 в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민족어 교육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가로서의 흔적을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의 인위적인 언어정책은 구 소련 연방 국가들에게 더욱 복잡한 언어상황을 야기시켰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다중 언어 상황에서 지배언어의 위치를 러시아에서 민족어로 대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변경된 문자를 시릴문자에서 라틴문자로 되돌리는 과정에 있다. 아마도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소비에트 정권이 75년 간 언어정책에 쏟아부은 시간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소비에트 언어정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이다.

셋째, 소비에트 시기의 수차례에 걸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불변적 요소(*invariance*)는 범러시아주의였다. 레닌과 스탈린의 언어 정책은 민족어 부흥정책(коренизация)과 러시아어 동화정책 사이에서 일관성이 없이 때로는 비러시아 민족으로의 원심력으로 때로는 러시아로의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였으나, 그 중심에는 항상 러시아가 있었다. 정책의 상반성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을 뿐 그 기저에는 러시아와 비러시아 민족을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하면서 철저하게 비러시아민족을 타자화하는 범러시아주의가 깔려 있었다.

참고문헌

전 명선, 1984. “소련의 언어정책”, *중소연구* 8권 1호. pp. 179-210.
허 승철, 1992. “소련의 언어정책과 언어민족주의”, *러시아소비에트문학* 3권, pp. 142-158.
허 승철 1994. “구소련의 언어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 *중원인문논총 (구 논문집)*, 13권. 125-143.
허 승철. 1998. “1994년 러시아연방 인구조사의 언어 자료 분석”, *러시아연구* 8권 2호. pp. 159-186.

Вай сс Даниэл. (2000). “Новояз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е явление”, *Соцреалистический канон.* pp. 539-555.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ахтин, Н. Б. (2001). *Языки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XX веке. Очерки языкового сдвиг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Дмитрий Буланин.
Данилов Г. К. (1931). *Русский язык для нерусских: рабочая книга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вузов совпартшкол и школ взрослых.* 4ое изд. Москва Изд. Народов Союза.
Поликов Ю. А. ed. (1992).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39 года.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Москва: Наука.
Сарнов, Бенедикт. (2005). *Наш советский новояз маленькая энтиклопедия реального социализма*. Москва.
Селищев А М. (1928 [1971]). *Язык революционной эпохи из наблюдении над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оследних лет (1917-1926).* Reprint, Letchworth-Herts, England: Prideauz Press.

Comrie, Bernard. (1981). *The languages of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oss, Anthony. (2004). "'Them': Russians on Foreigners". Franklin, S. & Widdis E. eds. *National Identity in Russian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4-92,
Gorham Michael S. 2003. *Speaking in Soviet Tongue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Grenoble, L. A. (2003). *Language Policy in the Soviet Uni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Grimes, Barbara F. (2000). *Ethnologue. Language of the World*. 14th edition. SIL.
Hirsch, Francine. (1997). "The Soviet Union as a work-in-progress: Ethonographers and category nationality in the 1926, 1937, and 1939 censuses." *Slavic Review: 56/2: 251-278.*
Kaiser, Robert (1994). *The geography of nation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reindler, Isabella T. ed. (1985).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on Soviet National Languages. Their Past, Present and Future.* Berlin: Mouton de Gruyter.
Laitin, David D. (1998).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Cornell University Press.

Lewis, E. Glyin. (1972). *Multilingualism in the Soviet Union: aspects of language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The Hague: Mouton.

Rubenstein, Herbert. (1951). "The Recent Conflict in Soviet Linguistics", *Language* vol. 27(3). pp. 281-287.

Smith, Michael G. (1998). *Language and Power in the Creation of the USSR 1917-1953.* Mouton de Gruyter.

Stalin, Josheph. (1950). *The National Question and Leninism: Reply to Comrades Meshkov, Kovalchuk, and Others*.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Vinokur, G. O. (1971). *The Russian Language: A Brie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념비와 성상파괴주의:
소비에트 건축프로젝트와 전체주의의 예술

이 지 연(한양대)

이 글은 소비에트 예술과 건축 프로젝트를 기념비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 각각의 문화적 패러다임 속의 기호의 형상과 함께 각 문화가 기호를 다루는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삶의 기호들 속에 내재하는 권력의 신화와 그것이 구조화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는 러시아 아방가르드로부터 1930년대 스탈린 치하의 사회주의적 미학에서 이르는 시기 동안 러시아-소비에트 문화 속에서 진행된 기념비적 기호의 탄생과 해체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혁명이라는 사건이 야기한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론적 질서를 향해가는 과정(임폴스키)에서 명명의 행위를 비롯한 기호의 탄생과 소멸의 과정, 혹은 기존의 기호에 대한 신화화와 재의미화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문화 1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오늘 나 스스로를 영원히 인간적인 부동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나는 영원한 움직임 속에 있다."(Д. Вертов) 블라디미르 파페르늬(Владимир Паперный)는 자신의 저서 『문화 2(Культура Два)』의 한 장 「움직임-부동성」을[1] 20세기 초 러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의 거장 베르토프의 위와 같은 말로 시작한다. 파페르늬는 소비에트 건축물들을 통해 20년대 혁명기 문화와 30년대 이후 스탈린 지배하의 러시아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의 양상들을 고찰하면서 혁명적이고 역동적이며 수평적, 다원적인 1920년대의 문화, 즉, 문화 1이 20년대 말 급격한 단절을 통해 보수적이고 정적이며 수직적, 위계적인 스탈린 시대의 문화, 문화 2로 이행하였음을 지적한다. 이 때 '움직임'이 혁명기 문화, 문화 1의 속성이라면 '부동성'은 "이미 도래한 유토피아"라는 기만적 구호를 세계 속에 구축하고자 했던 30년대부터의 소비에트 문화, 즉, 문화 2의 지향이었다.

베르토프의 지적처럼 문화 1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갈망하는 전위와 전복, 변화와 혁명의 문화다. 그것은 또한 수직적이고 다원적이며 자유롭고 변화가 가능한 혁명의 문화이다. 타틀린(В. Татлин)의 제 3 인터내셔널 기념탑은 바로 이러한 혁명을, 문화 1의 '움직임'을 기계와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이상을 통해 표상하는 기념비이다. 물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지어지지 못했다. 400미터 높이에 이르는 거대한 나선형 구조물은 멈추지 않는 역사의 발전을 형상화하며, 나선의 안쪽에 위치하는 세 개의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은 각각 일 년과 한 달, 그리고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며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즉, 이것은 '움직임' 자체에 대한 기념비와 다르지 않았다.

그의 또 다른 기획이었던 "레타틀린(Летатлин)"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향한 극단적인 시도로서 인간의 근육의 힘으로 날 수 있는 기계를 고안하려는 것이었다. 즉, 가장 현실적인 삶의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몸과 구성주의의 테크놀로지가 '움직임'의 극한으로서의 '비상'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당시 러시아 문학과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비행의 모티브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지향으로서의 문화 1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의 "항공열병"이 극에 달한 것이 다름 아닌 1920년대였다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2]

---

1) Паперный В. *Культура Два*, М. 2006, С. 60-72.

2) 곤차로바와 말레비치의 그림, 당시의 애니메이션의 비행 모티브를 비롯하여 이러한 예들은 무수히 많다. 당시 비행의 모티프가 유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자 동시에 우



그림 1> 타틀린, 제 3 인터내셔널 기념탑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문화 1의 낭만주의는 마야코프스키의 계단시에서와 같이 분절된 역동적인 시행을, 장식주의 소설의 소용돌이치는 산문의 리듬을, 그리고 빛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아방가르드 화가들의 실험적 회화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삶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거주지와 소유를 버리고 다른 어딘가를 향해 떠나갔다. 이들에게 기차의 객실과 배의 선실 같은 공간은 집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이 당시에는 건축 역시 움직이는 것, 역동적인 것이 되고자 했다. 1927-28년 유제포비치가 고안한 건축 프로젝트인 "날아다니는 도시"는 바로 이러한 역동적 공간의 극한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파페르늬가 자신의 저서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듯[3] 1920년대 말이 되면서 점차 정부의 인구의 통제와 동원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변화한다. 움직임을 특성으로 하는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수평적 문화가 보여주는 혼돈과 무질서는 새롭게 도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세계 속에서 척결되어야 하는 것들이었던 바, 계속되는 정부의 제도화의 노력 속에서 어느새 문화 1의 유동성은 점차 문화 2의 부동성으로 대체되게 된다. 이 시기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간혹 발견되는 어디로 가야할 지 알지 못하는 방랑자들의 형상은 문화 2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자신들이 설 곳을 찾지 못하는 문화 1의 잔영들과 같다.

명백히 레타틀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비츠키의 그림(그림2)은 날아가는 새와 날개를 단 농민 소년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킨다. 소년의 몸이 지상을 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들은 소년과 반대방향으로 날아간다. 땅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 소년의 형상을 통해 작가는 비행을 꿈꾸던 이전 시대의 낭만주의자들에 대한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수직적 비상과 움직임의 시대가 아니다. 지상은 새롭게 조직되고 구축된다. 수직적인 상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부의 특권계급, 가령, 혁명의 영웅이라거나 당의 지도자, 소비에트 이념의 화신 등에게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적 예술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땅위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이념이라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상승하는 신화적 요소들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학텍스트들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레닌과 스탈린 역시 이들 긍정적 주인공, 혁명의 영웅들과 같은 의미장에 속해 있다. 그들은 대중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존재로서 기념비가 된다. 스탈린 양식은 바로 이러한 시간적 수평과 신화적 수직이 교차된 구조를 형상화한다.

소비에트인들은 지상위에 고착된 부동의 존재로서 계획된 주거 공간 속에 재배치된다. 대신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수직적인 축이 지상의 공간 중심에 세워지며, 그 가장 높은

주론적인 환상과 유토피아의 재현이었으며, 더 나아가 모든 논리의 법칙을 파괴하는 혁명적인 인식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떠다니는 것, 비행하는 것은 곧 코드화된 고착된 공간에 고정되지 않은 채 땅에서 하늘로, 유기적이지 않는 것에서 유기적인 것으로, 살아있지 않는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이월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유동성과 변화, 혁명과 같은 문화 1의 키워드를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모티브라 할 것이다.

3) 앞의 책, 63-65.



그림 2> 사비츠키, 그로즈늬 시대 한 농민 소년 니키타의 비행

곳에는 자주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서의 별 혹은 독재자의 조각상이 자리하게 된다. 이는 이오판의 소비에트 전당 프로젝트로부터 이후의 많은 소비에트 건축가들에게서 반복된다. 그것은 곧 지상과 하늘을, 현재와 미래를 혹은 현실과 이상을 잇는 매개로서의 이념이자 그 이념을 체화하고 있는 지도자의 형상인 바, 문화 2의 새로운 수직성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독재자에게는 신과 동등한 후광이 부여된다.

스탈린 양식은 이처럼 기념비 양식이다. 기념비는 언제나 주변보다 높이 있어야 한다. 대지의 수평적인 공간은 대중이며, 역사이고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수평적 흐름 속에서 위로 솟은 수직적 기념비는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다. 기념비는 원래 기억을 위해 지어진다. 즉, 부재하는 대상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기념비는 그 크기에 있어 전혀 재현적이지 않다. 그것은 실제보다 훨씬 크다. 부재하는 대상을 재현하는 것보다 부재하는 대상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해진다. 탈시간적인 영원한 실재로서의 기념비는 따라서 종교적인 성상화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것을 관조하는 것은 곧 그 대상의 신성을 관조하는 것이다. 스탈린 양식의 중심을 차지하는 수직적 기념비는 모든 대중의 관조를 위한 것이다. 그 높이는 그것이 상정하는 대중의 규모에 비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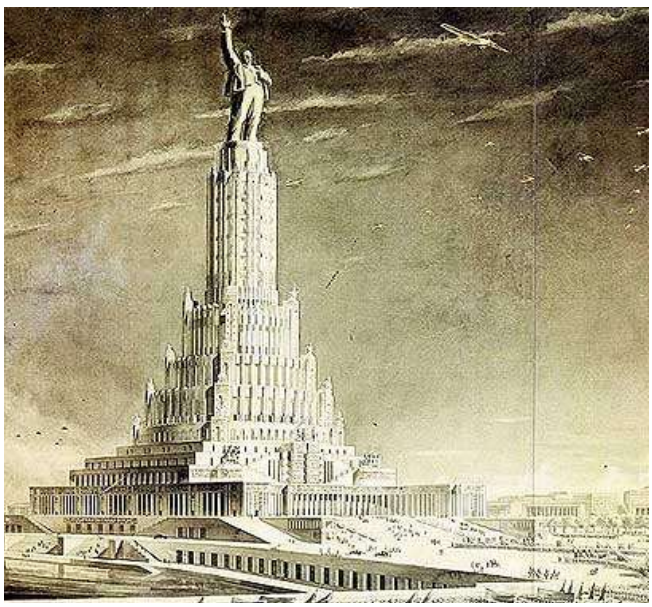


그림 3> 이오판, 소비에트 전당 건설 프로젝트

독재자를 그리고 있는 당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회화가 자주 종교적인 성상화의 구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경전화된 예술작품들 속에서 지도자의 형상 혹은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은 극도로 추상화되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 이념을 담고 있는 육체와도 같으며, 그들의 육체는 지상의 민중적, 물적 토대를 고양시켜 상위의 것으로 끌어올리는 매개체와도 같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들이 자주 영웅의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삶의 여정을 그리는 성장소설이 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카테리나 클락이 지적하고 있듯이 소비에트 건축의 수평성과 수직성의 조화는 바로 이러한 공간적인 신화를 반영한다.[4] 그가 예로 들고 있는 게라시모프의 스탈린 초상화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 회화 속의 스탈린의 형상은 스탈린 양식 건축

물들의 수직성을 반복한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민중들을 배경으로 전경화되는 스탈린의 형상은 종교화에서 성인의 형상이 묘사되는 방식인 동시에 소비에트 시기 건축 프로젝트가 지향한 토대로서의 수평적 지상과 그것을 천상으로 끌어올리는 매개적 수직축의 구조를 닮아 있다.



그림 4> 게라시모프, 크레믈린의 스탈린과 보로쉴로프



그림 5> 슈르핀, 조국의 아침

게라시모프의 "크레믈린의 스탈린과 보로쉴로프(1941)"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스탈린 양식 건축물들에 특징적인 수직적인 원칙을 반복한다. 여기서 크레믈린의 다른 벽들은 생략되고 종루만이 그려져 있으며 그것과 나란히 스탈린과 보로쉴로프의 거대한 수직적 형상이 존재한다. 스탈린과 보로쉴로프는 크레믈린의 상징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스탈린은 나란히 서 있는 보로쉴로프보다 한층 더 인간적인 색채나 디테일들이 제거되어 있다. 그와 크레믈린 종루는 동일한 색조를 이루며 그 동질성을 강조한다. 그는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멈추어 있는 조각상에 가깝다. 이 작품에서뿐이 아니다. 대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회화 속에서 스탈린은 이처럼 조각상과 같은 부동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회화에서뿐만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역시 스탈린은 조각상에 가깝다.

이는 레닌과 대조적이다. 레닌 역시 때로 조각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의 형상은 많은 경우 역동적이다. 역시 게라시모프가 그린 레닌의 형상은 깃발의 움직임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간다. 또한 레닌은 자주 군중으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닌 움직이는 군중들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부동의 수직적 형상으로서의 스탈린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문화 1과 문화 2의 대립을 반복하는 듯 보인다. 레닌이 움직임의 문화로서 문화 1을 대변한다면 스탈린은 문화 2의 부동성을 체화한다.

이 때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과 같이 그려진 스탈린의 형상은 스탈린을 의미한다기보다 상징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스탈린이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예술적 전범들 속에서 스탈린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이념에 대한 기호로 부활한다. 기념비는 부재를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영원성을 지향한다. 즉, 기념비의 탄생의 과정은 죽음을 통해 인성이 신성으로 치환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스탈린의 형상이 조각상의 형상

---

4) Katerina Clark, "Socialist Realism and the Sacralizing of Space," *The landscape of Stalinism: The Art and Ideology of Soviet Space*, Univ. of Washington Press, 2003, pp. 5-13.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역시 위의 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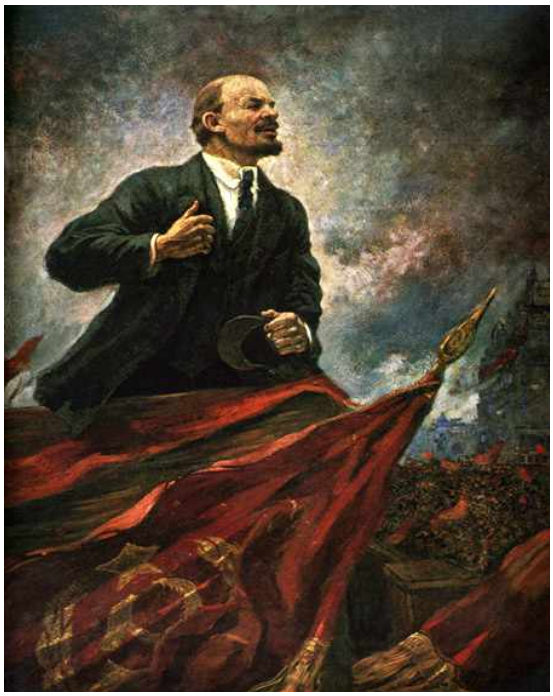


그림 6> 게라시모프, 연단 위의 레닌

으로 치환됨으로써 그는 살아서 이미 성상화 속의 성자들처럼 신성을 획득하고, 무한한 자기 복제를 통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사학의 중심에 언제나 "최종적인 말"로 존재하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레닌은 죽어서 상징이 되었다. 스탈린 시대 회화 속의 레닌의 형상이 보여 주는 역동성은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레닌의 마브잘레이는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음을 가장하는 레닌의 기념비이다. 그것의 피라미드 모양 역시 바로 그러한 기념비 양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른다. 벤야민은 크레믈린에 특별한 조각상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그 벽 안에 인간의 형상을 한 기념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레닌의 기념비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임폴스키가 지적하듯 크레믈린의 벽과 종루 그 자체가 이미 기념비가 된다. 더 이상의 기념비는 잉여적이다. 이 때 레닌의 묘지는 레닌에 대한 기념비이기 전에 레닌의 죽음에 대한, 즉, 사라진 이전의 권력에 대한 혹은 권력의 폐허에 대한 기념비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념비는 폐허를 전제로 한다. 이전의 기념비를 허물어 낸 자리에 새로운 기념비를 세운다. 모스크바 레닌의 동상은 알렉산더 2세의 동상을 허문 자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레닌과 스탈린의 관계는 다르다. 스탈린은 앞서 지적했듯 살아 있는 채로 부동의 기념비가 되었다. 스탈린 성상화는 소련 전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레믈린 안의 레닌의 마브잘레이는 그 역설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스탈린은 크레믈린과 동일시된다. 그 안에 레닌의 마브잘레이가 존재한다. 이는 레닌의 기념비를 무너뜨리지 않고 스탈린의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다. 스탈린의 기호는 레닌의 죽음과 동시에 탈시간적인 영원한 권력을 포함한다. 레닌의 기념비가 아닌 그의 미라는 실제로 레닌의 영원성보다는 그의 죽음을 환기시킨다. 이처럼 레닌에게 바쳐진 기념비는 역설적으로 레닌의 죽음과 이전의 권력의 폐허에 대한, 그 위에 세워진 스탈린의 권력에 대한 기념비가 된다. 이는 곧 신화적 형상으로서의 스탈린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가능했던 스탈린 신화화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앞서 지적했듯 소비에트 건축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기념비 양식을 통한 스탈린 신화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스탈린 신화에 내재하는 유토피아의 이념을 현실화하는 계획이었다. 물론 그것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형상이다. 그러나 모스크바 지하철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소련 사회에서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의미했다. 지하철과 관련된 당시의 많은 에피소드들은 당시 소련에서 모스크바 지하철이 지니는 의미를 말해준다. 그것은 지상낙원으로서의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넘어서 지하세계까지 새롭게 아름답게 조직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하철 내부가 궁전과도 같은 고전주의적 양식의 화려한 외관을 하고 있는 것이나 지하철의 그 어떤 결점이나 사고도 소련의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도된 적 없다는 사실은 바로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지닌 유토피아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명부이자 죽음의 세계, 암흑의 세계인 지하 공간을 새롭게 조직하고 불을 밝히는 행위는 세계에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적 업적이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권력의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과업이자 지상의 유토피아를 선취한 상징적 행위였다.

이러한 창조의 과업은 지상 위의 일상적 삶의 곳곳으로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당시의 광고와 포스터, 심지어는 기념 우표 등등의 일상적 디테일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전체주의의 기호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가령 모스크바 중심부 거리의 교통의 움직임과 광장의 배치마저 이러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과 그 가운데 시간의 흐름을 빗겨간 기념비의 탈시간적 신화적 구도를 반복한다. 좌회전이 불가능한 앞으로의 움직임만이 가능한 트베르스카야 거리 도로 위의 계속되는 차량의 움직임은 대중의 형상인 동시에 그 자체로 이미 시간의 멈추지 않는 움직임을 형상화한다. 길들이 만나는 광장 위의 공간에는 기념비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는 구도는 앞서 이오판의 소비에트 전당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당시의 건축 프로젝트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이 삶의 차원으로 흡수되어 삶을 새롭게 조직하기를 원했던 구성주의자들의 열망은 새로운 고전주의의 아류 팔라지오 양식의 기념비성과 결합되어 기형적이고 역설적인 소련의 일상을 구축해 나가게 되는 바,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많은 소비에트 건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지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소비에트 정부의 호의를 얻지 못한 급진적 좌익예술가들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작품 뿐 아니라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재현하는 건축가들의 기념비적 작품들 역시도 자주 단지 프로젝트에 머물고 말았다. 특히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소비에트 전당 건설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사회주의 유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했던 소비에트 이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의 영화들 속에서 모스크바의 실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 하에서 영화는 지상에 실현된 소비에트 유토피아를 형상화해야 했지만 현실 속에 그러한 유토피아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화는 역설적으로 모스크바 없는 모스크바의 모습을 창조해야 했다. 알렉산드로프의 영화 “볼가-볼가”(1938)에서 주인공들은 마치 베니스에 입성하듯 배의 노를 저으며 모스크바로 들어온다. 좁은 골목들로 가로막혀 웅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스크바의 형상은 자조 몇몇 거대한 기념비적 건물들로 축소된다. 몇 안 되는 지어진 건축물인 모스크바 호텔을 비롯하여 붉은 광장과 볼쇼이 극장들은 모스크바의 기호로 기능한다. 때로 모스크바는 스튜디오 안의 세트로 대체된다. 이들 영화 속의 모스크바는 실제 모스크바의 은유이거나 환유이다. 때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실제 모스크바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이기도 하다. 에이젠슈타인의 실현되지 않는 프로젝트 “모스크바”는 존재하지 않는 모스크바를 예술 속에서 창조하려는 시도와 같았다. 이것은 예술적 창조물로 실제를 치환하려는, 즉 예술 창조가 곧 실제가 되게 하려는 러시아 아방가르드로부터의 기획을 계승한다. 또한 이것은 사회주의 유토피아로서의 새로운 모스크바를 창조하려는 당대 권력의 현실적 프로젝트와도 일맥상통한다. 실현될 수 없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많은 러시아 학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와 아방가르드의 창조적 권력 의지의 상동성을 지적하고 있는 그로이스의 지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는 또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라는 소비에트의 신화들을 구성하는 기호들이 단지 허구(예를 들어 영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상적 기호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질료들을 있는 그대로 차용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해체를 꾀하는 소츠 아트의 대표자이자 망명 예술가인 코마르와 멜라미드(Комар и Меламид)가 80년대 들어 발표한 「향수어린 사회주의 리얼리즘 연작(Nostalgic Socialist Realism)」이라는 일련의 작품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탄생」이라는 작품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작품은 회화 예술의 기원에 관한 부타데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조세프 베누아-쉬베(Joseph-Benoit Suvee)의 1791년작 「부타데스 혹은 그림의 기원

(Butades or the Origin of Painting)」을 패러디한다. 이 그림에서는 길을 떠나야 하는 연인의 벽에 비친 그림자를 그림으로써 그의 형상을 보존하려 했던 신화 속의 여인 부타데스의 행위를 그림의 기원이라고 설명한다. 스탈린의 그림자는 조세프-쉬베의 그림 속의 연인의 그림자에 대응되며, 그의 형상을 그리는 여인의 형상은 부타데스의 형상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그림에 대응된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곧 스탈린의 형상의 그림자를 그리는 여인의 시도에 의해 탄생했음을 말하는 다분히 아이러니적이고 희화화된 내용을 담는다.



그림 7> 조세프 베누아-쉬베, 「부타데스 혹은 그림의 기원」



그림 8> 코마르와 멜라미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탄생」

그러나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 속의 스탈린의 형상은 이미 스탈린이라는 인간이라기보다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 속의 스탈린의 조각상의 형상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탈린이 아닌 스탈린의 기호이다. 즉, 이 그림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탄생이란 스탈린의 형상의 그림자를 그리는 행위가 아닌, 스탈린의 재현으로서의 스탈린의 조각상의 그림자를 그리는 '재현의 재현'에 의한 것임이 폭로된다. 즉, 그림 속의 여인이 그림자를 그림으로써 영원히 보존하려 했던 스탈린의 형상은 스탈린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그의 신화화된 기호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은 스탈린의 기호 숭배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본질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탈신화화를 꾀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행위가 된다. 물론 이 작품을 통해 코마르와 멜라미드는 자신들의 탈신화화와 해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노스탤지어에 대한 말한다. 이 때 이러한 노스탤지어가 스탈린의 형상에 대한 해체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각상으로 변모한 스탈린의 기호가 소비에트인들의 삶의 일부를 이루는 더없이 일상적인 기호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에트 초기 공간 지도 형성과 시네마 네트워크

이 현 숙

1. 혁명과 영화예술

영화는 뤼미에르 형제의 발명으로 등장하게 된 19세기 말에서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이 선호하는 가장 인기 있는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초기 소비에트 사회에서였다. “영화는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이다.”라는 레닌(V.Lenin)의 말은 일찌감치 클리셰(cliché)가 되었고, 초기 소비에트 영화는 지금까지도 가장 주목할 만한 장르가 되었다.

소비에트 초기 문화사에서 영화 예술이 차지하는 주요 위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1920년대는 소비에트 문화사에 있어 주목할 만한 시기였다. 사회주의 혁명 직후 소비에트 문화의 건설과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 유형의 창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와 문학을 비롯한 다른 모든 예술들은 이 새로운 세계를 해석하고 묘사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 예술가들의 주된 과제는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기여하는 새로운 문화적 방법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과제는 새로운 세계의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 보급하는 것, 즉 낡은 세계에 혁명의 옷을 입히고 혁명의 형식으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혁명의 시기 신생 소비에트 사회에서 회화나 연극보다는 영화가, 영화중에서도 허구적인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가 지닌 상대적인 장점들이 주목받게 되었다.[1] 혁명 이후 첫날부터 새로운 국가는 ‘자기 반영’(self- representation)의 과정을 시작했고, 이러한 자기 반영의 용어와 모양은 소비에트 연합 형성의 토대가 되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실용적인 명령에 대한 가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2. 사회 혁명과 공간의 문제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주창했는데, 이는 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의미했다. 혁명 이후 20년 동안은 소비에트 사회에서 공간 지도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공간과 영토의 문제는 러시아 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광범위한 영토의 확장은 러시아 국가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917년에도 공간은 자신의 숙명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결정적으로, 광대한 영토의 스케일은 차르의 제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혁명 이후 몇 십 년간 새로운 소비에트에게 똑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부과했다. 새로운 레짐(regime)이 새로운 지도를 요구했던 것처럼, 사회 혁명은 공간 혁명을 요구했다.

소비에트 연합의 경우, 영토의 절대적인 스케일은 이를 기념비적이고 결정적인 과제로

1) 이런 상황에서 다큐멘터리 필름은 그 이중적인 역할로써 소비에트 건설에 주요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것은 역사적 기록과 통합적 교육의 무기의 역할이었는데, 즉, 다큐멘터리 영화는 현재를 ‘보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구성에 있어 주변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만들었다. 이 시기 영토의 비전은 소비에트 사회 조직의 경쟁 비전을 의미했다. 신생 소비에트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 안에서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적 공간적 총체성을 지닌 '상상의' 지도를 규정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새로운 영토의 실제적이고 상상적인 지도를 그리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국가 안에서 개인과 시민의 위치를 규정하는 작업이며,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구축하고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결합하는 과정이었다. 즉 새로운 권력의 과제는, 소비에트 연합의 '무한한 공간'(neob'iatnyi prostor)을 일관성 있는 '상상의 지리'로 창조하는 것이었다.

1917년에서부터 1935년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광범위한 지도 제작 과정이 벌어졌다. 이때 소비에트 국가의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한 카르토그래피(cartography; 지도 제작 과정)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비에트 문화 체제의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로파간다 캠페인이었다.

사회주의 구성을 기록하는 문화적인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1920-1930년까지 소비에트 연합의 상상적 국가 지도의 진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내전 기간의 혁명적 사회주의로부터 경제적 '후퇴'를 의미하는 신경제정책(NEP), 그리고 스탈린주의 통제 경제의 시작인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다큐멘터리 필름, 대중 잡지, 아방가르드 예술, 건축물 등의 자료를 통해 당시 소비에트 프로파간다가 정체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이때 영토를 재현하는 용어와 이미지는, 문화 생산자가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상상했는지, 특히 영화에 있어, 새로운 소비에트 지도가 광범위한 대중적 상상력을 공유하는 스크린에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수많은 관객에게 제시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소비에트 공간 지도가 형성되던 1917년부터 약 20년 동안의 문화 산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흥미를 끄는 것은, 새로운 소비에트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모범적인 네트워크로서의 새로운 영화 산업의 조직이다. 영화는, 레닌의 말처럼,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이며, 대다수의 문맹의 인구와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단일한 이데올로기 공간의 창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프로파간다로서 영화의 잠재력을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영화의 프로파간다 기구 건설은 대중 교육의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3. 대중적 프로파간다와 영화 산업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적 프로파간다의 역할은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혁명 초기 소비에트 시네마는 국내는 물론 국외의 엘리트와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 연합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선전하는 대중적 프로파간다를 형성하는 실험장이 되었다. 1917년 혁명에 이어 내전에 이르기까지 대중 정치 시대에 소비에트 시네마는 압도적인 다수의 문맹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중적 프로파간다의 무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지하투쟁이나 망명을 강요받은 러시아 사회 민주당과 노동당원들에게 있어 노동자들의 의식 속에서 고유한 계급적 정체성을 분기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이는 노동 대중의 정체성의 의미를 공동의 이해나 더 나아가 계급적 연대감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었다.[2] 혁명

2) 혁명 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 중에서 주요한 통일된 힘을 가진 것은 언론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크라>(Iskra), <프라브다>(Pravda)였다. <이스크라>의 편집장은 "불꽃으로부터 화염이 솟아날 것이다"

이후 대중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이때 <이스크라>와 <프라브다>가 지하 조직에게 했던 역할을 소비에트 정부에게 한 것이 바로 시네마였다. 신생 소비에트 사회에서 영화는 통합을 위한 집결지이자 투쟁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10월 혁명은 국가의 정치기구와 행정기구의 수뇌부를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국가의 넓은 영토에 대한 효과적인 힘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소비에는 정권은 기존의 정부 구조 혹은 그 여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대중들의 정신과 마음을 얻어야 했다. 혁명 전 그들에게 봉사했던 매체는 이제 주어진 과제에 적절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정부는 대부분이 문맹이고, 수백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광범위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체를 필요로 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언어와 문화, 문맹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각적인 매체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매체를 필요로 했다. 영화의 근본적인 특징은 '움직이는 그림'(moving picture)이라는 것으로,[3] 이는 신생 소비에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시네마와 기계의 조합은 20세기의 예술 형식으로서의 역할과 참신함, 그리고 진보의 전사로서 상징적 기능을 실현했다. 이는 특히 소비에트의 지방이나 시골에서 그 효력을 더욱 발휘했는데, 시네마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위대한 벙어리'(velikii nemoi)는 페트로그라드와 블라디보스토크, 무르만스크, 바쿠에서 동시에 볼 수 있었고, 그 메시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그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이해될 수 있었다.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영화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시네마와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해야 했다.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 구조가 전쟁이나 혁명에 의해 혼란에 빠지듯이, 기존 시네마 네트워크의 생산과 분배 시스템은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이중 부담 속에 붕괴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관습적인 방식으로 그 정책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영화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행동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유화나 추방을 두려워한 나머지, 혁명전 영화 제작을 주도하던 몇몇 사람들은 처음에는 백위군이 차지했던 크리미아 같은 지역으로, 나중에는 해외로 도피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선도적인 감독들, 배우들, 카메라맨들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는 신생 소비에트 영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더 나아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새로운 정부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볼셰비키로 하여금 악몽을 꾸게 하기 위해 영화 주식을 모두 묻어버린 소유주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루나차르스키(A.V.Lunacharskii)와 인민 계몽 위원회, 그리고 레닌은 모두 점진적인 국유화를 선호했다. 만일 영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의 통제 하에 육성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될 때, 이는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약간만 움직여도 시네마에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cles; 위험 신호)이 떨어질 것이다. 영화 산업, 제작, 분배, 전시는 내전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중앙과 시의 통제 과정에 종속되게 되었고, 마침내 1919년 8월 27일 레닌은 모든 영화 산업의 국유화에 서명하였다.

레닌은 영화의 일정 정도는 결정적으로 프로파간다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나머지도 처음에는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그

라며, 자신의 주된 기능을 대중이 혁명적 계급으로 분기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3) 동시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화의 혼은 삶의 움직임이다."

또한 소비에트 영화 산업의 재건에 도움이 되는 수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레닌은 자신이 프로파간다의 무기로써 시네마의 특별한 힘에 주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시골과 동부 지방에서 시네마를 조직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곳에서 영화는 색다른 제품이고, 따라서 우리의 프로파간다는 특히 성공할 것이다."

레닌이 '지방에서의 시네마 조직화'를 강조했을 때, 소프키노(Sovkino)가 가장 도전적인 과업에 직면한 것도 지방에서였다. 지방의 '영화화'(cinefication; kinofikatsiia)를 위한 함성이 높아졌다. 소비에트 연합의 시골 지역은 아직도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이었다. 1919년 아지트 증기 기차 <붉은 별>(Red Star)을 타고 볼가강을 여행하던 레닌의 아내 크루프스카야(N.Krupskaia)는, 소비에트 정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지역에서 이런 상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의 어떤 지역의 농민은 현금을 준비하지 못해 입장료를 달걀이나 농산물로 지불했다. 더 중요한 것은, 크루프스카야가 여행하던 1921-22년 볼가 지역에서는 마을 젊은이들의 80 퍼센트 이상이 영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시네마가 그런 지역으로 보급됨으로써, 최소한 농민들의 생각에는 기술과 이에 따른 진보와 현대화의 전 과정과 볼셰비키가 동일시되기를 희망했다. 지방에서 잠재적인 관객은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극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정권은 혁명 전의 방법으로 회귀했다. 그들은 이동 프로젝터의 아이디어로 생각했는데, 이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첫째, 소비에트 산업이 만족스런 디자인을 전개시키기에 불가능했고, 둘째, 당의 노동자들이 주어진 장비를 다룰 줄 몰랐다.[4)]

한편 당이 스스로를 노동자들의 전위로 생각하고, 노동자는 혁명 사회의 전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클럽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장에서 소비에트 인민의 노동자 대중의 능동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전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소프키노는 필름대여에 있어 노동자 클럽에 선취권을 제공했고, 이때 영화 상영 비용을 거의 반씩 나누었다. 노동자 클럽에서 상영된 전체 영화 수에 대한 외국 영화 비율은 1925년 3월에서 10월까지 79퍼센트에서 1926년 10월에서 1927년 10월까지 51퍼센트로 떨어졌다. 이는 적지 않은 성과였다. 같은 기간에 소프키노는 소비에트 특집 영화 생산을 1년에 77에서 122편으로 증가시켰다. 그런데 <전함 포템킨>(The Battleship Potemkin) 같은 영화는 '수백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영화들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1926-27년 시즌 수입 영화의 박스 오피스의 영수증은 소비에트 영화를 2,991,064 루블이나 추월했는데, 다음 시즌 소비에트 영화의 수입은 외국 영화 수입에 비해 627,829 루블 추월했다. 러시아 영화의 평화시대의 영화 속에서 본국의 생산은 수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렇지만 물론 이런 영화들이 당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데 적합한 영화들이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소프키노는 끊임없이 상업주의를 비난하면서, 해외로 영화 수출을 늘이기 위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소프키노에 대해 행해진 대부분의 비난은 고스키노(Goskono)에 대한 것보다 먼저였고, 어떤 것은 단순한 논쟁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소비에트 시네마의 과제는, 한 비평가의 의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낭만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활양식이 아직은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우리는 그것을 창조의 과정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생활양식, 사람들 간의 새로운 관계의 발아의 싹을 묘사해야 한다. 우리는 낡은 것의 죽음과 새로운 것의 탄생 간의 투쟁을 낭만화해야 한다."

---

4) "베료조프스크 지역의 동무들은 오일 대신 타르로 프로젝트에 기름을 친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불평을 한다."

이것은 1920년대 후반 소비에트 연합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전체에서 착수된 것이다. 달리 말해, 1920년대 소비에트 영화 산업은 혁명 이후 10년 동안 당이 요구하는 종류의 영화들을 다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5]

4. 아지트 기차와 시네마 네트워크

신생 영화 산업의 구조와 그 네트워크를 고찰하는 것은, 프로파간다 네트워크 구조 전체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게다가 우리는 영화를 통해 정치와 문화의 극적인 교차점을 찾을 수 있다. 영화제작자는 정권의 명령과 자금에 종속되어 작업한다. 내셔널 시네마 네트워크의 건설을 둘러싼 수사학의 짧은 역사는 소비에트 프로파간다가 작동하는 공간 조직을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6]

광범위한 영토와 넓게 퍼져 있는 인구 분포, 내전 시기 급변하는 정치 상황은 무엇보다도 기동력과 유동성,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에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의 매체를 필요로 했다. 기존의 시네마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부의 프로파간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었고, 따라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비상 해결책을 여기저기서 물색해야만 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프로파간다 행위를 위해 고정된 '아지트푼크투'(agitpunkty; 선동 지점)의 시네마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는데, 아지트푼크트는 철도 정류장이나 대규모 정착촌 같은 전략적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지트푼크투'가 일정한 장소에서 인구의 순수 프로파간다에 집중했다면, 이와 더불어 여행하는 아지트-기차와 아지트 증기 기관차의 숫자도 증가했다.

'아지트 기차'(agit-poezd; propaganda train)[7]는 혁명 공약의 주창자로써 활동했고, 어디를 가든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기차에는 승무원들을 위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도서관과 서점, 인쇄기구, 라디오, 그리고 영화 시설이 그것이다. 기차를 타고 영화를 보는 것은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전에는 활동사진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를 두 가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우선 그들은 대중들의 뇌리에 자신들을 기술과 기계화, 진보와 연관시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둘째, 그들은 대중 전체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을 촬영하는데 새로운 매체를 이용할 수 있었다.[8]

---

5) 그러나 갈 길은 멀었다. 기회를 박탈당하기 전까지 소비에트 관객들은 그들의 혁명의 역사라고 간주되는 것이나 트랙터보다는 여전히 채플린, 키튼, 페어뱅크스, 픽포드 등을 좋아했다. <메리 픽포드의 키스>(The Kiss from Mary Pickford)에 대한 루나차르스키의 기고는 이러한 딜레마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인민은 사실주의보다는 현실 도피를 선호했다. 따라서 소비에트 정부는 이 문제에 주목해야 했다. 관객을 영화 산업에 보다 가까이 끌어당기려고, 내무부의 인민위원회(NKVD)는 1925년 7월 '소비에트 영화 우정 연합'(ODSK)이라 불리는 새로운 대중 조직을 창설했다. 그 첫 번째 책임자는 전 비밀경찰의 책임자였던 제르진스키(Dzerzhinskii)였다. 수락 연설에서 그는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강조했다: "시네마는 우리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국가를 문화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치고, 비문화적이고, 문맹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를 부여했다. 그것은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문학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 발전의 첫 번째 성공과 미래의 우리 산업과 경제의 급속한 성장의 전망은 노동자 농민 대중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했다. 이런 이유로 시네마는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6) 1918년 N.F.프레오브라젠스키(모스크바 영화 협회 회장)는 말했다: "모든 것을 영화로 찍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역사 앞에 우리의 의무이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인민 앞에 우리의 의무이다."

7) 소비에트 초기에 프린팅 장치, 연극단, 영화 스텝을 싣고 지방을 순회하던 선전 기차.

8) 이런 상황에서 레닌은 마치 신처럼 등장하는데, 실제로 1918년 레닌이 비서와 함께 크레믈을 걷고 있는 장면이 널리 분포된 뉴스영화에서 생활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별한 장면이 영화화되었고, 이는 레닌이 죽었다는 루머를 잠식시키기에 충분했다.

아지트 기차의 영화 섹션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다. 첫째, 그것은 지방, 특히 방금 백위군이 철수한 지역에서 중앙에서 생산된 아지트 영화의 데몬스트레이션의 기능이었다(레닌의 뉴스 장면은 이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둘째, 지방에서 중앙으로 공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뉴스영화로서, 여기에서는 레프 쿨레쇼프(Lev Kuleshev),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 에스피르 슈프(Esfir Shub), 그 밖에 이후 소비에트 영화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편집을 담당했다. 또 다른 요구가 파생적으로 발생했고, 두 가지 새로운 타입의 영화가 생겨났다. 그것은 아지트 영화 포스터와 '아지트카 프로퍼'(agitka proper)이다. 전자는 포스터 주제의 영화 버전으로서 주장하는 바를 아주 간략하게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마야코프스키(V.Maiakovskii)의 포스터 시의 영화적 등가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지트카 프로퍼 역시 짧고 간결한데, 직접적이고 단순한 주제에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9)]

첫 번째 '아지트-기차'가 1918년 여름 카잔의 내전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전선에서 촬영된 필름은 모스크바로 보내졌고(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인쇄하고 편집하였는데, 이중에는 지가 베르토프도 있다), 그 재료는 또 다른 전선으로 보내지거나 대중적 지지를 선동하기 위해 영토를 횡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내전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25년 소비에트 연합에는 '이동 프로젝터'(kinoperedvizhniki)를 동반한 천 개의 '여행 시네마'(traveling cinema)가 소비에트 영화(특히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며 국가 전역을 돌고 있었다. 영화는 국가의 '뉴스'를 시골 마을에 전달하였고, 농민과 노동자들을 새로운 국가의 참여자이자 시민으로 바꿀 것을 추구했다.

영화는 새로운 소비에트 공간을 창조하는 통합체로써 기능했다. 영화는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골의 편협한 경계를 벗어나게 하고, 도시 노동자에게 보다 가깝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였다. 1924년 이후 강력한 슬로건이 된 '시골에 관심을'(litsom k derevne)은 일반적인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주창하였는데, 여기서 시네마가 중심적인 것이 되었다. 1925년과 1929년 사이 모든 소비에트 영화(sovetskoe kino)의 모든 판본들, 국가계몽 위원회(Narkompros)의 시네마 분과는 소비에트 건설이란 과제의 열쇠로서 시골의 '영화보급'(kinofikatsiia)5)을 주장하는 광범위한 분과를 포함하게 되었다.

1928년 3월 제 1차 시네마 당 회의는 영화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위상에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영화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통합된 소비에트 인민의 창조를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선언되었다. 제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국가의 광범위한 이동은 '영화보급'의 강화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다. 1928년 상반기에 국토를 순회하는 여행 프로젝터(1881)와 새로운 시네마의 수는 거의 두 배가 되었다.

한편 1920년대 중반부터 뉴스영화의 생산과 보급은 이데올로기의 중심적인 과제로 간주되었다. 지가 베르토프의 <키노 위크>(Kinonegelia)는 1918년 1월 1일에 처음 발행된 이후 1년 동안 매주 발행되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영화의 진실>(Kinopravda; Film-Truth)은 소비에트 뉴스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되었다. 한편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다큐멘터리 영화 '잡지들'이 증가하였다. 고리키가 편집한 <우리의 성과>(Nashi dostizheniia)는

9) 이러한 유형의 영화는 후일 소비에트 영화의 발전 과정에 있어 특히 스타일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질의 시각적 재현에 있어 역동성의 본질은 편집의 원칙, 혹은 후일 에이젠슈타인(S.Eisenshtein)이 말한 바, '역동적인 몽타쥬'로 발전하였다. 아지트카는 아주 단순하고 시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고, 그것은 다양한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그들에게 역동적인 인상을 남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은 쿨레쇼프의 이론 작업과 워크샵, 지가 베르토프의 키노-아이 그룹의 다큐멘터리와 성명서, 그리고 셔프와 에이젠슈타인, 푸도프킨(V.Pudovkin)의 영화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1930년에 매월 발간되었는데, 이 잡지는 특히 중심(소비에트 국가)의 행위와 성과에 있어 주변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작은 인간'은," 이 시리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리키를 인용하자면, "자신들의 일상의 노동이 이 잡지가 말하는 것과 같은 성과의 형태로써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성과>와 같은 영화 잡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위대한 성과에 대한 지역의 가치 있는 공헌을 강조하면서 여러 다른 지역의 다른 영화에서 수집한 다양한 뉴스들의 단편을 포괄한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는 중심과 주변이 독립적인 가운데, 단일한 소비에트 공간을 지도화하고, 지역의 수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기록하였다. 중심의 통합은, 수사학적으로, 주변의 행동에 달려 있다. '작은 인간'의 성과는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었다.[10]

이와 함께 적절한 '소비에트' 장르의 추구는 1920년대 소비에트 영화의 지속적인 과제였다. 1926년부터 '소프키노'(Sovkino)는,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프로파간다로서 효과적인 동시에, 관객의 취향과 선호도에 부응하는 진정한 소비에트 영화를 창조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11] 소비에트 시네마는 자신만의 대중적인 장르로서 서구 영화의 대중성과 대중적인 코미디에 맞서 싸워야 했다. 1928년 회의에서는 소비에트 시네마에서 '부르주아'의 흔적을 없애고, 현대화와 산업화 서비스에 있어 이동 시네마의 증가를 주창했다.[12]

5. 소비에트 공간 지도 형성

신생 소비에트 사회에서 새로운 국가의 성공은 중심과 주변을 분리하는 넓은 공간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사회 구조를 통합하는데 달려 있었다. 이때 실질적인 조건에서 새로운 공간의 탐사와 지도화는 신생 소비에트의 통합 정책에 있어 가장 중대한 과제였다. 1920년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즉 전력화, 산업화, 철도 노선, 라디오 설비 등과 같은 사업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국가의 공간을 측량(surveying)하는 행위들로서, 즉, (알려지지 않은) 공간을 (알려진, 지도화된) '영토'로 변형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1928년 공포된 제 1차 5개년 계획은 산업화, 즉 현대화를 향한 '위대한 도약'(velikii perelom)에 대한 동력을 부여했다.

역사적인 순간으로서 소비에트 현재를 재현하는 것은 1920년대와 30년대를 통해 볼셰

---

10) 1925년 <소비에트 시네마>의 사설은 중심의 영화나 군사 퍼레이드, 시위에 집중하는 대신, 다큐멘터리 필름이 "소비에트 연합에 거주하는 모든 인민들의 진정한 삶,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건들을 완전한 스케일로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의미는 이후 더욱 발전되었는데, 1929년 유명한 잡지 <예술의 삶>(Zhizn'iskusstva)의 페이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은 영화 제작자(중심을 암시), 작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1) 소비에트 무성 영화와 동일시되는 대표적인 이 시기의 감독들, 즉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레프 톨스토이, 프세볼로트 푸도프킨, 지가 베르토프, 알렉산드르 도프첸코 등은 대중을 염두에 두지 않은 '난해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Bronenosets Potemkin) 같은 '혁명' 영화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들에 비해 관객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높지 않았다.
소비에트 초기 영화에 있어 '일반적인 관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보급시킨 보리스 바르네트, 세르게이 유트케비치, 야콥 프로타자노프 등 보다 젊은 감독들도 주목할 만하다 (Richard Tayler and Ian Christie의 *Inside the Film Factory: New Approaches to Russian and Soviet Cinem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12)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네마가 출현하는 1930년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대중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건전한 소비에트 시네마의 창조는 문학에 있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강화에 수반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영화 조직의 지방 분권 네트워크는 중심의 통제 산업에 의해 급격히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징적 시스템에서 점진적인 이동을 수반하였다. 1920년대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촬영된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역동적인 지방 분권적 공간은 방사형으로 조직된 스탈린주의 풍경으로 대체되었다.

비키 프로파간다 캠페인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이때 영화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초 레닌은 전력화 과정의 영화화와 그 필름의 광범위한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화는 교육과 선전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제는 역사적인 사업으로서 전력화라는 뉴스를 유포하고, 바로 지금 실제적인 의미에서 대중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영화는 변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대중의 참여를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무시켜야 하고, 어떻게 격자망이 국가적 지역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했다.

1) 전력화

그 시작부터 하부구조의 발전은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무게를 담당했는데, 즉 발전을 위한 물리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광활한 공간을 위한 새로운 상상적인 지도를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것의 융합은 1920년에 공표된 기념비적인 '전력화 계획'에서 아주 명확히 표현되었다.

전력화의 다큐멘터리 필름에 있어 두 가지 주요 이미지가 되풀이 된다. 첫 번째 것은 전기선을 마을에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보다 농민 가족이나 가정 내부의 모습을 다룬 보다 친근한 장면으로서 전깃불 아래 일하는 모습이다. 소비에트 초창기 에스퍼 슈프(Esfir Shub)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길>(Velikii Put')은 '우리는 소비에트의 농촌마을에 전기를 흐르게 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 과정은 일련의 재현된 이미지로 계획된다. 농촌 마을의 파노라마식 전경에서 시작하여(당시 많은 장면에서처럼 밤에 조명이 비춘다), 카메라는 가로등에 성공적으로 가까이 접근한다. 그리고 개인 가정을 지나는 케이블을 따라 갔다가, 불빛이 비치는 창을 통해 집안 내부까지 움직인다. 같은 방식으로, 지가 베르토프의 1926년 영화 <전진, 소비에트!>(Shagai, Sovet)는 전기화가 작동하는 다양한 수준을 명백히 한다. 그것은 '도시 중심의 오일램프에서부터' '변두리의 전기화'에까지, 그 다음에는 '촌락의 전기화'에 이르기까지 이동한다.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는 이 포괄적인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지도화되어 있다. 철탑과 전선과지방 도시에 처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농촌마을에, 마지막으로 전기 생활의 힘은 개인의 오두막에까지 들어와서 위대한 지도자이자 전기화의 아버지인 레닌의 초상화를 밝히는 식이었다. 여기서 농촌 마을은 개별적인 가정조차 커다란 소비에트 공간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조명이 비치는 가정과 전기 램프의 이미지는 날로 번영하는 것에 고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농촌 마을의 전기'라는 모티프는 1920년에서 1930년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 문화 생산에 중심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1932년 영화 <레닌의 길>(Na Leninskom Puti)에서는 "국가를 가로질러... 레닌의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우리는 '연합'(smychka)을 호소하는 그의 유언을 기억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전력화의 재현은 국가적 공간과 지역적 공간 사이의 관계의 재현에 있어 동질과 차이의 복잡한 변증법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동일성에 대한 충동과 동등함에 대한 강조 사이의 불명확함 속에서, 철망의 모델은 소비에트의 상상적 지리에 있어 지역성의 위상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야기한다. 조명 밝힌 마을은 이데올로기적 지도에 있어 지표가 되고, 국가의 네트워크에 짜여진다. 이와 병행하여, 마을은 동화되고(identified), 지역적 정체성의 좌표가 제공되고 심지어 고무되기까지 한다.

2) 산업화

전력화는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풍경을 변화 시키고, 광활한 러시아 영토를 관통하는 방향과 새로운 길의 영역을 제시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소비에트 영토의 개념이 '광활하고 지도화되지 않은' 장소(place)에서 '알려지고 지도화된' 장소로 이동하는 시작이었다. 첫 번째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1927년 세 개의 주요 하부 구조 사업은 볼가-돈 운하, 드네프르 수력발전소, 그리고 투르크스탄의 목화와 시베리아의 곡물을 연결하는 투르크시프(Turksib) 철도가 그것이다. 이들은 초기 소비에트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고, 그 모두는 각각 소비에트의 역사적 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은 그 시작부터 대중적인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동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화가 중심 역할을 하였다. 좌익 희곡 작가 세르게이 트레챠코프의 말에 따르면, 영화는 '우리나라의 건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넓은 창'을 제공한다. 다큐멘터리 필름은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마그니토고르스크의 거대한 강철 공장 건설에 헌정된 영화가 1930-31년에 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필름 시리즈인 <수도 건설지도> (Karta kapital'nogo stroitel'stva)는 1929년부터 제작되었는데, 국가의 지도가 형성되는 범위를 강조하였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전체 소비에트 영토의 커다란 지도와 함께 오프닝 되는데, 영토를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개별적인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소비에트의 가장 최신 성과의 전구(lampochki)를 조명한다. 모든 것이 현재형이다. 신세계가 창조되고 있다. "국가가 건설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끝없이." 1930년 한 논문에 이렇게 실렸다.

1920년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전력화의 궤도는 제 1차 계획 때도 지속되었고, 적당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 대형 수력발전소인 볼호프 수력발전소(페트로그라드 근처 볼호프 강에 위치한)가 1926년에 개통되었고, 1932년에 개통된 드네프르 수력발전소는 소비에트 국가의 위대한 성과로서 수많은 다큐멘터리 필름에 기록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와 다른 프로파간다의 역할은 전 소비에트영토가 이 영광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영화 <드네프르 수력발전소 개통>(Pusk Dneprostroiia)은 3시간에 걸친 공장의 개통 과정을 가공하여 상징적인 동시대적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즉시 영화화 하도록 근처 도시로 보내졌다. 1930년대 GOELRO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 안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와 소비에트 영토를 비교하는 두 개의 지도가 사용되었는데, 이때 소비에트는 짜르 시대 때 산업 발전을 저해하던 '광활한 공간'을 정복했다고 주장했다. 영화는 제정 러시아 시기에 중앙의 공장과 발전소로 석탄과 기름을 나르던 전설적인 '먼 거리'(dalekie puti; 예를 들어 바쿠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3.150km이다)를 열거하면서, 전(前) 소비에트 영토의 불모지를 대표하는 텅 빈 초원을 횡단하는 기차를 촬영했다. 이 영화에서는 전력화로 인해 가능해진 지방 분권화와 거리의 축소는 국가의 공간을 발견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주장했다. 영화의 주요 메시지는, 모스크바가 유일한 중심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전력화는 생산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국가 지도의 모든 지점에 산업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3) 집단화

'집단화'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광범위한 통합 운동의 중심 프로젝트였다. 1927년 제 5차 당회의에서는 "개인 소농을 커다란 집단으로 결합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농촌 마을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극적인 결정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 신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노동인구에게 공급할 식량 생산을 증가시켜야 할 상황에 처했다. 1927년 국가 곡물 매입량은 1926년의 50%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의 경제 협력으로 알려진 '스므이추카'(smychka; 결합)는 긴장 속에 관계를 숨겼다. 노동 인구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는 신속한 곡물 제공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1929년 '부농의 해체'(de-kulakization)와 집단화가 대대적인 스케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른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집단화 역시 소비에트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재평가를 요구하는 변화된 지형과 많은 경우 지역간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비에트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29년 한 다큐멘터리 신문은 토지 인민 위원회가 조직한 박람회에 모인 농민들의 사진을 찍고, 집단화의 지도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러한 지도들은 국가의 커다란 공간 속에 지역 공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며 자리매김했다. 이와 병행하여, <사회주의 농촌을 위하여>(Za sotsialisticheskuiu derevniu), <사회주의 농촌>(Sotsialisticheskaia derevnia), 그리고 <콜호즈의 일상>(Kolkhoznyi byt)와 같은 다큐멘터리 '저널'(journal) 시리즈는 소비에트 영토 내의 다른 곳에서부터 긍정적인 예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마을의 집단화를 고무시켰다. 이웃 마을의 초과 생산에 고무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경쟁 사회주의'(sotssorevnovanie) 정책은 다큐멘터리 필름들의 공통적인 테마가 되었고, 지역 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동등한 영토를 의미하는 '네트워크'(set')의 메타포는 지역 공간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주안점이 되었다.

“황금 마스크” 수상으로 본 러시아 연극흐름

함 영준(단국대)

I. 서론: 황금 마스크(Золотая маска) 상에 대하여

1994년 러시아 연극협회에 의해 제정된 러시아 최고 권위의 “국가 공연예술 상”인 <<황금 마스크>>상은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시상한다.(드라마, 오페라, 발레, 인형극 그리고 1999년부터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오페레타/뮤지컬 장르를 추가) 전 러시아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 페스티발로서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한 시즌으로 정하고 당해 시즌의 최고작들을 선정 후보 발표한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스크바에서 재 공연후 4월에 경쟁 시상한다.

<,황금 마스크>>상의 종류는 “최고 작품상, 연출상, 무대 디자인상, 남/여 주연상” 여기에 “새로운 실험상”(Новация)도 1999년부터 추가 되었다. 그이외에 특별상도 구분 전 시즌 동안 러시아에서 공연된 최고 해외 작품상도 추가 추상할 수 있다.



<<황금 마스크>>상 제정 경위: 1994년 러시아 연극협회장 М. Ульянов가 이전에 있던 «크리스탈 투란도트»상이 지닌 개인적이고 메세나적인 한계성 극복하고 보다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수상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하였다.

마스크의 심볼: 베니스 가면의 기본 + 쌍두독수리 (유럽+ 러시아) 이마에 “아를렌키노”가면이 있어 제3의 눈. (화가 О.Шейнцис)

II. “황금 마스크”상 수상에 따른 러시아 연극의 조감도

1995년 시즌부터 2008년까지 각 년도별 작품상과 연출상을 통해 문학적, 연극적 흐름을 살펴 보기로 한다. (맨 위에 써 놓은 것이 수상작이고, 그 밑에는 후보작. 2001년 부턴,ㄴ 대극장, 소극장 구분하여 작품상을 수상하고 있다)

년도	작품상	연출상
1995년	**고골<<NN시 호텔 방>>(포킨)**	**뾰뜨르 포멘코 (관대한 남편, 크롬웰링크)**
후보		
	체홉 <<이바노프>>(야놉스카야)	야놉스카야(이바노프)
	크롬웰링크 <<관대한 남편>>(포멘코)	보로딘(베로니카, 라신느)
	이오네스크 <<의자>>	마쉬코프(죽음의 방, 안토노프)
	투르게네프 <<시골에서 한달>>	포킨 (NN시 호텔방)

제1회 수상은 모스크바 공연만을 가지고 수상 대상으로 삼았다.

1996	**셰익스피어 <<태풍>>(제이틀린, 카잔)**	**줴노바치 (백치, 도스토옙스키)**
후보		
	도스토옙스키 <<백치>>	**긴카스**(죄와벌에서 K.N.,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코즐로프**(죄와벌)
	카프카 <<변신>>	제이틀린
		포킨(변신)

1997	**예레미야 애가(성서)(바실리예프)**	**블라지미르 뻬뜨로프(모래 여인, 아베코보)**
후보		
	아베 코보(모래여인, **옴스크**)	**긴카스**
	긴카스 <<데카브리스트의 처형>>	**바실리예프**
	스코로호드 <<라 베몰리>>	**프라우딘**(랴 베몰리)
	무히나 <<타냐-타냐>>	**투마노프**(타냐-타냐)
	체홉 <<세자매>>	치기쉐프(세자매, 로스토프-나-도누)
	푸쉬킨 <<스페이드 여왕>>	**포멘코** (스페이드 여왕)

1998 **체홉 <<무제의 희곡>>(도진)** **도진 (무제의 희곡)**



후보

가이다르 <<붐바라쉬>>) 샤피로(붐바라쉬, 사마라)

도스토옙스키 <<야만인과 이단자>> 자하로프

체홉 <<벚꽃동산>> 뽀그레브니치코(벚꽃동산)

뷔히너 <<보이체크>> **부투소프**(보이체크

오스트롭스키 <<뇌우>> 야놉스카야(뇌우)

톨스토이 <<산 송장>> 블라지미르 뻬뜨로프(산 송장, **옴스크**)

불가꼬프 <<조야의 방>> 르이프킨 (조야의 방, **노보시비르스크**)

유진 오닐 <<양자의 운명의 달>> **클림**(오닐, 삐쩨르)

체홉 <<세자매>> **예프레모프 (세자매)**

1999 **셰익스피어 <<겨울 동화>>(도넬란)** **부투소프 (고도를 기다리며, 베케트)**

후보

핀터 <<수위>>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셰익스피어 <<햄릿>> **크라메르** (햄릿)

셰익스피어 <<리어왕>> 보리소프 (리어왕, 야쿠츠크)

쿤데라 <<작과 그의 주인>>

곰부로비치 <<이오나 – 부르군스카야의 공주>> 르이프킨(곰브로비치, 노보시비르스크)

메리메 <<카르멘>>

뽀노마레프 (크루춘느익, <<태양에의 승리>>

-첫번째 노바찌야 상 수상-

포킨 (타치아나 레핀, 체홉)

바실리예프 (푸쉬킨, 돈주앙, 혹은 석상 손님등)

처음으로 오페레타/뮤지컬 장르 수상 시작 : 대상 없음!

체홉<<정열의 카쉬탄카>>(A.뻬뜨로프). 후보작

처음으로 실험극 수상 시상 **뽀노마레프 (크루촌느이, <<태양에의 승리>>**

-첫번째 노바찌야 상 수상-

2000 보가예프 <<웃음의 방>> **도진 (체벵구르, 쁠라또노프) –후보없이 일인**



후보

플라토노프 <<체벵구르>>

호프만 <<P.S. 요하네스 크레이슬러의,,,>>

스트린드베리 <<아버지>>

셰익스피어 <<태풍>>

고골 <<낡은사교계 이야기>>

올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 하랴>>

마리엔고프 <<냉소자들>>

긴카스 <<푸쉬킨, 결투, 죽음>>

오페레타/뮤지컬 수상작 내지 못함

노바찌야- 그리쉬코베츠 <<내가 어떻게 개를 먹었는가>>

2001 레빈 <<별속에 지다>>(지챠트콥스키) –대 **지챠트콥스키 (별속에 지다, 레빈) –**

처음 대극장, 소극장 구분

바흐틴 <<완전 행복한 한그루 나무>>-소(포멘코 극장)

후보

(대) **브이치코프** (아저씨의꿈, 보로네쉬)

뒤렌마트 <<바빌론에 온 천사>>(톰스크)　　긴카스 (검은 수사)
필리포(이태리) <<백만장자들의 도시>>　　도진 (몰리 스위니)
쥐스킨트 <<콘트라베이스>>　　**마구치**(바보들의 학교)
프릴 <<몰리 스위니>>　　르이프킨(세자매,)
체홉 <<세자매>>(노보시비르스크)　　포멘코(완전...)
(소)　　샤피로 (밑바닥에서)
도스토옙스키 <<아저씨의 꿈>>(보로네쥬)
체홉 <<숲의 정렬>>
고리끼 <<밑바닥에서>>
체홉 <<검은 수사>>
소콜로프 <<바보들의 학교>>

오페레타/뮤지컬 : <<메트로>> 수상(유제포비치)
노바찌야: <<여자들. 1945년>>(발레극)

2002 **체홉 <<갈매기>>(도진)　-대**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소설 도입>>(포멘코)-소　　포멘코 (전쟁과 평화)



후보
(대)
쿠니 <<13호실>>　　브이치코프 (미스 쥴리, 보로네쉬)
그리보예도프 <<지혜의 슬픔>>　　**줴노바치**
<<올론호>>(야쿠츠, **사하극장**)　　보리소프(올론호, 야쿠츠)
로스탄 <<시라노 드 베줴락>>　　미르조예프
라신느 <<페드라>>　　지챠콥스키
고린 <<발라끼레예프의 광대>>　　자하로프
(소)
나보코프 <<사형대로의 초대>>　　르이프킨(노보시비르스크)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에카체린부르그)

스트린드베리<<미스 쥴리>>(보로네쉬)
소콜로바 <<체르스트이예 이메니느이>>

오페레타/뮤지컬: 수상작 없음
노바찌야: <<미장트로프>>(그림자 극단)

2003 <<모스크바 합창단>>-대 카마 긴카스(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체홉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소

후보

(대)	도진/코냐예프(모스크바 합창단)
사두르 <<치치코프 형제>>	스께블륙(옴스크)
자리 <<위비 대왕>>	
스토파드 <<로렌크란츠와 기드스턴 죽다>>(카잔)	쯔흐비라바(까잔)
골도니 <<주인 토데로 씨>>	**스트루아**
밤필로프 <<장남>>	부투소프
(소)	
미타니 고키 <<웃음의 대학>>	
쥐로두 <<샤이오의 미친여자>>	포멘코
쌀띠꼬프-쉐드린 <<뻬제르부르그의 촌놈의 일기>>	
체홉 <,카쉬탄카>>	코코린(에카체린부르그)
브레히트 <<억척어엄>>	샤피로(사마라)
우가로프 <<오블롬-오프>>	
라벤힐 <<개방된 폴로로이드 사진>>	**세레브렌니코프**
밤필로프/체홉 <<여행자와 근위군인>>	**뽀그레브니치꼬**
소포클레스 <<오이디프스 왕>>	**프리코첸코**

오페레타/뮤지컬: <<노르드-오스트>> (노틀담드 파리 후보)
노바지야: <<Sine Loco>>(Axe그룹)

2004 고골리 <<검찰관>> - 대 (포킨) 도진(바냐 외삼촌, 체홉)
마리보 <<이중의 부정형>>-소(글로부스)



(도진의 바냐 외삼촌)

후보

(대)

체홉 <<벚꽃동산>> **니크로슈스**(라트비아, 메노포르타스)

뻬쉬꼬프 <<별장인들>>(옴스크) 마르첼리

셰익스피어 <,12야>> **도벨란**

체홉 <<바냐 외삼촌>> 도진

푸쉬킨 <<이집트의 밤>> 포멘코

스르블류노비치<<엄마아바아들개>> 추소바

레스코프 <<카제리나의 유혹>>(미누신스크) 뻬세고프

오스트롭스키 <<진리는 좋다, 하지만 행복이 더 낫다>> **줴노바치**

고골 <<검찰관>> 포킨

(소)

고골 <<비이>> 추소바

마리보 체르냐코프(노보시비르스크)

그리쉬코베츠 <<겨울>>(보로네쉬) **브이치코프**(보로네쉬)

입센 <<노라>> 브이치코프(뻬쩨르부르그)

프레스냐꼬프형제 <<체포된 향수>> 아게예프

프레스냐꼬프형제 <<테러리즘>> 세레브레니꼬프

오페레타/뮤지컬: 수상작 없음

노바찌야: <<산소>>

2005 체홉 <<로뜨쉴의 바이얼린>>(긴까스)-대 카르바우스키스(내가 죽었을 때,)

포크너 <<내가 죽었을 때>>

후보

(대)

몰리에르 <<돈주앙>> **모르포프(불가리아**, 삐제르)

체홉 <<바냐 외삼촌>> **민다우가스 까르바우스키스**(타바코프)

이오네스크 <<맥베드>> 뽀따보프(야쿠츠 사하극장)
고리끼 <<메샤닌>> 끼릴 세레브렌니꼬프
셰익스피어 <<리차드 3세>> 부투소프
체홉 <<로뜨쉴드의 바이얼린>> 긴카스
(소)
고찌에 <<투란도트에 대해>>
포크너 민다우가스 까르바우스키스(타바코프)
이오네스크 <<왕은 죽어간다>> 코코린 (옴스크)
뻬뜨루쉡스까야 <<숲의 새장>> 뽀그레브니치코
라가르스 <<현대사회에서 행동의 원칙>>
체홉 <<세자매>> 마르첼리(소벳스크)

오페레타/뮤지컬: <<여인들만이 재즈>>(노보시비르스크)—(로미오&줄리엣 후보)
노바찌야: <<아포칼립시스>>(그림자 극단)

2006 체홉 <<세자매>>(포멘코) **포멘코(세자매, 체홉)**
고골 <<외투>> (포킨)



후보
(대) **마구치**(개와 늑대사이, 소콜로프)
체홉 <<벚꽃동산>>(옴스크) 마르첼리(옴스크)
셰익스피어 <<리어왕>>(크이즈일,투빈스크) 오오르작(투빈스크)
체홉 <<숲의 정령>> 세레브렌니꼬프
슈미트 <<오스카와 장미 엄마>> 빠지

체홉 <<세자매>> 포멘코

<<이상한 놈들>> 프라우딘(옴스크)

(소)

<<희생을 묘사하며>> 세레브렌니꼬프

도스토옙스키 <<아이들>> **줴노바치(자기 스튜디오)**

고리끼 <<밑바닥에서>> 에렌부르그

체홉 <<시골 생활의 무대, 바냐 외삼촌>> 뽀그레브니치코

스트린드베리 <<미스 쥴리>>(옴스크) 마르첼리(옴스크)

고골리 <<외투>> 포킨

오페레타/뮤지컬: <<열린문의 밤>> (마이 페어 레디 후보작)

노바찌야: <<개와 늑대 사이>>

2007 **몰리에르 <<상상병환자>>(줴노바치) -대 줴노바치(<<몰락한 귀족 가문>>-연극스튜디오**

<<몰락한 귀족 가문>>-소 (레스코프 미완성 소설)



후보

(대)

로르카<<버나드 알바의 집>>(야쿠츠, 사하극장) 오오르작

켄 키지 <<일식>> 모르포프(모스크바)

<<리어왕>> 도진

몰리에르 <<상상병 환자>> 줴노바치

도스토옙스키<<넌센스 시>> 긴까스(네레빠야 뽀엠까)

고골의 (죽은혼)<<엽기적인 사건>> 카르바우스키스

몰리에르 <<타르튀프>>(노보시비르스크) 쁘리코첸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야놉스카야

(소)

<<아미고>>(꼴랴다, 에카체린부르그)

쉐드린 <<골로블레프의 주민들>> 세레브렌니꼬프

안드레예프<<목매죽은 7인의 이야기>> **카르바우스키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브이치코프(삐제르)

<<페드라, 황금 바퀴>> 졸닥(우크라이나)

오페레타/뮤지컬: <<피가로>> (모굴 후보,)

노바찌야: <<케짤>>(데레보)

2008 **바실리 그로스만 <<삶과 운명>>(도진 MДT)대 – 오스트롭스키 <<뇌우>>(마그니토고르스크 푸쉬킨 극장 –에렌부르그 연출) 소**

연출상: 민다우가스 카르바우스키스



후보

(대)

<<산 송장>>(**톨스토이**) –뻬제르부르그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 **포킨** 연출

<<리어 왕>>(셰익스피어) – 모스크바 사찌리꼰 극장 --- **부투소프** 연출

<<헛 소동>>(셰익스피어) – 모스크바 말르이-브론노이 극장 – 보고몰로프 연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사람>>(켄 키지) - 우파 바쉬키르스크 극장 – 아부샤흐마노프

(소)

<<이바노프>>(**체홉**) – 뻬제르부르그 딱꼬이 극장 – 바르그만 연출

<<이바느이>>(**고골리**) – 뻬제르부르그 알렉산드린스키극장 – **마구치** 연출

-원제: 이반 이바노비치가 이반 니키포로비치와 싸운이야기
<<도박꾼들>>(**도스토옙스키**) – 모스크바 스타니슬랍스키 집 근처 극장
<<7월>>(이반 브이르이파예프) – 모스크바 프락찌까 극장 –
<<마지막 남은자들>>(**고리끼**) – 니쥐니 노브고로드 쥬즈 –
<<행복한 모스크바에 대한 이야기>>(**플라토노프**) – 모스크바, 타바코프극장 – **민다우가스 카라바우스키스** 연출
<<고아의 서양>>(막도나흐) – 모스크바 찌아뜨르 우 모스타 –
<<가장 중요한 것>>(미하일 쉬쉬킨 소설) – 모스크바 포멘코 극장 – 카멘코비치 연출
<<필로우맨>>(막도나흐) – 모스크바 예술극장 – 세레브렌니코프

*연출상의 계보(진한 글씨 숫자는 수상 연도, 나머지는 후보)

--스타니슬랍스키 전통

1. 포멘코—**95**, 97,01, 03, 04, 06



2. 도진 – **98**, **00**, 01, 03, **04**, 07. **08**



3. 쥬노바치 – **96**, 02, 04, 06. 07, **07**



4. 브이치코프 – 01, 02, 04,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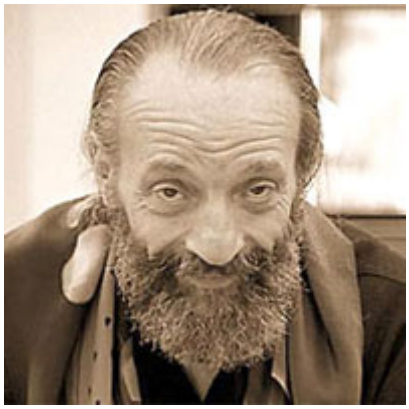
--메이에르홀드 전통

1. 포킨 – 95, 96, 99, 04, 06. 08

2. 긴카스 – 96, 97, 01, **03**, 04, 07



3. 바실리예프 -97, 99



--뻬제르부르그 새로운 물결

1. 부투소프 –98, **99**, 03, 05, 08
2. 지차트콥스키 – **01**, 02
3. 코즐로프 --96
4. 크라메르 --99
5. 투마노프 --97
6. 프라우딘 --97
7. 클림 -98
8. 마구치 – 01, 05, 08

-- 모스크바의 무서운 젊은이들

1. 뽀그레브니치코 –98, 03, 05, 06
2. 세레브레니코프 –03, 04, 05, 06, 07
3. 카르바우스키스 –05, 07, **08**
4. 쁘리코첸코 –03, 07

■ 시베리아의 거장들

블라디미르 뻬뜨로프(옴스크) –**97**, 98

마르첼리(옴스크) – 04, 05, 06
르이프킨 – 98, 99, 01, 02

- 외국계 연출가들
- 도넬란 –01, 04
- 모르포프 –05, 07
- 스트루아
- 니크로슈스 –04

***작품상**

러시아 클래식 – 1. 체홉 – 95, 97, **98**(3), 99, 01(3), **02**, **03**(3), 04(2), **05**(3), **06**(4), 08
2. 고골 – **95**, 00, **04**(2), **06**, 07, 08(2)
3. 도스토옙스키 – 96(2), 98, 01, 06, 07
4. 푸쉬킨 – 97, 00, 04,
5. 고리끼 – 01, 05, 06, 08
6. 톨스토이 – 98, **02**, 08
7. 오스트롭스키 – 98, 04, 08
8. 레스코프 – 04, **07**
9. 밤필로프 – 03(2)

그외, 투르게네프(95), 무히나(97), 가이다르(98), 불가꼬프(98), 플라토노프(00, 08), 보가예프(**00**), 소콜로프(01), 그리보예도프(02), 고린(02), 소콜로바(02), 쉐드린(03, 07) 우가로프(03), 베쉬꼬프(04), 스르블류노비치(04), 그리쉬코베츠(04), 쁘레스냐꼬프형제(04,2), 베뜨루쉡스까야(05), 꼴랴다(07), 안드레예프(07), 이반 브이르이파예프(08), 미하일 쉬쉬킨(08), 바실리 그로스만(**08**)

해외 작품 – 1. 셰익스피어- **96**, 99(2), 00, 02, 04, 05, 06, 07, 08(2)
2. 몰리에르 –05, **07**(2)
라신느 – 02, 07
스트린드베리 – 00, 06
이오네스크 –95, 05(2),
베케트 --99
뷔히너 – 98

이외에 카프카(96), 크롬웰링크(95), 유진오닐(98), 핀터(99), 쿤데라 (99), 올비(00), 뒤렌마트(01)곧도니(03), 브레히트(03), 입센(04), 고찌에(05), 막도나흐(08-2)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작품 “모래의 여인”(97 ,아베코보), “웃음의 대학”(03, 미타니 고키)

***** 종합 작품상과 연출상을 분석한 결과**

1. 체홉연극의 거장 – 도진(희곡), 긴카스(산문)
2. 도스토옙스키의 거장 – 제노바치, 긴카스
3. 고골리의 거장 – 포킨
4. 러시아 클래식 – 포멘코
5. 부조리극 – 부투소프
6. 유대인 극 – 지차트콥스키, (도진)

***** 시기적 분석**

1. 초창기 (95-97) – 모스크바 연극의 삼두 마차: 포멘코//포킨//긴카스
2. 포멘코 극장과 제자인 췌노바치의 등장
3. 뻬쩨르부르그 연극의 르네상스 (98-04)

■ 도진의 시기: МДТ (98 무제의 희곡, 작품상, 연출상, 00년 단일 연출상, --연출상 4회(후보 7회), 작품상 4회(후보 7회),

■ 뻬쩨르부르그 새로운 물결 –

4. 모스크바의 부활 (05-07)

긴카스의 작업: 도스토옙스키에서 체홉으로 (체홉 산문 3부작, 검은 수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로트쉴드의 바이얼린)

포멘코 극장 – 러시아 연극의 진정성

췌노바치 스튜디오 – 러시아 연극의 희망

앙팡 테리블 – 각지에서 올라온 젊은 연출가들의 경합: 부투소프, 세레브레니코프, 카르바우스키스, 뽀그레브니치코등

5. 2008년의 분석—도진의 부활, 새로운 희망 민다가우스 카르바우스키스

에술과 커머셜의 투쟁중.

음악극의 약진

고골을 준비한다(2002년)

«모스크바 에딘버러 프린지»로 개최

--5/26 --- 6/5

--러시아 3작품 영국 3작품: 모두 에딘버러 최고 영예작들

-- 러시아 <<하얀 이야기>>(코믹 트러스트, 삐쩨르)

<<바보들의 학교>>(마구치)

<<러시아 우수>>(모스크바, 포그레브니치코 연출)

--- 영국 <<자유로운 수영>>(스탠드업 코미디)

<<다마스크>>(스코틀란드 신예작가 크레이그의 «새로운 드라마»

<<주어진 상황>>(연출도, 대본도 없는 연극)—즉흥극 그룹

III. **결론**

--- 황금마스크상의 수상을 통해 볼 때 이제 모스크바는 러시아 및 세계 연극의 중심지가 되어 가고있다. 러시아 연극의 힘은

1. 전통의 발전,
2. 실험의 지속,
3. 국내외 클라식과 현대극의 조화
4. 그들만의 학파형성의 경쟁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유라시아 연구의 정체성과 방법론

권세은(경희대)

I. 서론

최근에 유라시아[1]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라시아라는 용어는 '유라시아 대륙 패권 쟁탈전', '유라시아 유목제국', '유라시아 횡단', '유라시아 자원' 등과 같이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유행되어 왔다. 소련 붕괴 후 유라시아 공간은 EU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러시아의 과거 영향력 회복 정책, 터키와 이란의 과거 영향력 회복시도, 중국의 팽창정책 등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 NATO의 동진에 따른 신 안보질서의 형성, 에너지 개발과 송유관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에너지 정책, 소비에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의 지정학 등으로 인하여 유라시아 공간의 상황들이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학문적 영역에서 유라시아 공간에 대한 관심은 소련 붕괴 후 다양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정치경제와 같은 사회과학 연구나 역사, 철학, 문학과 같은 인문학적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연구방법은 차치하더라도 연구대상의 범위형성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유라시아 연구는 대부분 정책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면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선별된 주제에 대한 제한된 연구에 머물면서 종합적인 연구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분과학문적 수준에서 거대담론에 기초한 환원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연구는 소련 붕괴 후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지정학적, 지경학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유라시아에 대한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더불어 '유라시아', '중앙아시아'라는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같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2] 또는 '유라시아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라시아 연구가 '유라시아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탱해 주는 사상적, 방법적 기초로서 고유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색과정에서 '정체성', '연구방법', '연구대상', '프로그램' 등이 논의되는데 그 핵심은 체계화된 지식을 형성하는 기초인 세계관이다. 기존의 연구 경향을 규범적 차원(Normative level), 인식론적 차원(Epistemological level)으로 고찰해보면 그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연구는 '어떤 주제로 왜 연구하는가?'하는 즉 사회적 실재(reality)에 대한 접근방법 즉 비판적이냐, 가치중립적이냐 하는 규범적 차원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대상으로서 유라시아는 기

1) '유라시아(Eurasia)'라는 명칭은 1850년대 지질학자이며 중앙아시아 및 알타이 탐험가인 시메노프(Семенов-Тян-Шанский)가 '러시아 유라시아(Russian Eurasia)'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학문적으로 용어 유라시아는 1883년 출간된 오스트리아 지질학자 쥐스(Eduard Suess)의 책 'Das Antlitz der Erde(discussing Gondwanaland as a proto-continent)'에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후 지리학이나 지질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Eugene V. Babaev 2000).

2)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경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웅현(2005), 최한우(2001) 참조.

본적으로 '타자'로서 인식되어 왔다. 과거 유라시아 공간은 러시아 국가성의 확장 과정,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쟁탈 과정, 이슬람세계의 확대과정에서 대상화되면서 주로 외부의 시각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당연히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는 국제관계연구, 이슬람연구, 러시아 및 소련 연구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유라시아가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조명된 것은 구소련의 붕괴 후 탄생한 이 지역 국가들이 독자적인 국가 건설의 행보를 시작한 이후 부터였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사회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소연방의 몰락 이후 유라시아 지역연구의 필수적인 전제는 역사적 격변의 근원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을 위한 학문적 방법의 모색이었다. 유라시아 지역연구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된 연구 주제들이 폭넓게 공유되면서, 유라시아 지역의 이행과 변화의 동학을 개념화, 일반화 해보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활발해졌다. 비교의 시각에서의 탈공산주의 전환 경로 연구와 함께 그 동안 유라시아 지역연구에서 주변에 머물렀던 탈소 국가와 소수 민족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15개 신생 독립 국가들의 역사적 유산의 해석과 국가건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관련한 각국의 체제 전환과 이행 경로를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주요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법론적으로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의 이해방법과 동일시하는 실증주의적 전통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지역연구가 지니고 있는 학문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규범적 수준 및 인식론적 수준에서 지역연구로서 유라시아연구가 정책적 관심에 따라 시작되고 실증주의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는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의 필요에 의해 선별된 주제에 대한 제한된 연구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연구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연구의 논의에서 연구대상의 전체성 및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해석해야 한다.

정책적 또는 학문적 목적은 주체에 따라 다르며 이 두 목적은 배타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역연구가 정책적 목적을 배제할 경우 그 존재의 이유가 약화될 수도 있다. 우리의 타자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상호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연구의 학문적 목적과 정책적 목적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지역연구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권세은 2004, 132-133). 결국 유라시아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연구로서 유라시아 연구의 정체성을 고찰하고 새로운 인식의 틀[3]로서 복잡성 패러다임의 적용과 연구모델을 시론적으로 모색해 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지역'을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4]로 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

3) '인식의 틀', '사고의 틀'과 관련하여 '패러다임(paradigm: Kuhn, 1970)', '모델(model: Overton & Reese, 1973)', '세계견해(world hypothesis: Pepper, 1942)'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주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복잡계(complex system)'는 종종 복잡체계, 복합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복잡계이며 상대적으로 복잡성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복잡적응체계는 사회, 문화형상과 같이 구성요소들이 적응 능력을 지닌 복잡성 정도가 높은 체계이다.

II. 지역연구로서 유라시아 연구

1. 유라시아 연구의 정체성

‘유라시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역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뿐 아니라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지리적·지정학적·문화적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유라시아를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라시아’는 소련 구성 공화국들을 포함하는 지리적 경계, 제정러시아에서 소비에트러시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와 기억을 지닌 문화적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는며 협의적으로 동유럽과 러시아 자체를 제외한 카프카스, 중앙아시아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광의적으로는 구소연방의 구성공화국, 중-동유럽,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개념 사용되고 있다.

소련 붕괴 후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이 지역을 체제변환이라는 특성을 기준으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혹은 ‘포스트공산주의 사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러시아에서 대두되는 ‘유라시아주의(евразийство)’ 담론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 즉 러시아 땅을 일컫는 용어로 지리학적 맥락을 넘어 정치적·경제적·역사적·문화적 차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5]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표면적으로 다양한 민족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이념을 설파하고 있지만, 1920년대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지리・역사・사회・문화적인 전일적 공간의 재건에서 러시아(슬라브) 중심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라시아’라는 용어는 지리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다층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계와 민족적・국가적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중앙아시아(Central Asia)’, ‘투르키스탄(Turkistan)’, '트란속사니아(Transoxania)', '내륙아시아(inner Asia)', '중앙유라시아(Central Eurasia)', '소비에트 중앙아시아(Soviet Central Asia)', ‘슬라브 유라시아(Slavic Eurasia)’[6] 등이 존재한다. 투르키스탄 또는 투르케스탄(Turkestan)은 ‘터키인의 땅’을 뜻하는 이란어이며, 동·서 투르키스탄으로 구분된다. 동투르키스탄에는 중국의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 자치구가 서투르키스탄에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된다. 트란속사니아는 아무다리야 강 동쪽과 시르다리야 강 서쪽의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의 역사적 지역을 의미한다. 대체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내륙아시아라는 개념은 헝가리 학자 리게티(L. Ligeti)에 의해 정착된 개념으로 훔볼트의 중앙아시아 개념과 유사하다. 중앙유라시아라는 용어는 1960년대 데니스 사이노어(Denis Sinor)가 처음 사용한 이래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용어는 내륙아시아, 중앙아시아가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유라시아대륙의 중앙부분 즉 우랄알타이어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총괄하는 ‘중앙유라시아’ 개념이다. 이는 동서로는 동유럽에서 동북아시아, 남북으로는 북극해에서 카프카스산맥, 힌두쿠시 산맥, 파미

5)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와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는 오원교(2005) 참조. .

6) 일본 홋카이도대학 슬라브 연구센터(Slavic Research Center)는 슬라브 유라시아라는 개념 사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중역권’(Meso-area)과 ‘광역권’(Mega-area)의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역권’이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온 ‘슬라브 유라시아’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점차 독자성을 강화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중앙유라시아’, ‘동유럽’ 등의 공간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중역권’이라는 개념은 인접하는 외부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적인 변화와 연동하여 정치・경제・사회적인 다양한 힘이 내외로부터 작용하는 새로운 공간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Osamu IEDA 2004).

르고원, 쿤룬산맥, 황허에 이르는 광대한 지리적 공간으로 지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개념이다(고마츠 히사오외 2005, 19). 소련붕괴 후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Post-Soviet'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서 중아아시아는 협의적으로 소련 붕괴 후 독립한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지칭한다.

유럽과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중앙아시아 정의는 지리적 개념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의적으로는 투르키스탄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동쪽으로는 몽골,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쪽으로는 힌두쿠시에 이르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만나는 유라시아 초원 즉 구소련 5개국과 중국 서부, 아프가니스탄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정책적 수준에서 중앙아시아는 명확한 지리적, 지정학적 정의 없이 구소련 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란·터키지역까지 연구 범위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이웅현 2007, 7). 소련에서는 극히 협의적인 개념으로 중앙아시아를 소련의 아시아 지역으로 소비에트 중앙아시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관련 주제 특히 한인문제가 소개되면서 좁은 의미의 소비에트 중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이 자리잡아가고 있다(최한우 2001, 4).

유라시아 개념은 넓은 의미로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용어로 동서로는 서부 동유럽에서 몽골, 만주에 이르며 남북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베리아 전역을 포함한다. 우랄 산맥 서쪽과 만주지역, 시베리아 전역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개념 중앙아시아, 내륙이시아, 중앙유라시아 보다는 넓은 의미이다(최한우 2001, 4).

유라시아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아직 일종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지정학적인 '거대게임' 틀 속에서 아니면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와 같은 러시아 민족주의 맥락이나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정책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연구는 특정지역의 전체상 및 지역성을 규정하는 논리를 규명하는 학제적 연구로 정의할 수 있다. 연구대상 지역으로서 '유라시아'는 하나의 일반된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일반지역(generic region)'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상호 연관된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공동체, 국가, 문화지역과 같은 '사회적 장(social field)'으로서 특수지역(specific region)으로 설명되게 된다(김희순 2000, 246). 기존의 유라시아 연구는 주로 공간에 따라 보편적인 분류에 따라 구획되는 '일반지역'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속성을 갖는 특수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유라시아는 시대에 따라 임의적으로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소위 동남아시아 및 동유럽 등과 같이 세계지역(world area)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비교적 동일한 문화를 갖는 지역 즉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개념의 문화지역(cultural area)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중국연구 및 소련연구처럼 단일 국가(nation)개념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카스피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과 같이 특정지역(specific area) 규정되기도 한다. 동시에 분과학문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은 인류학자나, 지리학자, 언어학자, 사회학자들에 의해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연구(community)연구, 국제관계와 같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연구(national study), 자원, 분쟁과 같은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중심연구(promble approach)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연구(Area Studies)는 '타자(Other)'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 창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김경일 1998, 8). 이는 '타자성(Otherness)'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적 인식방법이다(야노토루 1997, 19). 여기서 '지역'은 개념학에서 말하는 '인지

개념(perceptual concept)'으로 인지 주체의 이해 관심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정의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의 다양한 위계성에 따라 '지역'은 국가일 수도, 문화지역(cultural area)일 수도, 생태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의 각 부분적 구획(region)일 수도 있다.[7] 따라서 다양한 유라시아 개념과 지역설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중첩성(multilayer identity)과 다차원적인 범위를 인정하면서 통합적으로 유라시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학제적 연구방법

지역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제적 연구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학문분야에서 학제적이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학문은 복잡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학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학제적 연구는 전통적인 학문형태를 형성하기보다는 전통적인 학과들의 집합체인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제적 연구는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다수의 분과학문들의 기여를 통합하여 단순한 합 이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제적 연구는 상호 의존된 각 부분을 조화로운 관계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분과 부분을, 부분과 전체를 결부하는 것이다. 다만 그 현실적인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구체적 방법이 존재하는데,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초분과학문적(transdisciplinary) 연구, 개별학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다분과학문적(multidisciplinary) 및 복수학문적(pluridisciplinary) 연구, 학과간(interdepartmental) 및 교차학문적(cross-disciplinary) 연구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Meeth 1978, 10).

교차학문적 접근은 다른 분과학문의 시각에서 특정분과학문을 연결하는 것이다. 분과학문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다른 분과학문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수준에서는 학제적 연구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분과학문의 개념이나 방법을 연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학문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게 된다. 문학의 정치학, 생물정보학, 문화관광론, 어학과 컴퓨터, 시스템 통제 등이 그 예이다. 다분과학문적 접근은 특정의 문제나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다수의 분과학문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접근은 공통의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을 통일시키거나 연관시키지 않고 다양한 학문의 병렬적인 집합의 성격을 띤다. 예를 들면 '유라시아의 이해'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역사, 예술, 문학, 종교 등의 소재를 병렬적으로 집합하게 된다. 여기서 각 분과학문은 각각의 논리와 개념에서 출발하여 주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공동연구는 산술적인 합의 형태를 띠게 된다. 초분과학문적 연구는 이슈나 문제에서 출발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분과학문을 초월하게 된다.[8] 이 방법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상호관계 하에 두어 단일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단일학문의 논리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분과학문들의 단순 합 이상의 수준으로 된다. 결론적으로 학제적 연구는 기존학문 분과간의 상호보완적 교류 즉 학문과 학문, 과거와 현재, 대학과 사회,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제도와 제도 사이의 연결 등과 같이 관

7) 연구 범위는 시대에 따라 주체의 인식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지역은 인지주체에 따라 문제영역, 촌락, 도시, 공동체, 민족국가, 국가간, 초국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야노토루 1997, 26). 하지만 오늘날까지 주된 연구지역은 국가단위였는데 국제화 및 경제블록화 경향과 초국가 단위, 민족, 종교, 문화의 갈등 증대로 인하여 국가 이외의 문화지역단위, 초국가단위, 지방단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8) 미쓰(Meeth 1978:10)가 제시하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 교차학문적 접근, 다분과학문적 접근, 학제적 접근 등은 구분된다. 각각의 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중희(2000) 참조.

계설정 및 이해로 요약될 수 있다.

학제적 연구는 근대이후 과도하게 세분화된 학문들의 연구방법의 한계와 폐쇄성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지역연구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과 자연과학들의 구체적인 협동의 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성과가 없었다. 결국 현장에서 학제적 연구는 개별분야에서 얻어진 전문적 연구 성과의 병렬적 집적(다분과학문적 연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며 유기적으로는 결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는 고유한 학제적 연구방법론의 부재 속에 통합적인 측면 즉 초분과학문적 연구 보다는 개별분과학문을 중요시하는 다학문적 또는 교차학문적 수준의 연구가 지배적이다. 각 부분이 독자성을 보유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출발하여 특정 주제로 모였다가 다시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연구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연구는 학제적으로 모였다가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는 정치학, 역사학과 같은 기존의 학문체계로 회귀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학문이 여전히 중심되고 학제적 연구는 '기생분야', '보조분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제적 연구의 존재 의미는 약화되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지역연구의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치학적 연구, 문화인류학적 연구일 뿐이며 비교연구와 구분되지 않게 된다.

태생적으로 '공간'을 연구하는 지역연구는 인문과학에서 자연과학까지의 영역과 방법에 걸쳐있다. 지역연구는 종합학문으로서 모든 분과학문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고 모든 연구방법론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연구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과학문이나 분과학문전공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을 개발하여 그 것을 각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적용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연구는 분과학문을 전공하는 몇몇의 사람들의 공동연구로 귀착될 가능성이 학제적 연구 또는 초학문적 연구로의 가능성 보다 훨씬 높다.

이런 한계의 핵심은 '어떻게' 즉 '연구방법'과 관련되는데 이는 고유한 영역을 구획하여 독자적인 연구방법에 집중하려는 근대학문의 경향과 관련된다. 이런 연구 환경에서 오늘날 학제적 연구의 한 방법인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학문의 개념들이 교차하는 연구프로그램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합된 영역에서 연구되는 형태가 한정적으로 합리성을 갖는다. '부분'에서 출발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짓고 통합되는 영역인 '제(際)'의 영역을 만들게 되고 기존의 분과학문적인 지식들은 국지적으로 복잡계의 한 수준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제'에서는 비평형, 비선형성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학제적 연구라는 자기조직화과정이 형성되게 된다. 학문 및 지식의 교류, 통합은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영역이나 방법과 관련되기 보다는 지식과 학문의 인식패러다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학제적 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기본적으로 '경계(際)', '관계'의 속성이므로 그 연구방법은 '제'의 인식방법일 수밖에 없다. 단일성, 안정성, 불변성, 결정성 등을 가정하는 근대적인 인식의 틀에서는 다양성, 불안정성, 복수성, 과정성 등 '제'의 속성을 연구하는 학제적 연구가 성립되기 어렵다. 결국 '제'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III. 복잡성 인식패러다임

유라시아라는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환경과 상호 교류하며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자기조직화되고, 창발되는 '장(場)'으로 추상화 될 수 있다. 이런 공간은 사회적 행위

의 조건일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장인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의 다양한 지역은 결속도, 동질성, 경계성으로 표현되는 정체성 및 그 유지양식에 따라 타 체계와 구분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마치 찬합형태로 위계성 및 개방성을 띠는 복잡체계[9]로 간주할 수 있다.

지역을 복잡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지역이란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 즉 요소-복합(element-complex)들의 중첩과정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지역을 반독립적인 요소들의 복합체로 간주하는 경향은 존재하였으나 그 내부 메커니즘의 규명방법에서는 최소 공간단위를 찾으려는 요소 환원적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이런 방법으로는 지역의 자기조직화 및 진화의 경향, 즉 시스템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복잡적응시스템은 각 부분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과정 및 자기조직화과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구조와 기능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 존재 조건으로는 다수 행위자의 상호작용(connectivity of many agents), 환경과 에너지 또는 질량을 부단히 교환하는 소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 외부환경에 독립적으로 적응하는 자율성(autonomy)등이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자생적 질서를 만드는 비평형과 창발성(far-from-equilibrium & emergence),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체성(wholeness), 계층화된 자율성(stratified autonomy), 유사한 특징이 발생되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성과 나비효과(non-linearity & butterfly effect), 비선형적인 피드백 순환고리(feedback loops)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복잡적응시스템은 기존구조의 균형파괴로 인해 안정성의 경계를 넘어서서 비평형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과정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역동적 과정으로 전환된다. 즉, 새로이 확립될 구조의 탐색을 위한 과정구조(process structure)로서 일련의 산일(무산/분산)구조(散逸構造)[10]가 출현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 단순한 것은 상호 작용하여 복잡하게 진화하게 된다. 단순한 것들이 에너지를 이용해 결합하면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하는 방식을 자기조직화라고 부른다. 단순계가 상호작용하면서 복잡계로 전환될 때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즉 하위수준(구성요소)에는 없는 특성들이 상위수준(전체구조)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을 '창발'이라 한다. 이 구조는 창조되는 것과 새 질서(생성)의 발생(자기조직화)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체계의 진화, 변동과 관련하여 자기조직화체계의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질서의 발생은 에너지나 물질이 들어

9) 시스템은 추상화된 개념이기에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가정적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계는 단순한 체계를 의미하는데 구성요소가 둘 이하이거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체계에서는 복잡한 현상도 자기조직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복잡계란 복잡성을 띠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복잡계란 질서(cosmos)와 혼돈(chaos)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Heinz Pagels 1996, 65), 위너(Wiener 1948)는 이를 '조직화된 단순성(organized simplicity)', '조직화된 복잡성(organized complexity)', '비조직화된 복잡성(disorganized complexity)'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가 없음을 의미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상호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가정적일 뿐이다. 모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복잡계인데 단지 상대적으로 복잡성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10) 산일구조는 무산구조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은 일리야 프리고진 (Ilya Prigogine)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그는 이 업적으로 1977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프리고진은 근대과학의 틀을 깨고 복잡계의 과학을 제창함으로써 생명의 기원에 관해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최초의 생명의 씨는 생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생명력이 없는 물질사이의 절묘한 얽힘에 의해 태어났음을 주장했다.

오고 나갈 수 있는 개방계, 그 출입이 평형이 아닌 비평형 상태에서 형성된다. 개체의 생명, 또는 종으로서의 진화는 이러한 산일구조에서 형성된다.

모든 현상은 창발(emergence)[11]적 특성을 지니고 이런 특성은 분석적이고 환원적인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전체성을 띤다는 점은 분명하다. 환원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창발현상도 결국 부분들로 소급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창발현상은 궁극적으로 구성요소들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시적 단계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단계에서 결정되는 성질로 이해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구성요소들의 성질과 상호관계를 완벽하게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시적 창발단계와 미시적 구성요소 단계 사이에 일종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즉 기술단계, 인식단계의 한계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과는 다르게 복잡성 패러다임에서는 창발성이 그 자체로 존재론적 특성을 지닌다. 창발현상이 그 자체의 존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현상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낮은 수준에서는 기술할 수 없는 거시적 단계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복잡계는 갑자기 발견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복잡성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발견해왔다. 단지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식들을 담아낼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윤영수・채승병 2005, 73). 복잡한 현상을 구분하고 단순화시키는 근대적 패러다임이 체계화되면서 부분과 전체는 각각의 실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동시에 각각의 구성요소 못지않게 이들 간의 관계, 연결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성장하게 되었다. 결국 자연현상, 사회현상, 시장, 기업 등 모든 현상을 '복잡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복잡성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이 패러다임은 모든 현상에서의 구조와 관계의 복잡성을 가정한다. 이 패러다임은 질서정연한(ordered) 코스모스에서 혼돈스런 카오스까지의 넓은 영역인 복잡계를 가정하고 하면서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질서-무질서, 무질서-질서, 질서-질서로 상호 전환되는 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사고의 특징은 맥락적 사고(contextual thinking), 과정 사고(process thinking)[12]가 된다. 전통적 패러다임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과정을 발생시키는 힘과 역학이 존재한다. 반면 복잡성 패러다임에서는 모든 구조와 현상들은 과정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발현으로 간주된다(Capra 1996: 42). 모든 과정이 스스로 자신들의 규범을 만들어 내는 즉 과정이 구조를 만든다는 명제가 제시된다.

---

11) 'Emergence'는 創發, 發現으로 번역되고 'Emergentism'은 突現主義, 創發論으로 번역된다. 결과적인(resultant)' 것과 '창발적인(emergent)' 것을 구분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인 학술 용어로 사용한 사람은 루이스(G. H. Lewes)다(C. L. Morgan 1923, 3). 창발적 진화론은 원인과 기원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진화론과는 달리, '현재의 효과와 그 의미' 탐구에 집중한다는 특성이 있다.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총화 이상의 것이며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전체론(Holism)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진화의 각 단계는 이미 있던 여러 요인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성질이 출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도 생물체의 각 부분에는 물리화학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분들이 결합되면 그보다 고차원적인 질적 발전을 이루어 그것에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보다 상세한 인식론적 창발성과 존재론적 창발성의 개념과 복잡계적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해서 민병원, 나정민(2006) 참조.

12) 오늘날 과정적 사고의 극단적인 경향을 과학기술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 인간 상호작용의 산물을 여기는 기술사회학 그리고 지식, 과학기술, 자연법칙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담론에 의해 의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vis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나아가 포스티즘의 해체적 해석경향(데리다, 바르트, 라깡, 들뢰즈, 가타리)의하면 모든 텍스트의 논리와 규칙이 용해되고 모든 의미가 관계적임으로 어떤 의미도 권위도 안정되지 않는다.

복잡성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 즉 근대의 분석(analysis), 환원주의(reductionism), 결정론(determinism)에 기초한 기계론적 패러다임(mechanistic paradigm) 및 전통적 체계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인식방법을 의미한다. 복잡성 패러다임에 의하면 기존 패러다임의 가정들은 복잡계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그 동안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임의로 단순화시켜 내부의 메커니즘을 찾고 그 메커니즘으로 체계의 속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복잡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개념들 - 복잡성의 과학, 복잡계, 복잡성이론, 비선형 과학, 자기조직화 패러다임, 카오스 이론 등 - 이 모두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13] 하지만 복잡성이 다양한 개념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통합된 이론(meta-theory),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사회라는 대상은 다양한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호 구성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역시 '개념',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메커니즘은 실제적으로 관찰되는 현실(actual)영역이 아니며 이론적 개념이나 프레임워크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층화된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각각의 학문적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스템 내부 상호작용이 보다 큰 전체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된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환원은 불가피하다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궁극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를 벗어나 현상을 존재론적 층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층위를 고유한 분석수준으로 삼아 고유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방법론이 하나의 대안이다.

IV. 연구모델의 시론적 모색: 주어적 가정(假定)과 술어적 해석(解釋)

지역연구로서 유라시아 연구의 존재근거는 지역의 정의 방법에 의거하게 된다. 유라시아란 무엇인가, 유라시아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까라는 논의에서 연구가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념 및 범위가 미리 규정되기는 어렵다. 결국 '유라시아'라는 지역에 대한 개념 및 범위의 확정은 최종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설로 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특성이 왜 있는가 알 수 없으나 지역에 특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술어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지역의 범위를 주어적으로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마에다 니리후미 1998, 322).

유라시아라는 공간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는 복잡적응시스템이고 그 특성은 창발된 현상이다. 이러한 지역은 특정요소로 환원하는 방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복잡적응체계는 존재론적으로 창발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층(multilayer)구조를 가정하고 근본적으로 세계는 층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분석수준에 따라 작동원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연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 환원의 불가피성을

13) 소산구조이론에서는 복잡계의 구조적 측면이 강조되고, 자기조직화이론에서는 그 작용적 속성 즉 협동적 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경향에 따라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자기조직화에 관한 이론인 협동학이, 프랑스어권에서는 소산구조이론이, 미국에서는 카오스 이론이 보편적이다. 한편 '카오스'라는 용어는 수학자인 제임스 요크(Yorke)에 의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로스 알라모스에 있는 국립비선형 연구소에서는 비선형 과학이라는 용어를,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에서는 주로 복잡성의 과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용어를 통합하는 '일반동역학(General Dynamics)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인정하면서 현상의 자기조직화 및 공진화 메커니즘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을 시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델화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의 기본구조는 논리적 주어와 술어적 해석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그 과정을 다음의 4단계의 일반화로 정리할 수가 있다. 1) 지역을 구획하여 연구대상을 주어적으로 가정하게 된다. 2)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집적하고 변수를 측정한다. 3) 데이터들 간의 함수관계(y=F(x))를 수립하게 된다. 4) 이 함수로 데이터를 새롭게 연결 지어 특정관계에서 지역을 설정하고 그 특성을 解釋하게 된다.

1. 주어적 가정

지역연구의 유의미성은 결국 범위 설정의 유의미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유라시아 연구의 존재근거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정의에 의거하게 된다. 하지만 유라시아의 개념 및 범위가 연구의 출발이면서 최종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주제인 것이다. 결국 술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지역의 범위를 주어적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 즉 특정의 분류법에 따라 유라시아가 단위로 구획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는 전제를 상정하게 된다.

연구에서 유라시아에 대한 정의는 주의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강, 산, 바다와 같은 공간의 물리적 조건, 객관적인 조건은 결국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유라시아라는 공간은 유라시아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특성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라는 개념과 범위는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동시에 언어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유라시아를 규정할 수도 있고, 정치단위 분류인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분류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 공간은 사람뿐 아니라 영역의 지배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강제적 개념으로 오늘날 지역연구 단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국가가 자연적 생태공간에 강제적으로 정치적 공간을 정하면서 다양한 이미지가 중층적으로 축척되는 유의미 지역이 형성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귀납적 일반화(inductive generalization)

분과학문의 주요 관념들과 종교, 상식, 언어적 습관, 일상적인 삶에서 사용되는 주요 관념들을 '관찰'하면서 시작한다. 다양한 경험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일반적 범주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일을 일차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즉 보편으로 분해하여 解析(analysis/description)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시스템은 분류개념에 따라 분석된다. 예를 들면 에너지가 중심개념인 자연시스템, 권력이 중심개념인 사회시스템, 정보가 중심개념이 문화시스템이 분석의 국면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시스템 관계항목으로는 토양, 기후, 지형, 자원 등, 사회시스템 관계항목으로는 사회화 제도, 교육, 정치형태, 선거경향, 군사제도, 기업환경, 토지보유제도, 도시화 등, 문화시스템 관계항목은 언어, 종교, 세계관, 신화, 의례, 문학, 음악, 영화, 건축양식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런 분류법에 의한 자료들의 해석은 연구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요소 환원주의적 방법으로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이런 분류체계는 ‘what(무엇)’에 대해 '기술(description)'해 줄 수는 있지만 '왜(why)'에 대해서는 설명(explanation)해 주지 못한다.

3. 제2 단계: 기술적 일반화(descriptive generalization)

일반화된 관념들을 상호 제약 하에 둠으로써 실재세계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해석체계, 해석모델을 구축하는 일이다. 여기서 개별 영역에 뿌리를 둔 관념은 다른 유형의 경험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특수한 영역에서의 적용성, 즉 그 태생적 한계를 탈피하게 된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귀납적 일반화와 대비시켜 기술적 일반화라 부른다. 그 해석과정을 모델화 하면 다음과 같다.

$$S = defR[(E)P],\ S = def[R(E)]P$$

* S:시스템(지역), R:관계(생태환경, 사회체계...), P:성질(정체성, 국가성, 지역성...),
E: 요소(하부지역), 구성성분, 인자(e_1, e_2, e_3 ..... e_n)[14)]

S=defR[(E)P]은 모종의 관계(R)에 대해 특정의 성질(P)을 갖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S=def[R(E)]P은 모종의 성질(P)에 대해 특정의 관계(R)를 갖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요소, 성질, 관계, 집합 등의 개념으로 시스템이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꺾쇠 밖의 변수는 임으로 취할 수 있고 꺾쇠괄호와 소괄호 사이에 있는 변수는 꺾쇠 밖에 있는 변수의 규정성에 의해 제약되며, 소괄호 내 변수는 그 밖의 변수의 규정성에 의해 제약된다. 지역체제를 상정할 때 구체적 시스템에서 요소, 성질과 관계가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시스템(정치적, 경제적)에서 요소는 사회적 요소, 사회적 성질, 사회적 관계이고, 생태환경시스템에서는 물질적 요소, 물질적 성질, 물질적 관계이다.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은 통합체이다. 구조와 기능은 서로를 전제로 하고 서로를 인과로 하며 상호 전환한다. 따라서 구조(부분의 질서, 요소의 분포관계)와 기능(과정의 질서, 요소의 활동관계)은 동일체의 양면이다. 여기서 분포관계란 시스템 내부의 각 요소들이 처한 위치, 범위 및 배열상태를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각 요소들의 집합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각종 관계에서 각 요소간의 분포관계의 총체를 구조라고 한다. 그 구조는 내부 각 요소들 간의 분포관계의 총체이지 개별적 분포관계가 아니다. 또한 이 분포관계는 다원적, 다 위계적이다. 시스템 내부의 각 요소들 간의 활동관계가 존재한다. 활동관계는 한 요소의 활동과 다른 요소의 활동 간의 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여러 요소들의 집합체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각종 관계에서 각 요소들 간의 모든 활동관계의 총체를 시스템 기능이라고 한다. 구조와 마찬가지로 요들간의 활동관계도 다원적, 다 위계적이다.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한 쌍의 개념은 구조적인 子시스템과 기능적인 分시스템이다. 원칙상 모든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되며 많은 레벨을 갖는다. 즉 子시스템은 또한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면 시스템의 구조는 자시스템의 분포관계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개의 자 시스템은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갖는다. 분 시스템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요소들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 다음 이렇게 분류된 각종 특정 활동의 담당자라는 시각에서 요소들을 분류할 수 있다. 이때 특정 활동을 담당하는 특정 요소들의 집합체를 시스템의 分시스템이라 한다. 子시스템이 시스템의 구성성분에 입각한 개념이라면 分시스템은 시스템의 구성활동에 입각한 개념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능은 각 분시스템의 기능의 총체라 할 수 있고, 각 분시스템의 기능은 전체적인 시스템 기능의 특정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 시스템이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갖는 것처럼 시스템의 분 시스템도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갖는다.

---

14) 시스템의 정의를 해석모델에 응용한다. 시스템은 임의의 요소들의 집합(S=def[(E)]) 또는 모종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의 집합(S=defR[(E)]) 또는 모종의 성질을 가진 요소들의 집합(S=def[(E)]p)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기본적인 모델은 박창근의 시스템 정의를 활용한다(박창근 1997, 80-81).

유라시아라는 시스템의 연구는 유라시아의 구성지역 즉 자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각 분시스템 즉 자연, 사회, 문화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각 레벨수준에서 자시스템과 분 시스템의 특성을 밝히면 자시스템/분시스템의 메트릭스가 형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시스템은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성격을 갖는 찬합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시스템은 자연시스템, 사회시스템, 문화시스템으로 나뉘며 사회시스템은 다시 분 시스템 즉 정치시스템, 경제시스템으로 나뉘며, 경제시스템은 또다시 분시스템 즉 생산시스템, 유통시스템, 소비시스템으로 나뉘게 된다. 그 것을 도식화하면 '지역시스템 ⊃ 사회시스템⊃경제시스템⊃생산/유통/소비'와 같이 된다. 이 구조에서 각각의 시스템은 자주적, 자립적, 자위적 순환기능을 갖는 주체성과 상위 레벨에 종속되는 종속성과 다른 분 시스템, 예를 들면 경제시스템은 정치시스템, 자연시스템의 제약을 받고 한편 다른 분 시스템을 제약하게 된다.

4. 제3 단계: 유비적 일반화(analogical generalization) - 술어적 解釋

해석체계 및 모델을 구체적이고 특수한 영역에 적용하여 특정지역(유라시아)을 규정하고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학문은 우리 감각기관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메커니즘 즉 작동하는 기제를 인식하고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 설명과정에서 하나의 현상을 낳는 복수의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복수의 이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역을 규정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설명(explanation) 하거나 재부호화(recording)하게 된다.

이 과정은 특수적, 유추적이기에 해석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분적이고 미완으로 남아 수정되게 될 것이다. 즉 결정론적 해석보다는 '과정'을 해석하여 기존의 지역의 성격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 분해 된 지역시스템 특성을 자기조직화모델로 파악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성격을 새롭게 설명하게 된다. 즉 공간규모의 크기, 개방성과 폐쇄성, 통합성과 원심성, 자연생태 규정도, 경계의 양태, 역사적 전개 등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공간적 단위의 구성요소는 물리적 세계, 사회적 세계, 정신세계로 구분되거나 물리시스템, 생물시스템, 사회시스템 또는 자연환경, 인간사회, 정신활동 등으로 구분되는 삼분법이 사용된다.[15] 위의 분석항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삼분법을 극히 대략적이게 열거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항목을 상호관련 하에 파악하는 것이다. 이 세 국면은 상호침투성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연환경이 인간성, 기술 장치의 제한 요인이고 그것을 합한 생태환경이 사회, 문화형성의 한정조건이 된다. 각 국면의 균형이 지역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면 그 균형의 파괴는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각 시스템의 비대, 분화와 같은 변화는 자생적인 자기조직화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의한 즉 자연재해, 전쟁, 외문명 수용과 같은 타자조직화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IV. 결론

15) 공간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분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분류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케네스 볼딩의 토털시스템 사고법에서는 물리시스템, 생물시스템, 사회시스템으로 생태시스템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펠릭스 가타리는 환경생태, 사회생태, 정신생태로 환경, 사회적 제관계, 인간의 주관성을 파악하려 했다. 칼포퍼는 물리적 세계, 주체가 관계되는 세계, 과학이나 예술과 같은 '인식-주체없는 지식'으로서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지식의 총체의 세계라는 '제3세계 이론'을 제시했다(마에다 니리후미 1998, 322-334).

자연적인 경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지역연구는 그 복잡성, 미결정성으로 인해 그 정체성 모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역사적으로 유라시아라는 용어는 개념상으로만 주로 존재해 왔다. 지리적 차원에서 유라시아를 지배했던 몽골제국, 실크로드 상인, 코삭크족 등은 어떤 동서양의 경계를 느끼지 못했고, 반대로 서양에서는 자연적인 경계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로 유럽과 아시아를 분명히 구분해 왔다. 한편 유라시아 대륙의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 및 그 혼종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거대한 대륙의 크기 및 인구, 다양한 문명 등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거주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유라시아라는 추상적 개념은 오히려 사회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 유라시아가 점차 유의미성을 가지게 되었다. 유라시아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유라시아 연구가 근본적으로 학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제적 연구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과학문의 전문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을 개발하고 문제영역의 동형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각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제적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방법보다는 학제적으로 사고하는 '사고방식', '인식패러다임'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다양한 학문, 연구프로그램들을 통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분과학문이 다르더라도 패러다임이 동일한 연구자간에는 패러다임이 다른 동일 분과학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보다 학제적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양한 학문의 방법론을 아우를 수 있는 인식 패러다임 모색이 중요한데 결국 '제',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 이미 분과학문 체계에서 '제', '관계'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면서 일정의 동형성인 '복잡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은 단순히 전체를 구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의 모든 정보 혹은 구조를 그 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면서 전체와 부분간의 새로운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동형성은 대상세계에 대한 통일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문연구의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라시아 연구가 방법론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식론적 수준 즉 복잡성 패러다임에서 그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 본다. 그런데 복잡성 패러다임에 기초하는 연구방법이나 모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연구에서 '특정한 일반화'에 적합한 개념의 정의, 연구방법, 구체적 모델 등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된다.

참고문헌

고마츠 히사오외, 이평래 옮김. 2005.『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서울: 소나무.
권세은. 2004.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국제지역연구』8(1).
김경일 편저. 1998.『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문화과학사.
김희순. 2000. “지역연구의 특성과 지리학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35(2).
마에다 니리후미. 1998. “지역연구 세계관,”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지역경제회 옮김,『지역연구방법』. 서울: 전예원.
민병원, 나정민. 2006. “창발성의 철학적 개념과 사회과학 방법론,”『제 1 회 복잡계 컨퍼런스 - 복잡계 이론과 현실, 생산적 적용의 모색』.
박창근. 1997.『시스템학』. 서울:범양출판사.
야노토루. 1997. “지역연구란 무엇인가?”야노토루 엮음, 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 서울:전예원.
오원교. 2005. “신유라시아주의: 세계화 시대의 러시아적 대안 문화론” 『슬라브학보』20(1)
이웅현. 2005.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 15年史略” 『평화연구』13(2).
이웅현편. 2007.『중앙아시아의 문명과 반문명』. 서울:리북.
이중희. 2000. “한국의 지역연구: 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4(1).
최한우. 2002. “중앙아시아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제지역연구』5(1).
윤영수・채승병 2005, 『복잡계개론』. 서울:삼성경제연구소.
IEDA Osamu. 2004. "Regional Identities and Meso-Mega Area Dynamic in Slavic Eurasia: Focused on Eastern Europe," 『A paper for 2004 Winter Int'l Symposium』. Sapporo, Iapan.
Capra, F. 1996. *The Web of Life: A new scientific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s*. Anchor Books.
Meeth, R. L. 1978. “Interdisciplinary Studies:A Matter of Definition,” *Change* 7.
Morgan, C. L. 1923. *Emergent Evolution.* London.
Pagels, Heinz. 1996. 구현모, 이해심, 이호연 옮김.『이성의 꿈』. 서울: 범양사.
Wiener, Nobert. 1948. *Cybernetics.* MIT Press.
Babaev, Eugene V. “Eurasian Heterocyclic Meetings”. www.chem.msu.ru/eng/misc/babaev/Eurasia(2000).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 소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창조적 통섭

양오석(한양대학교 연구교수)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추이
  1. 일반 지역연구 방법론의 추이
  2. 유라시아 지역연구 방법론의 추이
III. 유라시아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실천
  1.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분석단위로서의 '지역'의 범주
  2. 비교지역연구의 적정 분석수준
  3.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창조적 통섭(consilience)
IV. 나가는 말

<한글초록>

이 글은 유라시아 연구를 위한 방법론 논쟁에 대해 좀 더 그럴듯한 대답을 독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 논쟁은 역사적 접근법, 문화주의, 문명주의, 지정학적 접근법, 제도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등에 의해 경쟁되어 왔다. 게다가 오늘날 급변하는 정세 속에 유라시아 지역 변화의 다양성은 또 다른 방법론 논쟁을 자극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실천으로 '지역'의 범주와 비교지역연구의 적정 수준 그리고 실천적 비교분석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설명범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창조적 통섭이 이루어지고, 분석목적에 상응하는 '지역' 개념을 수립하고, 교차-지역적 비교, 지역내-비교, 그리고 국가별 분석 등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화의 유형에 맞게 직정 분석수준을 선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유라시아, 지역연구 방법론, 지역, 학제 간 연구, 창조적 통섭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B00013)
** 이 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과 엄구호, 김연규 선생님 그리고 학문적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 소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창조적 통섭

I. 들어가는 말

『슬라빅 리뷰(Slavic Review)』 2007년 봄 호에 '연성 지역연구 대 경성 사회과학: 잘못된 대립("Soft" Area Studies versus "Hard" Social Science: A False Opposition)'이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은 수학, 양적 분석, 지속성 논리에 기반 한 사회과학 방법론이 맥락의 논리에 기반 한 지역연구를 지나치게 경시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1900년대 초반 서구에서 시작된 지역연구는 몇 차례 방법론적 고민을 거치며 오늘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한국 학술 진흥재단의 지역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인문학 한국'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정책과학 지향적 지역연구에서 벗어나 순수 학문 지향적 영역에서 지역연구를 다루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다.

제국주의 시대 지역연구가 시작된 이래 인문학적 이해에서 사회과학적 이해로 또는 정책 과학적 이해에서 순수 과학적 이해로 넘나들면서 지역연구 방법론은 끊임없는 논쟁에 휘말려 왔다. 1970년대 서구에서는 지역연구 방법론과 일반 사회과학 간에 방법론의 적실성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인문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 간에 지역연구 방법론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요지는 지역연구가 자신만의 고유한 분석틀을 수립하지 못하고 다른 학문분과로부터 분석틀을 단순히 차용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지역연구가 진정한 학문분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유한 방법과 접근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연구는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설명'보다는 '서술'에 그치는 이해를 모색한다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최고의 사회분석은 수학, 양적 분석 그리고 지속성과 결합된 단일한 인지론(즉 전통 학문분과, discipline)에서 도출된다는 가정에 기반 한다.[1] 오히려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둘 이상의 인지론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수학, 양적 분석 그리고 지속성에 기반 하는 방법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2] 방법론 논쟁이 지속된 것은 유라시아 지역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둘러싸고 역사적 접근법, 문화주의, 문명주의, 지정학적 접근법, 제도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등 수 많은 인식론들이 서로의 적실성을 경쟁해 왔다. 게다가 오늘날 급변하는 정세 속에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의 다양성은 이 지역에 대한 또 다른 방법론 논쟁을 자극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실천으로 '지역'의 범주와 비교지역연구의 적정 수준 그리고 실천적 비교분석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발간해 온 『중소연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발간해 온 『국제지역연구』와 『슬라브연구』, 그리고 국제지역학회가 발간해 온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된 유라시아 지역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지역연구 방법(론)을 살펴보고 적정 분석기법에 맞는 연구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은 실증

1) Loren Graham and Jean-Michel Kantor, ""Soft" Area Studies versus "Hard" Social Science: A False Opposition," *Slavic Review,* Vol. 66, No. 1 (Spring 2007), p. 1.
2) Ibid., p. 1.

분석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선행되어야 할 이론적 검토를 위한 개념적 논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념적 검토가 있은 후 미래연구에서는 실증적 사례를 살펴보는 적절한 연구논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여 2장에서는 일반수준에서 진행된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진화과정과, 범주를 좁혀 유라시아 지역연구 방법론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앞선 고찰을 통한 방법론적 비판에 근거하여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실천 사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론적 지식에 대한 검토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앞으로 다루어야 할 미래연구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II.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추이

1. 일반 지역연구 방법론의 추이

일반 지역연구 방법론의 추이는 토대 학문분과에 따라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나누고, 연구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층부 연구와 하층부 연구로 세분된다.

인문학적 접근 vs 사회과학적 접근

1920-30년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초기 지역연구는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등 인문학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초기 지역연구에서 인문학적 접근이 채택된 주요 근거는 우선 첫째, 대상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기본적인 역사와 언어,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을 파악하는 것은 대상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 대상 사회가 근대화된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인류학적 접근이 지역연구의 기본이 된다.[3] 따라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인과관계분석보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확립이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지역연구는 시간의 흐름 속에 퇴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정치학, 정책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과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지역연구 기법에 의해 도전받기에 이르렀다. 일반 사회과학의 목표를 고려하자면 지역연구는 일반적으로 종합성의 성격을 띠는 종적인 연구를 표방한다. 이로써 한 국가, 한 지역으로 분화되는 전문화 그리고 나아가 한 지역의 주제별 세분화 등 횡적 속성을 지양 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통 사회과학 학문분과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연구에서도 횡적인 분할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횡적 속성은 인문학적 접근에서는 더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5]

---

3) 반대로 근대화된 사회체제에 대한 지역연구로는 적합성이 떨어진다.
4) 박장식, “지역연구의 최근 학문적 동향: 일본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7), pp. 11-18.
5) 이는 아직도 지역연구의 토착화가 성숙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 한다.

상층부 연구(a study-up) vs 하층부 연구(a study-down)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인문학적 접근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지역연구 기법이 전환된 것은 냉전체제 아래 확장되는 선진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국제정치체제 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정치경제적 불균형을 토대로 하고 있었고, 지역연구 역시 이러한 정치경제적 불균형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지역연구는 국제체제 내 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 또는 사회(주로 비서구 사회), 한 사회 내 소외되거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계층이나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하층부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한편 1940~60년대 '영광의 30년'[6] 시절을 거쳐 제3세계 국가들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에 의해 선진국에 대한 지역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국제체제 내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또는 사회(주로 서구 사회), 한 사회 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이나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상층부 연구를 진행하였다.[7] 하지만 이와 같은 상층부-하층부 연구는 오늘날 수많은 이슈가 개별 국가나 지역의 책임 또는 주권 아래 속박되지 않고 공치(또는 합치, governance)의 범주로 인식되는 세계정치론이 대두되면서, 또 다른 변화의 시점에 당면해 있다. 점차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 짓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의 융복합이 중시되는 네트워크 체제로 지역연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2. 유라시아 지역연구 방법론의 추이

유라시아 지역연구는 크게 역사적 접근법, 문화주의, 문명주의, 지정학적 접근법, 제도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접근법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개별 접근법은 다시 몇 개의 하위 접근법으로 세분되는데 우선 역사적 접근법은 '순수 역사적 접근법'과 '균형적 접근법'으로 세분된다. 전자의 경우 역사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중국과 러시아 관계, 러시아와 일본 관계,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문명충돌론적 입장과 문명융합론적 입장을 모두 내세운다.[8] 따라서 유라시아의 역사는 문명충돌론의 입장에서 확장과 침략으로 이해되거나, 문명융합론의 입장에서 경제적 영토의 식민지화로 이해된다.[9]

---

6) 1940~60년대에 걸쳐 약 30년 기간 동안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도모했던 시절로 흔히 '영광의 30년'이라고 칭한다.

7) 양오석, 『알을 깨고 날아 오른 아프락사스: 영국 및 유럽지역연구를 위한 분석도구와 이해의 틀』 (서울: 오름, 2004), p. 33.

8) O. B. Borisov and B. T. Koloskov, eds., *Soviet-Chinese Rel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5); Galya Diment and Yuri Slezkine, eds., *Between Heaven and Hell: The Myth of Siberia in Russian Cultur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Andrew D. W. Forbes, *Warlords and Muslims in Chinese Central Asia: A Political History of Republic Sinkiang, 1911-19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Sherman Garnett, "Russian Power in the New Eurasia," *Comparative Strategy,* Vol. 15, No. 1 (1996), pp. 31-40; MANABE Shigetada, *Nichi-Ro Ryojun Kaisenshi: 1697-1875* [History of Japanese-Russian Relations: 1697-1875] (Tokyo: Yoshikawa Kobunkan, 1978); 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 A Hist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Alexei D. Voskressenski, *Russia, China and Eurasia: A Bibliographic Profile of Selected International Literature*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1998).

9) Alexei D. Voskressenski, "Regional Studies in Russia and Current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Social/Historical/Ideological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 Interaction in Eastern Eurasia," mimeo, Hokkaido University, Slavic Research Center, pp. 3-41.

한편 후자의 경우 문명충돌론이나 융합론과 같은 역사해석주의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국가들간 상호작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미국의 러시아-아시아 정치학자인 리버(Alfred Rieber)와 바스끄리씨엔스끼(Alexei D. Voskressenski)의 노력으로 다듬어진 이 연구 방법은 아시아와 서구라는 두 문명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경로를 관찰하고 공평과 불공평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부인한 채 역동적인 자본주의 제국과 반(semi-)봉건제적 협력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문명 간 상호작용의 규칙을 강조한다.

문화주의 접근법은 역사적 접근법이 지닌 해석학적 태도 비판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이는 다시 문화주의-역사학파와 문화주의-구조학파로 세분되며 이들은 순수 인도주의와 순수 사회과학적 전통을 지향한다. 미아스니코프(Vladimir S. Miasnikov)로 대표되는 문화주의-역사학파는 과학이라는 합리적 틀 안에서 문화라는 비합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하여 문화주의-역사학파는 인도주의 (해석학적) 전통 속에서 문화적 현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동일한 문명국가들 간 접촉은 상이한 문명국가들 간 접촉과는 다르며, 문화적 전통은 정치문화를 선험적으로 결정하고 외국 정치과정에 대해서도 충격을 가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이한 정치문화 연구를 위해서는 비교문화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두 문명의 접촉은 조정 시스템을 낳아 두 문명의 축을 접합하는 벡터(vector)가 탄생한다.[10] 동일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랜 역사적 통섭을 통해 서구 세계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11]

한편 후자에서는 문화를 구조적 국면을 통해 본 삶의 행렬로 이해함으로써 해석주의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선다. 톰슨(Michael Thompson)과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로 대표되는 이 학파는 인간은 사회적 삶의 차원에서 형성되는 집단과 그리드(grid)[12]라는 두 구조적 국면을 고려한 채 자신의 선호로부터 타인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낸다는 인식론을 내세운다. 집단 국면은 집단 간 경계의 강약을 나타내고, 그리드 국면은 개인이 다른 개인이 만든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결국 사람의 인식은 집단-그리드 국면의 특정한 조합으로 결정되고 그 결과 집단-그리드 지표는 사회적 삶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를 선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13]

문명론은 1990년대 유라시아 연구에서 주목을 끈 접근법이다. 퍼거슨 (A. Fergusson)의 연구를 필두로 하는 이 접근법은 인류발전의 새로운 단계로서 문명을 이해하고 사회통합에 해가 되는 사회적 모순을 억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나온 접근법이다. 퍼거슨 이후 모간, 스팽글러, 엥겔스, 헤겔, 토인비와 같은 유라시안주의자들과 민족집단형성 이론가인 구밀료프 (Lev N. Gumilev),[14] 문명을 세계체제로 바라보는 샌더슨 (Stephen K. Sanderson)[15] 그리고 문명충돌론의 헌팅턴(S. Huntington)[16] 등 많은 학자들이 문명론에

(http://src-h.slav.hokudai.ac.jp/coe21/publish/no10_ses/01_voskressenski.pdf) (검색일: 2007년 10월 3일).

10)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으로써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따라서 두 문명의 벡터란 두 문명의 속성이 접합된 새로운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세 번째 순기능적 발전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 Vladimir S. Miasnikov, "Ethno-Cultural Aspects of Interac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eir Influence upon the Soviet-Chinese Relations," *Sino-Soviet Affairs,* Vol. 15, No. 4 (1991/1992), p. 88.

12) 이는 한 번에 한 곳만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인 노드(node)와 달리 동시에 여러 곳과 연결해 마치 신경조직처럼 작동하는 연결망 구조를 형성시킨다.

13) 이러한 인식론적 기반은 스트레즈네바(Marina Strezhneva)에 의해 유럽공동체와 신생독립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아래 참조. Marina Strezhneva, *Evropeiskii Soiuz I SNG: sravnitel'nyi analiz institutov* (Moscow, 1999). Voskressenski, mimeo, p. 27.

14) Lev N. Gumilev, "Ethnogenesis, the Russian Past and World History,"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NF, Vol. 44, No. 1 (1996), pp. 54-82.

관심을 기울여 왔다. 비록 오늘날 문명충돌론과 문명소통론이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 학자들의 인식론은 문명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 따라 모든 구조는 자신만의 기능을 지니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반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인과 구조의 사회적 속성을 재생산한다고 본다. 또한 문명은 종교, 언어, 공간적 연계, 시간의 연계 등 네 가지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는 '문명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들 가운데 공간 및 시간의 연계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계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17]

지정학적 접근법은 국제적·지역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는 논리적 기반에 있어서는 문명론과 일맥상통하지만 강조점에 있어서는 국제관계의 정치-군사적 국면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이들에게 있어 유라시아의 재건에 관한 주요 이슈는 문화적 정체성이나 문명이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안보이며, 국제적·지역적 상호작용과 영토적·지리적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한다. 이는 다시 두 주류로 세분되는데 하나는 세계 권력 중심 세력들 간 지리적 상관관계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전략상의 잠재력에 대해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요소들이 미치는 충격에 주목한다.[18] 이들에게 있어 한 국가(또는 지역)의 위치는 다른 국가(또는 지역)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다시 지방적 수준(근접국), 거시-지역적 수준 그리고 전지구적 수준으로 세분된다.

이들 학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정학적 지표들은 영토적 속성(해안 인접 여부, 상업경로 인접, 엔클레이브(enclave),[19] 섬, 인접국가 수 등)과 인접국과의 의사소통 시스템이나 타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속성 등 국가의 정치-지리적 위치이다. 이들 일련의 지정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학자들은 지대를 오랫동안 한 국가가 지배해 왔고 강한 주권을 지닌 '풍토적 지대(endemic field),' 한 국가가 통치해 왔지만 타국에 의해 영토쟁탈전이 지속됨으로써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한 '국경 지대(frontier/border field),' 두개 이상의 국가에 의해 영토쟁탈전이 지속된 '타화수분 지대(cross-pollinated field),' 그리고 완전히 한 국가에 의해 통치되어 온 '총 지대(total field)' 등으로 세분한다.[20]

제도주의는 유라시아 연구의 또 다른 주류를 장식한 채 크게 세 가지 변형으로 진화되어 왔다: 정치기구 중심의 연구, 문화론과의 혼합적 연구, 그리고 외교적 관례 연구 등. 초기 연구 방향은 브루너트(I. S. Brunnert)와 하겔스트롬(V. V. Hagelstrom)의 연구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제도의 상이한 유형에 따라 중국 지역 정치조직을 비교하였다.[21] 뒤를 이어 마사타카(BANNO Masataka)의 연구는 중국 지역과 서구와의 제도적 차이를 대외통상청(Zongliyamen)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22] 한편 정치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

15) Stephen K. Sanderson, ed., *Civilizations and World Systems: Studying World-historical Chang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1995).

16)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17) Voskressenski, mimeo, p. 24.

18) A. Dugin, *Osnovy geopolitiki: geopoliticheskoe budushchee Rossii: myslit prostranstvom* (Moscow: Arktogeia-tsentr, 1997).

19) 어떤 나라 땅으로 둘러싸인 타국의 영토.

20) Konstantin Pleshakov, "Geo-ideologicheskaia paradigma: Vzaimodeistvie geopolitiki I ideologii na primere otnoshenii mezhdu SSSR, SShA I KNR v kontinental'noi Vostochnoi Azii, 1949 - 1991 gg." *Nauchnye doklady,* 21 (Moscow, 1994), pp. 5-15.

21) H. S. Brunnert and V. V. Hagelstrom, *Present Day Political Organization of China* (London: RoutledgeCurzon, 2007).

22) BANNO Masataka, *China and the West 1858-1861: The Origins of the Tsungli Yamen* (Cambridge,

노력과 달리 하피조바(Klara Khafizova)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정치문화, 외교제도, 문화 등 세 가지 국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또 다른 변형을 모색하였다.[23]

정치문화차원에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대사교류제도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두 지역 간 정치문화를 비교하고, 대사의 기능과 제도로서의 국경행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문화론과 제도주의가 어느 정도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제도차원에서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교관계과정의 한 부분인 조공, 외교수단의 하나인 인질제도, 외교제도의 하나인 등위제와 가신제 등을 고찰하였다. 한편 문화차원에서는 문화를 국제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제도로 보고, 국제관계의 변화를 유교주의의 흥망 속에서 조망하였다. 또한 종교와 언어 역시 문화의 부분이자 국제관계의 유형을 제도화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하였다.[24]

마지막으로 외교적 관례에 대한 연구에서는 당사국들 간 외교적 관례가 외교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한다. 이 학파가 동원하는 분석도구는 '이미지'와 '관례'이다. 관례는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의식에 의해 구조화되는 인지[지각]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지는 주어진 에토스(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칙)가 발전하는 공간적 공동체에 기반 하여 생성된다. 한 국가의 이미지는 사회적•민족적 연속 가운데 존재하는 그 국가에 대한 인지의 전범위[패러다임]인 만큼 역사적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노브고로즈까이아 (Natal'ia Novgorodskaia)에 따르면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엘리트들은 타국에 대한 구조화된 인지 패러다임을 공유한다.[25] 그리고 엘리트가 공유하는 인지 패러다임은 타국에 대한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규범을 생산함으로써 외교적 관례를 형성한다.[26]

구조주의 접근법은 다요소 균형 접근법과 메소-메가 (Meso-Mega) 지역 동학 접근법으로 세분된다. 전자는 시스템이 독립적 정치체인 국민국가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기반 하여, 세계 정치 시스템 내 보편적 질서를 보장하는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균형을 내세운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국가가 균형화하려는 것은 권력이 아닌 다른 것이며, 세력균형의 논리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국가는 다요소 균형 안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선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애쓰며 이는 이해관계의 재조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결국 이 접근법에서 국제 정치 시스템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다요소 균형 접근법은 일종의 일반이론이라 할 수 있는 거대이론적 틀로 작동되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두어진다는 점에서 질적 중범위 이론으로 간주된다.[27] 다요소 균형 접근법은 시나리오 제공을 통해 국제관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동학을 설명함으로써 유라시아 역사의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원하는 분석도구는 국가간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적 결절점을 찾아 국제관계의 산출물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및 외부적 요소에 주목한다. 여기서 다시 정부-, 사회-, 엘리트-, 국가-,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라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23) Klara Khafizova, *Kitaiskaia diplomatiia v Tsentral'noi Azii, XIV-XIX vv* (Almaty, 1995).

24) Voskressenski, mimeo, p. 29.

25) Natal'ia Novgorodskaia, "Stanovlenie I modifikatsii diplomaticheskogo stereotipa Russkogo gosudarstva v imperii Tsin v XVII - ser. XIX vv.,"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andidate of Science in History (Institute of the Far Eastern Studies, Moscow, 1987).

26) Ibid. pp. 27-28.

27) Voskressenski, mimeo, p. 34.

는 주관적 요소와, 경제적-, 정치적-, 인구학적-,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라는 객관적 요소를 구분하여, 이들 두 요소부문에서 일어나는 체계적 재조정 구조를 들여다본다.

한편 후자는 공산주의 레짐 붕괴 이후 유라시아 북반부에 형성된 메가-지역(Mega-area), 즉 옛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 지역이 정치 및 경제적 급변을 보이면서 대두되었다.[28] 메가-지역인 유라시아에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남동유럽, 중동유럽, 극동 러시아, 동서 시베리아 등 다양한 지역 및 하위지역이 존재한다. 메소-지역(Meso-area)은 메가-지역 가운데 지역통합, 제도적 정체성, 자기정체성 그리고 대외적 정체성 차원, 즉 지역적 인지와 제도에 있어서 재편되는 지역을 의미한다.[29] 문제는 이들 재편되는 유라시아 메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분석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소-메가 지역 동학 접근법은 유라시아 메소-지역의 변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대안적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오사무(IEDA Osamu)는 이 접근법을 통해 메가-지역의 중심세력이 축소되거나 외부적 타성에 의해 도전받을 때 변화가 일어남을 밝힌 바 있다.[30]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타성이란 인접 지역에 의한 경제적・정치적 통합, 문화적 영향력, 경제적 확장, 또는 전지구화의 충격 등을 일컫는다.[31]

지금까지 살펴본 유라시아 개별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을 보여준다. 우선 첫째, 역사적 접근법의 경우 문명충돌론과 문명융합론이라는 두 가지 시각은 유라시아 역사를 단절과 갈등의 역사로 점철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시각은 오늘날 전지구화의 도전 아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인식틀을 좁혀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늘날 유라시아는 주권과 정당성의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정치적 의지(문명충돌론의 경우)와 경제적 필요성(문명융합론의 경우)만으로 이념적 편향이 만들어낸 국제관계 사안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근대 유라시아를 구성하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상호사(mutual history)가 재고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조적 패러다임 안에서 산출된 분석이 역사적 해석에 접합되어야만 한다.[32]

둘째, 문화론, 문명론 그리고 지정학적 접근법들은 구조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 채 사회구조의 위장 아래 역사적 설명을 모색한다. 역사적 객관성은 과거에 대한 재구성으로 탄생하고 사실에 대한 분석가의 생각이 어우러져 창조된다. 따라서 역사적 해석은 사실과 생각이라는 역사적 증거의 이원성에 기반 한 인간의 창조행위이다.[33] 이로써 이 접근법들은 해석학적 편향의 흔적이 물씬 베어난다. 비록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향해 진일보한 인식론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화의 고수준이 충족된 과학적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다요소 균형 접근법, 메소-메가(Meso-Mega) 지역 동학 접근법, 그리고 문화주의-구조주의 등과 같은 구조주의 접근법은 지난 10년간 유라시아 메소-지역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다요소 균형 접근법은 서유라시아 지역과 상이한 지역 간 상호작용에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메소-메가 동학 접근법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정치적 현상을 병합하여 분석

---

28) Ibid., p. 37.
29) Ibid., pp. 37-38.
30) IEDA Osamu, "Regional Identities and Meso-Mega Area Dynamics in Slavic Eurasia: Focused on Eastern Europe," in MATSUZATO Kimitaka (ed.), *Emerging Meso-Areas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Histories Revived or Improvised?*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2005), pp. 19-41.
31) Voskressenski, mimeo, p. 38.
32) Ibid., p. 20.
33) Ibid., p. 17.

모델을 창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 퍼즐인 '누가-무엇을-갖는가'와 주요 테마인 정의와 분배의 문제가 연구과정에서 모색되지 않는 절름발이 연구이다. 이와 같은 단점에 대한 반성에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유라시아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유라시아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실천

비교지역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나는 '무엇을, 왜 비교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전자는 비교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석단위의 범주를 결정하는 반면, 후자는 비교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하는 작업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적정 분석단위의 범주와 분석수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분석단위로서의 '지역'의 범주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새로운 지역 범주 설립

'지역'의 개념정의는 지역연구의 발전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연구자들은 '지역'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개념정의가 다양하고 비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개념은 지리적 요소, 주제도(thematic map),[34] 가치체계, 유사성, 관계,[35] 그리고 정치적 힘의 차이 등에 따라 정의되어 왔다. 단언하자면 지역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이며 기술적인 문제이다.[36] '지역'은 흔히 문화적 공간(Kulturkreis)으로 이해되거나 지리적 정체성을 지닌 단위군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 밖에 사회적·문명적·문화적 동질성, 공유되는 정치적 태도 및 행태, 공유하는 제도를 준수하는 정치적 상호의존성,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도 지역의 개념정의에 있어 중요성이 인정된다.[37]

지역연구 분석단위로서의 유라시아의 개념은 지리적 차원에서 협의로는 동유럽과 러시아 자체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카프카스, 중앙아시아만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구소연방의 구성공화국(CIS 및 발트 연안 3국), 중-동유럽, 그리고 사회주의 아시아 국가들을 아우른다. 한편 문화적 경계로서 지역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유라시아는 몇 가지 문화적 단위로서 구분될 수 있다: 유라시아 동쪽에 위치한 극동 러시아 지역, 서쪽에 위치하는 동유럽 지역, 남쪽에 위치하는 중앙유라시아 등. 이들 지역은 옛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념 아래 공통된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공간 내에서 하위 문화적 단위들로 기능한다.

---

34) 주제도란 특정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지도로, 지질도, 식생도, 민족분포도 등이 있다.

35) 여기서는 지역이 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의는 원심적 지향성을 띤다. 그 결과 사례연구와 중범위수준에서의 분석이 모색된다. 양오석. 『알을 깨고 날아 오른 아프락사스: 영국 및 유럽지역 연구를 위한 분석도구와 이해의 틀』 (서울: 오름, 2004), p. 21.

36) Ibid., p. 20.

37) C. J-H Macdonald, "What Is the Use of Area Studies?", *IIAS Newsletter,* 35 (2004), pp. 1-4.

분석단위는 행위자의 독립성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Region)'은 독립성의 정도가 충분치 않다. 지역은 분석단위의 지리적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군집은 더 큰 시스템에 배태되어 있으며 자신만의 구조를 갖는다.[38] 시스템은 변화보다 유지되는 속성을 지니며, 시스템을 이루는 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전략구조 등으로 나뉜다.[39] 이들 구조는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에 의해 변화를 겪는데 대표적으로 냉전구조의 종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구조의 하위 구성단위인 국가와 달리 지역은 분석적 존재일 뿐 행위자 속성은 부족하다.[40] 더군다나 국제관계의 복잡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는 러시아 연구나 우크라이나 연구처럼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별 연구로 분산하거나, 코카서스 연구 또는 중앙아시아 연구처럼 개별적 하위지역(sub-area)연구로 세분하는 것은 지역 간 상호작용을 분석틀에서 배제하는 방법론적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

오래전 역사학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단위는 '교구'였고, 인류학의 관찰단위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인접학문들 간 접합이 시도된 이래 제 학제간적 연구들이 추구한 분석단위는 미시적 '마을'이나 '교구'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 초지역사회, 국가사회 등을 대상으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고찰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자면 '마을'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의 복합성과 다양성, 정체성의 개념, 마을내부와 외부 간 복합적 관계 등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 방식을 취하고 있다.[41]

동일한 맥락에서 유라시아 지역은 다민족 공동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공통된 역사적 유산 아래 형성되어 온 유라시아 공간 내 또 다른 독특한 특색을 보여주는 지역문화 공동체에 대한 연구야 말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나아가 이들 문화적 공간 사이에 일어나는 교차-지역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개별 지역의 고유성을 탐구해온 일방적 지역연구를 넘어서서 지역 간 원심력과 구심력을 통한 쌍방향 상호작용의 역사를 읽어 낸다. 그 결과 분석적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적 지역연구 방법에 새생명을 불어넣어 부흥을 예고하는 물고를 튼다. 이에 오늘날 다양한 민족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그들 간 상호소통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42]

1883년 오스트리아 지리학자 에른스트 쥬스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통칭하여 유라시아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래 '유라시아'의 개념은 이들 지역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인식론적 편의(bias)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첫째, '유라시아'는 좁게는 동유럽과 러시아 자체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카프카스, 중앙아시아만을 지칭하는 개념이자, 넓게는 구소연방의 구성공화국(CIS 및 발트연안 3국), 중-동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개념이었다. 둘째, 최근 체제변환에 초점을 둔 또 다른 지역연구자들에 의해 이 지역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구소련 지역' 혹은 '포스트공산주의 사회'로 호칭된다.[43] 이는 전환기를 맞이한 공통된 환경 아래 소비에트의 유산

---

38) Barry Buzan and Ole Wæver,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CUP, 2003), p. 27.

39) Barry Buzan,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30-34.

40) Ibid., p. 27.

41) 박성용, "프랑스 인류학과 아날학파의 동향: 인류학의 역사학화와 역사학의 인류학화,"『사회과학연구』 (1993), p. 6.

42) 남코카서스 지역을 대상으로 친서구 정체성을 연구하는 엄구호(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아래 참조. 엄구호, "남코카서스의 '신거대게임'과 그루지야의 친서구 정체성,"『중소연구』, 제31권, 제1호 (2007 봄), pp. 125-64.

43) 신범식,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동과 탈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 (신범식),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

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간적 협소함과 시각의 경직성을 보여준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최근 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유라시아주의 운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라시아 개념이 흥미롭다. 여기서 사용되는 유라시아 개념은 비록 표면적으로 다양한 민족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이념을 설파함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러시아 망명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주의자들과 유사한 러시아(슬라브) 중심주의적 시각에 얽매여 있다.

<그림 1> 유라시아 지역과 국가범위 (4개 소지역 연구단위, 12개국)



마지막으로, 앞서 서술한 유라시아 지역 개념이 보여주는 한계를 지적한 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정치·민족·문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계로서 유라시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집단이 있다.[44] 이들에게 있어서 유라시아는 우랄산맥을 경계로 나뉘는 협소한 지역 구분과 러시아-유라시아라는 유라시아주의도 부정된 채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 복합적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유라시아 지역연구가 보여준 러시아 중심의 연구관행을 극복하는 동시에 문화적 단위로서의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간과한 '다민족 공동체'로서의 유라시아의 이미지와 사회적 속성을 밝혀내는데 상당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필자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이러한 복합적 개념은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하는 지역학(내지 지역연구)에 적합한 분석단위라고 본다. <그림 1>은 이러한 논리에 기반 하여 다민족공동체로서의 유라시아를 동슬라브,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등 4개 소지역 연구단위(우크라이나 외 12개국으로 구성)로 구분하고 있다.[45]

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 18.

44) 인종학자이자 언어학자인 트루베쯔코이(N. S. Trubetskoi)는 유라시아인들은 언어나 종교적 속성이 아니라 민족적 형제애로 인해 소속감(정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Н. С. Трубцко, "Общеевраэий ский национал иэм," *Евраэий ская хроника*, Вып. 9 (1927); 신범식(2006), p. 17에서 재인용.

45) 물론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또 다른 논쟁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비교분석단위로서의 지역의 적실성 논쟁[46]

지역은 비교분석단위로서 적절한가? 비교분석을 위한 지역연구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비교정치학자들의 견해는 양립된다. 초기 지역연구의 주요 주제는 타인성 (Otherness)에 대한 탐구였던 만큼 비교분석 기법은 지역연구 초기 유용한 방법으로 강조되었다.[47] 초기 지역연구 옹호주의자들은 비교분석이야말로 국제적 현상과 국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유일한 참된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인지하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었다. 지역연구를 위한 비교분석기법의 활용을 부정하는 집단은 주로 정치학 분야의 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주의에 기반 하여 비교분석 기법은 일반화된 틀 내에서만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헥셔 (Gunner Heckscher)는 지역연구를 비교정치연구의 핵심으로 이해한다.[48] 그에 따르면 변수의 숫자가 때로는 너무 많지만 지역을 잘 선택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매크리디스 (Roy C. Macridis)와 콕스 (R. Cox)는 지역개념에 대해 큰 가치를 부과하고 있다.[49] 이들은 지역이 정치적·비정치적으로 동질적인 것이라면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정치과정은 유사한 속성형상 (trait configuration)이라는 공통된 배경에서 상호 비교될 수 있다고 본다. 동일한 맥락에서 레이프하트 (Arend Lijphart)는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은 일련의 공통된 속성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공통된 속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50]

반면 지역연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러스토우 (D. A. Rustow)는 지역연구가 진부하다고 비판하면서 단순한 지역적 인접성이 반드시 적절한 비교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51] 결국 그는 지역은 비교분석의 기저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52] 특히 지역연구를 비교정치분석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다.[53] 사회과학의 목표는 과다한 변인과 과소한 사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화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반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검증해야만 한다. 사례들은 유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비교'이다. 그러므로 비교분석은 변인간의 실증적 관계를 정립하여[54]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

---

46) 양오석, "영국사회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기법: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사례선택의 문제," 『영미연구』, 9집 (2003), pp. 189-90.

47) William Nelson Fenton,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47); Robert B. Hall,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amphlet*, No. 3 (1947); Charles Wagley, "Area Research and Training: A Conference Report on the Study of World Areas," *SSRC pamphlet,* No. 6 (1948).

48) Gunner Heckscher, *The Study of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London: Allen and Unwin, 1957), p. 58.

49) R. Macridis & R. Cox, "Research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7 (1953), p. 654.

50) 이러한 매크리디스, 콕스 그리고 레이프하트의 생각은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분석틀로서 최대유사체계디자인의 논리로 이어진다.

51) D. A. Rustow, "Modernization and Comparative Politics: Prospects in Research and Theory," *Comparative Politics,* 1 (1968), pp. 45-47.

52) Lijphart (1971); 김웅진 외, 『비교정치론 강의: 비교정치연구의 분석논리와 패러다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

53) Lijphart (1971); Rustow (1968).

기 위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교'만이 사회과학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비교'는 기초적인 과학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55]

비교분석단위로서의 '지역'의 적실성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0년대 이후 지역연구는 이론화와 경험적 연구, 그리고 양적 분석 등이 일반화된 보편적인 연구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교분석에 기반 하여 점차 확장되어 갔다. 당시 지역연구는 비교기법의 일반화를 위해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간 차이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목적은 서로 상이한 지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느 한쪽에게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개별적 사례들의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비교분석을 하여 지역 간 차이와 일치를 구분하고자 했다. 따라서 비서구사회의 정치사회현상에 대해 변형 내지 사례분석을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 지역연구는 추구하는 일반화의 분석수준에 따라 교차-지역적 비교, 지역 내 비교, 그리고 국가별 비교분석 등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2. 비교지역연구의 적정 분석수준

지역연구의 적용대상(분석단위)은 개념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의 추상성 수준이란 이론적인 용어들에 대해 개별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이해의 폭을 의미한다. '지역'과 같은 이론적인 용어들은 개별 연구자가 추구하는 이해가 성취될 때까지 추상화[보편적 이론화]의 사다리 위에서 난간을 오르내리며 추상적[보편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사용된다.[56] 학술적으로 이러한 구체성과 추상성은 내포 (intension: connotation)와 외연 (extension: denotation)이라는 용어로 묘사된다. 외연이란 그 용어가 적용되는 사물의 종류를 지칭하며, 내포란 그 용어가 적용될 사물을 규정하는 일단의 속성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외연은 사례의 수를 의미하며 내포는 개념적·조작적 정의를 위한 속성을 의미한다.

추상화의 사다리를 오르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다리를 오름으로써 내포성을 줄이고 (개념의 속성이나 특성을 축소시키기) 외연성을 확대 (사례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개념확장 (conceptual stretching)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정의에 관련한 속성의 숫자가 더 적은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더 많은 사례에 적용되고 그 결과 일반화의 사다리를 더 높이 오르게 된다. 다른 하나는 사다리를 내려감으로써 내포성을 늘리고(개념의 속성이나 특성을 확대) 외연성을 축소(사례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개념적 차별성(conceptual differentiation)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정의에 관련한 속성의 숫자가 좀 더 많은 개념이 더 적은 숫자의 사례에 적용됨으로써 일반화의 사다리를 내려가게 된다.[57]

---

54) A. Lijphart,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3 (1971), pp. 682-93; E. J. Meehan, *The Theory and Method of Political Analysis* (Homewood, III.:Dorsey Press, 1965).

55) Lijphart (1971).

56) James N. Rosenau and Mary Durfee, *Thinking Theory Thoroughly: Coherent Approaches to an Incoherent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 3.

57) 양오석, "국제정치경제내 유럽연합 자리찾기: 행위자와 분석수준 그리고 추상화의 사다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2호 (2001), pp. 79-83.

<그림 2> 비교지역연구의 적정 분석수준



자료: 이 도식은 김웅진 (1993, p.88)의 책에서 제시된 표를 필자가 시각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내포와 외연을 기준으로 일반화의 수준에 따라 유라시아 지역연구의 적용 대상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 보편개념화가 성립되는 일반화의 고수준 범주

이 범주에서는 외연의 극대화와 내포의 극소화가 추구되며 획득한 관찰대상에 대한 이해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폭이 좁다. 이에 이질적 맥락들 간 범지역적인 교차지역 비교분석(cross-area comparison)이 이루어진다. 예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 전지구화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있어서 - 예를 들면 금융자유화의 시기와 속도에 있어서 - 보여준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 및 지방 연구방법론 연구[58]와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59]도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교차-지역 비교이기는 하지만 남코카서스의 신거대 게임과 그루지야의 친서구 정체성 연구,[60] 중앙아시아 내 러시아 지배유산과 이슬람 종교 발전에 관한 연구,[61] 그리고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변화(또는 지속)에 관한 연구[62] 역시 일반화의 고수준을 추구한다. 또한 러시아연방 이슬람지역의 정치엘리트 비교연구,[63] 글로벌화와 중앙아시아 특

58) 공영호, “러시아의 지역문화 연구방법론 고찰,” 『슬라브연구』, 제20권, 제1호 (2004), pp. 209-28; 권세은, “러시아 지방연구 방법론 모색을 위한 시론,” 『슬라브연구』, 제21권, 제2호 (2005), pp. 69-97.
59) 성종환,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방법 -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19권, 제1호 (2003), pp. 23-46.
60) 엄구호 (2007).
61) 이문영, "중앙아시아의 종교 상황과 종교 정책: 러시아 지배 유산의 극복과 이슬람의 발전,"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2003), pp. 143-170.
62) 이문영,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2005), pp. 735-59.

정 지역의 해외직접투자 문제에 관한 연구,[64] 카리브해 연안국가 연구,[65] 러시아 정교회의 민족주의적 속성 연구,[66] 그리고 탈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와 유라시아 관계 연구[67]도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연구에서는 보편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개념화가 추구되며 전포괄적 거시이론이 정립된다.[68]

▶ 일반개념화가 성립되는 일반화의 중범위수준 범주

이 범주에서는 외연과 내포가 균형을 이루며 '분석에 의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분석에 의한 정의란 어떤 용어가 지칭하는 개체가 포함되는 '속'을 도출하여 그 용어를 정의한 후, 그 개체를 동일한 '속'의 다른 모든 '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속성들을 규정하는 작업이다.[69] 그 결과 획득한 관찰대상에 대한 이해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폭이 늘어나 보편개념화보다는 일반개념화를 지향하게 된다. 여기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맥락들 간의 지역 내 비교분석(intra-area comparison)이 적절하며 결과적으로 중범위이론이 정립된다. 예로, 지역통합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70]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업하부구조 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구,[71] 그리고 특정 시기 정치문화 연구[72]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 게임과 관련국 대응에 관한 연구,[73]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74]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75] 등에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국가건설에 관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비교 사례 연구,[76] 북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연구[77]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들 모두는 유라시아

---

63) 정옥경, "러시아연방 이슬람지역의 정치엘리트 연구: 북카프카즈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0권, 제1호 (2006 봄), pp. 185-206.
64) 이종문, "러시아 경제의 글로벌화와 북카프카즈 지역의 외국인 투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6년 봄호), pp. 285-320.
65) 차경미, "카리브해 연안국가 정치문화의 혼종적 양상: 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5년 여름호), pp. 237-256.
66) 황영삼, "러시아 정교회의 민족주의적 특성: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4호 (1998년 가을호), pp. 131-150.
67) 홍완석,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와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2007년 봄호), pp. 375-402.
68) 김웅진, 『비교정치연구의 논리』(서울: 전예원, 1993), p. 88.
69) G.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4 (1970), pp. 1033-1053.
70) 이재유, "지역통합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러시아 및 주변 접경국가들과의 관계," 『중소연구』, 제20권, 제3호 (1996 가을), pp. 103-28.
71) 포르챠코프,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업하부구조: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제20권, 제3호 (1996 가을), pp. 129-43; 이재유,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사회경제적 역할,"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 (1996 여름), pp. 125-44.
72) 신범식, "정치문화 전통으로 본 러시아 과도기 정치문화," 『슬라브연구』, 제19권, 제2호 (2003), pp. 1-42.
73) 고재남,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 게임'과 관련국 대응," 『중소연구』, 제29권, 제3호 (2005), pp. 17-51.
74) 이재영,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방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0권, 제4호 (2006/2007 겨울), pp. 137-62.
75)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pp. 748-73.
76) 이상민, 신형직, "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천연에너지 자원개발을 통해서 본 국가건설의 제문제와 그 전망: 까쟈흐스딴과 우즈베끼스딴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1호 (2000), pp. 53-72.
77) 황성우, 김선래, "북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슬라브연구』, 제22권, 제1호 (2006), pp.

특정 메소-지역 내 국가들이 보여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이성을 제도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 형상개념화가 성립되는 일반화의 저수준 범주

이 범주에서는 내포의 극대화, 외연의 극소화 그리고 맥락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맥락적 정의란 분석대상인 현상의 속성을 어떠한 차원에서 규정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이론적 시각을 선언하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특정 지역 내 구성단위로서의 국가별 수준이 적절하며 보편- 또는 일반 개념화보다 적용성의 범주가 극히 제한되는 협범위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형상분석(configurative analysis)이 활용된다. 대체로 많은 지역연구가 이 범주에 속하며,[78] 획득한 이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크게 제한을 받는다. 카자흐스탄의 정치제도가 보여주는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키르기즈스탄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79] 그리고 20세기 초기 하얼빈의 러시아인 연구[8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81] 외교정책 연구,[82] 그리고 주요 도시 비교 연구도[83] 이에 해당된다.

3.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창조적 통섭(consilience)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인류학적 접근은 대상 사회가 근대화된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지역연구 방법으로는 적합하지가 못하다. 한편 역사학적 접근법이 지향하는 역사적 객관성은 과거에 대한 재구성으로 탄생하고 사실에 대한 분석가의 생각이 어우러져 창조된다. 따라서 역사적 해석은 사실과 생각이라는 역사적 증거의 이원성에 기반 한 인간의 창조행위이다.[84] 이에 전통적인 학문분과로서 인류학과 역사학은 연구단위의 적합성과 민족지 사상을 기술하는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1950년대 이후 자신의 역사와 문화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이러한 몸부림은 역사적 경험과 연구대상 사회를 분류하는 준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실천적 양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적 연구주제

143-73; 박정호, “북카프카즈 지역분쟁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슬라브연구』, 제21권. 제2호 (2005). pp. 47-67.

78) 김웅진 (1993).

79) 김상원,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중소연구』, 제31권, 제2호 (2007 여름), pp. 185-210.

80) 이채문, "망각속의 디아스포라: 20세기 초기 하얼빈의 러시아인들,"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2003), pp. 253-89.

81) 김영진, “아제르바이잔 대외정책의 결정요소와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pp. 57-90; 장병옥,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4호 (1998년 가을호), pp. 27-52.

82) 양정훈,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슬라브연구』, 제21권, 제1호 (2005), pp. 141-63.

83) 황성우, 장한, “문화권력으로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와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2005년 겨울호), pp. 389-418.

84) Voskressenski, mimeo, p. 17.

에 대한 관심과 통섭을 통해 인접학문과의 접합(articulation)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역사학,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의 통섭

전통적으로 역사학은 국가 및 국제관계사, 정치사, 영웅사와 같은 거시적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 인식론적 뿌리는 랑케사관이 자리한다. 랑케사관은 사료가 객관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봉해 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랑케사관은 '역사 안에 인간(homme dans l'histoire)'을 추구한 셈이다. 그러다 수집과정 자체에서 분석가의 주관적 시각이 개입됨이 지적되면서 사료의 객관성이 부정되었고 절대적인 객관성을 추구하던 '랑케사관'이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도전은 크게 두 가지 지류를 타고 '인간 안에 역사의 울림(retentissement de l'histoire en l'homme)'을 추구하였다.

우선 첫째 아날학파에 의한 도전이었다. 아날학파는 인접학문과의 제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85]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 1920년대 후반기는 역사학의 인식론 체제에 새로운 도전을 태동시킨 때였다. 전통적으로 정치사와 영웅사를 다루던 역사학이 사회 및 경제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뤼시엥 페브르(L. Febvre)와 막 블로흐(M. Bloch)가 아날학파의 모태가 되는 『경제·사회·역사학 연보』를 발간하면서 다학문적 성격을 고양하는 한편 현재와 과거를 상호 조망하고 이해한다는 인식론을 주창하였다. 이후 아날학파는 과거를 해석하기 위한 매개체로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익명의 인간들의 삶에 내재하고 있는 변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역사학의 연구대상에서 주변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온 대중의 신화, 소비양태 그리고 성문제 등으로 관심을 돌렸다.

한편 1950 ~ 60년대에 들어서서 아날학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브로델(Fernad Braudel)을 필두로 한 아날학파 제2세대는 역사학화된 역사학을 대표하는 영웅사와 사건사에서 관심을 구조사로 돌리고, 국가 지배계급의 역사가 아닌 대중의 세계가 주도하는 '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속에서 아날학파는 어떠한 역사가 발생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맥락을 무시하는 전통 역사학의 객관성과 일반성에서 벗어나 역사의 특수성 속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추구 한다.[86]

두 번째 도전은 프랑스 사회학자인 모리스 알바쉬(Maurice Halbwachs)와 철학자 폴 리쾨르(Paul Ricoeur)가 주도하였다. 이들은 아날학파 1세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관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문화사라는 사학사적 경향과 맞물려 '기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기억'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 위치하여 단숨에 그 거리를 뛰어넘게 해준다. 그 결과 '기억'은 사료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억'의 사회성과 '공간구속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초에 걸쳐 프랑스에서 주도되어 1990년대 중후반에 걸쳐 영미권에서 주목받았다. 그 후 2000년대 초에 이르러 독일에서 관련 주제 단행본[87]이 발간되면서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

사실 '기억'은 문학작품에서 항상 주된 주제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였다. 그

85) 박성용 (1993), p. 86.
86) Ibid., pp. 85-86.
87) Hrsg. von Etienne François und Hagen Schulze, eds., *Deutsche Erinnerungs-Orte I, II, III* (München: C. H. Beck, 2001).

러한 '기억'이 이젠 학계의 유행담론으로서 '집단기억' 또는 '기억문화'[88]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면서 역사학 안으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균질화된 시간성에 의거하여 정리함으로써 모든 집단에 불편부당한 '추상적 정체성'을 제공한다.[89] 이와 달리 '기억'은 '관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공간의식'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 정체성'을 제공한다. 한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된 알바쉬의 '집단기억'에 대한 생각은 피에르 노라(Pierre Nora)에 의한 '기억의 터' 개념에 의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다. '집단기억'이 시공간적 경계 안에 위치하는 것이라면 '기억의 터'는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위치한다. 따라서 '민족'의 개념도 '집단기억'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보다 보편적인 '기억공동체'로 인식된다.

1980년대 이후 '기억의 터'는 다시 독일에서의 '기억문화' 연구로 이어진다. 얀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을 필두로 독일 학자들은 프랑스 기억 연구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거쳐 알바쉬의 '집단기억' 이론을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문화적 기억'으로 이는 의사소통이라는 사회통합적 차원과 결부된 '의사소통적 기억'과 다르다. 의사소통적 기억에서는 사회집단이 자신이 체험한 근거리 과거를 기억할 때 일상적 소통을 통해 현재화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회집단은 머나먼 기원으로 소급하여 기억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도 한다. 문제는 머나먼 기원이 현실적 체험과 유리되어 있어 신화적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집단은 자신의 기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매체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상화하고자 한다. 이에 독일 학자들은 이러한 매체로 상징, 도상, 묘비, 사원, 기념비, 제의 그리고 축제 등과 같은 문화적 매체를 내세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경향은 정치신화 및 역사정치, 종교적 제의 및 축제, 기념비 및 기념 장소, 박물관 그리고 미술 등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로 확대되었다.[90]

학문분과 간 통섭과 접합은 인류학에서도 모색되어 왔다.[91] 프랑스의 인류학은 민속학과 사회인류학의 전통이 공존하면서 존재해 왔다. 이들 두 전통은 1940년대를 전후로 인식론적 접근법상의 차이로 인해 대립(1940년대 이전)과 접합(1940년대 이후)의 시절을 경험했다. 사회인류학의 흐름은 뒤르케임(E. Durkheim)에서 출발하여 에르츠(R. Hertz)와 모스(M. Mauss)로 이어졌다. 뒤르케임은 사회적 사실이 지닌 규칙에 관심을 갖는 추상적 사고자였다. 이와 달리 뒤르케임의 영향을 받은 에르츠와 모스는 현장 인류학을 예시하면서 프랑스 인류학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뒤르케임과 달리 모든 준칙은 사회적 사실에 따라 변형된다는 인식론을 취하였다. 사회적 사실을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 이후 1950-60년대를 지나면서 프랑스 인류학은 소규모 지역사회 연구에 더욱 점증된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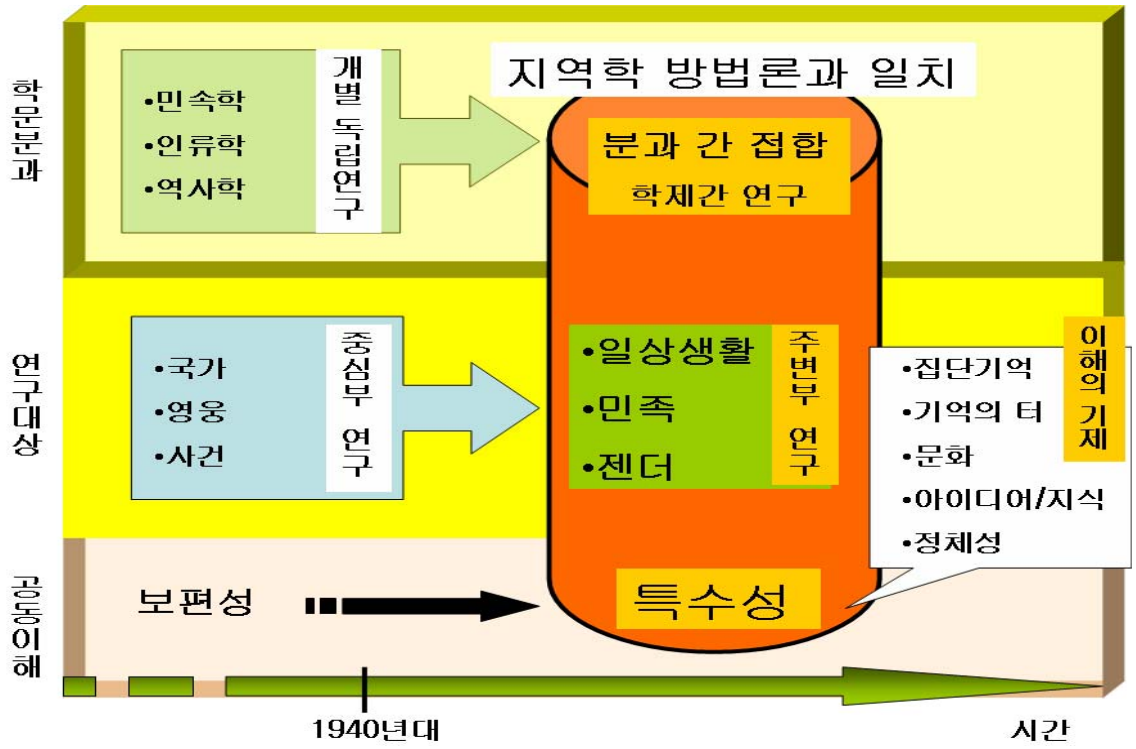
한편 프랑스의 민속학은 19세기 초 지배계층의 문화와 구별되는 민중의 생활양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세기 중엽 이후로는 세비오(Paul Sebillot), 바르냑(Andre Vargnac), 생티브(P. Saintives), 반 제넵(A. Van Gennep) 등에 의해 민족, 국가, 하층민의 문화, 농민사회의 전통문화, 현대사회의 대중문화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92] 이후 프랑스 민속학은 반 제넵의 주도로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강조하고, 세계민족

88) 이 개념은 독일의 역사학자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과 얀 아스만(Jan Assmann)에 의해 탄생하였다.
89) 전진성, "역사와 기억: "기억의 터"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제72호 (2002), p. 170.
90) Ibid., pp. 176-78.
91) 인류학의 주류는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프랑스 인류학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지에 대한 연구보다 프랑스 지역 민족지에 대한 연구로 이행되었다.[93]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세계민족지에 대한 연구보다 프랑스 지역 민족지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 반 제넵 이후의 프랑스 민속학은 지역문화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익명의 대중들의 역사에 침윤되어 있는 사실들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에 이들이 선택한 것은 역사학적 접근법과의 접합이었다.[94] 하지만 역사학이 특수성과 지역연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194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 시기는 마침 민속학의 변화와 때를 같이 하던 때였다. 따라서 역사학의 변화와 민속학의 변화가 서로 다른 속도로 이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인식론 상의 변화를 함께 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은 학문분과 간 통섭과 접합이었고, 학제 간 연구와 주변부 연구 그리고 보편성보다 특수성에 관심을 둠으로써 지역학 방법론과 일치됨을 보여준다. <그림 3>은 이러한 변화를 잘 묘사해 준다.

<그림 3> 학문분과별 방법론의 변화추이



종적-횡적 연구가 조화를 이룬 벡터(vector)를 지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제 간 연구야 말로 연구단위의 적합성과 민족지 사상의 기술에 필요한 객관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아날학파가 풀고자 하는 공통된 퍼즐은 사건사에 대한 기술이나 이해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심층적인 역사의 흐름을 이

92)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생티브가, 하층민의 문화연구는 주로 반 제넵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
93) Nicole Belmont, *Arnold Van Gennep* (Paris: Petite bibliotheque Payot, 1974), p. 167.
94) Ibid., p. 167.

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원된 방법론은 인접학문과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조망이었다. 구조를 형성하는 심층적인 역사의 흐름은 전통적 역사학의 방법론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다른 학문분과와의 접합점이 모색되었고 학제간 연구의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아날학파는 이타성에 관한 이해의 시도를 통해 인류학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더 나은 방법론적 모색을 시도하였다.[95]

1960년대 프랑스 인류학자 피레네 바로니(Pyrenees Baronnies)에 의한 역사학, 인구학, 인류학 그리고 지질학 등으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는 이러한 인접학문간의 접합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표한다.[96]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된 또 다른 대표적인 학제 간 연구로는 혼인을 좋은 집안들 간 정치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로 보는 보냉(R. Bonnain)의 이해를 들 수 있다.[97] 또한 혼인을 지역 가정들 간의 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이해하는 연구, 인구학적, 공간적, 경제적 요소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연구, 음식과 관련된 관행 연구,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축제에 관한 사회적·상징적 접근 등도 역시 모두 학제 간 연구에 해당된다. 이들 학제 간 연구는 분석단위에 있어서 '마을'이라는 미시적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마을 안과 밖 간의 중층적 관계를 다룸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하였다.[98]

한편 종적인 연구를 표방하는 사회과학적 연구 역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과학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수학, 양적 분석 그리고 지속성에 기반 하는 인식론으로 인해 한쪽 눈을 감은 채 애꾸눈으로 연구대상 '지역'을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오히려 자연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보다 더 과학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다.[99] 하지만 인문학적 지역연구를 비판하는 사회과학자들이 가정하는 과학과 수학의 본성은 아쉽게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불확실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100] 따라서 사회과학 연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과학과의 통섭과 접합을 통해 종적-횡적 연구가 잘 조화를 이룬 벡터를 지향해야만 한다.

비록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글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종적-횡적 연구가 조화를 이룬 벡터의 구성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다루고자 하는 주요 주제의 접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학의 주요 주제는 '균형'이고, 비교정치나 인문학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언어)연구의 주요 주제는 '유사와 대조'이다. 또한 젠더 연구의 주요 주제는 '다름'이고,[101] 계급과 갈등분석의 주요 주제는 '분배와 관용'이다. 한편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적 연구[102]와 CIS 경제동맹 연구[103] 등은 국제정치경제적 접근법에 기초한다.[104] 필자

---

95) 박성용 (1993), pp. 85-6.

96) 이들은 지역주민의 사회관계가 지리적 공간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양상, 18세기에서 현재까지 역사인구학적 요소의 변동, 상속관행, 축제, 음식, 의례 등을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인구학적 요소와 관련시켜 전문화된 학제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촌락공동체는 상위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의 산실이다. 따라서 인류학과 역사학이 상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래 참조. Charles Parain, "Contribution a une problematique de la communaute villageoise dans le domaine europeen," *L'ethnographie,* 64 (1970), p. 59.

97) R. Bonnain-Dulon, "Ouverture au marché, normes locales et tensions familiales," in G. Béaur, C. Dessureault & J. Goy (eds.), *Familles, terre, marchés. Logiques économiques et stratégies dans les milieux rurauxs* (XVIIe-XXe siècles)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4), pp. 251-60.

98) 박성용 (1993), p. 6.

99) Graham and Kantor (2007), p. 2.

100) Ibid., p. 2.

101) 이때의 '다름'은 '차이'와 구별된다.

102) 김연규, 엄구호,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BTC 송유관 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10

는 이들 국제정치경제적 접근이야 말로 종적-횡적 연구가 조화를 이룬 벡터의 구성체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이는 '질서(내지 배열)'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정치와 달리, 좀 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국제정치경제는 '정의와 분배'의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정치경제는 환경, 젠더, 에너지, 무역, 이민, 금융, 개발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속성으로 인해 국제정치경제적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학제 간 연구를 일삼는다.

둘째, 인식론의 차원에서 종적-횡적 벡터는 기억,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새로운 분석 기제로 삼아 일상생활, 민족, 젠더 등을 비롯한 사회현상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를 모색한다. 영상 매체를 통해 특정 집단의 역사와 이미지를 고찰하거나,[105] 이민의 문화론적 해석,[106] 일상 생활사를 통해 본 의식과 정체성 연구,[107] 민족과 젠더[108] 등 주변부에 관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종적-횡적 벡터는 문학과 역사적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방법론적 통섭을 실천한다. 통섭 세계관의 요점은 인간 종의 고유한 특성인 문화가 인과적 설명을 통해 자연과학과 연결될 때에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109] 나아가 인문·사회과학(그 주요 연구대상인 인간의 조건)과 자연과학(이에 의해 드러난 물질세계)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미답지이다.[110] 동일한 맥락에서 러시아문학작품을 통해 정치적 삶을 비판하는 연구나[111] 문화와 정치를 연계한 연구[112] 등은 통섭 세계관을 추종한다. 또한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주요 주제의 접합을 실천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접근법 역시 통섭 세계관과 공명된다. 더욱이 최근 국제정치경제학 내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역사적 관점을 접합하려는 시도는 통섭 세계관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다.[113]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풀이하는 연구[114]와,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수잔 스트레인지가 말한 브로델의 역사적 접근법을 국제정치경제에 접합하는 시도[115] 등이 이에 해당된다.

권, 제2호 (2006년 여름호), pp. 25-54.

103) 홍성원, "CIS 경제동맹 형성전망," 『슬라브연구』, 제12권 (1996), pp. 281-311.

104) 물론 '정의와 분배'의 문제를 주요 주제로 하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속성 차원에서 이들 연구는 다시 한 번 첨삭될 필요가 있다.

105) 김상철, "카작스탄 영상 매체에서 나타난 고려인 역사와 이미지,"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3호 (2003년 가을호), pp. 277-308.

106) 김상철,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거주 소수민족 독일인의 이주에 대한 문화론적 재해석,"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1호 (2002년 봄호), pp. 95-120.

107) 임영상, 김상철,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문화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4호 (2000년 겨울호), pp. 187-222; 황영삼, "러시아 축제문화 속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특징," 『슬라브연구』, 제17권, 제1호 (2001), pp. 77-94.

108) 이종진, "문학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민족성과 의식구조," 『슬라브연구』, 제13권 (1997), pp. 243-88; 문명식, "구소련지역과 러시아에서 이슬람과 민족문제," 『슬라브연구』, 제14권 (1998), pp. 289-331.

109) 최재천 외 역, 『통섭』, 에드워드 윌슨,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5, p. 460.

110) Ibid., p. 461.

111) 계동준, "러시아문학에서 본 정치풍자 - 살띠코프의 『어느 도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1호 (1998년), pp. 88-109.

112) 라승도, "공간의 문화정치학 -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모스크바 재건의 문화적 함의," 『슬라브연구』, 제22권, 제2호 (2006), pp. 165-86.

113) Louise Amoore et al., "Paths to a historicize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7, No. 1 (Spring 2000), pp. 53-71; Randall D. Germain, "The worlds of finance: a Braudelian perspective on IP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No. 2 (1996), pp. 201-30.

114) 김상철,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역사와 문제점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0권, 제1호 (2004), pp. 229-57.

마지막으로, 변인중심의 분석과 사례중심의 분석이 접합되어야 한다.[116] 이를 위해 우선 단선적으로는 하나의 연구논문에서 (대용)변인(proxy)중심의 분석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여 일반화 수준을 높이고, 이어 사례중심의 해석을 덧붙여 대용변인들의 시공간적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한다. 전자에서는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할 충분한 수의 모집단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또한 후자에서는 이론화된 독립 및 종속변인들 간 관계가 현실 속에서 관찰 가능한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아쉽게도 유라시아 연구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두 가지 분석기법을 접합하는 연구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유라시아 지역연구는 개별 연구대상과 범주의 폭에 따라 적정 분석수준을 위한 자리 잡기가 분명해진다. 유라시아 지역연구는 어느 특정 범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 결과 보편-, 일반- 및 형상개념화를 모두 모색한다. 예로 유라시아 지역 내 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는 형상개념화가 추구되는 추상성의 저수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협범위이론을 정립하고, 이와 달리 유라시아 지역 내 비교국가분석은 추상성의 고수준과 중간수준에서 중범위이론을 모색한다. 한편 유라시아 지역 내 이질적인 지역들을 교차-비교분석하고자 함은 보편적 일반화의 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유라시아 지역연구가 좀 더 높은 이론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을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 및 유럽지역과 같은 다른 기타 지역들과의 교차비교연구를 통해 보편개념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적정 분석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이는 이 글이 생략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미래 연구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유라시아 연구대상 국가와 지역들이 지니는 체계적 속성을 동질적인 것(즉 최대유사체계)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질적인 것(즉 최대상이체계)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물론 역사적 기억과 경험은 한 지역 혹은 국가들이 그 외 지역 혹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치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예단을 낳는다. 그러나 유라시아 지역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판단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듯하다. 더욱이 유사성이 관찰될 지라도 동일한 외생적 충격에 대해 유라시아 지역 혹은 국가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이론적 지속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라시아 지역 혹은 국가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의 국가군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유라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체계적 기반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최대유사체계의 논리를 즐겨 채택하여 왔다. 물론 최대유사체계의 논리를 채택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찰된 정치사회현상의 상이성

---

115) Susan Strange,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en Booth and Steve Smith,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154-74. Cambridge: Polity Press, 1995.

116) 이러한 생각은 정치학 방법론을 고민하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공명되고 있다. 아래 참조. 안승국, "지역연구에 있어서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 분석논리와 적용,"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3호 (2003년 가을호), pp. 121-142.

117) 동일한 맥락에서 유사한 체제를 지닌 두 국가가 상이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 아래 참조. 박정호, "슬라브 형제국의 두 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신범식),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235-273.

과 유사성에 따라 개별 연구자는 최대유사체계와 최대상이체계 사이에서 비교분석 논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118)]

둘째, 통섭을 통한 지역연구의 대안적 틀을 적용하는 변인중심 및 사례중심의 실증연구가 경쟁적으로 집적되어야 한다. 연구 노력의 경쟁은 분석틀의 발전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이해를 가져다준다. 이를 위해 동시에 변인중심의 분석전략과 사례중심의 분석전략간 교량적 연구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역연구자들은 전자를 지나친 일반화의 첨병으로 치부하고 후자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의 목표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거나 맹목적인 목표로 지향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 지역연구 역시 좀 더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지역연구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유라시아에 대한 비교지역연구는 이들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완전할 수 있다. 이 글이 이러한 연구노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계동준 (1998). "러시아문학에서 본 정치풍자 - 살띠코프의 『어느 도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1호. pp. 88-109.

고재남 (2005).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 게임'과 관련국 대응." 『중소연구』. 제29권. 제3호. pp. 17-51.

공영호 (2004). "러시아의 지역문화 연구방법론 고찰." 『슬라브연구』. 제20권. 제1호. pp. 209-28.

권세은 (2005). "러시아 지방연구 방법론 모색을 위한 시론." 『슬라브연구』. 제21권. 제2호. pp. 69-97.

김상원 (2007).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중소연구』. 제31권. 제2호. pp. 185-210.

김상철 (2002).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거주 소수민족 독일인의 이주에 대한 문화론적 재해석."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1호. pp. 95-120.

김상철 (2003). "카작스탄 영상 매체에서 나타난 고려인 역사와 이미지."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3호. pp. 277-308.

김상철 (2004).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역사와 문제점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0권. 제1호. pp. 229-57.

김연규, 엄구호 (2006).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BTC 송유관 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pp. 25-54.

김영진 (2007). "아제르바이잔 대외정책의 결정요소와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pp. 57-90.

김웅진 (1993)『비교정치연구의 논리』서울: 전예원.

김웅진 외 (1992).『비교정치론 강의: 비교정치연구의 분석논리와 패러다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라승도 (2006). "공간의 문화정치학 -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모스크바 재건의 문화적 함의." 『슬라브연구』. 제22권. 제2호. pp. 165-86.

문명식 (1998). "구소련지역과 러시아에서 이슬람과 민족문제." 『슬라브연구』. 제14권. pp. 289-331.

박성용 (1993). "프랑스 인류학과 아날학파의 동향: 인류학의 역사학화와 역사학의 인류학화."『사회과학연구』. 제2권. pp. 85-99.

박장식 (1997). "지역연구의 최근 학문적 동향: 일본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18) 포스트소비에트 정치경제 체제 변혁의 상이한 경로를 연구할 때 지역 내 구성 국가를 동일한 체제로 보고 이들 국가가 상이한 경로를 거치게 된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최대유사체계디자인을 취하게 된다. 이와 달리 이들 국가를 상이한 체제로 볼 경우 이들 국가가 상이한 경로를 거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이들 체제를 동일하거나 상이하게 보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상이한 경로를 겪게 된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이는 혼합체계 디자인에 기반 하는 연구가 된다.

pp. 11-18.
박정호 (2005). “북카프카즈 지역분쟁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슬라브연구』. 제21권. 제2호. pp. 47-67.
박정호 (2006). “슬라브 형제국의 두 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신범식).『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235-273.
성종환 (2003).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방법 -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19권. 제1호. pp. 23-46.
신범식 (2003). “정치문화 전통으로 본 러시아 과도기 정치문화.” 『슬라브연구』. 제19권. 제2호. pp. 1-42.
신범식 (2006).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동과 탈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 (신범식).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5-57.
안승국 (2003). “지역연구에 있어서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 분석논리와 적용.”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3호. pp. 121-142.
양오석 (2001). “국제정치경제내 유럽연합 자리찾기: 행위자와 분석수준 그리고 추상화의 사다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2호. pp. 67-95.
양오석 (2003). “영국사회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기법: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사례선택의 문제.”『영미연구』. 제9집. pp. 187-209.
양오석 (2004)『알을 깨고 날아 오른 아프락사스: 영국 및 유럽지역연구를 위한 분석도구와 이해의 틀』 서울: 오름.
양정훈 (2005).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슬라브연구』. 제21권. 제1호. pp. 141-63.
엄구호 (2007). “남코카서스의 ‘신거대게임’과 그루지야의 친서구 정체성.”『중소연구』. 제31권. 제1호. pp. 125-164.
이문영, "중앙아시아의 종교 상황과 종교 정책: 러시아 지배 유산의 극복과 이슬람의 발전,"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2003), pp. 143-170.
이문영,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2005), pp. 735-59.
이상민, 신형직, "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천연에너지 자원개발을 통해서 본 국가건설의 제문제와 그 전망: 까쟈흐스딴과 우즈베끼스딴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1호 (2000), pp. 53-72.
이재영 (2006/2007).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방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0권. 제4호. pp. 137-162.
이재유 (1996).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사회경제적 역할.”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 pp. 125-144.
이재유 (1996). “지역통합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러시아 및 주변 접경국가들과의 관계.” 『중소연구』. 제20권. 제3호. pp. 103-128.
이종문 (2006). “러시아 경제의 글로벌화와 북카프카즈 지역의 외국인 투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pp. 285-320.
이종진 (1997). “문학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민족성과 의식구조.” 『슬라브연구』. 제13권. pp. 243-88.
이채문, "망각속의 디아스포라: 20세기 초기 하얼빈의 러시아인들,"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2003), pp. 253-89.
임영상, 김상철 (2000).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문화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4호. pp. 187-222.
장병옥 (1998).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4호. pp. 27-52.
전진성 (2002). “역사와 기억: “기억의 터”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서양사론』. 제72호. pp. 167-185.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pp. 748-73.
정옥경 (2006). “러시아연방 이슬람지역의 정치엘리트 연구: 북카프카즈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0권. 제1호. pp. 185-206.
차경미 (2005). “카리브해 연안국가 정치문화의 혼종적 양상: 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pp. 237-256.
최재천, 장대익 역,『통섭』, 에드워드 윌슨,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5, p. 460.
포르챠코프 (1996).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업하부구조: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제20권. 제3호. pp. 129-143.
홍성원 (1996). “CIS 경제동맹 형성전망.” 『슬라브연구』. 제12권. pp. 281-311.
홍완석. (2007).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와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pp. 375-402.
황성우, 김선래 (2006). “북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슬라브연구』. 제22권. 제1호. pp. 143-73.
황성우, 장한 (2005). “문화권력으로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와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

권. 제4호. pp. 389-418.
황영삼 (1998). “러시아 정교회의 민족주의적 특성: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4호. pp. 131-150.
황영삼 (2001). “러시아 축제문화 속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특징.” 『슬라브연구』. 제17권. 제1호. pp. 77-94.

Amoore, Louise, Richard Dodgson, Randall D. Germain, Barry K. Gills, Paul Langley and Iain Watson (2000). "Paths to a historicize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7, No. 1. pp. 53-71.
B. Borisov, O. and B. T. Koloskov eds. (1975). *Soviet-Chinese Rel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B. Hall, Robert (1947).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SSRC pamphlet. No. 3.
Belmont, Nicole (1974). *Arnold Van Gennep.* Paris: Petite bibliotheque Payot.
Bonnain-Dulon, R. (2004). "Ouverture au marché, normes locales et tensions familiales" in G. Béaur, C. Dessureault & J. Goy. eds. 251-60. *Familles, terre, marchés. Logiques économiques et stratégies dans les milieux rurauxs* (XVIIe-XXe siècles).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Buzan, Barry and Ole Wæver (2003).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CUP.
Buzan, Barry,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1993).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 Voskressenski, Alexei (1998). *Russia, China and Eurasia: A Bibliographic Profile of Selected International Literature.*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D. Voskressenski, Alexei. "Regional Studies in Russia and Current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Social/Historical/Ideological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 Interaction in Eastern Eurasia" mimeo, Hokkaido University, Slavic Research Center, pp. 3-41. (http://src-h.slav.hokudai.ac.jp/coe21/publish/no10_ses/01_voskressenski.pdf) (검색일: 2007년 10월 3일).
D. W. Forbes, Andrew (1986). *Warlords and Muslims in Chinese Central Asia: A Political History of Republic Sinkiang, 1911-1949.* Cambridge: Canbridge University Press.
Diment, Galya and Yuri Slezkine, eds., (1993). *Between Heaven and Hell: The Myth of Siberia in Russian Culture.* New York: St. Martin's Press.
Dugin, A. (1997). *Osnovy geopolitiki: geopoliticheskoe budushchee Rossii: myslit prostranstvom.* Moscow: Arktogeia-tsentr.
Etienne, Hrsg. Von François und Hagen Schulze, eds., (2001). *Deutsche Erinnerungs-Orte I, II, III.* München: C. H. Beck.
Garnett, Sherman (1996). "Russian Power in the New Eurasia" *Comparative Strategy.* Vol. 15, No. 1. pp. 31-40.
Germain, Randall D. (1996). "The worlds of finance: a Braudelian perspective on IP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No. 2. pp. 201-30.
Graham, Loren and Jean-Michel Kantor (2007). ""Soft" Area Studies versus "Hard" Social Science: A False Opposition" *Slavic Review.* Vol. 66, No. 1. pp. 1-19.
Heckscher, Gunner (1957). *The Study of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London: Allen and Unwin.
J. Meehan, E. (1965). *The Theory and Method of Political Analysis.* Homewood, III.:Dorsey Press.
J. Stephan, John (1994). *The Russian Far East: A Hist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J-H Macdonald, C. (2004). "What Is the Use of Area Studies?" *IIAS Newsletter.* 35. pp. 1-4.
K. Sanderson, Stephen ed. (1995). *Civilizations and World Systems: Studying World-historical Chang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Khafizova, Klara (1995). *Kitaiskaia diplomatiia v Tsentral'noi Azii, XIV-XIX vv.* Almaty.
Lijphart, A.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3. pp. 682-93.
Macridis, R. & R. Cox (1953). "Research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7.
Masataka, BANNO (1987). *China and the West 1858-1861: The Origins of the Tsungli Yam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 Gumilev, Lev (1996). "Ethnogenesis, the Russian Past and World History"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NF. Vol. 44, No. 1. pp. 54-82.
N. Rosenau, James and Mary Durfee (1995). *Thinking Theory Thoroughly: Coherent Approaches to an Incoherent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Nelson Fenton, William (1947).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Novgorodskaia, Natal'ia (1987). "Stanovlenie I modifikatsii diplomaticheskogo stereotipa Russkogosudarstva v imperii Tsin v XVII - ser. XIX vv."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andidate of Science in History. Institute of the Far Eastern Studies, Moscow.
Osamu, IEDA (2005). "Regional Identities and Meso-Mega Area Dynamics in Slavic Eurasia: Focused on Eastern Europe" in MATSUZATO Kimitaka (ed.). 19-41. *Emerging Meso-Areas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Histories Revived or Improvised?.*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P. Huntington, Samuel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Parain, Charles (1970). "Contribution a une problematique de la communaute villageoise dans le domaine europeen" *L'ethnographie.* 64.
Pleshakov, Konstantin (1994). "Geo-ideologicheskaia paradigma: Vzaimodeistvie geopolitiki I ideologii na primere otnoshenii mezhdu SSSR, SShA I KNR v kontinental'noi Vostochnoi Azii, 1949 - 1991 gg." *Nauchnye doklady* 21. Moscow. pp. 5-15.
Rustow, Dankwart A. (1968). "Modernization and Comparative Politics: Prospects in Research and Theory" *Comparative Politics.* 1. pp. 37-51.
S. Brunnert, H. and V. V. Hagelstrom (1912). *Present Day Political Organization of China. London*: RoutledgeCurzon.
S. Miasnikov, Vladimir (1991/1992). "Ethno-Cultural Aspects of Interac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eir Influence upon the Soviet-Chinese Relations" *Sino-Soviet Affairs.* Vol. 15, No. 4.
Sartori, G.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4. pp. 1033-1053.
Shigetada, MANABE (1978). *Nichi-Ro Ryojun Kaisenshi: 1697-1875* [History of Japanese-Russian Relations: 1697-1875]. Tokyo: Yoshikawa Kobunkan.
Strange, Susan (1995).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en Booth and Steve Smith,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154-74. Cambridge: Polity Press.
Strezhneva, Marina (1999). *Evropeiskii Soiuz I SNG: sravnitel'nyi analiz institutov.* Moscow.
Трубцко, Н. С. (1927). "Общеевраэий ский националиэм," *Евраэий ская хроника*, Вып. 9
Wagley, Charles (1948). "Area Research and Training: A Conference Report on the Study of World Areas" *SSRC pamphlet.* No. 6.

범흑해지역의 지역주의와 정체성

엄구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I. 서론

지역(region)이란 지리적, 역사적 , 경제적 , 정치적 및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인식에 기초한 인간의 구성물이다.[1] 영토적 동질성이 집단 동질성의 공유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만 지역이란 사후적으로 식별 가능한 것이기에 한 가지 기준만을 찾거나 모든 잡동사니 기준들에 관심을 쏟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지역화(regionification)' 과정이다. 달리 말하면, 지역은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드러나고 판별되며 그 유형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및 경제적 변수들 내에서 일어난다.

범흑해지역이 하나의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지역이 될 수 있는가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이 지역은 지중해 지역의 연장이나, 대 러시아의 일부 혹은 유럽의 전진기지 등 거대 세력 의 부속적인 지역으로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우선 이 지역에 최근에 관심이 주어지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흑해 주변국가과 남카브카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유라시아 공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두 공간을 관통하는 교통 회랑지대란 것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범흑해지역은 유럽국가들을 자원부국인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연결시켜주고, 더 나아가 인구밀도가 높은 인도양과 아태지역국가 시장과의 연결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범흑해지역은 북동유럽, 중앙유럽을 대서양 국가들과 접점이 될 수 있거니와 전반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상호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인 것이다.

둘째, 최근 유럽의 정치적 지전략적 중심의 남동향 전환이 있었다. 2004년 5월 EU 5차 확대를 통해 10개 동구 국가가 EU가입했으나 5차 확대는 나머지 두개 후보국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2007년 1월 가입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NATO의 최대 확대가 있었는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7개 국가가 가입하였다.[2] 이러한 양대 기관의 확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유럽 대륙 중심에서 냉전의 분할의 제거이다. 이런 변화 과정을 촉진시킨 몇가지

1) Luk Van Langenhove and Ana-Cristina Costea, "Inter-regionalism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UNU-CRIS Occasional Papers 0-2005/13, 2005.

2) NATO의 2004년 확대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입되었다. EU의 2004년 확대로 사이프러스, 체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입되었다.

요인들이 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보 유지를 위해 NATO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둘째,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특히 그간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대안 에너지 소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스피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셋째, 터키의 계속적인 EU가입 요구로 EU의 미래 모습에 대한 회원국간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2004년 시작된 협상이 수년간 예정되어 있고 회의론이 있지만 결정은 EU의 미래를 정의함에 있어 전략적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넷째,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색채혁명으로 구소련 국가들의 유로-대서양 구조 포함의 가능성을 열었다.[3] 이런 발전들은 모두 유럽의 정치적 지전략적 중심의 남동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들이다. 범흑해 지역은 유럽의 가장 가까운 갈등의 현장이며, 아프가니스탄으로의 NATO 접근의 열쇠이다.

셋째, 경제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견지에서 범흑해 지역은 유럽의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위한 전환점이자 소스이다.

넷째, 범흑해 지역은 약한 국가, 인신매매와 마약의 불법거래, 조직범죄와 테러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심각하며 이런 상황에서 EU의 흑해로의 확대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유럽의 주요 관심 지역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EU확대는 EU를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념화할 필요에 직면하게 하였다. 범흑해 지역은 EU에게는 인접 지역으로서 이들이 안정적 국가성과 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EU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요약하면 지전략적 중요 입지성, 유럽의 지전략 중심의 이동, 대안적 에너지 소스 필요성 그리고 유럽의 남동 국경분쟁지의 심각한 안보 문제 지속은 범흑해 지역에 대해 EU가 보다 전향적 태도를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범흑해 지역 개념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다. EU는 지금까지 이 지역 국가들을 양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EU 멤버십과 관련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넓게 발산된 멤버십은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일부는 멤버들이고 일부는 중기적으로 잠재적 멤버십을 가지고 다른 일부는 보다 먼 미래에 나머지는 전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쟁점들은 그간 이런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EU는 잠재적 멤버십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들을 포괄할 지역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EU근린정책(European Neighborhood Policy)은 비록 혁신적 조치이지만 안보쟁점을 다루는 견지에서 또는 지역접근으로 향함에 있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범흑해지역 개념은 이 지역의 상호연관된 안보 쟁점들이 이해되고 해결되는 프리즘이다.

범흑해지역 개념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새것이기도 하다. 90년대 초에 터키는 흑해경제협력기구(BSEC)를 발의하였다. 터키는 지역 정의를 단순히 흑해 연안 국가들을 발칸과 카브카즈의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는 건설적 접근법 취하였다. BSEC 협력이 기대를 충족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지역 협력을 위한 중요한 도구를 형성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BSEC창설은 유럽이나 미국이 흑해 지역을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것을 결과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범흑해지역

3) Svante E. Cornell, Anna Jonsson, Niklas Nilsson, and Per Häggström, “The Wider Black Sea Region: An emerging Hub in European Security,” SILK ROAD PAPER, December 2006,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개념이 인정된 것은 단지 지난 몇 년이다. 이것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역국가들로부터의 관료와 학자를 흑해 지역에 관한 여러 세미나에 모은 German Marshall Fund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결과이다.[4]

범흑해지역은 지역주의의 시각에서 몇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이 지역은 유럽-애틀랜타, 유라시아, 이슬람 문화권이 교차하는 유일한 문명권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분명한 장점이 됨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둘째, 흑해지역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관점이 바로 안보의 부재란 것이다. 예컨대 이 지역은 현재 내전 중이거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부분의 분쟁지역은 소비에트 시대의 유산물이며 모스크바의 전통적인 '분할과 지배' 전략 때문이다. 각 공화국들이 어떠한 잠재적인 국가간의 연대를 꾀하는 것을 막고자 모스크바가 고도의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민중운동이나 민족 자결 주장 등은 모스크바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할 당시 수많은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이 지역 내에서 강력한 국가의 단일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환상일 뿐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치주들의 존재는 이들이 독립을 원하거나 러시아에 귀속되기를 바라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선언하는 민족주의의 새로운 열풍은 이 지역이 다수민족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구소비에트 독립국가들이 겪었던 이행기의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은 역사적, 인종간의 감정에 기름을 붙는 겪이 되었다. 셋째, 범흑해의 역내 국가들은 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정치체제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안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도출하고 있다. 범흑해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경제협력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국익에서 일치하며 인정할 수 있는 안보체제의 결여에 대한 우려에 공감함으로써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틀 속에 묶이고 있는 것이다.[5]

---

4) Ronald Asmus, ed., Next Steps in Forging a Euroatlantic Strategy for the Wider Black Sea, Bratislava: German Marshall Fund, 2006. [http://www.gmfus.org/template/download.cfm?document=doc/BSBook.pdf]

5) 러시아는 흑해 지역을 그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한다. '근외'(近外, Near abroad)라는 개념은 원래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된 국가들을 일컫는 것이지만 흑해지역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의미를 확대하였다. 러시아의 흑해에 대한 중요한 이해관계는 우선 흑해는 러시아가 대양으로 나가는 불변의 관문이라는 점과 흑해 지역은 남카브카즈와 북카브카즈 지역 분쟁의 일종의 알람 장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안보상 천연 요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러시아 외교적 지렛대는 현저하게 약화된 반면에 터키의 역내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와 NATO의 동진과 북카프카즈의 불안정은 러시아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터키는 소련 해체 이후 흑해주변지역과 카프카즈 그리고 중앙아시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적 과업으로 보았다. 터키는 흑해 지역에서의 더 강한 지역협력을 원한다. 이를 위해 BSE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흑해 연안국가들 참여로 흑해 해군(Black Sea Naval Force: Blackseafor)과 또 다른 지역안보 발의 기구인 흑해 하모니(Black Sea Harmony)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NATO 회원국인 터키가 이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도 일부 마찰을 생기게 한다. 예를 들어 지중해에서의 NATO주도 해상 반테러 작전인 Operation Active Endeavor[1]를 흑해로 확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1] 터키가 반대하는 근거는 이미 이 지역에 NATO와 연계된 흑해해상력 기구인 Blackseafor와 Black Sea Harmony가 있고, 이 기구에 참여하는 3개 국가인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이미 NATO 회원국이라는 것이다.
터키의 이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에너지 수송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터키에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 나간다. 이 해협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선박의 통과는 어렵고, 이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위험성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터키는 환경과 안전이라는 명분아래 1994년 해협을 통과하는 물류량을 줄이고 통제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송할 BTC

범흑해지역의 통일된 정체성을 찾아내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 흑해의 지정학적 특성, 즉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문명 사이의 가교로서의 위치 때문에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인종적인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흑해연안에 최초로 신민시를 건설한 그리스인들을 필두로, 로마제국, 비잔틴 제국, 몽고의 여러 한(汗)국들, 오스만 투르크제국, 오스트리아-합스부르그 제국, 러시아와 영국으로 이어지는 지역 패권국들의 계보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역사적 복잡성을 방증한다.

하지만 범흑해지역의 현재적 의미에서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퇴조와 러시아의 발흥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퇴조는 이 지역의 통일된 정체성을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다.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에 의하면 흑

파이프라인과 같은 대체 수송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수송 지연에 따른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다.

우크라이나는 소연방으로부터 독립되자마자 구소련에게서 물려받은 흑해함대와 항구뿐만 아니라 광활한 영토로 흑해에서 주요한 역할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상당수 인구가 친러시아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서방 노선을 천명하였고 유럽과 유럽-아틀란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러시아로부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터키와의 쌍무간 협력을 강화하고 BS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스피해 에너지의 영토 통과에 대해서도 적극적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U가입이 해결되면서 자신의 "뒷마당"인 흑해지역에 눈을 돌렸고, 그간 소홀히 했던 포스트소비에트공간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복원을 흑해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BSEC 설립부터 적극적 참여를 하였다. 루마니아의 이 지역 대외정책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역내 각 국가들과의 쌍무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몰도바와의 기본협정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보였다. 루마니아가 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카스피해 석유이다. 카스피해 에너지의 유럽으로의 가장 짧고 경제적인 파이프라인으로서 루마니아의 흑해 연안 도시 콘스탄타에서 시작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거쳐 이탈리아의 아드리아해 연안 도시 트리에스테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루마니아가 2007년 1월 1일부로 EU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흑해지역내 국가들의 EU가입에 루마니아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루마니아에 비해서 불가리아의 BSEC 참여는 소극적이었는데 그 원인은 역내 협력이 EU의 복사판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터키와의 잠재적인 갈등을 염려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카스피해 석유에 대한 이해관계는 루마니아와 마찬가지였고 에너지 수송에 대해서는 루마니아와 달리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불가리아 부르가스항에서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리스항을 잇는 총연장 280km의 송유관 건설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와 마찬가지로 불가리아의 흑해지역 내 운명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선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그리스의 흑해지역에 대한 입장은 그리스-터키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터키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BSEC의 참여를 선뜻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역내협력체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도 내키지 않는 것이다. 흑해지역에서 유일하게 EU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여타 역내 국가들과는 다른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럽은 동진하고 있고 새로운 근린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그리스의 불일치성은 희석되어 가고 있다. EU가 이전과 달리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단일시장의 혜택을 범흑해지역 전체에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터키 EU가입에 대한 그리스의 지지 표명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었다.

그루지야는 새로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의지, 이행기 경제의 어려움, 인종 갈등 그리고 분리주의 지역의 등장으로 그루지야는 해결해야할 난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루지야에게 BSEC가입은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란의 지정학적인 입지와 석유 매장량은 자연스럽게 이란을 카브카스의 주요 행위자로 만들었다. 미국이 카스피해 거대게임에 이란을 배제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러 개의 석유시추와 개발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란의 역내 정책은 이슬람 사회 이식보다는 실용주의와 경제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란의 주요한 안보적 고려사항은 이란 북부에 거주하는 아제르인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접근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카스피해 유전개발 등에서 같은 이익을 가진 나라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터키를 미국이익을 대변하는 나라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석유에 있어서는 양국가가 잠재적인 경쟁자와 동시에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해 연안국들의 정체성은 이로써 대단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종교에 기초한 범아랍적인 정체성, 오스만 투르크에 기반한 역사적, 제도적 정체성, 그리고 형성되기 시작하는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혼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혼재를 혼란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차지하고 이런 혼재의 기조는 현재의 범흑해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17세기 말 표트르 대제의 아조프 점령 이후로 러시아는 흑해함대를 건설,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려 했다. 18세기와 19세기 내내 이런 러시아의 팽창주의적인 정책은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인 영국과 프랑스의 우려를 샀다. 1853년 영·불 연합군과 러시아 사이의 크림전쟁은 이러한 국제관계의 기조를 잘 보여준다. 19세기 말의 독일의 흑해로의 동진정책, 즉 국민 생활권(生活圈: lebensraum)에 대한 집착은 흑해 연안의 지정학적인 역학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독일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흑해로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고,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범흑해지역을 사회주의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하였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 특유의 소수민족 정책은 그루지야,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흑해지역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복잡한 정체성 형성-어쩌면 그 해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 하의 형식적인 근대화를 이뤄갔다. 터키의 경우, 소위 제 삼 세계국가로서, 세속 국가(secular state)로서 정체성을 이뤄가면서도 주위의 범 아랍권과도 흑해연안의 소비에트 공화국과도 다른 지역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범흑해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이면서도 시사적인 주제가 있다.

그 하나는 흑해연안국들이 분명 자신들의 서구적인 의미의 근대화를 이루지도, 그렇다고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자신들만의 근대화를 이뤘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상대적인 근대화의 수준이 높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터키의 경우에도 18세기부터 이어져온 서구적 근대화와 종교를 포함한 전통적 가치에 기반 한 내재적 근대화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갈등은 지역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근대 초기와 비교해 더욱 복잡한 국제정치적 함의와 양태를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서구적인 근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어느 정도 편입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상존하는 서구화에 대한 강한 반감은 이런 유럽의 외연(外延)으로서의 범흑해지역 정체성을 어렵게 한다. 범흑해지역에서 유럽 혹은 유럽이 대표하는 서구적 근대화의 모델과의 계속적인 긴장관계는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복잡한 다인종 다문화 국가들이 어떤 형식으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구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경우, 로날드 수니(Ronald Suny)의 지적처럼, 내재적인 인종적, 문화적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가공된(imagined) 형태의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양태가 국가적 혼란뿐 아니라 지역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흑해연안국들에게 공통된 이 문제는 점차 탈국가화, 지역중심적(regionally integrated) 되어가는 한편 민족주의에 기인한 위험 역시 상존하고 있는 세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범흑해지역에서 피상적으로는 이질적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제공한다. 즉 우리는 이런 피상적인 이질성의 기저에 존재할 수 있는 역사적 공통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역사적 공통성, 즉 범흑해지역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면 분명 이는 이 지역의 향후 통합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러시아 팽창정책-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경우 내부 식민지배(internal colonization)까지 포함하는-의 역사적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의 문제이다. 현재 이 지역의 국제정치에서 탈 러시아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집단기억과 떼어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러시아에 대한 집단 기억이야말로 이 지역을 범흑해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대체-정체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기억은 한 가지의 경향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추이를 가지면서 끝없이 생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단기억의 추이를 탐구하는 작업은 범흑해지역의 미래를 살펴보는데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범흑해지역을 BSEC을 중심으로 신지역주의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향후 이 지역의 협력 발전을 EU와의 관계 속에서 전망해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II. 범흑해 지역주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국제관계 이론에서 동태적인 틀로서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시기에 따른 지역형성의 동기와 방법의 특징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로 구분하는 세대적인 지역주의 구분과 냉전의 전후를 기준으로 신·구 지역주의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공히 단절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호연속적인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 란겐호브와 코스테아(Luk Van Langenhove and Ana-Cristina Costea)는 지역주의를 3세대로 구분하여, 제1세대 지역주의는 분리된 민족경제가 더 큰 경제지역으로 결합되는 경제 통합에 기반한 것이며, 제2세대 지역주의는 정치적 차원의 발전을 주된 특징으로 하여 경제, 정치, 사회 및 문화적 측면들을 포함하며, 지역 기반의 자유무역 레짐 혹은 안보동맹의 형성 목표를 더 초월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제3세대 지역주의는 지역들이 세계무대에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개별 지역들이, 지구적 국제 레짐들과 기구들 속에서 행위하며, 다른 지역통합 구상들을 향하여 작용하며, 국가의 지리적 범위 바깥의 국가들의 향하여 작용한다고 세대간 지역주의의 특징을 설명한다.[6] 또한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출현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9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헤트네(Björn Hettne) 등을 중심으로 신지역주의를 주창하였다.[7] 그는 신지역주의와 구지역주의의 차이를 다음의 세가지 특징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구지역주의는 양극의 냉전체제에서 형성된 것임에 반하여, 신지역주의는 다극의 세계질서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구지역주의는 외부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from above) 만들어진데 반하여, 신지역주의는 내부의 자연적인 과정과 아래로부터(from below) 만들어진다. 셋째, 구지역주의는 대상에 관심을 갖는데 반하여, 신지역주의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는다.[8]

가장 최근의 지역주의의 성격에 관한 이론은 크게 신지역주의, 신현실주의, 신기능주의, 구성주의 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6) Luk Van Langenhove and Ana-Cristina Costea, “Inter-regionalism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UNU-CRIS Occasional Papers, 0-2005/13.

7) Björn Hettne,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1999); idem, National Perspectives on the New Regionalism in the South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0); idem, Comparing Regionalisms: Implications for Global Development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1).

8) Hettne, Björn (1994): *The New Regionalism: Implications for Glob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UNU / WIDER, Helsinki. pp. 1-2.

첫째, 신지역주의는 1990년대 중반 에트네(Björn Hettne), 이노타이(András Inotai), 순켈(Osvaldo Sunkel)의 주도로 출현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지역 협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성(regionness)에 초점을 두었다.[9]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은 전통적으로 정의된 전략적 지역과 물리적 지역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기능적(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지역을 말하는 것이었다.[10] 또한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지역주의 현상을 구성하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는 세력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에트네는 신지역주의 운동은 무차별적 시장화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출현하였다고 본다.[11]

NR발전의 사회적으로 진보적 견해는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의 비판 받음. 현실주의는 냉전의 종식이 지역 주권의 회복에 기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는 과거의 양극 세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지역 강대국들이 그들의 지리적 지역을 지배.[12] 현실주의에서는 현대적 지역주의를 여전히 강대국 정치, 동맹, 밴드왜곤, 희소자원 경쟁의 프리즘을 통해 본다.

두 번째 지역주의 이론은 신현실주의이다. 원래 국제관계론에서 현실주의는 지역통합의 문제를 많은 학자들이 국제 안보를 달성하는 일차수단으로 보는 국가간 협력, 파트너십, 동맹의 연구로 접근한다.[13] 신현실주의는 지역주의를 국가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다른 과정의 거의 부수현상으로 본다. 예를 들어 지역내외의 국가들의 파워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형성이나 지정학적 필요성에 의해 야기된 협력.[14] 이와 같은 국제적 동맹이 평화나 전쟁을 촉진하는가 아닌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15] 그러나 지역주의가 국가들의 물질적 능력(material capabilities)과 국가의 합성력 극대화 전략(resultant power maximization strategy)의 체계적 분포에 의해 정의된 두드러진 지정학적 형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쟁을 넘어 남아있다.[16] 이 견해에서 지역주의는 다차원적 경제적 전략적 요인들에 의해 분별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다.[17] 빈번히,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에 맞도록 지역과정을 추동하는 헤게모니 파워의 역할을 강조한다. 더 강한 동맹과의 전략적 관계는 교역을 촉진하고 쥬니어 파트너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어 왔다. 지역 세팅에서 동일한 관계는 전략적으로 정의된 지역 내에서 양자 및 다자 연계를 촉진

---

9) Björn Hettne,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1999); idem, National Perspectives on the New Regionalism in the South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0); idem, Comparing Regionalisms: Implications for Global Development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1).

10) Raimo Väyrynen, ‘'Regionalism: Old and New’',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2003), p. 26.

11) Björn Hettne, ''Development, Security, and World Order: A Regionalist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9. 1(1997), p. 86.

12) Richard Rosecrance, ‘'Regionalism and the Post-Cold War Era'', *International Journal*, 46 (1991), pp. 373, 375.

13) Joseph Chinyong Liow and Ralf Emmers (eds.), Order and Security In Southeast Asia: Essays In Memory of Michael Leifer (London: Routledge, 2006); Michael E. Brown, Sean M. Lynn-Jones, and Steven E. Miller, The Perils of Anarchy: Contemporary Re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MA.: MIT Press, 1995); Oran R. Young, Governance in World Affair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14) Fredrik Söderbau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in Nicola Phillips, ed., Globaliz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5), p. 224.

15) Patricia A. Weitsman, Dangerous Alliances: Proponents of Peace, Weapons of Wa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16) For the realist perspective, see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17) Mark Beeson, ‘'Rethinking Regionalism: Europe and East Asia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2.6 (2005), p. 970.

하고 “위로부터의”(from above) 지역 제도화에 기여한다.[18]

셋째는 신기능주의이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주로 파워극대화 전략과 대외정책의 전략적 합류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것으로 보지만 국제관계론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의 경제이익 또는 사회의 비슷한 선호에 뿌리를 둔 국제 협력을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19] 경제지대 형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성, positive-sum game, 협력으로부터의 절대적 이득, 이윤극대화 전략의 합리적 선택 같은 주제를 강조한다. 또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과 달리 국제관계의 자유주의는 이익집단 활동, 기업, 산업부문, 관료, 시민 사회 활동 설명에 대한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한다. 이 학파는 유럽 통합의 초기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존한다. David Mitrany, Ernst Haas, Leon Lindberg, Philippe Schmitter 이런 학자들이 개발한 유럽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참여국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이 과거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한 불가피한 스필오버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동등하게 이용하는 국가간 경계를 넘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지역통합을 본다.[20] 현대 지역주의 발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핵심문제는 지역주의가 교역과 투자에서 다자주의를 저해하는가 여부 즉 지역 교역 블록이 보다 개방적 글로벌 경제로 가는 길에서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초석이 되는가이다.[21]

마지막으로 구성주의는 지역은 일차적으로 문화적 실체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헌팅톤의 문명출돌로부터 소위 “전략적 문화에 대한 제3세대 저작”까지의 문화주의자(culturalist)와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 해석은 국가를 함께 묶어주는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한다.[22] 국제동맹정치 연구자들은 문화적 가치는 전략적 동맹의 발전과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23] 카쩬스테인(Peter Katzenstein)은 지역은 정치를 통해 만들어 지는 사회 구조물(social constructions)이라고 주장한다.[24] 구성주의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지역을 규칙과 규범을 통한 정체(polity) 형성, 정체성의 전환, 아이디어의 역할,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담론적 과정(discursive process)의 결과로 본다.[25] 구성주의 학자에게는 담론적으로 구성된 지역 실체(entity)는 국가들간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여 지고 상호적으로 구성된 믿음의 체계적

---

18) Richard Stubbs,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Comparative Politics, 31 (1999), pp. 337-355; Andrew G. Long and Brett A. Leeds, ‘’Trading for Security: Military Alliances and Economic Agreements,’’ Journal of Peace Research, 43 (2006), 433-451.

19) Liberal accounts can be found in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Norton, 1997);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1997), pp. 513-553.

20) Philippe C. Schmitter, ‘’Neo-Neofunctionalism,’’ in Antje Wiener and Thomas Diez (eds.), European Integration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46.

21) Pascal Lamy, ‘’Stepping Stones or Stumbling Blocks? The EU's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of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in Trade Policy,’’ The World Economy, 25. 10 (2002), 1399-1413.

22) 대표적으로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Alastair I.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eter Van Ham, ‘’Security and Culture, or, Why NATO Won't Last,’’ Security Dialogue, 32 (2001), pp. 393-406.

23) Rajesh Kumar and Kofi O. Nti, ‘’National Cultural Values and the Evolution of Process and Outcome Discrepancies in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0 (2004), pp. 344-361.

24) Peter J. Katzenstein, ‘’Regionalism and Asia’’, New Political Economy, 5.3 (2000), p. 354.

25) Thomas Christiansen, Knud Erik Jorgensen, and Antje Wien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Europ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6.4 (1999), p. 528.

패턴 또는 사회적으로 우세한 정체성에 의해 추구된 상호적 논리의 확률론적 표명(stochastic manifestation)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제 지역은 지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경제적 실체, 공동 안보 이익에 의해 결합된 안보조직, 문화공동체 또는 행태에 영향을 주는 간주관적 이해에 의해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를 함께 묶어주는 담론적 관행 등 다양하게 이해된다.[26] 따라서 지역 실체에 의해 수행되는 핵심 기능의 이해 또한 다르다. 일부 국가 행위자들은 지역주의를 세계화에 대항하는 방어기제로 지각한다. 이들은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는 상호의존성 또는 변증법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제시.[27] 다른 학자들은 세계화가 반드시 지역반응(regional response)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지역 조직이 보다 개방적이고 통일된 세계경제로의 움직임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경제적 지역주의는 보호주의와 교역전환(trade diversion)에 의해 수반된다. 한편으로 지역기구 특히 EU와 NAFTA 경우 글로벌 무역 자유화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하는 지역주의 프로젝트는 정치적 진공상태에 존재하지 않고 파워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없다. 정치적 압력은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참여국가들에게 혜택을 준다. 반대로 실질정치(realpolitik)는 경제적 합리성과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논쟁들과 반대 주장들은 유라시아 지역주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의의 성격 규명을 위한 기준으로 지역정체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정체성을 지역주의 성격 규명의 한 기준으로 접목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변동에 대해 국제적 영향, 역사문화적 배경(경로의존), 자연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특히 국제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 완료하지 않는 신흥독립국이 많은 지역주의를 분석하는 데는 지역정체성의 규명이 매우 중요히고 정체성의 변화없이는 원하는 방향의 지역형성이 불가능하다.

최근의 연구들은 과거와 달리 민족주의와 주권에서 벗어나는 국가정체성 개념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Wendt (1992, 1994)는 사회정체성과 조합정체성(corporate identity) 구별을 함으로써 제2세대 구성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28] 그는 국제적 상호작용은 민족주의, 인종(ethnicity), 기타 국내 집단 정체성과 양립될 수 또는 양립될 수 없는 사회적 형태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들은 국제시스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정체성은 외부(내부만이 아닌) 맥락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은 국가정체성의 한 형태로 남지만 그것의 조합적 하위형태에 포함된다. 웬트는 국제시스템의 역동성을 통해 나타난 적이나 친구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웬트의 틀은 국내부문을 분리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

26) John Gerard Ruggie,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Essays on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p. 12.

27) Raimo Väyrynen, ''Regionalism: Old and New'',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2003), p. 32.

28)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391-425.
Wendt, Alexander. 1994.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84-96.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Hopf 2002). 그리고 그의 사회정체성과 조합정체성의 구별은 실제에서는 불명확하다(Rae 2002).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은 국제적 담론과 국내적 담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복잡성은 집단정체성의 다양한 잠재적 소스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국가정체성으로 수렴되는지를 불명확한 것으로 남겨 놓았다. 제국정체성은 국가정체성의 한 형태인가 또는 집단정체성의 대안적 형태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도자들이 유동적 또는 모순적인 정체성의 담론으로부터 생기는 모순적 압력을 조화하는가? 예를 들어 영국 지도자들은 그들의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려 했을 때 제국정체성을 국가정체성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했는가? 그리고 특정 유형의 정책결정이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가 불안정하게 하는가? 수에즈 위기의 결과가 자마이카로부터 제국 수도로의 이민자 흐름과 다르게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는가?

클로츠(Audie Klotz)와 스미스(Braden Smith)는 "내적" 국가-사회관계 또는 "외적" 전략적 그리고 소통적 상호작용 중 어느 것이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가와 국제 시스템 내에서의 제도화 정도, 즉 무정부로서 또는 사회 중 어느 것이 국가정체성을 결정하는가의 두 축으로 국가정체성을 분류하고 있다.[29]

	외부적 국가간 상호작용이 우세	**내부적** 국가-사회관계가 우위
무정부 제도는 약하다; 국가가 일차 행위자	**예: 역할** 친구 대 적(Wendt) 동맹 대 중립(Bukovansky)	**예: 전략적 문화** 현실주의 대 자유적(Johnston) 고립주의 대 국제주의(Nau)
사회 강한 규제적 constitutive제도; 비국가 행위자들이 중요할 수 있다	**예: 안보공동체** 민주주의(Risse) 문명(Huntington)	**예: 초국가 공동체** 제국(Doty) 디아스포라(Appadurai)

무정부/외부 모형

이 모형은 국가는 약하게 제도화된 국제시스템에 존재하는 단일의 조합적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조합적 행위자란 국가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제도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사회집단과 독립적인 소망, 믿음, 의도를 취할 수 있는 행위자를 의미한다.[30]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보수당 수상에 의해 통치될 수 있고 그 여당은 영국의 과거의 귀족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모형은 영국 국가정체성의 핵심 특징은 다른 국가들과의 외부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영국은 그 여왕이 선언했거나 다수 영국인이 그렇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영국 주장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영국을 제국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제국정체성을 보유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

29) Audie Klotz and Braden Smith, "STATE IDENTITY AS A VARIABLE," Paper prepared f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Chicago, August 2007

30)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모형의 시각에서 정체성을 보면 국가들간의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사회는 국가에 영향을 주지만 국가행위를 결정하지는 않는 국가-사회복합체(state-society complexes)로서 상호작용한다. (Wendt 1999: 197-8). 이 과정은 둘 이상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상징적 정보의 교환을 통해 발생한다. 이런 행동들은 국가들간의 수사적 교환(전쟁 선언이나 외교적 비난), 물질적 교환(군대의 국경으로 이동 또는 다른 국가의 해군선박으로 대응 발사), 심지어 내연적 일반화된 교환(환율 인하) 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의해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국가행동은 새로운 간주관적으로 보유된 믿음을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국가정체성은 국제시스템에서 다른 국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사로부터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정체성은 자기(self)가 타자(the Other)에 대해 가정하는 역할로서 가장 쉽게 이해된다. Wendt (1992: 404)는 처음으로 허구적인 타자(Alter)와 자아(Ego)를 상상함으로써 이 과정을 설명한다. 만약에 Ego가 Alter의 애초의 행동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Ego는 부정적 동기를 Alter의 미래 행동과 반응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Alter와 Ego가 이 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을 계속하면 Ego는 Alter에 대한 행태를 내부화하기 시작한다. 역할 정체성의 내용은 양 국가에 의해 공유되는 담론이나 규범에 배태된 간주관적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웬트는 상징적 교섭주의(interactionism)를 이론적 틀에 의존하지만 상징적 교섭주의가 외부적/무정부 모형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버마스나 다양한 언어주의 접근에 의존하는 사회 이론 또한 이론가들이 하나의 조직 행위자로서 국가에게 어떤 정도의 조합 주체(corporate agency)를 제공하고 주체 상호작용을 구조화함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덜 강조하려는 한 이 모형에 맞는 것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만약 A국가가 B국가의 역할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A국가는 B국가의 행동을 이롭거나 선의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역할 정체성은 아주 단순할 수 있다.

이 모형과 사회/외부 모형과의 주요 차이 중의 하나는 이론가들이 정체성 발전의 과정이 약하게 제도화된 국제시스템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공식 규칙과 규범은 현재이지만 그것들은 국가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간주관적으로 보유된 믿음들의 기초적 윤곽의 표명이다. 따라서 국제시스템에서 하나의 국가들 집단이 친구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면 Wendt(1994)는 이 국가들은 집단의 다른 구성국들에게 적용될 때 군사력 사용을 규제하는 공유규범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공식적인 제도가 국가행태를 규제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국가들은 그들 행동을 웬트가 말하는 소위 무정부 문화(a culture of anarchy)에 순응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다.

웬트의 무정부 문화 개념과 안보공동체(사회/외부 이론의 한 예로 밑에서 사용하는) 개념의 주요 차이는 무정부 문화를 형성하는 간주관적 이해는 기존의 제도의 영향을 사회함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것보다는 이자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국제 제도의 규범에 순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제도의 다른 구성국들이 이 규범을 운영되게 하는 기초적 가치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도가 주는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EU가입에 의해 유로피언이 되지 않고 핵심의 간주관적으로 갖는 믿

음을 공유할 때 다른 유럽 국가들에 의해 인정됨에 의해 유러피언이 되는 것이다. 라트비아가 EU멤버십을 얻을 수 있지만 비회원 스위스가 보다 유러피언으로 지각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채택한 정체성은 다른 국가 행위자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정부/내부모형

무정부/내부 모형은 국가정체성을 약하게 제도화된 정치환경에서 조직화된 국내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국가는 경쟁적인 국가정체성의 국내적 개념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연결을 단순화하는데 사용된 단순히 행정적 분면l이다.

모든 국가에는 국가의 정체성의 구축에서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있다 그리고 집단 D, E, F보다는 A, B, C의 영향에 초점을 두는 타당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은 이론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체성이론이 국가정체성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 지도자에 의해 취해진 대외정책 선택에 어떤 선택된 집단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 모형과 사회/내부모형의 주요 차이는 이 이론들이 국내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구조화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능력을 경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사회담론과 소비에트 대외정책결정자들의 결정 사이의 연결에 관한 Hopf(2002)의 연구는 국가정체성의 국내 구조(construction)를 강조하지만 이런 담론의 재창조를 위한 구체적 주체를 러시아 사회내 특정 사회집단이나 정치집단에 할당하지 않는다.[31] 그는 정체성의 소스를 분명히 국내 수준에 위치시키지만 그는 정체성은 구체적인 사회 주체보다는 담론과 제도를 통해 구축되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사회/내부모형에 더 적절하다. 비교해서 인종-민족정체성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반대파 민족 또는 종교집단 사이의 내부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에서 국가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Cederman의 이론 (2001)은 스위스의 국가정체성을 각기 자신의 정치제도와 사회역사를 가진 4개의 정치적 칸톤이 공유하는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의 예로 든다.

내부/무정부 모형의 가정을 따르는 이론들은 직접적 경쟁에서 국내행위자들이 갖는 경쟁적 담론을 인식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국가의 정체성에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한다. 미국에서 Nau (2002)는 미국 대외 정책의 바른 목적에 관한 고립주의자와 국제주의자 사이의 경쟁이 어떻게 군사력의 사용과 장기적 미국동맹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지를 입증하였다.[32] Johnston (1995)은 중국의 현대 지도자와 역사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문화에 대한 경쟁적 견해들을 낳는 인지 지도를 사용한다.[33] Feng (2005)의 연구는 중국 지도자들은 존스턴이 말한 공격적 현실주의자와 방어적 현실주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두 집단 사이의 정치적 경쟁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의 발전 뒤의 추동력이 되어 왔다. 인종-민족정체성의 일부 이론들은 국가 정체성의 내부/무정부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Smith (1991)는 이집트와 터키에서 근대 국가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서로 다른 인종집단과 정치적 집단을 추적하였다. 비교정치에서 학자들은 프랑스계 국가들의 경쟁적 정체성 사이의 국내 갈등에 초점을

---

31) Hopf, Ted. 2002. Social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32) Nau, Henry. 2002. At Home Abroad: Identity and Power in US Foreign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33) Johnston, Alastair Iain. 1995. Cultural Re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둔다(Lebovics 1994; Safran 1991). 많은 저자들이 경쟁하는 국민정체성과 대외정책에 대한 갈등 사이의 연계를 제시한다 (Wallace 1991; Hecht 1998). 특히 유럽 정체성을 국내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는 EU학자들(Marcusssen, et. al. 1999)이 대표적이다. 영국에서 이것은 Europhiles와 Euroskeptics 사이의 수사적 정치적 싸움에 대한 중요한 관심을 결과하였다(Risse 2003). 남미 이민자로부터 미국 정체성에 대한 위협에 관한 최근의 Huntington 연구(2004)는 국내 집단들에 의한 반대파 국민정체성과의 적극적 대립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나이제리아와 포스트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인종 정체성의 사회적 구조(construction)에 관한 Laitin의 연구는 경쟁적인 국내 인종 정체성들 사이의 협력과 갈등이 어떻게 국가의 통치 권위에 배태된 하나의 정체성을 결과할 수 있는지 입증하였다.

사회/외부모형

사회 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국제제도가 국가 정체성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정부/외부 모형과 사회/외부 모형 사이의 주요 차이는 공동체 또는 제도의 추가이다. 국가정체성은 여전히 무정부/외부 모형에서처럼 전략적 또는 소통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하지만 여기서 국제환경은 더욱 복잡하다. 현대적 예는 미래 회원국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함에 있어 EU의 역할이다.

국가정체성들은 공동체와 제도에 대해 순환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어떤 환경에서는 환류가 이 공동체들에 배태된 집단정체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EU의 신생 회원국들에 의한 조건성의 수용은 유럽과 민주주의의 등식을 강화한다. 그러나 다른 환경에서는 상호작용의 결과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들은 국제제도를 손상한다.

많은 연구들이 공동체나 제도에 초점을 두지만 다른 것들이 타당할 수 있다. 공동체 멤버십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 이득이나 물질적 이득에 관계없이 그것은 단일의 일관적 전체로 수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비일관적인 정체성들을 균형을 찾거나 타협하려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다원적이고 중복적인 정체성들은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그 헌신을 반영하고 영연방 유로피언 트랜스 어틀랜틱 연결을 완전히 포용하거나 거부함 없이 계속 속인다. 제국 정체성의 흔적이 영연방 맥락에서 분명하고 유로피언 정체성은 EU멤버십에서 분명하고 덜 공식적인 앵글로 정체성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분명하다.

국제사회에서 공동체의 이러한 다원성을 포착하기 위해 핵심적 제도적 역동성에 “다른 공동체”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arnett (1993)는 국가들은 중복적인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다원적이고 잠재적으로 갈등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랍 같은 다른 국가들은 비공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국내 압력과 국제압력의 교차점에 지도자들은 국가가 국제적 행위자로 기능하도록 경쟁적 수요나 모순을 타협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은 정적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지만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이 된다. 국가들은 정체성이 안정화될 때 행위자들이다. 안보 공동체 개념은 이러한 복잡한 사회관계

를 예시한다 (Adler and Barnett 1998). NATO같은 동맹은 그 회원국들 내의 특별한 정체성을 강화한다.

사회/내부모형

사회 이론중에서 외부 모형과 내부 모형의 주요 차이는 강조의 하나이다. 사회/외부모형은 국내 측면을 설명하지만 국가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지도자들의 합동으로부터 따라 대개 분리된다. 대조적으로 사회/내부모형은 국가-사회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둔다. 국가, 국가와 사회 사이의 매개조직, 사회집단 등 국가의 세 층으로 나눌 때 이 3층사이의 점선은 이것들이 뻣뻣한 경계라기보다는 삼투적이다.

문제는 정체성이 어떻게 층화되거나 타협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버려지는 지이다. 답은 구체적인 정체성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두 안정화시키는 제도화의 과정에 있다. 추론적 연구들이 사회/내부 범주에 잘 맞는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복잡성과 유동성을 포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론적 접근은 관심을 가장 광범한 제도적 맥락으로 돌린다. 수에즈 위기같은 특별한 논쟁에서 국가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태된 문화적 과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Said (1978)[34]와 Doty (1996)[35]를 따라 우리는 중동을 유럽 강대국들이 전통적으로 유아 취급받고 이국적인 것으로 취급받은 현지인에 따라 행동하는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Weldes (1999)가 큐바 미사일위기에서 입증했듯이 강대국들은 여전히 서로를 행위자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고 식민지에게는 주체를 거부한다. 이런 정체성 담론들은 국가정체성의 문화적 내용을 이상을 정의한다. - 무정부/내부모형의 전략적 문화로서- 그것들은 actor-ness의 정도를 구성한다.

주체의 인정은 왜 특정 국가들이 특정 논쟁의 전략적 소통적 상호작용의 일부인가를 설명한다. 수에즈 위기는 이런 배태된 가정의 일부를 불안전하게 했다 왜냐하면 에집트가 선례없는 정도의 자율성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위기 사후에서 장기적 영향은 부분적으로는 Non-Aligned Movement같은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새로운 담론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정도에 의존한다. Jourde (2007)는 이것을 대표 외향성 (representational "extraversion")이라 명명했다.[36] 약한 국가들이 지배적 담론의 제약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얻어 내는 틀이다 (see also Dunn 2008). 그리고 강대국들 내에서 초국가적 연계가 있는 또는 없는 사회집단들은 국제시스템에서 정당한 행위자에 관한 배태된 국내 가정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위기를 재해석한다.

정체성 파악을 위한 유용한 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에다[37]의 광역권-중역권 분석이다. 원래 '중역권'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공통성을 유지해 온 '슬라브 유라시아' 내에서 사회주의 체

34) Said, Edward. 1978.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35) Doty, Roxanne. 1996. *Imperial Encounter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36) Jourde, Cedric. 2007.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Small Neoauthoritarian States: Islam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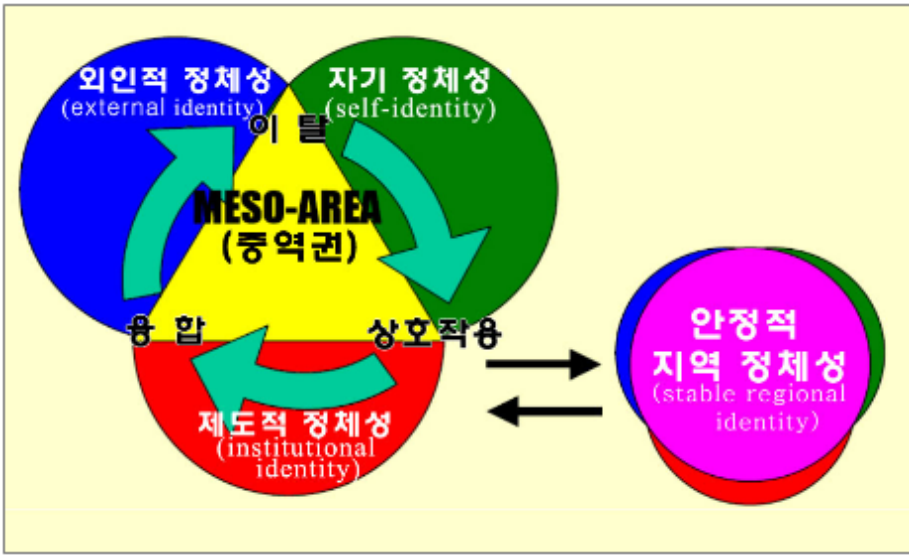
37) Osamu Ieda "Regional Identities and Meso-Mega Area Dynamics in Slavic Eurasia: Focused on Eastern Europe,"(Jan. 2004), pp. 1-19.

제 붕괴 후 점차 독자성을 강화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중앙유라시아', '동유럽' 등의 공간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들 지역은 사회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이 지역이 '중역권'으로서 독자적인 범위를 갖게 된 것은 이 지역이 갖는 고유한 요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중역권'이라는 개념은 인접하는 외부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적인 변화와 연동하여 정치·경제·사회적인 다양한 힘이 내외로부터 작용하는 새로운 공간을 일컫는 용어로서, 종래의 지역 개념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즉 독자적인 중역권의 출현은 해당 지역이 갖는 고유한 특질이 아니라 인접하는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중역권'이란 개념을 낳은 실천적인 동기는 구사회주의 국가 연구의 세분화 경향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냉전이 종결된 후, 발트해 연안 국가에 대한 연구는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와 '케난연구소'(Kennan Institute)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연구는 하버드대학의 '데이비스센터'(Davis Center)에서 분담하는 등 지역연구의 끊임없는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만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이들 지역연구 간에 체제이행 연구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지역연구의 세분화가 진행되더라도 그들 상호간에 교류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동유럽 국가 연구자가 발트해 연안 국가에 대해 무지하고 러시아 연구자가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에 대해 무지한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의 세분화는 전통적인 지역 개념을 완고하게 고수한 결과로서, 종래의 지역연구에서의 지역 개념은 많든 적든 지역의 단층성·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이러한 지역 개념은 분석상의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역권'이란 개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분석상의 유효성을 상실한 종래의 지역개념 및 지역연구에 대한 반성이자 대안으로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역권이 형성될 때에는 단지 그 중역권 내에서만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역권의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에도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따라서 원래 그 중역권이 속하고 있었던 모체지역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슬라브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구 동유럽 국가가 급속히 NATO나 EU에의 가입을 추진하고 발트해 연안 국가가 이러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러시아는 대 서구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역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을 "광역권"(Mega-area)이라 부르지만, 실은 중역권 분석은 중역권 그 자체의 분석인 것과 동시에 중역권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권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Ieda(1994)는 MMA Dynamics 이론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과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기하고 있는 중심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각각의 '중역권'은 세 가지 정체성, 즉 '외적 정체성'(external identity),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제도적 정체성'(institutional identity)을 갖는데, 어떤 '중역권'의 '외적 정체성', '자기 정체성', '제도적 정체성' 간의 3중의 상호작용은 두 가지 '광역권'('exit mega-area'와 'entry mega-area') 사이에서 중역권이 거치게 될 변동의 종류(반발, 이행, 전환, 진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중역권이 '제도적 정체성'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반동'(backlash)의 방식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 어떤 중역권이 '외적 정체성'에 압도되면 될수록, 새로운 광역권으로 '이행적인'(transitional) 진입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어떤 중역권이 새로운 광역권을 향해 이동하는 동안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퇴거 mega-area'와 '진입 mega-area' 양자의 '변환적'(transformational) 동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 어떤 중역권의 세 가지 '정체성의 혼합'이라는 모호한 상태에 머물수록, 광역권 간의 '진화적인'(evolutional)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역권'이 갖는 분석개념으로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중역권 개념은,

1. 광역권의 내부구조를 원심력과 구심력의 사이의 분쟁으로 본다. 즉, 고정적이지 않고 동태적·역사적인 지역분석의 개념이다.
2. 비교분석, 지역 횡단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광역적인 관점을 잃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3. 지역의 변동에 대해 국제적 영향, 역사적·문화적 배경(경로의존), 자연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4. 주권국가의 테두리를 넘는 현실 국제관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글로벌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이다.
5. 국제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 완료하지 않는 신흥독립국을 분석하는 데 특히 유효한 개념이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노이만(Iver B. Neumann)의 지역형성접근(Region Building Approach: RBA)에서 분석의 수준 그리고 헤트네의 지역의 중심행위자를 결합한 타씨나리(Fabrizio Tassinari)의 분석틀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38] 타씨나리는 분석의 수준을 외부생성적(outside-in) 지역형성과 내부확대형(inside-out) 지역형성으로 나누고 지역의 중심행위자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위로부터(from above)의 지역형성과 밑으로부터(from below)의 지역형성으로 나누어 지역주의의 성격을 규정한다.

외부생성적 접근 방식은 국제체제의 시각에서 지역을 연구하여, 지역의 형성은 외부로부터 생성 발전한 결과이다. 내부의 중요 특성이 보다 유사하고 지역주변부에서보다는 상호작용이 보다 긴밀한 핵심지역 즉 중심을 가정함으로써 지역경계의 불명확성을 고치려 노력한다. (Neumann 1992, 7). 이 접근법에 따르면 지역의 형성은 내부로부터 일어난다. 또한 신현실주의와 글로벌주의적인 접근은 'outside-in' side에 연결되어 있다. 다른 한쪽 내부확대형 시각은 국내수준 이론이나 비판 이론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EU가 주변부에 지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거나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역협력의 촉진은 국가간 협력의 제고를 통해 자원을 모우고 행동을 조정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의 유럽통합의 근거의 논리적 확대로서 생각될 수 있다.[39]

"유럽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40]과 "남동구 안정 협약(Stability Pact for South-Eastern Europe)"[41]이 외부생성형 모형의 대표적 기구이다. 과거에 어떠한 지역기구도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전략적 차원에서 외부에서 기구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남동구 안정 협약"에는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비유럽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관과 많은 UN기구와 BSEC 등의 지역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 안보 등을 다루는 3개의 실무그룹으로 이루어져있고 양자 차원은 역내 국가들과 EU와의 양자 안정과 제휴조약(bilateral Stability and Association Agreements)에 따라 해결된다. 외부생성적 성격은 Barcelona process에서 보다 명확하다. 지역 차원의 문제는 정치와 안보, 사회와 문화, 경제 등 3개의 실무 그룹에서 양자적 차원은 제휴조약에 따라 해결된다. "유럽지중해 파트너십"과 "남동구 안정 협약"의 비교가 일부 분명한 한계를 가지지만 양자 모두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동구 안정 협약"은 전술했듯이 코소보 전쟁 파동에서 출현해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으며, "유럽지중해 파트너십"도 중동갈등과 모로코와 요르단까지 지역의 이질성으로 인

---

38) Fabrizio Tassinari, *Mare Europaeum: Baltic Sea Region Security and Cooperation from post-Wall to post-Enlargement Europe* (Copenhage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openhagen, 2004), pp. 15-35.

39) Karen Smith, European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Cambridge: Polity, 2003), p. 83 ff.

40) 유럽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or Barcelona Process)는 유럽과 마슈렉(Mashreck)과 마그레브(Maghreb)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EU에 의해 1995년 바르셀로나에서 출범하였다. 2004년 EU확대로 지중해 국가인 키프로tm와 말타가 EU에 가입하였다. 오늘날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의 회원국은 37개국인데 그 중 EU회원국은 27개 국가이고 지중해 국가는 알제리아, 에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튜니지아, 터키 등 10개국이다. 그리고 리비아는 1999년 옵져버 자격을 획득하였다.

41) "남동구 안정협약(Stability Pact for South Eastern Europe)"은 남동구에서 평화, 민주주의, 인권,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남동구 안정협약"은 1999년 6월 10일 EU의 발의로 쾰른에서 창설되었다. 이 협약 창설의 직접적 계기는 코소보사태이다. 2006년에 "남동구 안정협약"은 2008년 초에 지역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협력위원회(Regional Cooperation Council: RCC)"로 승계될 것이라고 공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동구 유럽 협력 과정(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회원국은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 9개국이고 우크라이나가 옵져버이고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미국 및 EU회원국 등이 협력국이다. 또한 많은 국제기구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양 기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한편으로 양 경우 모두 EU가 지역협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력범위를 정하는 등 지역협력의 모터 역할을 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생성형 지역주의는 역외국가와 역내국가의 공동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역내 국가들이 지역협력에서 소극적 자세를 갖게 만들었다.[42]

지중해나 남동구와 달리 EU가 발틱해나 바렌츠해 지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이미 있던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발틱해 지역 국가위원회(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CBSS)"[43]와 "바렌츠해 유럽-북극협력기구(Barents Euro-Arctic Cooperation: BEAC)"[44]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지역발의가 지역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EU에게는 장단점이 있다. 한편으로 내부확대형 지역주의는 EU가 협력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 지역기구 내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어 자신의 의제와 목표를 관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내부확대형의 대표 사례는 2000년에 EU에 의해 채택되고 핀랜드에 의해 출범된 "북방 협력기구(Northern Dimension Initiative: NDI)"[45]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NDI는 유럽의회가 결정하는 행동계획에 관리되며 EU회원국들과 제3국은 협력에서 동등한 파트너이다. 지난 6년간의 NDI 재정은 financing은 PHARE[46], INTERREG,[47] TACIS[48] 같은 EU원조 프로그램에서 충당되었고

---

42) The current EU Commission''s plan for a free trade zone in the Balkans is facing strenuous opposition from some countries in the Balkans, particularly Croatia (see ""Barroso to Push for Regional Trade Pact"" in European Voice, 23-29 March 2006).

43) CBSS는 발틱해 지역의 경제, 시민사회 발전, 인권, 핵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창설되었다. 1998년부터 본부는 스톡홀름에 있으며 최고기관은 2년마다 개최되는 외무장관회의(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이다. 현재 회원국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랜드, 독일,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유럽집행위원회 등 12개국이고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옵져버이다.

44) BEAC는 스웨덴 북부, 노르웨이, 핀랜드, 러시아 북서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되었다. 덴마크, 핀랜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유럽집행위원회 등 7개국이 회원국이고 카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옵져버이다.

45) The Northern dimension는 노르딕 국가, 발틱 국가, 러시아를 커버하는 EU의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창설된 기구이다. NDI는 러시아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with Russia)과 협력의 틀 내에서 집행된다. NDI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덴마크,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등 발틱해 주변의 8개 EU회원국가와 EU의 러시아와의 국경은 크게 연장되었다. ND가 EU정책의 중요 주제로 처음 부각된 것은 1997년 12월의 룩셈부르크 유럽의회였고 1998년 12월 비엔나 유럽의회에서 ND에 관한 의회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하고 6개월후 퀼른에서 유럽의회는 NDI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1999년 12월 헬싱키 유럽의회는 ND행동계획 준비가 결정되고 2000년 6월 훼이라 유럽의회에서 "2001-2003년 EU대외정책에서 북방차원을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46) PHARE(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는 EU가 향후 EU에 가입하게 될 중동구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세 개의 가입전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PHARE는 1989년 창설되었고 처음 폴란드, 헝가리에서 지금은 10개국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외에 새로 가입된 8개국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이다. Phare는 불어로 등대라는 뜻이다. 2000년까지는 서발칸의 알바니아, 구유고공화국,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도 수혜국이었다. 그러나 2001년에 CARDS programme (Community Assistance for Reconstruction, Development and Stability in the Balkans)이 3개국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47) INTERREG는 2000-6년 사이 EU에서 지역간 협력을 제고시키키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그 재정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에서 충당된다. 특히 소외지역과 EU가입 후보국들과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TERREG는 세 개의 가닥(국경간, 국가간, 지역간)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49억 유로(1999년 가격)정도 된다.

48) TACIS는 "Technical Aid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프로그램의 약자이다. TACIS는 CIS국가들의 민주적 시장전환을 돕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Europe Aid 프로그램에 흡수되었다. TACIS는 1991년에 시작되었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에 지원을 하고 있고

CBSS, BEAC같은 지역기구들도 NDI process포함되었다.
NDI은 유라시아에 대한 EU대외정책에서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EU회원국, 후보국, 러시아가 동등한 수준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내부확대형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란드와 발틱 3국의 EU 가입이 현실화되면서 러시아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되었다. 현재로는 EU-러시아 전략적 제휴와 ENP 사이에서 EU정책이 지리적, 개념적으로 샌드위치되고 새로운 틈새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CBSS와 BEAC 같은 기구들이 생기면서 EU의 지역활동의 조정을 다소 어렵게 하였지만 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역내 국가, 국제금융기구 등이 참여하는 "북방 환경 파트너십(Northern Dimension Environmental Partnership: NDEP)"[49]과 "북방 보건복지 파트너십(Northern Dimension Partnership for Public Health and Social Well-Being: NDPHS)"[50]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지역주의의 성격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는 정체성이며 양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주의 성격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주의 이론과 정체성 이론의 유기성을 파악해보면 지역주의 성격의 기준은 다음의 네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 즉 국제사회는 제도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무정부 상태인가?
둘째, 국가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사정인가 아니면 국가간 상호작용인가?
셋째, 지역기구가 외부주도형으로 이루여졌는가 아니면 역내 내부확대형으로 이루어졌는가?
넷째, 지역의 중심행위자는 국가인가 아니면 사회인가?

II. 흑해지역의 지역주의와 정체성

흑해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기구는 BSEC이다. 그 외에도 이 지역에는 UN, EU 그리고 NATO와 같은 국제 기구들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다른 쌍무적 그리고 다자적 협력기획과 프로그램이 있다. 많은 이니셔티브는 탈냉전시기 초기에 시작되었고, 환경, 운송, 에너지 하부구조와 연성 안보 이슈들에 관한 협력은 현재 번성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흑해지역, 그리고 흑해 나라들과 EU 회원국들 사이 모두에서 가장 진전된 협력영역이다. Black Sea Environment Programme (BSEP)의 이행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흑해 환경보호에서 EU의 핵심

몽고는 1991-2003년사이에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ALA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49) NDEP는 북서러시아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요구로 생겨난 기구이다. 상하수, 고체쓰레기, 에너지 효율, 핵폐기물 관리를 위해 NDEP는 발틱해로부터 바렌츠해 지역까지 북방지역에 환경 보호 사업을 지원한다.

50) NDSHC는 핀란드의 발의로 2002년 가을에 시작되었다. 선언은 2003년 10월 오슬로에서 채택되었고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염병, 만성질환의 치유와 예방, 술, 담배, 마약의 감소 등을 통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양식을 촉지하는 것이다.

적 역할은 EU Commission의 Communicatio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Danube-Black Sea Region에 반영되었다. 이 문서는 중부 및 남동유럽은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이 EU의 지리적 중심에 바로 위치한 지역들과 흑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흑해의 환경문제가 모든 흑해변의 나라들, 그 일부가 해양에 접해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의 협력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냉전기간동안 흑해는 공산주의 북부와 남부의 터키로 분할되었고 실질적인 포괄적 협력이 없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소련은 1959년에 바르나 어업협정(Varna Fisheries Agreement)에 서명하면서 협력시도를 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는 지중해 어업위원회(General Fisheries Council for the Mediterranean)로 협력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 않는 실제적인 효과를 갖지 않는 시도였다. 흑해의 환경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초기의 시도는 1973년의 MARPOL Convention이었다. 이 헌장은 흑해를 특별방어지역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정적 지원의 부족과 국가의 배타적인 경제지대를 구분해야 할 필요 때문에 이행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냉전종식이후 여섯 개의 흑해 연안국들은 1992년 부하레스트 흑해보호헌정(에 Pollution에 반대하여 Bucharest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Black Sea)에 서명했는데, 인준된 이후 1994년에 발효되었다.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흑해위원회(Black Sea Commission)가 1995년에 만들어 졌으나 그 활동은 이스탄불에 두사람이 배치된 작은 사무국이 문을 연 2000년까지 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흑해 나라들은 환경 보호의 공통적인 정책적 틀을 준비하기 위해 1993년 4월에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서 흑해환경프로그램(Black Sea Environment Program: BSEP)이 1993년 6월 UN과 EU의 지지로 세워졌다. BSEP 사무국은 이스탄불에서 흑해위원회와 같은 건물을 쓰면서 지역 환경문제의 분석을 행하고(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흑해의 재건과 보호를 위해 1996년 여섯개의 연해 나라이 서명한 Strategic Action Plan (SAP)를 준비했다. 또한, BSEP의 국제지역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흑해 모든 나라들에 지역활동센터가 세워졌다. 지역 활동센터들이 흑해 나라들에 세워졌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사용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했다. 이 협력의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서명된 시기에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구소련 흑해함대의 운명에 관한 설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루지야는 러시아의 간섭이 명확한 내전에 빠졌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와 마케도니아 사이에서 환경이슈에 관한 분리된 지역협력 회의의 개최가 2000년 12월에 동의되었고, 2001년 11월에 흑해변의 모두 19개 나라는 함께 모였고 “흑해지역 물 및 물관련 생태시스템 선언(Declaration on Water and Water Related Ecosystems in the Wider Black Sea Region”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은 흑해에 집중하는 범유라시아에 관한 많은 다자적 하부구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지원했다. 유럽-카브카즈-아시아 운송 복도 사업(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이 8개의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의 구소련 나라들을 유럽에 연결시키기 위해 1993년에 시작되었고, 흑해지역을 관통하고 그 주변을 도는 동-서 축에 관한 운송대안을 발전시켰다. EU 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TRACECA는 지역의 광대한 운송 하부구조기획에 관한 국제적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도왔다. 더 나아가, 1997년 제3차 운송 장관 유럽회의(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에서 흑해는 네 개의 Pan-European Transport Areas (PETrAS)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1999년에 여덟 개의 참여국가(모두 BSEC 회원국. 여섯 개의 연안국+그리스와 몰도바)의 대표부들과 EU 위원회는 EU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운송기획의 실행을 사전에 확인할 조정그룹(a Steering Group)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네 개의 부문별 업무집단과 기술적 사무국(PERMIS에

의해 설치된)이 세워졌고 연간으로 수정된 행동계획이 초안되었다.

환경 분야에 이어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1995년에 시작된 INOGATE (Interstate Oil and Gas Transport to Europe)는 또 다른 EU 기금의 지역 프로그램으로서 범흑해지역의 석유와 가스에 관한 기술적 지원과 일부 투자지원에 집중하였다. 1999년 그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우산협약(Umbrella Agreement)이 흑해지역을 관통하는 카스피해변과 유럽 사이의 석유, 가스 운송 네트워크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명되었다. 동의안은 EU의 TACIS 프로그램에 포괄되지 않는 나라들이 하부구조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21개 나라가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BSEC 회원국가가 포함되었다. INOGATE 사무국은 2000년 11월 끼예프에 세워졌다.

EU위원회는 1995년 2월 흑해지역 에너지 센터(Black Sea Regional Energy Centre: BSREC)의 설립을 주도했다. EU위원회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루지야,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즉시 참여했고 마케도니아는 1999년 1월에 서명했으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2001년 10월에 참여했다. 소피아에 세워진 BSREC는 에너지 분야에서 흑해지역 나라들 사이는 물론이고 이 나라들과 EU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BSREC은 시장지향적 에너지정책의 발전과 실행을 촉진시키고 독점체의 재편을 자극하며 에너지 효율성 기획을 지지하고 the EU Energy Directives의 노선에서 정책개혁을 주창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흑해주변에서 다양한 기획-기반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지역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조직해왔다.

2000년 6월 여섯 개의 흑해 나라들은 다국적 해군, 즉 Black Sea Naval Cooperation Task Group (Blackseafor)를 창설하여 해양 비상사태, 인도적 지원, 환경방어, 흑해 나라들간의 친선방문, OSCE와 합동으로 하는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군대의 임무는 나라들의 협력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증대는 물론 흑해의 연해 나라들 사이의 친선, 선린관계와 상호적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1998년 터키가 처음 제안한 동의안은 2001년 4월 2일에 최종 서명되었고 군대는 2001년 9월 활동하기 시작했다. 군대는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지휘부를 가질 것인데, 그 첫번째 사령군은 터키쪽이었다. 상설적인 수뇌부는 없지만 최소한 매년 최소한 한번의 합동전략이 계획되었다. 비록 군대는 흑해를 위해 의도되지만, 참여국가들이 동의한다면 다른 해양에 그것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자적 협력 이니셔티브들과는 별도로, 많은 흑해 나라들은 지역적 이슈에 관한 협력을 위해 루마니아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삼자간 회담을 세웠다. 삼자간 연합은 루마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 루마니아-불가리아-터키, 루마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루마니아-불가리아-그리스 그리고 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사이에 존재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BSEC 회원국들은 다른 지역하위단위의 기구들에 참여하는데, the Royaumont Process, the 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Initiative (SECI), South 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 (SEECP), Stability Pact, the Central European Initiative (CEI),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and the GUUAM Group (Georgia, Ukraine, Uzbekistan, Azerbaijan, Moldova) (GUUAM) 같은 것들이다. 더 나아가, 알바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태리, 루마니아와 터키는 1998년 9월에 남동유럽을 위한 다국적 평화유지군(SEEBRIG)을 세우는 동의안에 서명했다. 많은 BSEC과 나토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했다. 군대는 1999년 8월 활동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 이니셔티브에 따라 the Mediterranean and Black Sea Regional Tolerance Network가 불관용,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여 싸우는 비정부기구의 그룹으로 1996년 9월에 세워졌다. 네트워크

의 목표는 회원 국가들의 정책결정 및 기준설정 지원에서 연구와 감시'는 물론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국제적 공동체의 대응'을 조정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a Black Sea NGO Network (BSNN)가 1998년에 세워졌는데 흑해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의 각성을 촉구하고 높이기 위해 흑해의 모든 연해 나라들의 비정부기구들의 지역 독자적이고 비정치적이며 비영리적인 협의기구로서 세워졌다. BSNN은 현재 모두 54개 지역 NGOs로 구성되는데, 지속가능성의 이념에 따르는 흑해 나라들의 민주적 가치와 실천을 수용해야 할 필요는 물론 흑해의 감소하는 환경적 질에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흑해부근의 다양한 다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들 가운데서 1999년 5월 세워진 the Regional Centre for Combating Trans-border Crime를 인용할 수 있다. SECI와의 연계하에, 그리고 조직으로서 BSEC은 물론 여섯개의 BSEC 회원국과 두개의 후보국(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이 참여했다.

2000년 중반 BSEC 회원국들이 조직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는 기근의 경우 지역에서 식량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 농업전략의 창출, 지역내의 투자를 고무하고 연합 투자보장 구도를 창출하기 위해 the Federation of Euro-Asian Stock Exchanges에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루지야, 몰도바, 터키와 우크라이나의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토론은 또한 흑해의 연해 나라들간의 a Convention for Fisheries in the Black Sea를 초안하기 위해서도 진행되었다.

흑해경제협력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이하 BSEC)는 1992년 6월 25일 아드리아해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11개국 수반이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 정상선언과 보스포러스 성명"에 조인함으로써 설립되었다. 2004년에 세르비아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며 13개국이 옵져버이다.[51] 1999년 5월 1일부로 BSEC은 국제법적으로도 완전한 지위를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되었다. BSEC의 본부인 BSEC 상설국제사무국(Permanent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the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이하 BSEC PERMIS)은 1994년 3월에 이스탄불에 설립되었다.

BSEC의 조직은 정부간 기구, 의회간 기구, 기업간 기구, 금융 및 재정기구, 학술기구 등 다섯 분야로 정리된다. 정부간 기구에는 외무장관회의(Council of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CMEA), 고위간부회의(Committee of Senior Officials)[52], 상설국제사무국(PERMIS) 등 세 기구가 속하고 의회간 기구에는 BSEC 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BSEC: PABSEC)[53]가 있고 기업간 기구에는 BSEC 기업위원회(BSEC Business Council: BSEC BC)[54]가 있고 금융 및 재정기구에는 흑해무역개발은행(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BSDTB)[55]가 있고 학술 기구에는 흑해국제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Black Sea Studies: ICBSS)[56]가 있다. 그리고 BSEC은

---

51) 회원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루지야,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세르비아(12개국)
옵져버: 벨로루시, 크로아티아, 체크,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튜니지아, 미국, 오스트리아, 이집트

52) 외무장관위원회를 대신해서 그 대표들이 업무를 수행한다. 흑해의회와 의장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이 위원회는 일종의 이사회의 기능을 하고 추후 흑해외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53) 1993*년에 설립되었고 사무국은 이스탄불에 있다. *BSEC*의 의회적 기능을 하는 *PABSEC*은 지역통합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MEA*이 결정한 조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54) 1992*년에 설립된 경제계를 대표하는 비영리 비정부기구이다. *BC*는 지역내 통합을 위해서는 역내 무역장벽 제거에 힘쓰고 외부적 통합 즉 세계 경제 특히 *EU*경제와의 통합을 위해 *FDI*에 큰 중점을 둔다.

55) 1998년에 설립되었고 그리스 Thessaloniki에 있다. BSTDB는 회원국들의 통합 노력을 지원하고 역내 무역과 금융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15개 상설·특별업무국(Permanent and ad hoc working bodies)의 활동을 통해 그 구조를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옵저버 기구로 국제흑해클럽(International Black Sea Club), 에너지 헌장 사무국(Energy Charter Secretariat), 흑해위원회(Black Sea Commission)가 참여하고 있다.

BSEC의 출범 취지는 반세기 이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던 범흑해지역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자는 것이었다. BSEC의 정체성은 국제외교회의 모델로부터 시작하여 국제법적 실체, 제도적 자율성 및 상설 기구를 구비한 완전한 지역 경제 기구로 진화해 왔다. BSEC의 조직 헌장은 1998년 6월 5일 얄타에서 조인되었으며, 1999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이때 BSEC의 비공식적 발의가 동명의 지역경제기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조직 개편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BSEC은 과제 지향적 노력을 경주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57] 지역적 이해관계와 영향을 가진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BSEC은 지역 주민들의 번영 그리고 지역 개별 국가, 유럽 및 세계시장과 지역 경제의 통합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SEC이 과연 어떤 지역주의 시각의 제도적 표현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신지역주의의 시각에서 정리될 수 있다. 신지역주의의 특징을 짜르다니디스(Charalambos Tsardanidis)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58] 첫째, 신지역주의는 메가지역주의적 특성, 즉 국가들의 범위가 매우 크고 경제적인 조정도 포함한다. 둘째, 과거에는 지역주의에 우선권을 주고 지역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강국들이 지역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큰 국가 , 작은 국가를 모두 포함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와 선진국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호의존 전략을 채택함에 의해 세계화에 반응한다.[59]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BSEC, MERCOSUR 회원국과 NAFTA의 멕시코에 대한 동반협력조약(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이다. 넷째, EU로 대표되는 지역 모델이나,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관료적 구조와 제도에 벗어나 제도화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신지역주의는 다차원적 특징을 갖고 있어 경제지역주의와 정치지역주의의 구분선은 그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신지역주의는 냉전의 종식과 안보관심의 분권화 또는 지역화와 세계경제에서의 발전에 의해 양성되기 때문이다.[60] 여섯째, 지역주의 형성과정에 국가 뿐 아니고 많은 다른 유형의 기관, 비즈니스 엘리트, 조직, 단체 등이 참여한다.[61] 일곱째, 과거 지역 스킴과 달리 새로운 스킴의 특징은 회원의 중복성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EU, BSEC, SOUTH 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의 회원국이다. 이런 중복 회원을 갖는 일차적 동기는 다른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62] 여덟째, 다층적 지역간 관계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신지역주의의 맥

---

56) 1998년 아테네에 설립된 연구기관.

57) *Sergiu Celac and Panagiota Manoli(June 2006), "Towards a New Model of Comprehensive Regionalism in the Black Sea Area,"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6, No. 2, pp. 193–205.*

58) Charalambos Tsardanidis, "The BSEC: From New Regionalism to Inter-regionalism?,"Agora Without Frontiers Volume 10 (4) 2005: 362-391

59) C. Tsardanidis,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the Age of Globalisation", Andriatica, Vol.4/5. No.6/7, 1998, p. 33.

60) A. Hurrell,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1, 1996, p. 332.

61) B. Hettne, "Globalis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The Second Great Transformation" in B. Hettne, A. Inotal, 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Press, 1999, p. 7.

62) A.S. Bhalla- P. Bhalla (eds), Regional Blocs.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London:MacMillan Press, 1997, pp. 18-19.

락에서 지역간 지역주의(Inter-regionalism)은 보다 확산된 멤버십을 가진 느슨하고 비공식적이고 다층적인 배열의 서로 다른 형태를 띤다.[63] 지역과 지역간 행위자들은 그들 자체 조직체와 내외적인 조직체의 상호관계를 반영한다.

BSEC이 과연 이러한 신지역주의적 속성을 갖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 BSEC의 출현 동기가 무엇인가 둘째, BSEC을 움직여나가는 이익과 행위자는 누구인가 셋째, BSEC은 어떤 유형의 기구로 발전하고 있는가이다.

첫째, BSEC의 출현 동기가 무엇인가를 답하기 위해서는 신지역주의가 세계화와 양립가능한가라는 논란에서 출발해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신지역주의는 세계화의 핵심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헤트네(B. Hettne)는 지역주의와 세계화는 양립가능한 과정이며, 다. 두 과정 모두 세계의 구조적 변화의 동일한 큰 과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한다.[64] 반대자들은 두 과정을 구별한다. 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동질화의 도전으로서 세계화에 대한 사회 정치적 반응으로 신지역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 반응은 지역 국가들이 지구화의 나쁜 결과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65]

후자적 입장에 선다면 그 지역기구가 개방형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방형 지역주의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증대되는 경쟁에 대한 반응이고 세계화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첫 번째 대응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66] 이런 맥락에서 BSEC을 평가한다면 BSEC은 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외부지향적 수출정향적 접근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67] 즉 폐쇄적 지역주의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BSEC 이스탄불 선언에서 BSEC은 개방형 지역주의를 천명하였었다. 그러나 1997년 2월 7일 이스탄불 외무장관과 경제장관 특별 회의에서 "BSEC FTA 지대 창설 선언(The Declaration of Intentions on the Creation of a Zone of Free Trade of BSEC)"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BSEC에게 처음부터 FTA 확립은 어려웠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스는 EU정회원국인데 반해 여타 회원국은 EU와 Association Agrements를 체결해서 BSEC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SEC 회원국들은 FTA가능성의 철저한 검토 후에 2001년에 "BSEC 경제의제(BSEC Economic Agenda for the Future Towards a more Consolidated, Effective and Viable BSEC Partnership)"라는 상당히 협력수준이 낮은 입장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BSEC이 FTA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개무역체제 확립으로 목표를 옮긴 것이다.[68] BSEC 회원국들이 채택한 이런 종류의 접근은 국제 경쟁력, 더 나은 무역 성과,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좋은 거버넌스, 과학기술교육협력, 자유화와 구조조정을 촉

63) See J.A. Scholte,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cial Chang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pp. 69-70.

64) B. Hettne, "Globalis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The Second Great Transformation" in B. Hettne ‑A. Inotai ‑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op. cit,* p. 2.

65) T. Pelagidis ‑H. Papasotiriou, "Globalisation or Regionalism? States, Markets,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8, No.3, pp. 519‑35.

66) B. Hettne- A. Inotal- O. Sunkel, "The New Regionalism: A Prologue" in B. Hettne- A. Inotal- 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Press, 1999, p. xvii.

67) Y. Valinakis, "The Black Sea Reg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urope", *Chaillot Papers*. No.36, July 1999, p 18 and O. Genckaya,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A Regional Challenge to European Integr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XLIVI, 1993, pp. 459-550.

68) DOC: GA19/EC18/REP/02, The Nineteenth Plenary Session of the PABSEC General Assembly, Economic, Commercial,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Affairs Committee o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BSEC Region: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Rapporteur: Mrs. Marianna Assenova. 12-6-2002.

진한다. 요약하면 그것은 동적이고 행동지향적 목표를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역내 무역을 마음에 두지만 역외무역을 대가로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비정부부문의 개입과 민간부문을 강조한다.[69]

BSEC이 개방형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된 동기는 지정학적 배경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쿠토보이(E. Kutovoi)가 지적하듯이 BSEC은 3개 대륙의 교차로에 다자간 다차원적 협력의 새로운 지역구조로 출현했기 때문이다.[70] 개도국에게는 대부분의 BSEC국가들처럼 보다 경험있는 발전된 국가를 따라 하위지역 또는 지역협력 스킴에 참여하는 것은 보다 광범한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향한 단계이다. 이런 견해로부터 역내 지역기구에서 경험 공유와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호지지는 그들 발전에 보완적 요소를 더해주고 그들이 세계화의 경쟁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준다.[71] 따라서 BSEC은 회원국들을 개방형 지역주의의 명확한 예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통합의 시금석으로 생각되어야 한다.[72]

두 번째 주요 쟁점은 BSEC을 움직여 나가는 동인은 한 동인인가 또는 여러 동인(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보적)인가? 그리고 위(국가)로부터인가 아니면 밑(시민사회)으로부터 발전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지정학적 수준에서 흑해 지역주의는 더 넓은 유럽 지역 차원과 비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독특하게 중요하다. 그것은 알바니아, 몰도바, 남카브카즈 세 국가처럼 작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세 큰 유럽 행위자(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가 헤게모니 없는 상황에서 연관된다는 것이다.[73] 또한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잠재력과 지전략 이익에서 차이가 큰 12개 회원국을 BSEC이 통합한다.[74]

BSEC은 모든 참여국가로부터 의원, 정부당국, 기업계,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간여시킴에 의해 지역주의의 밑으로부터의 접근(bottom-up process)을 채택하고 있다.[75] PABSEC, BSEC-BC, 흑해대학, ICBSS 등이 그 예이다. 이 기관들은 모든 회원국가들에서 시민사회 확대를 강화한다. 따라서 BSEC의 회원구조와 활동에서 보듯이 BSEC은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역조직이다.[76]

셋째 쟁점은 BSEC이 추구하는 평화와 발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지역안보체는 전통적인 강대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지역안보 복합체(regional security

---

69) E. Ozer는 BSEC 모델의 세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1) BSEC은 회원국간 경제관계에서 다자주의를 도입한다. 2) BSEC은 회원국간 공동의 경제적 유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BSEC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갖는다. E. Ozer, "Concept and Prospects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Foreign Policy/*DisPolitika*, No.1-2, 1996, p.85-86.

70) E. Kutovoi,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BSEC/:Current Activities, Prospects for the Future", *Roman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 No.1, 1997, p.83.

71) Doc. GA19/LC19/REP/02, The Nineteenth Plenary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Legal and Political Affairs Committee Report, *Globalis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PABSEC Member Countries.*, Rapporteur: Mr. Victor Dallakyan, Member of the Legal and Political Affairs Committee (Armenia), 2002, p.3.

72) C. Tsardanidis, "New Regionalism and BSEC" in Dusko Lopandic (ed.), Regional Cooperation in South Eastern Europe. The effects of Regional Initiatives, Belgrade: European Movement in Serbia, 2002, pp. 97-100.

73) M. Emerson- M.Vahl, Europe's Black Sea Dimension-model European Regionalism, Pret-a-Porter. Paper presented at the Halki International Seminar, 31 August- 3 September 2001.p. 24.

74) O. Pavliuk,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Will Hopes Become Reality?" in A. Cottey (ed.), Subregional Cooperation in the New Europe. Building Security and Solidarity from the Barents to the Black Sea. London: MacMillan Press, 1999, p. 137.

75) E. Ozer,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U", Perceptions, Vol.1, No.3, September- November 1996, http//www.mfa.gv.tr/grupf.percept/13/13-6.htm.p.2

76) T. Aybak,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and Turkey: Extending European Integration to the East?" in T. Aybak (ed.), Politics of the Black Sea, London: J.B. Tauris, 2001, p.37.

complex) 시각에 기반한다.[77] 이를 신지역주의적 시각의 지역안보 공동체(regional security community)로 발전시키는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안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내의 분쟁에 대한 무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BSEC에서도 협력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치와 안보 관계이며, 이러한 지역적인 안정이나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놀리(P. Manoli)는 BSEC에서 안보증진의 큰 장애물은 역내 영토분쟁, 이질적 국가안보정책,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 결여라 지적한다. 특히, BSEC 국가들은 다른 정치적 안보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몇 몇 약소국은 이웃의 강대국(러시아, 터키)가 지배하는 것에 공포감을 갖고 있고, BSEC과 다른 기구들과의 안보, 정치에 대한 내부적인 연결과 실천 체제가 부족하다.[78] 안보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BSEC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지역 안보체를 만들지 못했고 BSEC은 지역안보 복합체에 더 가깝다.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가 국경 방위와 분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많은 경우 지역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79]

경제협력의 측면에서도 BSEC은 지난 수년 동안 금융, 에너지, 환경, 무역, 운송 등 그 우선순위가 급변 재조정되었다. 또한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저소득, 통신 등 많은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BSEC의 지역 협력은 보호정책이나 우대정책이 아닌 시장 개방 같은 개방적 지역주의이다.[80] 많은 사람들이 BSEC이 EU와 같은 단일시장과 통합을 이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고, 그러한 과정 중이다.[81]

흑해지역은 과거에 유럽역사 형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잠재적 갈등의 원천이자 문화적 풍부함의 원천이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냉전 시기 동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냉전 종식후 범흑해 지역이 주목받게 된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 지역 특성 때문이다.[82]

첫째,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흑해 지역이 수세기 동안 갈등과 대결의 장소였던 것은 당연하였지만 냉전기간 동안에는 동서 경쟁의 단층선이 되었다. 소련과 미국의 존재는 이 지역이 40년이상 긴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지역을 안정 상태를 지속케 하였다. 그러나 소연방의 와해로 냉전 때문에 억눌렸던 이 지역 긴장이 분출되었다. 국경 분쟁, 소수민족 문제, 경제적 궁핍, 권위주의 체제와 부패 문제는 이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라시아 전체에 그리고 유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고대 이래 이 지역은 항상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다. 이 지역은 비잔틴, 오토만,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외부세계에 차단되었다. 냉전기간 동안 터키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은 소연방과 그 위성국가들로 차단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이후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

77) D. Lake ‐P. Morgan,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State Colleg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p.11.

78) P. Manoli, “The role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in the Stability of the Region”, https://da.mod.uk/CSRC/Home/documents/pdfs/P39-pm.pdf, p.3-4.

79) P. Roeder, “From Hierarchy to Hegemony: The Post-Soviet Security Complex” in D. Lake ‐P. Morgan,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State Colleg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pp. 219-244.

80) S. Sayan, “The Contribu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Organis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South-East Review, No.2, 2002, p.32.

81) M. Aydin, “Europe’s Next Shores: The Black Sea Region after EU Enlargement”, Challiot Papers, No.53, June 2004, p. 20.

82) Mustafa Aydin(May 2005), “Europe’s New Region: The Black Sea in the Wider Europe Neighbourhood,”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5, No. 2, pp. 257-283.

이 지역에서 진정으로 다원주의적인 국제적 실체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경계의 고유한 허약성을 국제적인 집단안보기구로 보완할 수 있는 지역조직의 등장과 함께, 이것은 지역에서 미래의 협력과 안정에 관한 희망을 불러 일으킨다.

보다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지역화는 지역과 세계수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도구가 된다. 지역수준의 그룹화는 그 지역화된 신뢰형성 방도들과 함께, 지역 및 세계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조직범죄, 테러, 불법적인 마약과 무기밀매와 같은, 현재적 문제에 대한 집단적 행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정학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임을 강조함으로써 지역화는 다자적, 초국가적, 협력적 망을 만들어내어 새로운 분할선이 생겨나는 것에 반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된다. 더욱이, 사회, 문화 주제들은 물론 정치, 경제, 환경 분야의 비군사적 안보이슈들을 다룸으로써 지역기구들은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게 되고 어느 정도는 공유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구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회원국들은 비강압적 태도를 발전시키게 되고 '비평화적인 수단에 의거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줄이게 된다.' 국가, 국가하위단위,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일련의 이슈들에 관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듦으로서 그 조직들은 지역안보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것들은 지역에서 지역제한적인 신뢰형성 수단들을 쉽게 만들고 경량의 안보이슈를 빠르게 방어한다. 요약하면, 그것들은 대화, 인적 접촉 그리고 상호적 이해를 강화함으로써만 안보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역기구는 조직은 또한 EU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기구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합을 위한 더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이들 조직의 일정한 규준과 기준을 미리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더 조직에 가입할 그 회원국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EU은 냉전의 종식이래 지역의 협력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이웃들을 강하게 추동해왔다. 그래서 EU의 추동과 함께 다양한 발틱해와 바렌트해의 기구들이 Northern Dimension하에 그룹으로 만들어졌고 지중해 나라들은 Barcelona Process에 모였으며 Stability Pact for Southeast Europe에는 발칸 국가들이 결속했다. 이 그림에서는 흑해주변 지역이 빠졌으며 그래서, 그 지역의 나라들은 냉전의 종식 이래 모든 종류의 다자간 지역협력 구도를 만드느라 바빴다.

성공적인 지역형성 및 평화와 안정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흑해를 EU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비단 에너지 분야(석유와 가스)만이 아니라 하부구조(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전기배선망 연계 등)의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유럽, 중동,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간의 연계와 상호작용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에는 분명한 정치적 차원이 있는데, 대안적인 지역 하부구조의 발전이 특히 새로운 독립한 나라들의 독자성을 강화시키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들의 자율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지역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유럽의 도움과 비용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갈등방지 및 위기관리 기제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나쁜 사례의 시나리오가 흑해지역으로부터 확산되는 무장갈등(특히 코카서스 지역으로부터)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역 통신과 협력을 교란하고 더 큰 불안정성과 도피를 산출하며 점차 고질적인 갈등으로 결국에는 EU 회원국들을 에워싸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리적 위치, 경제적 능력, 정치체제와 문화적 성향의 다양성이 성공적인 지역형성 및 그러한 기제의 창출에 걸림돌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이들이 국가들간의 균열 대신에 상호 보완되도록 이용될 수 있다면 일견 허약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쉽게 강함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 EU의 경험은 막대한 가치를 지니며 지역의 나라들이 차이들에 기반한 상호적 불신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흑해지역주의의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EU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이어 소위 지역간 지역주의(inter-regionalism)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간 지역주의는 둘 이상의 관계나 보다 느슨한 체제의 지역협력체제를 선호하기도 하고, 두 개의 분리되어 있는 지역사이의 연계와 상호작용 형성을 선호한다.[83]

H. Hanggi는 지역간 지역주의를 세가지 형태로 나눈다. 첫째는 지역그룹간 관계(예: EU-ASEAN) 둘째는 2지역과 범지역 구조(예: ASEM-APEC) 셋째는 지역그룹과 한 국가와 관계(예: EU-Russia, ASEAN−Australia).[84]이다. BSEC는 '유라시아의 가교'로서 중부, 동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을 목표로 한다. BSEC은 다른 지역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간 지역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즉, Adriatic-Ionian Initiative (AII), Danube Cooperation Process (DCP), Southeast European Cooperative Initiative (SECI), South 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 (SEECP), Council of Baltic Sea States and 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Central European Initiative (CEI), Stability Pact for South Eastern Europe (SP) 등은 좋은 예이다.[85]

EU-BSEC의 새로운 우호 협력 관계는 1999년 4월 마련된 "신 EU-BSEC 협력 정강(New EU-BSEC Platform for Co-operation)",에서 EU와의 긴밀한 협력과 경제적 통합 공간 형성천명으로 더욱 강화되고[86] 그 후의 "21세기의 새로운 BSEC(A New BSEC in the XXI Century- New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역시 유럽 연합과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BSEC과 EU의 협력 강화와 발전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BSEC 옵져버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집트, 투니지가 업저버 국가들이 되었으며, 업저버 국가들과 다른 정회원을 기다리는 국가들과 함께 BSEC 경제 협의회와 국제 흑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87]

EU와의 공식적 협력 채널은 BSEC외무장관회의와 PABSEC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2003년 4월 18일 예레반에서 열린 BSEC회의에서 그리스의 외무장관은 North Dimension의 경험을 BSEC-EU관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88] 2003년 6월 BSEC 정상회담 이후 BSEC 외무장관회의는 BSEC과 EU의 상호의존을 강조하였다.[89] PABSEC도 회원국들의 공동적인 협력과

---

83) C. Tsardanidis, "From New Regionalism to Interregionalism" in A. Kontis- C. Tsardanidis, (ed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ory, Structure and Challenges of the World Economy, Athens: Papazisss Publications, 2005, pp.91-114 (in Greek) and H. Hanggi- R.Roloff- J. Ruland, (eds), Region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05.

84) H. Hanggi, Interregionalism: Empi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Paper prepared for the workshop Dollars, Democracy and Trade: External Influence o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Los Angeles, CA, May 18, 2000,The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Los Angeles- The Center for Applied Policy Research, Munich. p.3.

85) O. Pavliuk,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Will Hopes Become Reality?" in A. Cottey (ed.), Sub-regional Cooperation in the New Europe. Building Security and Solidarity from the Barents to the Black Sea, op.cit, pp. 146-147.

86) T. Aybak,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and Turkey: Extending European Integration to the East?" in T. Aybak (ed.), Politics of the Black Sea, op.cit., p. 55.

87) E. Kutovoi paper on Prospect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BSEC in the Conference, BSEC in the 21st Century: New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Halki Island, 8-12 September 1999,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Black Sea Studies and the Hellenic Foundation for European and Foreign Policy (ELIAMEP), p. 3.

88) Report of the Eight Meeting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the BSEC Sates, 18-4-2003, Annex V to BS/FM/R(2003),p.3 and M. Theophanis, European Union and the Black Sea Area, Athens: Gordios, 2004, p. 335.

89) Speech of Acting Secretary General of PERMIS at the 11th Meeting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Tbilisi 29 October 2004), http://www.bsec.gov.tr/ministeral_.htm

BSEC과 EU간의 관계 조직화를 요구하였다.[90]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BSEC 과 EU간의 긴밀한 관계 복원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와 BSEC의 관계는 기대만큼 발전은 못하고 있다. EU와 BSEC 관계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EU는 아직은 '유럽-지중해 파트너 관계', '북쪽 지역'에 우선적인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91] BSEC-EU의 지역간의 협력이 미흡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흑해 국가들의 EU정책 관계에서의 중첩성이 통일된 입장을 방해한다.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EU의 정회원이면서 발칸의 협력과 안정화 정책에 기반하여 정책을 입안한다. 터키는 EU 가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EU와의 독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유럽위원회에 이미 다양한 지역 기구가 가입되어 있다. 예를 들면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Council of the Baltic States, Council of Barents / Euro-Arctic Region 등이다. 셋째, 흑해 국가들은 이미 다른 지역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는 동구이고, 구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은 남카브카즈, 러시아는 CIS 등의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EU와는 양자관계를 더 선호한다. 넷째, BSEC의 국가들에게 아직 명확한 실행기구가 결여되있고 구체적인 통합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다. 다섯째, BSEC은 이미 거대한 지역 기구화되어 EU가 흡수하기 어렵다.

IV. 결론

BSEC은 기존의 지역 보호적인 정책 다르게, 개방형 지역주의 입장을 취하고 과거 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외부지향'의 지역기구이다. 또한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불법이민과 범죄조직, 마약, 테러리즘 등 '연성'안보문제를 포함한다. 그리고 흑해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바란다. BSEC이 비록 top-down에서 주도 되었으나, bottom- up 방식이 토대가 되고 있고, 경제적 영역에서 초국가적인 요소로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BSEC은 국가들 사이에 안보문제를 논의하지만 안보기구로는 지향하지 않는다.

BSEC은 어쩌면 개별국가와의 쌍무적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EU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도 모른다. EU와의 관계에서 보면 EU와의 관계는 강화되고 범 유럽주의가 될 것이다. EU에 있어서 흑해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흑해지역의 1억9천만의 인구는 EU의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이 지역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사이의 중요한 무역 연결 통로가 되며, BSEC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EU와의 교역을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 흑해지역은 유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 연결 통로(특히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가 되며, BSEC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EU는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위한 연결이 가능하다. 셋째, BSEC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카브카즈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이다. 넷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함으로써 EU는 흑해의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

90) Recommendation 77/2004 on Framework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uropean Parliament. The Twenty-third Plenary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oc: GA23/LC23/REC76/04.

9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Wider Europe- Neighbourhood: A New Framework for Relations with our Eastern and Southern Neighbours", COM(2003) 104 final, Brussels, 11.3.2003, p.5.

EU 후원의 많은 기획들에도 불구하고, 흑해지역에서 유럽과의 관계는 주로 TACIS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개 에너지 영역에 국한되었고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차원이 부족했다. 더욱이, 흑해는 작은 나라들만이 아니라 유럽의 큰 세개의 행위자(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전적 네번째로서 EU의 도달은 성공적인 지역형성, 안정 및 통합에 유리한 '아주 균형되고 비패권적인 [지정학적]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EU이 확장의 제6라운드를 소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또한 적절히 구조화된 지역정책을 개발할 필요성과 자신의 모든 해변에 존재해야 할 필연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EU이 확장의 제7라운드에 가까워지게 되면 흑해 이슈는 EU의 의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으로서 흑해에 관해 지금 사고를 시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EU의 유럽에 범흑해지역을 점차 통합시키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및 안보적 이유에서 중요한 성취일 것이고 BSEC은 그 지역적 전망으로 EU을 보완함으로써 범유럽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흑해 나라들에게도 역시 조직은 더 큰 유럽과의 통합을 위한 준비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짧게 말하면,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는 흑해는 범유라시아 공간에서 유럽이라는 총체적인 건축물의 주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정체성 형성의 특성*

강봉구(한양대학교)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정체성 논의는 어떤 배경에서 제기되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련의 붕괴 이후 소련이라는 기존 국가의 국가정체성이 해체·분열되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1] 우즈베키스탄 국가형성의 과정은 국가 및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민족 정책, 언어 및 문화정책, 종교 정책, 사회 조직화 정책 등은 모두 새로운 우즈벡 국가정체성 형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던 것이다.[2]

국가건설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대부분의 탈소 신생 독립국가들이 마주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명료하게 구분되고 경계지워진 '민족'과의 연관성 혹은 '민족정체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우즈벡 정부는 자신의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립광장(Independence Square)'을 국가적 자부심의 징표로 삼고, 러시아혁명 지도자들의 동상을 철거하고 티무르(Timur Lenk)와 같은 지역의 역사적 영웅들의 동상을 높이 세웠다. 거리 이름들은 우즈벡어에 맞추어 모두 개칭하였다.[3] 새로운 '역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민족사를 장식한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강의와 강연을 개최하고 울룩-벡(Ulug-bek)이나 티무르의 역사적 중요성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조직하기도 하였다.[4] 또 대통령 칙령을 통해 '마할라 재단(the Mahalla Foundation)'을 창설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마할라화(the mahallization)'를 진작하도록 하였다. 마할라는 전통적으로 도시적 삶에 기반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시골의 촌락에까지 이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생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정체성을 형성·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들을 반영한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정체성 형성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국가정체성은 민족, 언어·문화, 종교, 사회조직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다면적·다중적·다수준의 과정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우즈벡 종족·민족 정체성 형성의 특성 그리고 우즈벡 사회조직화 방식으로서의 마할라 제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우즈베키스탄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신생국의 초기 정치과정을 '정체성의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ies)'[5]라는 관점에서 잘 드

---

*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님으로 인용을 불허합니다.

1) 그러므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이념이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 한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가의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구명하는 사실적 차원의 연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연구 목적상 타당"하다. 양승태,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체성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5호(2006년 겨울), p.75.

2) 일례로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의 언어 및 문화 정책은, 탈러시아화(de-russification), 우즈벡 국가정체성의 형성, 서구화 등 세 가지 핵심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의 핵심은 국가정체성 형성이다. Cay Dollerup(1998), p.144.

3) Cay Dollerup, "Language and Culture in Transition in Uzbekistan," in Touraj Atabaki and John O'Kane eds. *Post-Soviet Central Asia* (London: Tauris Academic Studies, 1998), pp.145-46.

4) Victoria Koroteyeva and Ekaterina Makarova, "The Assertion of Uzbek National Identity: Nativization or State-Building Process?" in Atabaki and O'Kane(1998), p.141.

5) 많은 논자들이 탈소 신생국들의 정치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성을 '정체성의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ies)'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민족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현상과 정치과정

러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 정체성·국가정체성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법

이 글에서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는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s)과 접근방법을 견지한다.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특정 지역 혹은 개별 국가들의 정체성을 문화적·종교적 유사성과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하나의 고정된 불변의 실재로서 인식하였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 본질주의적·원초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적 입장은 실재론자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주체의 정체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구성주의는 주체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는 외부적으로 혹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 변화한다고 본다. 정체성 형성이란 개별 주체들의 지속적인 '자기 규정(self-definition)'의 과정인 동시에 '타자 규정(definition of the Other)'의 과정[6]이며, 이해관계는 정체성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가에 연결되어 있다.[7]

그리고 주체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구성물들 역시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들간의 간주관적 소통행위를 통해 변화되고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파악한다. 주체의 정체성이 항상 변화와 재구성의 과정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특정 주체의 정체성이 다양하고 분열적이며 중첩적이고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CIS 지역 및 국가들의 정체성에 대해 구성주의는 동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이해한다. 외부적으로는 타지역과 CIS 지역간, 내부적으로는 개별 국가들간, 국가 내부 주체들간의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주체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그 한 부분인 사회적·문화적 구성물들 역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면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실재론적 입장, 본질주의적·원초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란, "한 개체를 공간과 시간의 변화 및 구성 요소의 변화를 포함하여 외적 형태의 변화 속에서도 '동일한' 존재로 유지시키는 고정 불변의 어떤 것에 대한 탐구"[8]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개별적·집단적으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 속에 배태되어 있으며, 개인들과 집단들이 자신의 존재, 자아, 역할 등에 대해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속에 함축되어 있다 …… 정체성이란 실제적인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특정 경제, 정체 및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의식 혹은 집단의식의 잠정적인 안정화로, 끊임없이 변전하는 세계속에서 어떤 — 종결이 없는 — 견고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으로 간주된다."[9]

전반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 참조, Ronald Grigor Suny,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24-3(Winter, 1999-2000); Graham Smith, Vivien Law, Andrew Wilson, Annette Bohr and Edward Allworth, *Nation-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6) Suny(1999/2000), p.147.

7) Suny(1999/2000), p.139.

8) 양승태(2006), p.71.

9) Suny(1999/2000), p.144.

실재론적 입장은 정체성에 대해 주민들이 공유하는 동질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고유성을 상정한다면,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바람직한 완전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잠정적인 안정성의 원천을 창조하기 위해 구성되거나 상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룰 국가정체성의 핵심 구성부분으로서 민족정체성이란 것도 고래로부터 형성되어 온 자연스런 것이거나 몰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가, 사회운동 지도자, 지식인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훈육되고 주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족이라는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와의 동일시를 가시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정서적·지적 헌신의 원천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정체성이란 특정 민족이 고유하게 공유·담지하고 있는 불변의 속성이 아니라, 개인적·집단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변환되고 재구성되는 정치적 정체성의 특별한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국가정체성, 그리고 대부분의 근대 민족국가의 경우 국가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민족정체성은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종속변수이며, 인과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III. 국가정체성의 포괄적·수용적 특성

대부분의 근대 국가들이 민족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국가'라는 점에서 민족 혹은 민족정체성은 국가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 민족이란, 그들에게 자치의 권리를 부여하는, 타자들과 구분되는, 속성들(아마도 기원, 가치, 역사적 경험, 언어, 영토, 혹은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공동체이다.[10]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은 고정된 본질적 속성을 가진 것도 아니며,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민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서사(narration)'이며,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미래에도 재구성될 수 있는 서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집단이 민족정체성에 토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경계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상호 구분하는 경계짓기가 필수적이며, 국가는 정책으로서 이를 수행한다. 우즈벡 민족은 러시아혁명 전에는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갖지 못했다. 우즈벡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고 이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던 다양한 부족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즈벡 민족은 씨족이나 부족 단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종족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11] 그리고 소련 시기 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으로서의 우즈베키스탄도 사실상 독립된 국가단위로서의 권리와 자치를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 해체 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사는 국가건설사이며, 현재의 영토 내에서 진행된 민족형성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즈벡의 국가건설 혹은 민족형성은 언어나 문화 등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아래로부터 진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국가가 주도하는 기획으로 이루어져 나왔다.

독립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즈벡 국가정체성의 특징은 먼저 그 포괄적·수용적 성격에 있다. 포괄적·수용적 국가정체성이 이루어진 원인을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0) Suny(1999/2000), p.145.

11)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2호(국제지역학회, 2007), p.764.

1. 개방적인 종족적・민족적 정체성

우즈벡의 민족정체성은 소비에트 시절 인위적으로 우즈벡 민족[12]이 된 상이한 종족들을 대표하여 광의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벡 민족정체성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족에 속하는가 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은 공화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자는 우즈벡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장려되었다.

사마르칸트 거주 타직인들의 민족정체성 규정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 아시아계 종족들의 동화 및 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소련 시대에 사마르칸트는 공식적으로 우즈벡의 도시였지만, 주민들의 대다수는 타직인들이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모두 우즈벡인들이지만 종족적 귀속과 영토적 귀속이라는 점에서 그들 사이에 중대한 구분이 있었다. 타직인과 우즈벡인이라는 두 공동체를 나누는 종족적 경계를 만든 것은 페르시아 전통과 투르크 전통으로부터 기원한 상위 문화의 상이성이 아니었다. 양측은 모두 음식, 의복, 의례 및 신념 등 일상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공유 문화의 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유용한 것은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였다.

자신을 우즈벡인으로 주민 등록한 타직인들은 아무런 모순 인식도 없이 때로는 자신을 우즈벡인이라고 규정하고 때로는 타직인이라고 동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유사한 환경의 타직인들은 자신이 타지키스탄에 살았다면, 그는 타직인일 것이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는 우즈벡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종족으로서 자신은 타직인이지만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영토적으로 (우즈벡인이라고) 인식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13]

이러한 종족・민족 정체성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달리 말하면, 종족・민족 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상징조작과 역사 만들기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창출하려했던 시도는 제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즈벡 주민들의 약한 종족・민족 정체성이다. 우즈벡 정부는 1992년 이래로 키르기스스탄 거주 우즈벡인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96%가 이주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다수 종족들의 동거와 협력은 유인 노력이나 강제적 방법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역사적・경제적・사회적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4]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가가 형성을 주도하는 종족적・민족적 정체성 의식이 미약한 편임을 드러내고 있다. 우즈벡의 도시지역들에서 우즈벡인과 타직인들은 하나의 문화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레즘(Khorezm) 스텝 지역에서 온 우즈벡인과 페르가나 계곡(Ferghana Valley)에서

---

12) 1924년 소비에트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설립 이후 주민들의 정체성이 극적으로 변화된다. 정착민을 의미하는 '사르트(Sarts)'는 없어지고, 투르크어를 말하는 사르트는 우즈벡인이 되고,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르트는 타직인이 되었다. '라카이스(Lakays)', '카르룩스(Karluks)', '키프착스(Kipchaks)' '차가타이스(Chaghatays)' 등 소수 투르크 그룹들과 투르크 그 자체의 이름은 모두 사라지고 우즈벡인으로 통합되었다. 반면에 '카자흐(Kazakh)', '투르코멘(Turkomen)', '카라칼팍(Karakalpak)' 등 종족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Suny(1999/2000), p.169.

13) Koroteyeva and Makarova(1998), pp.142-43.

14) Collins(2003), p.180.

온 우즈벡인들 간에는 커다란 문화적·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 종족적·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우즈벡 국경 내부의 지리와 지역의 차이에 따라 이질성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응집력 있는 종족적·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탈소 지역의 발틱 국가들,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즈벡인들의 약한 종족적·민족적 정체성 의식은 놀랄 정도이다. 아직까지는 '우즈벡'이다 '키르키스'다 하는 명칭은 종족적·민족적 정체성의 국제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정치 엘리트들이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종족적·민족적 정체성 의식의 개방성은 포괄적·수용적인 언어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16] 우즈벡 정부는 민족문화 창달에 공을 들였지만, 지나친 국수주의적 경도를 경계하고 억지하였다. 이것은 우즈벡의 경제와 산업의 작동에 반드시 필요한 숙련된 러시아인 전문 기술인들이 우즈벡을 떠나 이주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동부의 페르가나 계곡의 방언에 토대를 둔 우즈벡 공식 문어(the official Uzbek literary language)를 모든 우즈벡인들, 러시아인, 타직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투르크계통의 언어들이 거의 불편함 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17] 중앙아시아에서 언어들은 민족들과 쉽게 일 대 일로 연결되지 않는다. 동 지역의 다양한 투르크 언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어들은 터어키의 투르크어와 많이 달라서 언어를 통해 이들 간에 어떤 친숙성과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타직인들처럼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이란과의 연계 역시 아주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2. 약한 이슬람 정체성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정체성은 통상 유추되던 바와는 달리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도 두드러지지 않았다.[18] 탈소 국가 형성의 공간에서 이슬람적 통일성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슬람에 기초한 초민족적 문명 정체성은 종족적·민족적 정체성보다도 훨씬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 이후 우즈벡 정부는 이슬람이 하나의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서 사회운동에 동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우려와는 달리 199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즈벡인들이 자신을 이슬람과 동일시하는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슬람의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슬람이 씨족 정체성을 토대로 혹은 그 범주 내에서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중앙아시아에서 뿌리내려온 이슬람의 분파적 특성과 무슬림의 정체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이슬람의 정치적 제한성은 공동체에 대한 이슬람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첫

---

15) Collins(2003), p.180.

16) Якоб М. Ландау и Барбара Келльнер-Хай нкеле, (перевод) Светлана М. Червонная,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в мусульман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 бывших советск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ах (Москва: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2004), с.130-34.

17) Suny(1999/2000), p.171.

18) 종교정체성, 종족 정체성 등의 국가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그림 참조, Alexander Agadjanian, "Revising Pandora's Gift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Soviet Societal Fabric," *Europe-Asia Studies*, Vol. 53, No.3 (2001), p.477, p.479.

째, 소비에트 이전부터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공동체 구조에 종속적이며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 마할라 혹은 '키쉬로크(qishloq)' 위원회가 통상 도믈라와 이맘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오크소콜스(oqsoqols)'와 '엘-바쉬 코미테티(el-bashi komiteti)'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 교사의 권위는 아주 국소적인 것이다. 마드라사에서 종교 교육을 받고 훈련되었다고 하나, 종교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특정 지방의 씨족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촌락 주민들의 96%가 넘는 비율이 타 지역으로부터의 종교적 권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데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역시 씨족 내에서 씨족에 종속되는 형태로 비공식적 제도화 상태에 머물러 있다.[19] 이슬람 정체성이 씨족 정체성을 토대로 또 그 범주에서 움직이는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특성은 "중앙아시아에서는 단 하나의 이슬람 국가도 없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다. 이슬람과 국가는, 심지어 소비에트 시기 이전부터, 언제나 분리되어 있었다"는 데 있다. 이슬람과 정치의 분리의 결과, 94%에 달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이슬람 국가를 목표로 하는 급진 이슬람이 아니라 보수적 이슬람 질서를 옹호하고 있다. 거의 100%의 주민들이 보수적 이슬람 규범들을 시행하기를 원하지만, 국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촌락 수준에서 그렇게 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에 주민들의 냉담은 응답자의 거의 100%가 지하드에 대한 동참 요구에 냉소하고 있으며, 이슬람이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20]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정체성이 약한 이유는 중앙아시아에서 뿌리내려온 이슬람의 분파적 특성과 무슬림의 정체성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의 의미는 협의의 종교적인 것에 아니라 더 포괄적인 문화적 정체성이며 공간적 정체성이다. 무슬림이라는 것은 관례와 의례를 충실히 준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러시아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은 모든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과의 동일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중앙아시아인이라는 자각에 더 가까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자의식 속에는 그들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라는 인식 그리고 중아아시아 무슬림 사이의 차이점과 기본적인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양면적 인식이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슬림' 정체성은 광의로 이해되어야 하며, 애매하고 느슨하게 형성된 정체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서방의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종교적인 정체성인 것이다.[21]

정리하면, 이슬람이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의 사회경제, 문화, 역사의 뗄 수 없는 한 부분이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 정치적 능력과 힘은 약하다. 이슬람은 우즈벡 사회에 확산되어 있으며 모든 삶과 사회의 부문에 침투되어 있지만 응집적인 정치적 통합성과 정체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은 한 사회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거나 균열시키는 강력한 정체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3. 소비에트 정체성의 공유

중앙아시아에는 지역적 종교적 정체성외에 다른 초민족적 정체성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소비에트 정체성이다. 중앙아시아의 주민들을 다른 무슬림들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은

19) Collins(2003), p.181.
20) Collins(2003), p.183.
21) Suny(1999/2000), pp.166-67.

소련 시절에 형성된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은 그들의 여권에서, 그리고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소련 시절에 형성된 공화국들에서 가정 먼저 나타나 있다.[22]

우즈베키스탄의 주민들은 과거 소련의 주민이 아니었던 외국인들이나 세력들보다 탈소 주민들에 대해 더 우호적이며 친근감을 나타낸다. 다른 지역의 무슬림보다 무슬림이 아닌 구소련 주민들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구소련의 변방을 이루었던 우즈벡 주민들이 과거 지배적 세력이었던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23] 이러한 공유된 의식을 소비에트 정체성 외의 다른 것으로 개념화하기 어렵다.

소비에트 정체성은 정치체제나 이념적·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소련과의 동일시를 의미하기보다는 코스모폴리탄적 러시아·소비에트 문화와 공유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일반화된 소비에트 정체성에 대한 통상적인 논조는 그것이 소련 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과되고 진흥된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정체성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방구성공화국들의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이것이 소련의 붕괴로까지 귀결되자, 소비에트 정체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깨비 같은 것으로 치부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체성은 실체없는 허깨비가 아니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소비에트 문화와 사고를 다량으로 흡수하였으며, 소비에트 말기에 소련 전역에서 대중적으로 분출되었던 민족주의적 혹은 분리주의적 운동에 비참여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24]

중앙아시아의 소비에트 정체성이란 것은 동 지역에서 근대화 기획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산업화, 일정 정도 러시아 문화의 수용, 동일한 교육제도 시행, 공무원 및 군 복무를 비롯한 국가 기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소련 말기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인 살아있는 중앙아시아 문화를 소비에트 문화의 많은 요소들로부터 단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앙아시아인들이, 여러 양면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회화되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소련의 바깥에서 살아 온, 완전히 상이한 정치·사회적 경험을 가진 무슬림들보다는, 무슬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동일 공간과 제도 속에서 함께 살아 온 러시아인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 방식으로 더 가깝고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다.[25]

우즈벡인들이 구소련 지역의 무슬림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아닌 구소련 주민들과도 공유하는 의미와 친숙함, 소비에트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내 및 중앙아시아의 독립 공화국들에 거주하는 다른 무슬림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종족·민족 정체성이 나타나고 이것이 포괄적·수용적인 국가정체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4. 강력한 '씨족 정체성(clan identity)'

상술한 바처럼 현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종족과 종교가 강력한 정체성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즈벡 혹은 타직이라는 종족 정체성과 이슬람 정체성이 정치사회적·경제적 분리와 갈등의 구분선 역할을 하지 못했다. 소련 붕괴와 연방구성공화국들의 독립 이후 통

22) Suny(1999/2000), p.166.
23) Suny(1999/2000), p.165.
24) Suny(1999/2000), p.167.
25) Suny(1999/2000), p.168.

례적인 가정과는 달리 종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에 기인한 갈등과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판단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종족 정체성이나 종교 정체성보다 더 강한 정치사회적·경제적 동원력과 영향력을 가진 것이 '씨족 정체성(clan identity)'이다. 씨족은 "비공식적 사회조직으로서 친족관계 혹은 허구의 친족관계가 집단 성원들의 유대감을 일체화하는 핵심이 된다. 씨족은 수평적·수직적 친족관계의 광역망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의 네트워크이다. 씨족은 친족기반의 규범과 신뢰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26] 씨족 정체성은 "친족적 유대에 기초한 비공식적 정체성이며 준근대 사회에서 공통된 것이다. 그러한 사회들에서 씨족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배태된 정체성들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종족적·종교적 정체성들보다 더 강하다."[27]

우즈베키스탄에서 씨족은 사회정치적·경제적·일상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씨족 공동체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준근대 사회나 불안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이행기 사회에서는 공식적 시장 제도 및 국가 관료제의 대안 역할을 수행한다.

우즈벡 사람들은 흔히 '씨족(clan, *klan*)'을 마피아의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씨족을 지칭할 때는 *rod*, *urug*, 혹은 *avlod* 등을 사용한다. 우즈벡인들은 거주민들이 혈연이나 허구적 친족관계로 연결된 자신의 마을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로 연결된 몇 몇 이웃 마을들도 자신의 씨족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28]

과거 소비에트 체제가 씨족들의 사회적 구조를 동일화하는 효과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목 씨족들을 정착시키고 농업을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역시 친족과 씨족 마을들을 유지하고 육성하였으며, 씨족들의 토지 혹은 장소와의 밀착성을 증대하였다. 부하라와 사마르칸드에서 씨족들은 인종적으로 혼합되어 있었다. 씨족들간의 차이점은 종족과 종교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리적 위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었다.[29]

우즈베키스탄에서 씨족의 장소 및 토지 고착성은 낮은 이주율에서 잘 드러난다. 소련 시절에 있었던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 제한이 완화되었으나 시골 주민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살아 온 토지와 지방의 정체성 네트워크에 고착되어 있으며, 경제적 유인이 있음에도 거의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상황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우즈벡인 응답자들의 98%가 국경을 넘어 우즈벡으로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인들도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1997년에 우즈벡 시골 인구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외부로의 이주율은 1%가 되지 않았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운 타직키스탄에서조차도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89%가 고향 지역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30]

그리고 응답자들은 대부분 친족적 일체성과 충성심, 다자녀, 연장자에 대한 존경, 빈곤한 친족들의 보호, 생활과 노동의 공동체적 구조 등을 포함한 씨족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씨족 단위의 중심성과 삶의 공동체적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다. 더구나 통상 특정 지방의 '도믈라(domla, 종교 교사)' 혹은 '이맘(imom, 종교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지방 씨족 수장들의 위원회는 일상생활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실제적 기능을 떠맡는다. 더 나아가 씨족위원회는 국가 사법기관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우즈벡인들은 형식적

26) Collins(2003), pp.173-74.
27) Collins(2003), p.171.
28) Collins(2003), pp.175-76.
29) Collins(2003), p.176.
30) Collins(2003), p.177.

인 법적 메커니즘과 사법적 절차들에 대해 뿌리 깊은 혐오심을 갖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국가사법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대국가들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국가 혹은 지역 행정 제도들이 수행하는 것이다.[31]

이렇게 우즈벡인들은 친족기반의 신뢰, 지방 씨족 네트워크의 전통적 규범과 실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소련 시기에 씨족이 출세와 보호의 수단으로서 음성적으로 기능하였다면, 오늘날 씨족은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에서 재생의 힘을 제공하는 정체성과 생존의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즈벡인들의 씨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강력한 씨족 정체성은 초씨족적인 광범위의 이슬람 정체성이나 종족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쏠림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설명한 개방적인 종족적・민족적 정체성, 약한 이슬람 정체성, 소비에트 정체성의 공유, 강력한 씨족 정체성 등이 결합되어 다종족과 다문화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포괄적・수용적 특성을 가진 우즈벡 국가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공동체와 국가의 우즈벡화: '마할라(mahalla)' 제도

신생 우즈벡 국가의 정체성 모색 과정에서 과거의 전통을 되살리고 더욱 강화하여 신생 국가 건설 과정에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마할라(mahalla)' 제도이다. 마할라 제도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우즈벡 정체성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으며 새로운 사회 조직화 방식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건설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마할라 제도가 다시 복원되고 이용되는 방식에서 우즈벡 국가정체성 형성의 또 다른 특성이 잘 드러난다.

1. 전통적인 마할라의 기능

'마할라(mahalla)'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주민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인데 타직크인들은 이를 '구자르(guzar)'라고 부른다. 주민공동체로서 마할라는 여러 회교 국가들이 공유하는 오래된 유습이며, 생활 단위로서 소련 시대에조차 매우 번성하였다. 마할라는 일상생활에서 한 개인의 사회 관계의 거의 전 영역을 결정한다.

마할라는 성원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그들을 상호 책임의 관계망 속에 포함하는 사실상의 사회집단이다. 마할라의 성원들은 결혼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용역의 상호 교환과 같은 물질생활에도 함께 관여한다. 성원들은 이웃의 개인적인 도움도 받지만, 전체적으로 마할라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할라는 성원들이 필요로 할 때 집기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과 생활 용기들을 제공하며, 모임이 있을 때는 차실(茶室: chaikhona)을 제공하여 성원들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마할라가 성원들에게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에 성원들은 마할라에 충실하고 충성해야 한다. 성원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용역과 기술을 마할라에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마할라의 공동생활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다른 성원들의 지원과 지지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마할라 제도는 전형적인 이슬람 구역 공동체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32]

이러한 마할라 제도는 (1980년 대 중반의) 소련 시대에는 전형적인 소련 관료제도로

31) Collins(2003), pp.177-78.
32) Koroteyeva and Makarova(1998), p.138.

서 기능하였다. 한 구역 공동체의 선출된 장이 마할라의 수장이 되도록 하였지만, 사실상 지역 공산당위원회가 수장을 지명하였다. 또 공산당은 '마할라위원회(mahalla committee)'를 만들어 마할라의 수장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소련 시대 마할라의 기능으로 보자면, 소비에트식 삶의 양태와 전통적인 지역적 삶의 양태가 착종된 진성 잡종 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 국가는 마할라가 소비에트 제도의 이념적 규칙을 준수하고 외양을 유지하는 한, 마할라가 전통적인 기능을 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잡종 제도가 정착하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상기한 틀 내에서 소련 국가는 마할라를 제도로서 인정하고 소련 제도 속으로 병합하고 이를 정당화해 주었던 것이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타쉬켄트 주민의 약 1/3이 마할라 제도 속에서 살면서 공동체적 생활양식에 포함되었다고 한다.[33]

2. 마할라의 현황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만개 이상의 마할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넓이, 포괄 주민, 활동이란 측면에서 폭 넓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 크기는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마할라는 약 2천 명 정도의 주민들을 포괄하고 있다.[34]

독립 후의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마할라를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거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들이 새로이 형성한 '농촌 마할라(rural mahalla)', 도시들에서 현대적인 아파트단지들을 포괄하는 '아파트 마할라(apartment mahalla)', 상대적으로 성기게 퍼져 있는 가족 주거 단지들인 '현대적 마할라(contemporary mahalla)', 소련 이전부터 존재했던 밀집된 단일 가족들의 주거 단지들인 '전통적 마할라(traditional mahalla)' 등이다.[35]

우즈베키스탄의 개별 거주지역은 예외 없이 단지 한 개의 마할라에 속해 있다. 마할라는 공화국의 기본 행정 단위이다. 상위 행정단위들을 순서별로 보면, 투만라르(tumanlar, 구역들), 샤하르라르(shakhrlar, 도시들), 빌로야틀라르(viloyatlar, 지역들), 그리고 최상위에는 국가 등으로 나타난다. 모든 주민들은 기술적으로 하나의 마할라에 소속되며, 개인들은 마할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는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거주 공동체는 특히 '현대적 마할라'와 '전통적 마할라'의 경우 친족관계, 직업 및 사회 네트워크와 겹쳐져 상호 침투된다.[36]

기본적인 마할라 단위들은 가족, 성 및 사회적 위상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각자 나름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마할라의 공간조직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가족이다. 마할라 자체가 확장되는 도시들 내부에서 가족 그룹짓기(family groupings)로부터 진화된 산물이기 때문이다.

3.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 과정에서 마할라의 변용과 역할

이제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의 신생 국가 건설과정에서 마할라 제도가 어떻게 변화·

33) Koroteyeva and Makarova(1998), p.138.
34) Eric W. Sievers, "Uzbekistan's Mahalla: From Soviet to Absolutist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t Chicago-Kent* 2(2002), p.95.
35) Sievers(2002), p.96.
36) Sievers(2002), p.96.

운용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자.

소련 시대에 국가는 마할라의 일상적인 활동에는 직접 간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체 생활의 이념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고 그 소비에트적 틀을 벗어 나지만 않으면 그 활동을 방조하였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민족주의화한 우즈벡 국가는 과거 국가통제를 벗어나 있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공식화려고 시도하였다. 마할라는 언제나 사회의 한 세포였는데 이제 우즈벡 국가는 마할라를 국가의 한 세포로 만들기를 원했다. 이 정책은 독립 1년 후인 1992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카리모프 대통령은 칙령을 통해 '마할라 재단(the Mahalla Foundation)'을 창설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마할라화(the mahallization)'를 진작하도록 하였다. 마할라 재단의 공개적인 임무는 마할라를 조정하고, 마할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민주적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있어서 마할라가 토대가 된다는 논리를 주창하는 데 있었다.[37]

이처럼 민족 국가의 형성 과정과 마할라 제도를 긴밀하게 결합한 의도는 마할라와 마할라의 활동들을 전통적인 맥락에서 끌어내어 현대적인 변형을 가하고 그것이 지도자들이 원하는 신생 국가건설 방향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즉, 신생 국가를 전통적 제도와 결합함으로써 국가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마할라는 전통적으로 도시적 삶에 기반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시골의 촌락에까지 이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38]

그러한 국가적 노력은 성과를 낳아, 1990년에 타쉬켄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마할라의 숫자가 299개였는데 1993년 봄에는 422개로 증가하였다. 국가의 마할라화 노력에서 이러한 숫자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활동과 행위가 일상생활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생 국가건설과정에서 정치 지도자가 대중적 전통에 대한 호소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9]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마할라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역사적 전통과 주민들의 심성에 맞추어 마할라는 시민들의 자치 조직, 선린관계, 인간관계에서 존경 및 인문주의의 교본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마할라 위원회는 사회 공익 보호와 빈곤 계층에 대한 구호 제공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40]

이와 같이 신생 독립국가 우즈베키스탄의 지도부는 우즈벡 민족이 수세기 이상 존속되어온 명백한 실체라는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마할라를 우즈벡 사회의 전통적, 낭만적인 기본 구조로 재조형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우즈벡 문화에 있어서 모든 권위의 합법적인 저장소가 '우즈벡 국가(Uzbek state)'임을 시사하였다.[41]

우즈벡 헌법(105조 supra note 7)에 따르면, 마할라 라이스(rais)는 30개월의 임기로 선출된다. 우즈벡의 법률은 이전에 전문화된 국가 기관이 수행하던 국가적 기능을 마할라가 수행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표준화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시민회합(citizen gathering)'이 마할라를 관리하지만, 일상적인 거버넌스는 선출체인 '켄가쉬(kengash)'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켄가쉬는 라이스, 그의 고문들, 위원회의 장들과 비서 등으로 구성된다. 18세 이상의 모

37) Sievers(2002), pp.121-22.
38) Koroteyeva and Makarova(1998), pp.139-40.
39) Koroteyeva and Makarova(1998), p.140.
40) Islam Karimov, President of Uzbekistan, "National Speech"(August 29, 1996).
41) Sievers(2002), pp.118-19.

든 마할라 성원들이 직접 선거로 켄가쉬를 선출하지만, 사실상 구역 정부가 켄가쉬 선출 과정에서 권력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42]

마할라 개혁과 전사회의 마할라화는 우선적으로 구소련 체제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차단막으로서 취해진 조치였다. 국가적 시각에서 마할라화는 국가의 통치구조에 동질성을 부여하고, 이슬람을 언급하지 않고도 우즈벡의 정체성을 기술하고,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주민들을 우즈벡화(Uzbekify)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마할라 재부흥의 토대는 어떻게 우즈벡 국가가 전통적 마할라를 일소하려했던 과거 소련의 기획을 지속하는 동시에 마할라를 우즈벡 사회의 주춧돌로 내세울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준다.[43]

우즈벡 국가는 마할라를 자치 공동사회적 가치를 고무하는 세속적·정치적 하부단위로서 간주하였던 것이다. 우즈벡 정부는 마할라 규법의 뿌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마할라가 가진 사회적 규범의 과실을 수확하는 데만 열성을 쏟았던 것 같다. 정부는 마할라를 사회적 규범의 보존자이자 균형자로서보다는 하나의 '시민자치기구(CSGO: citizen self-government organization)'로 보았다. 일례로 법률상 켄가쉬는 그 구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국가복지기구의 비거주 대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할라에 대한 국가 간섭의 명백한 사례이다. 국가 간섭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마할라들에서 공식적인 라이스와 켄가쉬와 병행하여 비공식적인 '악사칼(aksaqal)'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병립된 권력 구조는 마할라에 대한 국가의 권리주장에 저항하는 하나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44]

우즈벡 국가는 마할라 제도를 보편화함으로써 사회와 일상에 대한 국가의 침투 능력을 배가하였다. 국가는 마할라의 권한과 역량을 키워 주면서 동시에 정치적 필요를 위해 마할라의 능력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일례로, 구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국가는 마할라를 이용하였다. 공동체 성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소련 시절에 마할라가 지역 경찰과 긴밀한 유대를 가졌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마할라의 성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 정보까지 포함한다. 우즈벡 정부의 조세징수관은 마할라를 통해 소득 정보를 얻고, 구역에서 수집된 소득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장로들(aksakals)을 매달 세무서로 불러 확인한다. 이처럼 우즈벡 정부는 마할라 제도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45]

전 사회의 마할라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 과정은 공동체와 국가의 우즈벡화, 원주민화 혹은 토착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마할라 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에 고유한 제도와 관행들을 고취·고무하였으며, 이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우즈벡 민족 혹은 국가의 성원임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마할라 제도는 과거 소련 시절의 통치 체제 및 일상 생활의 틀과는 다른 차별화의 핵심 기제이며, 신생 독립 국가의 행정·통치 능력의 시민사회 침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위 행정단위이자 국가-사회의 연결 네트워크로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할라 제도는 신생국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민족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42) Sievers(2002), p.119.
43) Sievers(2002), p.120.
44) Sievers(2002), p.121.
45) Koroteyeva and Makarova(1998), pp.140-41.

고마츠 히사오 외, 이평래 역,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서울: 소나무, 2005).
설혜심, “국가정체성 만들기: 튜더 영국의 지도,” 『역사학보』 제186집(2005).
성동기,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 독립세대의 민족·국가정체성 분석을 통한 신디아스포라 전망,” *특집: CIS내의 러시아 민족문제*.
양승태,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체성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5호(2006년 겨울).
양승태, “똘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3집 1호(2007년 봄).
우덕찬,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제6호(2001).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2호(국제지역학회, 2007).
진시원, “사회구성주의를 통해 본 유럽의 정체성,”『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2003).
황의조, “유럽신화문학과 통합유럽 정체성의 문화적 형성,” 『유럽연구』 제19권(2004년 여름).
Agadjanian, Alexander. "Revising Pandora's Gift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Soviet Societal Fabric," *Europe-Asia Studies*, Vol. 53, No.3 (2001).
Bell, James. "Redefining National Identity in Uzbekistan: Symbolic Tensions in Tashkent's Official Public Landscape," *Cultural Geographies* 6-2 (1999).
Dollerup, Cay. "Language and Culture in Transition in Uzbekistan," in Touraj Atabaki and John O'Kane eds. *Post-Soviet Central Asia* (London: Tauris Academic Studies, 1998).
Gleason, Gregory "Interstate Cooperation in Central Asia from the CIS to the Shanghai Forum," *Europe-Asia Studies* 53, No. 7.
Kempton, Daniel R. and Terry D. Clark. *Unity and Separation: Center-periphery Relatio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Koroteyeva, Victoria and Ekaterina Makarova, "The Assertion of Uzbek National Identity: Nativization or State-Building Process?" in Touraj Atabaki and John O'Kane eds. *Post-Soviet Central Asia* (London: Tauris Academic Studies, 1998).
Micallef, Roberta M. "Literature and the Nation in Contemporary Uzbekistan," in Touraj Atabaki and John O'Kane eds. *Post-Soviet Central Asia* (London: Tauris Academic Studies, 1998).
Schoeberlein-Engel, John. "The Prospects for Uzbek National Identity," *Central Asia Monitor*, No. 2(1996).
Sievers, Eric W. "Uzbekistan's Mahalla: From Soviet to Absolutist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t Chicago-Kent* 2(2002).
Smith, Graham, Vivien Law, Andrew Wilson, Annette Bohr and Edward Allworth, *Nation-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Suny, Ronald Grigor.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24-3(Winter, 1999-2000).

Todua, Zurab. "Radical Islam in Uzbekistan: Past and Futur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1(31) (2005).

Ландау, Якоб М. и Барбара Келльнер-Хайнкеле, (перевод) Светлана М. Червонная,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в мусульман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 бывших советск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ах (Москва: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2004).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김영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Ⅰ. 머리말
Ⅱ.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국가의 역할
Ⅲ. 러시아의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발전
  1.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과 약한 국가 – 1990년대의 옐친 시기
  2.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과 강한 국가 – 2000년대의 푸틴 시기
Ⅳ. 체제전환 전략과 신자유주의
Ⅴ. 결론

Ⅰ. 머리말

체제전환기의 중-동구와 구소련, 그리고 아시아 국가 간의 상이한 경제성과는 광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가장 현저하게 대비되는 사실이었다. 중-동구와 구소련의 경제는 심각한 체제전환 불황을 겪었던 반면, 아시아 국가의 성장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설명이 제출되었다. 먼저, 초기조건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체제전환 경제는 정치적 전환과 경제적 전환을 동시에 겪지 않았으며, 농업부문의 비중이 컸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수준에 있었고, 거시경제의 왜곡이 덜했으며 코메콘(CMEA)에의 통합정도가 약했다.[1] 이러한 차이가 체제전환기 동안의 성장경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개혁 방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그리고 체제전환기의 아시아 국가)은 점진적이고 이중적인(dual-track) 개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유화와 사유화를 향한 빅뱅 접근방법을 선택한 러시아와 다수의 중-동구 및 구소련 경제와는 대비된다. 점진적이고 이중적인 접근방법은 친 개혁 연합을 형성하게 하고,[2] 실험을 통한 학습을 허용하며,[3] 사유화 없이 경제에 경쟁압력을 도입하며,[4] 경제에 대한 자유화 충격의 정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다른 체제전환 경제에 비해 중국과 베트남의 훨씬 뛰어난 성과는 점진적인 개혁전략의 도입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5]

이러한 설명이 체제전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긴 했지만, 다른 한편 체제전환과정의 중

1) De Melo, M, Denizer, A. Gelb, and S. Tenev, “Circumstance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y in transition,” *World Economic Review*, Vol. 15, No. 1, (2001), pp. 1-31.
2) G. Roland, *Transition an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0)
3) L. Lau, Yand Qian, G. Roland, “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 No. 108, pp. 120-143.
4) J. McMillan, “Markets in transition, in advances in economics and econometrics: Theory and applications,” In: Kreps, D and Wallis, K. (eds). *Advances in Economics and Econometrics: Theory and Applic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210-239.
5) N. Campos and R. Coricelli,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t, and what we shou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Vol. 40, No. 3, (2002), pp. 793-836.

요한 측면을 도외시했다고 볼 수 있다. 체제전환에 관한 전형적인 접근방법은 정책을 외생변수로 처리하고 정부의 정책실행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정책은 통상 정부에 의해 고안되고 실행되므로 정책의 내용과 체제전환 및 영향은 체제전환 과정의 관리자인 정부의 인센티브와 능력, 신뢰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6] 유사한 정책일지라도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단히 다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례는 고르바초프 하의 소연방의 개혁 경험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취해진 개혁 조치들은 본질적으로 점진적이고 이중적인(dual-track) 성격을 띠었으며, 중국의 접근방법과 대단히 유사했다. 하지만, 이들 개혁들은 소연방에서 실패한 반면(부족현상은 확대되었고 GDP는 1990년에 2%가 하락하였으며 1991년 1분기에는 8%가 하락했다), 중국에서는 성공했다. Murphy et al.(1992)은 소연방에서의 중앙정부 및 공산당의 권력약화에서 그 차이를 설명한다.[7] 이것은 체제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체제전환은 무엇보다도 제도변화의 과정이자, 게임의 룰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잠재적으로 후생을 개선하고 잘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국가의 역할을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체제전환과정의 성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최선의 보편적이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진 자기조절적인 제도묶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정부에 커다란 자유재량적인 권한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부의 과제는 비교적 단순하며, 초점은 체제전환의 속도,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 모아진다. 다른 한편, 만약 체제전환이 광범한 범위의 가능한 제도적 구조에 대한 발견의 과정이자 탐구의 과정으로 인식된다면, 논리적인 귀결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후생을 개선하는 개입과 조화되도록 하는 한에서 정부에 상당한 크기의 '관리적'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제도, 정책, 그리고 사고는 오늘날 세계의 대다수 지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국가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물러난다면, 그 결과 효율성, 소득분배, 기술진보의 최적수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가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자의적인 부의 분배, 경제발전에의 장애와 부패를 낳는 원천으로 간주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담한 주장은 어떤 국가의 경제체제의 주요한 전환에 착수하는 데 있어 신자유주의야말로 최선의 지침이자 유일하게 효과적인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주요 경제체제의 전환이 해당된다.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및 기술 향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반하는 경제발전이다.[8] 두 번째는 중앙계획에 기반한 경제체제로부터 시장에 기반한 경제체제로의 이동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제체제의 전환이다.

---

6) Campos and Coricelli (2002, p. 831)는 정부 혹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7) K. Murphy, A. Shleifer and P. Vishny,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3, (1992), p. 900.

8) 경제발전은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과 같이 경제적 측면과 여타 사회적 측면에서의 구조변화를 수반한다.

본 논문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전환이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은 경제발전에서나 체제전환에서나 그 자체로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은 어떠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에 기생하면서 경제적 진보를 가로막는 제도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뒤로 물러나서 각 개인의 활동과 비국가적 힘—기업가정신, 비교우위,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경제발전이나 체제전환을 달성하길 기다린다면, 결과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인 실패의 범위는 경제발전에 있어서보다 체제전환에 있어서 훨씬 크다.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실패는 해당 국가가 세계경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갇히게 되면서 정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전환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전략에 전적으로 집착하는 데 따른 귀결은 급속한 퇴보로의 이동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회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문은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있어서의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이 가진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제2절에서는 시장경제 건설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을 영국의 경우를 통해 검토하고 체제전환기에 러시아 정부가 채택한 역할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체제전환의 성격을 파악하고 강한 국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러시아의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발전을 옐친시기와 푸틴시기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양 시기는 '약한 국가'와 '강한 국가'의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이것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러시아에서 채택한 체제전환 전략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평가하고, 국가의 역할과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몇 가지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Ⅱ.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국가의 역할

폴라니의 제도주의 접근[9]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 시장지향적인 특질을 갖게 되는 경우에 성립된다. 그러한 제도는 어떤 사회에서 주요 생산자원(토지, 노동, 생산수단)과 관련하여 교환관계가 그 밖의 다른 관계보다 지배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교환관계의 확산과 지배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언제나 국가가 개입이 필요했다.[10]

영국에서 시장경제의 구축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전환을 수반한 장기에 걸친 역사적 과정이었다. 그러한 전환은 각기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이한 사회집단 간의 충돌의 결과로서 나타났다. 각각의 개별적인 단계에서 과정 전반에 걸쳐 그 집단의 구성과 성격, 그리고 그 이해관계와 충돌은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모든 단계에서 한 사회세력이 다른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환을 밀어붙였는데, 전환을 위한 동기와 힘을 가진 그 세력을 자본주

9)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Rinehart & Co, 1944), 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서울: 민음사, 1997)

10) Alan Scott, "Bureaucratic Revolutions and Free Market Utopias," *Economy and Society*, Vol. 25, No. 1, (1996), pp. 89 -110.

의 세력으로 부를 수 있다. 전환에 착수한 시점에 경제 그 자체는 특별히 사회 속에 편입된 영역이라 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국가의 정치력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종교 지향적인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특정 사회세력의 경제적 고려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가들의 영향력은 국가에 의해 유지되고 보호되는 제도적 틀에 의해 제한되었다. 각 국면에서 이 세력의 목표는 제도적 틀에 의해 가로놓인 장애를 극복하여, 무역장벽, 토지 및 노동에의 접근, 노동, 통화관리와 통제 등과 관련된 경제력을 팽창시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교역관계를 지배적인 형태로 만들고, 나아가 그것을 사회의 운영과 재생산을 결정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로 전환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하여 호혜주의(reciprocity)와 소득재분배를 지탱하는 사회구조는 붕괴되었으며, 이것도 또한 교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국가는 시장관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거로부터의 금지조치를 해제하고(공식적 제도), 공동규범의 영역에 속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비공식적 제도)하였다.[11] 교역의 확대는 두 가지 근본적인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가격결정과 소득수취방법이 그것이었다. 전자와 관련하여, 국가는 생산요소의 가격결정에 대한 주요 장애를 제거하는 동시에 가격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철회했다. 후자와 관련하여, 국가는 구매행위와 판매행위가 아닌 비교역적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다.[12]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참고로 하여, 우리는 러시아의 체제전환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특질, 즉 러시아 국가의 '고립성(loneliness)'과 '취약성(weaknes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무엇보다, 러시아에서는 국가와 무관한 사회세력이 경제 분야에서 특정의 실질적인 개혁조치의 적용에 관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체제에 기초한 체제전환을 추진한 것은 국가 그 자체(사실상 그 일부)였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체제전환의 추진력은 기존에 확립된 경제과정에 대해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제도변화를 요구하는 기존 경제주체의 특정한 행동패턴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 집단이 정해진 방식으로 활동하는 제도적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체제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수세기 동안 내부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겪은 경제체제의 전환은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거대한 사회공학적 구상에 따라 수년에 걸쳐 외부로부터의 그리고 위로부터 실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새로운 경제의 추동력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 즉 자본가의 존재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없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체제전환에서의 과제는 이중적이었는데, 한편에서는 시장경제의 전형적인 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에트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세력을 촉진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은 사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체제의 운영에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질은 국가의 전략적 접근과 관련된다. 러시아에서 적용된 체제전환 접근은 한 가지 신념 혹은 적어도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가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 믿음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교리에 대한 강한 신념과 관련되어 있는데,[13] 그것은 정치

11) K. Polanyi (1997), p.116-119.
12) K. Polanyi (1997), p.123.
13) K. Polanyi (1997), p. 207.

무대에서 가장 널리 수용된 정책안(정통적 정책안)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 기둥, 즉 자유화(liberalisation), 사유화(privatisation), 안정화(stabilis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래의 자유화는 경제적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자산의 사유화는 사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사유화된 자원을 이용하려는 동기를 가진 사회집단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운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조절정책(특히 재정-금융정책)은 경제의 운영과 체제전환 그 자체로부터 야기된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며, 그러면 생산적인 축적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3가지 주요 조치는 시장과 관행을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가정에 관해 말하면, 첫 번째 가정은 국가의 운영이 체제전환 이전보다 당연히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소연방 공산당 및 계획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자들은 관료들은 정부의 지시를 준수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가정은 이러한 조치가 제도와 행위를 폐지하거나 창조할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시 말하면, 낡은 것을 파괴하여 새로운 것을 이식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자유화와 사유화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시장의 출현이 자연발생적인 경향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면,[14] 체제전환에 대한 정통적인 접근의 근저에 있는 논리적인 추론은 근거를 상실한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변화의 계기에 따른 결과로서 상례(routine)와 관계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15] 그 계기를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대항력이 필요해진다. 물려받은 상례(routine)와 네트워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식적/법률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행위 지침을 중단하고 새로운 관계 유형을 확립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적 요소의 상례와 관계양식이 변화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기부여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히 적절한 자본주의 세력이 부재한 조건에서의 경제체제의 전환은 국가에 의한 확고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역할은 법령에 의한 경제제도의 붕괴와 설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의 활용과 낡은 제도의 포기 또한 촉진되어야 한다. 구제도를 유지하려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폐기하는 데 필요한 압력 또한 더욱 커야 한다. 그러므로 강한 국가는 충분한 기술적 능력, 정치적 의지, 그리고 권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

14) K. Polanyi (1997), p. 390.
15) P. Murrell (1992b), p.39.

1.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과 약한 국가

1991년 말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국가가 되었다. 새로 독립한 러시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정부 자체의 주요 경제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을 채택했다.[16] 러시아의 체제전환 전략의 전반적인 논지는 경제활동의 조정으로부터 국가의 신속한 후퇴였다. 이 체제전환 전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국내가격에 대한 통제의 즉각적인 제거, 2) 기업의 신속한 사유화, 3)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국가지령적 요소의 신속한 철폐, 4) 공공지출의 급격한 삭감, 5) 긴축적인 금융정책, 6)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애의 신속한 제거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 어떤 국가보다 러시아는 더욱 신속하게 움직였다. 신자유주의 전략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난 중대한 조치는 석유와 가스의 국내가격에 대한 통제의 지속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유지한 것이었다.

러시아에 있어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 채택의 옹호자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이 짧은 기간의 체제전환 비용을 치른 후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적이고 성공적인 시장시스템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자유화, 사유화,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지시의 제거는 중앙계획을 효율적인 시장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대체할 것으로 상정되었다. 가격통제의 철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유로운 무역-투자정책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특화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러시아 산업의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9년 말 옐친으로부터 푸틴으로 대통령의 정권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래 여러 명의 총리의 재임기간을 통하여(프리마코프가 재임한 1998-99년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러시아는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1991년부터 1998년에 걸쳐 러시아는 현대사에서 어떤 주요 국가도 평시에 겪지 않은 가장 심각한 장기간의 경기하락에 시달렸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GDP는 46% 하락하였으며, 총투자는 81%가 하락했다. 1998년에 러시아의 GDP는 1990년의 수준에 비해 51% 정도 떨어졌으며, 총투자는 84% 하락했다.[17]

러시아의 급속한 사유화는 그 경제적 파멸을 가져온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 러시아의 국가기업을 매입할 수 있는 정당한 부유층이 없는 조건에서, 대부분의 가치 있는 자산은 국가에 의해 내부자에게 실제적으로 양도되거나, 종종 범죄집단과 결탁한 부도덕한 관리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장악되었다.[18] 통제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대체로 단기적인 이익에만

16) David M. Kotz and Fred Weir, *Revolution from Above: The Demise of the Soviet System*, (London: Routledge, 1997), ch. 9.

17) 최근 러시아 국가통계국은 당시의 GDP와 총투자 등의 통계수치를 수정하였다. 새로 수정된 통계수치에 기초하면, 초기에 GDP의 하락은 축소되었다. 1991-98년에 40%가 하락하였으며 1990-98년에 46%가 하락했다. 수정된 투자통계는 초기에 특히 1998년에 훨씬 더 큰 하락을 나타내었는데, 1991-98년에 놀랍게도 89%, 그리고 1990-98년에 90%가 하락했다고 한다. Goskomstat의 통계자료를 참조. .

18) 이러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Paul Klebnikov, *Godfather of the Kremlin: The Decline of*

관심을 가졌으며, 그에 따라 자산해체(asset stripping)가 잇따랐다. 앞에서 살펴 본 총투자의 급격한 하락에 관한 데이터가 제시하듯이, 사유화는 러시아 산업을 현대화시키는 대신 당장의 이익을 위해 매각될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산업을 해체하는 역할을 했다.[19] 석유, 가스, 그리고 다른 귀중한 소비에트의 유산에 대한 통제권을 얻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대한 재산을 획득했으며, 그 대부분은 보호를 위하여 해외로 빼돌려 졌다.

러시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경제적 충격 못지않게 극심했다. 신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국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중단했다. 국가지출의 급격한 삭감과 공무원 실질임금의 급속한 하락, 게다가 임금의 지불지연으로 인해 국가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그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서, 국가의 후퇴로 생겨난 권력의 공백상태에 범죄적인 요소가 자리를 차지했다. 범죄집단은 1990년대 초에 급속하게 등장했으며,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에서 관할구역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노골적인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20]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뺏기 위해 범죄집단과 결합된 약탈자들이 나섬에 따라 다수의 성실한 국가기업의 책임자들은 암살되었다.

1990년대가 경과하는 동안, 자원산업과 제조기업 및 미디어 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량자산을 수중에 넣은 소수의 극도로 부유한 올리가르흐가 출현함에 따라, 조직범죄는 야만적인 국면, '경쟁적인' 국면, 그 다음에는 '과점적인' 단계를 거쳤다. 올리가르흐는 사유화 대상 기업을 매각-분배하는 국가의 최고위 관리와 유대를 쌓는 능력을 갖춘 데다 냉혹함을 겸비했다. 각각의 올리가르흐 제국은 구 소비에트의 고도로 훈련된 정예군과 첩보요원으로 구성된 보안부대를 갖추었다. '과점' 단계에조차 러시아의 범죄화된 체계는 폭력적인 성격을 지속했다. 2004년 7월, 미국의 언론인이자 러시아 올리가르흐의 부 축적방법에 관한 서방의 최고 권위자였던 폴 클레브니코프는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암살자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2.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과 강한 국가

러시아 대통령 직이 옐친으로부터 푸틴으로 이양된 이래, 올리가르흐에 대한 푸틴의 강경한 조처가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푸틴과 올리가르흐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일 수 있다. 푸틴이 권좌에 올랐을 때, 그는 최고의 올리가르흐들과 널리 알려진 회합을 개최했다. 그 회합에서 그는 '재산의 재분배'(재사유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대신, 올리가르흐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푸틴 자신의 정책에 도전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푸틴은 그 이래 언론을 통해 자신에 도전했거나 야당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람을 가려내어 일부 올리가르흐를 공격했는데, 호도르콥스키의 경우 그 스스로 대통령 출마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푸틴이 설정한 테두리를 준수한 올리가르흐는

Russia in the Age of Gangster Capialism, (New York: Harcourt, Inc., 2000); Chrystia Freeland, *Sale of the Century: Russia's Wild Ride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New York: Crown Business, 2000), pp. 157-168.

19) 예를 들면, Klebnikov(2000)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토글리아니(Tgliatti)의 거대 자동차제조회사인 아프토바즈(Avtovaz)는 그 회사의 관리자와 올리가르흐인 베레좁스키 간의 동맹에 의해 1990년대에 체계적으로 약탈되었다. 다음을 참조. Klebnikov (2000), pp. 90-95.

20) Klebnikov (2000), pp. 11-45.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되었다. 옐친 시기에조차 자신에 도전적인 행위를 하거나 심기를 건드린 올리가르흐를 단속하였던 사실을 일부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이다.[21]

국가를 강화하는 것은 푸틴의 대통령 재임 시의 주요한 과제였다. 이것은 국가주도 체제전환 전략이 선호되고 신자유주의 접근방법이 포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은 여러 가지 정책내용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한다. 푸틴 정권의 방향은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전략을 유지하면서 점점 더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제체제 전환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제적 쇠퇴와 사회적 혼란은 1992년 이래 러시아가 신봉한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직접적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가격통제의 즉각적인 철폐는 국가를 약화시키면서 대다수 국민을 빈곤에 빠뜨린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폭발적인 인플레이션과 기업활동에 대한 갑작스런 국가지령의 제거에 의해 야기된 혼란은 긴축적인 금융정책에 의해 초래된 비화폐화(demonetization)와 결합하여, 생산적인 투자에 나서려는 모든 인센티브를 제거했다.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가지출을 급격하게 삭감함으로써 총수요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불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경제의 즉각적인 개방은 수입품이 쇄도하여 대부분의 국내수요를 잠식하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부유층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부를 국외로 빼돌리기 쉽게 만들었다.[22] 국유기업의 신속한 사유화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보다 당장의 절도행위에 더욱 몰두하는 강력하고 폭력적인 범죄화된 계층을 증가시켰다. IMF가 권고한 정책을 추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서방자본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보상도 받지 못했다.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2-95년 동안 GDP의 0.3%에 머물렀으며, 1996-99년 동안에도 0.7%에 불과했다.[23]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의 근저에 있는 논지 — 체제전환에서 불간섭적인 국가역할 — 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 접근방법의 주창자들은 국가가 '뒤로 물러나 있기만 하면' 효과적인 시장경제가 자동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접근방법은 기대된 효과를 가져오는 대신에 단기적인 수익만을 중요시하는 혼란스런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토지나 증권에 대한 투기, 기업수입의 은닉, 각종 형태의 사기, 공적기금의 횡령, 사업보호를 구실로 한 협박 등 각종의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이끌었다.

러시아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전략을 추종한 것은 러시아로 하여금 '비교우위'에 따라 원료수출국의 지위로 떨어지도록 만듦으로써, 러시아의 여타 산업은 쇠퇴해 갔다. 어떠한 국가에서도 여타 산업이 미발달한 상태에서의 원료수출국의 지위는 장기적

---

21) 1994년 12월, 옐친 대통령의 수비대는 올리가르흐인 블라디미르 구신스키의 경호팀 요원들을 격렬하게 진압하여 구신스키가 런던으로 도피가는 일이 발생했다. 옐친은 구신스키의 NTV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제1차 체첸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모스크바 시장이자 옐친의 정적인 유리 루쉬코프와 금융적 유대를 맺고 있는 데에 분노했다. Chrystia Freeland (2000), pp. 157-168.

22) 불법적인 자본도피는 1992년 이래 매년 약 200억 달러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1999.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25 September 1999), p. 10을 참조.

23) World Bank, *Transition, The First Ten Years: Analysis and Less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2), p. 7

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롭지 못하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거대하고 도시화되어 있으며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쿠웨이트와 같이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가 '쿠웨이트화'함에 따라 원료수출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차지한 인구의 작은 부분은 부유해진 반면, 대다수 국민은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에서 만족스런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 사망률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를 통해 1991년 이래 러시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이 새로운 경제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24]

Ⅳ. 체제전환 전략,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가의 역할

러시아와 중국의 대조적인 경험은 우연이 아니다.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이 강한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근거가 있다. 첫째, 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체제를 원활하게 기능하는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없다. 국가만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그와 같은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상당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구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대다수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구체제와 나란히 새로운 시장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는 체제전환이 경제시스템의 측면에서 주요한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의 출발점은 기존의 특정한 경제구조로서, 여기에는 특정한 산업구조, 기업의 특정한 행위패턴과 관리문화, 특정한 금융시스템, 그리고 중앙계획경제의 작동에 적합한 그 외의 특질 등이 포함된다.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일부 적극적인 주체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이질적인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 단순히 중앙계획을 철폐하고 생산기업과 금융기관을 사유화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기능하는 시장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계획에 기반하는 경제를 가진 사회가 그 계획시스템을 폐지하고 이윤동기에 따른 경제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각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담 스미스가 상정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사적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누가 사회의 가치 있는 모든 경제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시작될 것이다. 중앙계획경제에서의 대부분의 생산단위는 그 체제 하에서만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 기존의 체제를 한꺼번에 해체시키면, 기존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대다수 기업은 이제 어떤 자산을 분할하여 시장에 매각할 수 있는지에 의해 가

24) 러시아의 사망률은 1990년의 1,000명당 11.2명에서 1994년에는 15.5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후 1998년에 이르기까지 다소 하락했다고 2003년에는 16.5명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16.0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률은 1990년에 1,000명당 13.4명에서 1·995년에는 9.3명으로 하락했으며, 2003년에는 10.5명으로 상승했다. 1993년 이래 사망률이 출생률을 1,000명당 5-6명 정도 초과했는데, 이는 심각한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가 매겨진다.

국가는 중앙계획으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이끌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회제도이다. 개인과는 달리, 국가는 경제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목표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그러한 체제전환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국가는 개인의 이윤동기를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체제전환에서 적절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 1) 시장 지향의 생산적 활동을 위해 이용 가능한 저렴한 자금조달의 보증, 2) 증가하는 총수요의 보증, 3)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새로운 패턴의 생산 및 교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의 투자, 4) 최소한 일정한 시기 동안 불리한 대외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의 보호.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할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거스르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근거도 왜 국가가 체제전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원활하게 기능하는 시장제도를 창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앙계획의 제도를 한 순간에 철폐하여 버리면, 체제전환기 동안 국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효과적인 수단도 남지 않게 된다. 체제전환기 동안 국민을 부양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시장 지향적인 기업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구체제의 중앙계획과 국가기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경우에 진행된 모습이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다.[25]

국가 주도의 체제전환 전략이 효과적이고 신자유주의 전략이 그렇지 않다면, 왜 거의 모든 체제전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접근을 따랐던 것인가? 신자유주의 사고는 최근에 중국에서조차 점점 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국가 주도 전략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접근방법의 대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전략의 채택을 촉진시키려는 강력한 사회세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세력은 서방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와 IMF와 같은 외부의 영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초기에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을 채택한 것은 신자유주의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는 서방의 권고를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러시아 지도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 말에 이 접근방법을 채택한 것은 즉각 경제적 재앙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러시아 산업은 새로운 정책에 의해 황폐화되었다. 평균적인 러시아인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러시아 산업의 대부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체제전환에 들어선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왜 러시아인들은 러시아를 탈근대화시키고 빈곤에 빠뜨린 체제전환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는가?

그 대답은 국가주도 체제전환 전략이 강력하고 좋은 지위를 가진 개인들의 가능한 최대한의 부의 축적을 방해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기계제조업에서 새로운 소유자는 비록 기업 그 자체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부터 횡령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자유주의 전략 하에서

25) 러시아가 체제전환 동안 기존의 계획시스템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왜 대다수 인구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막대한 개인적인 부를 자유롭게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기업으로부터 끌어낸 부를 사치재 소비에 자유롭게 지출하고 나머지를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해외로 보냈다. 새로운 엘리트는 주로 수입품을 구입했으며 자신들의 자녀를 해외의 교육기관에 보냈다. 경제의 붕괴는 그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주도 전략으로의 이동은 이들 엘리트가 최대한의 개인적인 치부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돈으로 하고자 하는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다. 국가주도 전략 하에서 경제적 잉여는 사치적인 소비와 자본도피가 아니라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에 충당될 것이다.

러시아의 보통사람들은 국가주도 전략으로의 전환으로부터 커다란 편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러시아의 국가정책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러시아의 정책은 국가에는 황폐한 미래를 가져올지라도 현행의 정책으로부터 편익을 누리는 새로운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었다. 강한 러시아 국가를 재건하려는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목표는 크렘린에 정치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도 전략의 경제적 편익을 얻으려면 러시아의 경제모델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러시아의 새로운 자산계급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활동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Ⅴ. 결론

최근에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사고와 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경험과 합리적 논거는 모두 경제전환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무력하며 공언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주도 전략은 경제체제전환이나 경제발전에 착수하기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실행되었을 경우의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전략은 스스로의 기반을 손상시키기 쉽다. 부유하고 강력한 사회 행위자들은 마침내 신자유주의 전략으로의 이동을 재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는 특권적인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었다. 1980년대 말 소연방의 엘리트가 소연방 사회주의체제가 자신들의 더욱 많은 부와 권력의 획득을 가로막는다고 인식하게 되자, 그들은 그에 대신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비에트 체제를 해체하였다.[26] 그리하여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전략의 채택이 그에 뒤따랐던 것이다.

옐친 시기의 러시아는 국가의 재편보다 경제의 구조조정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대규모 사유화를 비롯한 주요 개혁조치는 약한 국가의 환경에서 실행됨으로써, 국가는 소유권을 보호하고 개혁을 조정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사유화는 국가자산의 절도와 관련된 파괴적인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새로 확립된 소유권은 정당성의 결여를 낳았다.

---

26) David M..Kotz and Fred Weir (1997), 제7-8장.

러시아에서의 체제전환 경험은 대규모의 복합적인 개혁에 전반적으로 폭넓은 교훈을 제공한다. 모든 복합적인 개혁은 특정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다. 체제전환의 성공적을 위한 기회는 국가로 하여금 후생 증대적인 개입을 위한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하면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증대시킬 수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개혁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더욱 증대시키는 맥락에 따라 정부의 활동에 대해 엄격하고 자세한 룰을 규정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경향은 강하고 역량 있는 정부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반면, 체제전환이라는 복합적이고 대규모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자유 재량적 공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27] 다른 말로 하면, 투명성과 책임성에 지나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창출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종종 러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내 및 서방의 친 민주주의 세력의 반대에 직면한다. 러시아의 과제는 이제 초창기에 있는 민주적 과정을 거세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27) 세계의 개혁경험에 관한 최근의 세계은행 연구는, "정부의 재량권은 법률에 의해 대체되지는 않더라도 관리되고 견제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동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커다란 원인은 각 정부기관에 재량권을 허용하고 이러한 재량권을 견제하여 이들 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이들 국가들의 능력에 기인한다고 한다. World Bank,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5), p. 14.